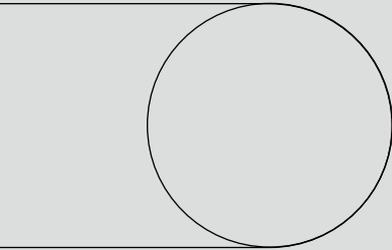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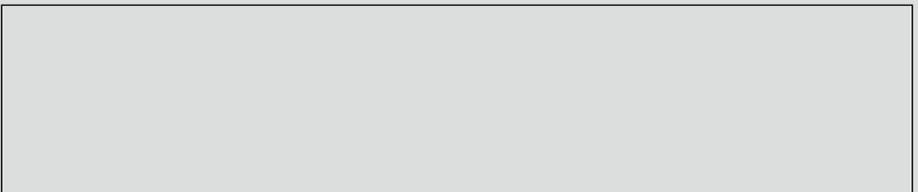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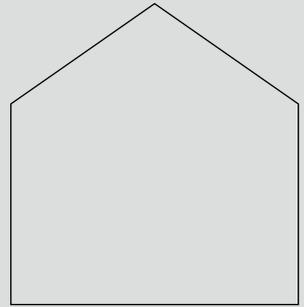


참여, 임파워먼트,
비차별 원칙을 적용한

개발 CSO 공통 SDGs 성과 사례집



Participation
Empowerment
Non-discrimination



Contents

3 발간사

4 축사

6 추천사 1·2·3

9 프롤로그

10 사례집 개요

13 문헌조사결과

15 사례

월드비전 · 15

르완다 UPG 모델을 활용한
여성 가장 가구 국빈 상태 개선 사업

국경없는교육사회 · 33

교육을 통한 부르키나파소 농촌 여성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역량 개발

글로벌비전 · 49

라오스 소수부족 농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굿네이버스 · 63

말라위 중부지역 지속가능농업 및
조합 가치 사슬 개선을 통한 소득증대 사업

월드 · 79

몽골 학교급식 시범운영사업

월드비전 · 93

베이지포컬스: 여성 청소년 성·생식 보건 사업

조계종사회복지재단 · 110

미얀마 지역사회기반 재난위험경감 사업

아디 · 122

방글라데시 로힝야 난민 및 수용공동체
여성 심리사회 회복역량강화사업

희망친구 기아대책 · 147

우간다 서부 지역 지체장애인 직업훈련학교
지원 및 장애 인식 개선 사업

지구촌나눔운동 · 159

케냐 유아신 기슈 오토바이 택시 안전 증진을
위한 기사 조직화 및 역량강화 사업

177 에필로그

발간사

KCOC / 희망친구 기아대책
유원식 회장

2015년, 글로벌 사회가 SDGs를 2030년까지의 목표로 설정한 뒤 절반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후퇴를 경험하며 이행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남은 절반의 시간, 지금까지 해 온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할 방법과 방향성을 찾아야만 하는 시기입니다.

SDGs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많은 주체들이 있습니다. 그 중 개발 CSO는 단연코 가장 특색이 있는 주체입니다. 어디로든 발을 내딛고, 무엇이든 실천하며, 누구든 만나면서 17개라는 광범위한 SDGs를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 CSO의 특색은 그 어떤 주체보다 SDGs 이행에 많은 기여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SDGs의 17가지 색깔만큼이나 다양한 색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개발 CSO의 특성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한 눈에 확인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너무나 다양한 것을, 그것도 많이 하고 있다 보니 개발 CSO는 노력에 비해 기여한 바에 대한 인식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묵묵히 각자의 현장에서 만드는 변화에 뿌듯함을 느끼면서도, 어쩌면 우리 개발 CSO가 함께 만들어낸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한 칸에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례집은 그러한 배경에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는 개발 CSO의 SDG 이행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와 협력하여 성과 사례를 발굴했습니다. 9개 기관에서 보내주신 소중한 10개의 사례를 바탕으로, 개발 CSO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자 강점인 '참여, 임파워먼트, 비차별'이라는 특성이 SDGs 달성의 성과와 어떻게 이어지는지 확인해보고자 했습니다.

개발 CSO 활동가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현지 주민들의 인터뷰가 점점 희망적으로 변화하고,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가 주목받고,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게 되는 모습을 진심어린 마음을 담아 그려내기 때문입니다. 이 사례집에는 개발 CSO의 성과를 잘 찾아내기 위해 감동을 분석을 한 스펀 더했습니다. 현장의 생생한 감동과 사례에 대한 분석을 모두 담아 달라는 어려운 요청에도 멋진 글로써 사례를 잘 전달해 주신 아홉개 기관의 열 한 명의 집필진, 책이 발간되기까지 수고해주신 KCOC 정책센터 실무자들, 그리고 양질의 도서를 위해 심사와 감수 등으로 자문진에게도 깊은 감사사를 드립니다.

문득, 개발 CSO가 어떻게 SDGs 달성을 위해 노력하였는지 궁금해지는 순간에 이 사례집이 떠오르기를 바랍니다. 활동가들은 나의 작은 노력의 결실이 공금할 때에,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개발 CSO와 만나 나갈 파트너십의 단서를 얻고 싶을 때에, SDGs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개발 CSO가 SDGs 달성에 기여한 것이 공금할 때에 펼쳐보는 사례집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코이카 이사장으로 취임하고 제가 가장 먼저 추진한 것은 개발도상국의 풀뿌리 현장과 지역사회에 기반한 사업추진을 통해 협력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여러 시민사회단체(CSO) 대표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이러한 만남은 개발협력 현장 최전선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들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우리나라의 많은 시민단체들이 협력국 정부에서부터 현지 주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현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해 사업을 기획·추진하며, 지속가능한 사업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현장에서 불철주야 헌신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지금 세계는 끊임없는 분쟁, 증가하는 난민, 만성적인 식량·보건·기후위기 등이 연쇄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글로벌 복합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하에서, 복잡성과 상호의존성이 높아진 글로벌 개발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시민사회, 기업, 국제기구 등 다양한 주체간들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협력 현장의 맥락(local context)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는 시민사회와의 협력강화 필요성은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코이카는 기관 '중장기 경영목표(2023-2027)', 16대 전략과제의 하나로 '시민사회 협력강화'를 설정하고, 시민사회 협력사업 예산규모를 지속 확대하여 왔을 뿐 아니라, 시민단체의 규모와 역량을 감안하여 사업을 전략형, 성장형, 진입형으로 세분화하고 다양한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효과제고와 국내 개발협력 시민사회 생태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코이카는 KCOC로 대표되는 시민사회협의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개발협력연대(DAK: Development Alliance Korea) 정책협력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집 또한 동 사업의 일환으로 세상에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금번 사례집을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국제개발협력현장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성과를 확산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이번 사례집의 풍성한 국제개발협력현장 이야기와 교훈을 통해 SDGs의 달성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참여', '임파워먼트', '비차별'이라는 3가지의 중요한 원칙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서에 소개된 사업사례를 들어 설명하자면, 협력국 현지 주민의 참여를 통해 자조(self-help)조직이 형성되고, 주민들이 의사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을 통해 역량과 권한이 강화(empowerment)되며, 지역사회에서 여성과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이 차별받지 않도록 포용할 때, 협력국 스스로 빈곤, 재난, 갈등과 분쟁으로부터 벗어나, 자립적으로 지속가능한 SDGs 달성을 촉진하는 기반이 마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들이 적용된 사업들의 성과와 교훈을 학습하고 환류하는 과정이 독자들의 지적 성장에 기여할 뿐 아니라, 코이카와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계기로 작용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시민사회와 현지 주민들이 함께 맘 흘리는 풀뿌리 상생협력 현장의 열정이 뚝뚝 담겨져 있는 사례집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실린 10개 단체의 이야기는 개발 현장 자체가 여러 층위의 불평등과 차별이 새겨져 왔음을, 그리고 이들에 균열을 낼 때 우리가 생각하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내가 한국 개발 NGO의 실무자로 다른 단체 실무자들과 함께 '인권에 기반한 개발'을 공부하고 토론했던 게 15년도 전의 일이다. 당시 나의 화두는 '참여'였다. 참여가 '비차별'을 담아내고, 참여를 통해 '임파워먼트'가 이루어진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리고 개발 NGO들이 가장 흔히 '참여'를 이야기하지만, 외부적, 내부적 상황으로 인해 가장 이루기 어려운 것 또한 '참여'라고 생각했다. '인권에 기반한 개발'에 대해 흔히 하는 오해 중 하나가 법적, 혹은 엘리트적인 접근이라고 것인데, 이 또한 사실 '참여'에 대한 강조가 덜할 때 가능한 비판이라 여겼다.

본 사례집 제작은 나의 오랜 고민에 대한 반갑고 가슴 뛰는 초대였다. 여기 실린 10개 단체의 이야기는 개발 현장 자체가 여러 층위의 불평등과 차별이 새겨져 왔음을, 그리고 이들에 균열을 낼 때 우리가 생각하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사례에서 보듯 '참여', '임파워먼트', '비차별'에 대한 원칙 및 과정상의 권리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시간도, 자원도 더 많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그 지난한 과정을 통해 다져진 원칙 덕분에 외부 악재 — 사례에 등장한 코로나, 물가 상승, 전쟁, 쿠데타 등 — 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성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 즉, 과정에 충실한 것이 오히려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가는 지름길이라 하겠다.

사례에 실린 생생한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각 원칙에 대한 이해 및 적용이 유사한 점도 있지만 상이한 점도 많다는 게 흥미롭다. 이는 단체마다의 고유한 성격과 각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낸 결과일 것이다. 본 사례집이 추후 있을 대화와 협력의 단초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번에는 '참여', '임파워먼트', '비차별'을 여러 측면에서 세분화하고 지표화하는 시도를 했다. 다음 번에는 과정과 성과, 여러 부문 및 여러 이해관계자들을 잇는 분석이 되기를 바래본다. 그런 고민이 바로 한국 개발 NGO의 자랑이자 기여가 되리라 믿는다.

참여, 임파워먼트, 비차별 원칙을 적용한 개발 CSO 공통 SDGs 성과 사례집 발간을 축하합니다.

독자 여러분께서는 지난 2011년 11월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 채택된 "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ness Development Cooperation(GPEDC)"을 기억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이 선언 22문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고, 권리기반접근(rights-based approach)을 증진하는 데 시민사회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확인한 선언의 약속을 지금까지 생생히 떠올리곤 합니다.

부산 선언이 채택된 이후 벌써 십여 년이 흘렀습니다. 이 책자는 인권기반접근(HRBA)의 핵심 원칙인 참여(Participation), 임파워먼트(Empowerment), 비차별(Non-discrimination)의 내용이 실제 시민 사회협력 사업 수행과정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담은 중요한 기록물입니다. 개발현장 활동가들이 바쁜 시간을 쪼개 기록한 이 사례집에서, 인권기반 개발협력을 묵묵히 실천해온 노력의 결실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소중한 작업에 작게나마 함께하면서, 현장은 다양한 실천적 논의를 통해 규범이 의도한 기대 이상의 성과와 더불어 다시 가야 할 방향과 교훈을 가져다준다는 점을 배웁니다. 저는 인권기반접근(HRBA)이 2030년까지 달성이 불투명해 보이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실현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원고에 소개된 사업들에서처럼 우리 사회에 더 많은 인권기반 개발협력이 확산되어 "국제 개발협력을 통한 모든 국가의 보편적 인권 증진"이라는 국제사회의 염원에 보다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덕분에 가장 소외된 사람들에게 가 닿는 변화,
지역에 뿌리 내려 지속되는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근본적이기에 대안적이고,
그렇기에 혁신적이라 하고 싶습니다.

초여름에 막 접어들던 2023년 5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책에 소개된 10개 사업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원고가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때라 사업을 맡은 분들이 구두로 사업을 소개했습니다. 그 발표에서 제가 찾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오랜 시간 공들여 이룬 사업 성과를 소개하는데 자량을 늘어 놓는 유려한 말이 없었습니다. 외려 고민을 담담하게 전했고, 사업지역과 주민들의 변화에 대해 말할 때는 사업 담당자로서의 위치를 고만하며 표현을 고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소외시키지 않는 언어를 신중히 찾는 모습은 잘 새겨두고 싶을 만큼 인상 깊었습니다. 그 모습이 여름 밤 저녁 바람처럼 시원하고 소중한 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무엇이 혁신이고 긍정적 변화인지를 주장하는 말이 무수합니다. 누구나 알기 쉬운 측정 가능한 변화,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빨리 닿는 사업을 만들라는 압력이 있습니다. 이 압력 아래에서 현장에 기대지 않은 단발성 아이디어가 혁신으로 포장되어 사람들의 삶에 던져 졌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기도 합니다.

이 책이 소개하는 사업들은 그런 '혁신'의 정의를 새롭게 하는 사례들입니다. 선의로 포장된 국제개발협력 이 전문가 중심의 사고, '외부로부터의 변화'를 강요할 수 있다는 위험을 일찍이 간파하고 경계하며, 그 길을 피해 새 길을 낸 사례들입니다. 그 덕분에 가장 소외된 사람들에게 가 닿는 변화, 지역에 뿌리 내려 지속되는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근본적이기에 대안적이고, 그렇기에 혁신적이라 하고 싶습니다. 이 혁신은 인권기반접근(HRBA)을 중심에 두고 이뤄낸 변화입니다. '참여', '비차별', '임파워먼트'의 원칙을 기준 삼았더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데 관심을 쏟기 쉬운 개발협력사업이 '왜', '어떻게'를 묻는 활동이 되고 새로운 실천의 장이 열렸습니다.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20여년에 걸쳐 여러 지역에서 진행한 다양한 활동을 인권기반접근이라는 하나의 실로 엮어 살펴보니 개발협력시민사회의 강점이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개별사업의 성과프레임워크를 뛰어 넘는 변화의 흐름이 보이기도 합니다. 해야 할 일 앞에서 겁내지 않고, 우직하고 명민하게 지역에 버티고 서서 버려듯이 해낸 사업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길을 지킨 분들만이 회고할 수 있는 변화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글로 새겨져 반갑고 기쁩니다. 성과만이 아니라 과정의 고민과 탐색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어 좋은 길잡이가 될 것 같습니다. 개발협력시민사회가 어떤 변화를 일구는지를 말할 수 있는 잘 정리된 자료를 갖게 되었습니다. 한낮의 더위를 식히는 선선한 저녁 바람처럼 반갑고 소중한 습니다.

Prologue

현지 주도발전(locally-led development)

전세계가 이 주제로 다시 뜨거워 지고 있다.

사실 새로운 이슈가 아닌, 발전 개념에 대한 오랜 논의와 연결되어 있다. 국제사회는 원조의 실패를 통해 발전의 관점을 주인의식으로 전환했고, 이 관점이 지속가능성과 연계되어 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발전의 주체도 정부에서 가장 작은 단위인 주민으로 확장되면서, 궁극적으로 발전의 혜택이 누구에게 전달되어야 하는지가 더 명확해졌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는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 동행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정부에게 전달하고, 권력이 분배될 수 있도록 힘써왔기에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주요 주체로 인정받게 되었다.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단체(이하 개발CSO)들은 비교적 짧은 국제개발협력 활동의 역사 속에서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현지 주민들이 주인이 되고 자립할 수 있는 요소들을 프로그램에 녹여냈다.

이런 활동은 한국만의 독특한 특성이 아니라,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다는 SDGs 원칙, 인권기반접근의 참여, 임파워먼트, 비차별 요소와도 이어진다는 점에서 글로벌과 로컬을 포괄하는 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본 사례집의 참여, 임파워먼트, 비차별 요소에 대한 10개 사례는 현지 주도 발전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

본 사례들은 국제개발협력에서 흔히 접하는 수많은 다양한 형태와 요소들을 포괄하면서도, 현지주도발전의 길을 찾기 위해 NGO들이 적용한 참여, 임파워먼트, 비차별의 접근법, 현지 주민들의 변화 스토리, 때로는 위기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역동까지 자세히 담고 있기 때문이다.

사례집 개요

1. 사업 배경 및 목적

<참여, 임파워먼트, 비차별 원칙을 적용한 개발 CSO의 공통 SDGs 성과 사례 발굴>은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이하, KCOC)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한 '개발 CSO 성과관리 프레임워크 도출'의 후속활동이다. 2015년, 국제사회가 공동의 목표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채택한 이후, 개발 CSO는 SDGs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주체로 활동해왔다. 많은 개발 CSO들이 단체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SDGs 목표를 연계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왔으나 집합적인 성과로는 취합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집합적인 성과 취합의 집합적인 성과 취합의 부족은 곧 개발 CSO의 이행 성과 파악의 어려움으로 이어졌다. 주요 주체로 SDGs 이행에 기여함에도 가시적으로 개발 CSO의 성과를 보여줄 수 없었던 것이다.

이에 KCOC는 SDGs 달성에 기여하는 시민사회의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관련 사례를 도출하고자 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발 CSO의 성과에는 '참여', '임파워먼트', '비차별'이 포함되어 있음을 목격했다. 세 가지 항목으로 CSO의 성과를 취합할 수 있을지 알아보고자 국내외 문헌 조사를 진행하였고 문헌 조사를 바탕으로 '참여-임파워먼트-비차별' 원칙이 적용된 시민사회의 사례를 선정하게 되었다.

사례 발굴은 참여, 임파워먼트, 비차별 원칙에 의거한 시민사회의 SDGs 성과 사례를 발굴하고, 성과 통합 가능성을 검토하여 SDGs 달성을 위한 질적 제고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2. 2023년 사업일정

<참여, 임파워먼트, 비차별 원칙을 적용한 개발 CSO 공통 SDGs 성과 사례 발굴>은 SDGs 달성을 위한 시민사회 이행 성과 발굴의 하위 세부사업으로, 후속 활동까지 포함하면 총 3년의 기간으로 계획되었다. 2023년에는 사업의 가장 중요한 파트인 '사례발굴'과 '사례집 발간'을 진행하였다. 2023년 상반기에는 'CSO 공통 SDGs 성과 사례 발굴'을 진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성과 사례집 제작'을 진행하였다.

CSO 공통 SDGs 성과 사례 발굴을 위해 1월부터 3월까지 문헌조사를 진행했다. 문헌조사는 국제개발과 인권을 연구해 온 호주 가톨릭 대학교의 노재은 연구교수가 진행했다. 문헌조사가 종료 후 4월 중 문헌조사 결과발표와 사례발굴 설명회가 진행되었다. 이후 문헌조사와 설명회를 기반으로 한달 여 간의 시간 동안 10개 사례를 선정했다. 사례 선정 이후 성과 사례집 제작에 착수했다. 선정 기관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하였으며, 6월 한달 간 각 기관에서 원고 초안을 작성했다. 이후 자문위를 통해 두 번의 피드백을 통해 원고 수정 작업을 거치며 사례집 내에 CSO의 SDGs 공통 성과가 보다 뚜렷하게 보일 수 있도록 했다.

[표 1] 2023년 사업일정

1월 - 3월	4월 24일(월)	4월 24일(월) - 5월 18일(목)	5월 19일(금), 6월 1일(목)	6월
문헌조사	문헌조사 결과발표 및 사례발굴 설명회	CSO 사례 접수, 심사 및 최종 사례 선정	사례 선정 기관 대상 워크숍 진행	원고 작성
7월	8월	9월	10월 - 11월	12월
1차 원고 검토 및 보완	2차 원고 검토 및 보완	최종 원고 감수	교정교열 및 출판	발간

3. 사례선정: 대상, 과정(기간), 심사기준, 심사위원, 선정 결과

사례집에는 총 9개 기관의 10개 사례가 참여, 임파워먼트, 비차별 원칙을 적용한 개발 CSO 공통 SDGs 성과 사례로 실렸다.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약 3주간 사례를 접수했다. 대상 사업은 시민사회 자체 사업이나 우리 정부-시민사회 협력사업 혹은 자체사업과 파트너십이 혼합된 사업이며, SDGs 성과사례 분석틀의 사례특성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정했다.

[표 2] SDGs 성과사례 분석틀

사례특성	중점 분석 내용		
참여	객관적	주관적	
	정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그램 각 단계별 참여자 수 혹은 전체 총 비율 (비차별 원칙 고려해 자료 분화 고려) 참여 관련 트레이닝/워크샵 (예. 참여적 모니터링 및 평가, 사회 감사) 횟수 및 참여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 수준/빈도/결과에 대한 만족도 참여로 인한 프로그램 효율성/효과성 향상 정도
	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 관련 가이드라인/정책 존재 유무 각종 정보 및 보고서의 접근성 (현지 언어/영어/한국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 동기 참여 촉진 또는 방해 요소 제거 방법 참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사례
임파워먼트	정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식/기술 향상 캠페인/트레이닝 횟수 및 참여자 수 권리청구/집단행동 횟수 및 참여자 수 사회적 임파워먼트(사회적 관계망, 소속 사회단체) 경제적 임파워먼트(소득/자산/저축, 재정 서비스, 남녀 소득/자산 차이) 정치적 임파워먼트(정당/의회 활동, 여성/소수 그룹의 의석/대표자 수, 공공기관 정보 청구/협의회) 문화적 임파워먼트 (문화 이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식 및 인식의 변화 정도 역량 향상 정도 사회적 임파워먼트(자존감, 효능감, 신뢰, 소속감, 의사 결정 정도 등) 정치적 임파워먼트 (정보의 투명성과 접근성, 공공 서비스 만족도와 참여도) 문화적 임파워먼트(역사/언어/전통 문화/정체성/삶의 양식 등에 대한 인식과 지지)
	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이나 제도의 변화 유무 경제적 임파워먼트(고용이나 창업 상태, 비공식 경제 활동 종류, 협동조합/자조그룹 조직 유무) 정치적 임파워먼트(사회 감사, 연대체 결성) 문화적 임파워먼트(문화단체 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식/역량/구조의 변화에 대한 사례 정치적 임파워먼트(주민 중심 거버넌스 사례) 문화적 임파워먼트(문화적/상징적 관습의 영향이나 변화에 대한 사례, 지역사회 문화자산 지도그리기, 작품/공연)
비차별	정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그램에서 취약 계층 수/비율 (빈곤, 성별, 나이, 장애, 신분 등) 스텝 중 취약 계층 수/비율 취약 계층에 할당된 예산 차별 방지 트레이닝/캠페인 횟수/참여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별 받았다고 개선되었다고 느끼는 수/비율 지역사회의 차별 요소에 대한 인식 정도
	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 조약 비준 상태, 차별 금지법이나 제도, 적극 우대조치 (affirmative action) 유무(국가) 차별 방지 가이드라인/정책 유무(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기/접수된 불만 중 차별 관련 사례 차별/교차성에 대한 언론 보도 내용 취약 계층의 참여 속에 이루어진 협의 과정 및 내용 차별 개선 사례

접수된 사례는 접수 시 제출한 사업개요서를 바탕으로 먼저 서면평가를 진행했다. 이후 사업개요서와 기타 서류 상에서 보이지 않는 기관의 숨겨진 노력과 가치, 현장의 모습까지 파악한 심사를 진행하기 인터뷰 심사를 진행했다. 서면평가와 인터뷰 평가 모두 <표3>의 기준에 따라 진행되었다.

[표 3] 심사기준

심사항목	심사기준	배점
적절성	SDGs 성과사례 분석틀의 사례특성이 사업성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20
영향력	SDGs 성과사례 분석틀의 사례특성이 사업성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30
연구목적부합성	SDGs 성과사례 분석틀의 사례특성을 정량 혹은 정성적으로 정리하는지 여부	30
연구근거충분성	해당 사업을 평가하기에 기관이 제시한 자료가 충분한지 여부	20
총점		100

문헌연구를 진행한 연구자인 노재은 호주 카톨릭 대학교 연구교수, 정은주 한국국제협력단 인권전문관, 김현주 에누마코리아 임팩트 파트너십 디렉터, 금번 사례 발굴의 총괄자인 신재은 KCOC 정책센터장이 사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개발 CSO의 사업에 대한 이해와 함께 SDGs, 인권, 임파워먼트, 비차별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충분한 심사위원을 선정했다.

심사 진행 결과, <표4>와 같이 9개 기관의 10개 사례를 최종 선정했다.

[표 4] 선정 사례

기관명	사업명	기관명	사업명
1 국경없는교육사회	교육을 통한 부르키나파소 농촌 여성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역량 개발	6 월드비전	베이직포걸즈: 여성 청소년 성·생식 보건 사업
2 굿네이버스	말라위 중부지역 지속가능농업 및 조합 가치 사슬 개선을 통한 소득증대 사업	7 월드비전	르완다 UPG 모델을 활용한 여성 가장 가구 극빈 상태 개선 사업
3 글로벌비전	라오스 소수부족 농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8 워드	몽골 학교급식 시범운영사업
4 희망친구 기아대책	우간다 서부 지역 지체장애인 직업훈련학교 지원 및 장애 인식 개선 사업	9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미얀마 지역사회기반 재난위험경감 사업
5 아디	방글라데시 로HINGA 난민 및 수용공동체 여성 심리사회 회복역량강화사업	10 지구촌나눔운동	케냐 유아신 기수 오토바이 택시 안전 증진을 위한 기사 조직화 및 역량강화 사업

문헌조사결과

노재은 리서치 펠로우
호주 카톨릭대학교

보고서 요약

필요성

SDGs 수립과 이행에 있어 시민사회단체들의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다양성과 SDGs의 광범위성으로 인해 그 기여도를 파악하기 어렵다. 앞서 발간되었던 'SDGs성과관리 프레임워크 한국 CSO(Civil Society Organization) 사례집(KCOC, 2021)'은 '인권에 기반한 개발' 원칙의 중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문헌과 주요 국제단체의 예를 참조해 '참여, 임파워먼트, 비차별'을 CSO의 강점 영역이자 SDGs에 대한 기여로 제시하고, 한국 CSO 관련 사례 도출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참여, 임파워먼트, 비차별'에 주목하는 것은 기존의 '무엇을' 달성하고 있는가에 관한 질문을 '어떻게', '왜'의 질문으로 바꾸고, 정해진 지표의 '활용'에서 추후 상호 학습 및 토의를 통한 지표 및 방법론 '개발'로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기존 논의 동향

'참여', '임파워먼트', '비차별'의 가치는 '인권에 기반한 개발(HRBA)' 이전에도 소위 '좋은 개발(good development)'에 대한 방향성과 당위성을 이루는 요소로서 중요하게 논의되어 왔다. '인권에 기반한 개발'은 '참여', '임파워먼트', '비차별'이 개발의 과정 원칙이자 결과로서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각각의 적용 기준 및 유기적 연관성을 제시한다.

'참여'는 1970-80년부터 개발담론에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았지만, 형식적, 도구적으로 사용되어 오기도 했다. 따라서 '인권에 기반한 개발'에서는 주체적 의사 결정과 행동 조직을 강조하는 '진정한 의미의 참여'를 강조한다.

'임파워먼트(empowerment)'는 단순한 기술, 역량의 증대를 넘어서서 권한 강화의 상태여야 하며 그 의미는 참여적 방식으로 정의, 측정 가능하다. 임파워먼트는 참여의 조건이자 결과이기도 하다.

'비차별'은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 방지할 뿐 아니라, 특히 '인권에 기반한 개발'에서는 권리를 실현하기 가장 어려운 취약 그룹에 대한 우선적 고려를 의미한다.

지속가능한개발목표(SDGs)는 인권과 깊은 관계 속에 발전된 만큼 SDGs 달성은 '참여', '임파워먼트', '비차별'의 실현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르완다 UPG 모델을 활용한 여성 가장 가구 극빈 상태 개선 사업

월드비전

주요 기관 동향

UN은 1990년대 말부터 인권주류화에 힘써 왔으며 현재 SDGs를 추진, 모니터링하는 대표적인 주체이다. UN OHCHR, UNDP, UNICEF는 인권과 SDGs를 결합해 개발 프로그램을 기획, 실행, 평가하고 있으며, 주로 '책무성'과 함께 '참여', '비차별' 원칙을 과정 지표로서 강조하고 있다. ActionAid, Save the Children, CARE 등의 국제 NGO는 '인권'에 기반한 개발' 도입 후, '참여', '임파워먼트', '비차별'을 기관의 주요 목표 및 전략으로 설정해 추진하고 있다. 최근 이들 단체가 펴낸 SDGs 관련 리포트에서는 참여적 방법론(특히 취약 계층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다양한 정보원 및 도구의 사용) 및 해당 원칙을 적용해 수집한 정량적, 정성적 자료의 사용이 두드러진다. UN 기구와 NGO 단체 모두 공통적으로 '참여'와 '임파워먼트'를 도모하는 참여적 방법론과 '비차별' 원칙에 입각한 분화된 데이터 수집을 강조하고 있다.

'참여, 임파워먼트, 비차별'의 측정 방법 및 지표

국제개발협력의 성과는 정량적/정성적, 객관적/주관적 지표로 다양하게 측정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SDGs 성과 및 인권 향상 측정은 국가 평균에 관한 정량적 데이터 수집이 주를 이루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정량적 지표를 보완하고, 정성적 자료를 제시하는 데에 있다 하겠다. '참여, 임파워먼트, 비차별'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각각을 측정하고자 하는 시도가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종합적으로 SDGs 목표 달성과 연결해 분석하는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국 CSO의 사례집 발간은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 CSO 사례 도출을 위한 프레임워크 제안

변화이론 속에서 '참여, 임파워먼트, 비차별'은 결과로서의 권리와 전략을 연결하는 과정 권리로서의 의미가 있다. 각 과정 권리는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기존 문헌 및 단체 사례에 기반해 각 과정 권리별 지표 및 자료 수집에 참조할 수 있는 세부 항목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참여'는 1) 정보에의 접근 및 정보 제공, 2) 프로젝트/프로그램 활동 참여, 3) 협의 및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 4) 자발적 행동 조직화로 구별해 분석 가능하며, 보다 의미 있는 참여로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다.

'임파워먼트'는 1) 사회적, 2) 경제적, 3) 문화적, 4) 정치적 임파워먼트로 구성될 수 있으며,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다.

'비차별'은 1) 젠더, 2) 연령, 3) 인종/종족, 4) 신분(장애, 종교, 성적 지향, 이주 등 기타 차별 요소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신분 등)으로 나누어 분석 가능하며, 세분화된 자료 수집은 존재하는 차별을 드러내고 개발의 비차별 효과의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한다.

본 보고서가 제시한 '참여, 임파워먼트, 비차별'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객관적/주관적 지표의 예는 추후 단체 사례들을 통해 보강, 구체화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1

르완다 UPG 모델을 활용한 여성 가장 가구 극빈 상태 개선 사업

월드비전

기관명	월드비전
프로그램명	르완다 UPG 모델을 활용한 여성 가장 가구 극빈 상태 개선 사업
사업목표	UPG 모델을 활용하여 여성 가장 가구의 극빈 상태 개선에 기여
사업지역	르완다 서부 루치로(Rutsiro) 지역 (월드비전 사업지역)
사업기간	2021.03.26. ~ 2023.12.31
주요 파트너 재정/실행/네트워크/평가 등	
재원협력 파트너	한국국제협력단(KOICA)
실행협력 파트너	더멋진세상(컨소시엄 파트너)
평가협력 파트너	한양대학교(현, 코이카 성과관리 대상 사업)
유관 SDGs	SDG 1, 2, 5, 8



이은혜 대리, 월드비전

어릴적 캄보디아에서 자라며 국제개발협력에 꿈꾸기 시작했다. 삶으로 느낀 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2020년부터 한국 월드비전에서 르완다 UPG사업을 기획하고 현재 사업 컨소시엄담당 및 사업책임자로 근무하고 있다. '사람'을 중심으로 가장 소외되고 억압된 이웃들의 아픔을 위로하며 고통받는 사람들을 진실 되게 사랑하고 돕는 소명을 갖고 있다.



정평화 간사, 월드비전

지구촌 모든 사람들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현장에서 뛰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국제개발협력에 꿈꿔왔습니다. 르완다에서 21년도부터 극빈상태 개선 사업을 맡아 근무하며 현장에서 사업 참여자들의 변화를 함께 해 왔습니다. '가난하지만 한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느끼며 사업 참여자들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수치화 된 성과 달성을 넘어 한 명도 소외 받지 않고 빈곤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현장의 변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기관 및 사업 소개

1. 기관 소개

월드비전은 기관의 설립이념에 따라 투명경영을 실천하며 기독교 정체성을 토대로 국내외 가장 취약한 아동·가정·지역사회가 빈곤과 불평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70년 역사와 사업 전문성을 토대로 개인 및 다양한 단체와 함께 협력하여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국제개발사업', '국제 구호사업' 등 범세계적인 나눔 실천을 비롯하여 '국내·북한·옹호사업' 등 가까운 이웃의 복지 실천을 위해 각종 캠페인을 진행함으로써 종교·인종·민족·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의 풍성한 삶을 위해 헌신한다.

2. 사업 배경

르완다에서는 1994년의 대학살로 인해 성인 인구의 70% 이상이 여성이 되었고 여성 가장 가구와 고아들의 수가 증가했다. 이러한 사회적 현실과 빈곤으로 인해 여성 가장 가구는 르완다 빈곤 가구의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 빈곤율은 남성 빈곤율보다 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르완다 정부가 실시한 가구환경 조사[●]에 따르면 2016~2017년 르완다의 빈곤율은 38.2%이며, 극빈율은 16%로 조사되었다. 특히, 극빈곤층은 하루 \$0.3이하로 소비하는 수준(성인 1명당 연간 약 \$112 미만 지출)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동 사업이 진행된 루치로 시의 극빈곤율은 24.4%로, 르완다 전체 30개 시 중 하위 4순위에 해당하며, 빈곤율은 49.5%로 7순위에 해당한다. 이 지역은 호수와 인접한 산악지형으로 사회·경제적으로 고립되어 있으며, 가구의 78%가 자급자족하는 저소득 영세농가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지역은 자연 강우에만 의존하는 농업, 토양유실, 농업 지식과 기술 및 투입요소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농업 생산성과 생산량(kg/ha)이 낮아져 빈곤과 영양실조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월드비전은 르완다의 최취약계층인 여성 가장 가구를 대상으로 극빈상태개선(Ultra Poor Graduation, UPG) 모델을 적용한 생계역량 강화 사업을 진행하였다.

3. 사업 내용

르완다 루치로 지역의 극빈곤 여성 가장 가구를 대상으로 적용한 UPG 모델은 극빈곤 계층에게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빈곤 졸업으로의 상승 계도에 안착시키기 위한 프로젝트 모델이다. BRAC^{●●} 및 월드비전과 같은 국제 NGO를 통해 효과성이 입증된 바 있으며 이번 사업에서는 르완다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용하였다.

● EICV, Integrated Household Living Conditions Survey, 2018
 ●● BRAC, Bangladesh Rural Advancement Committee

[그림 1] 르완다 극빈 상태 개선 모델(UPG)의 개념도



[표 1] 가구별 소득 범위(Ubudehe 우부데에) 등급 및 특징

등급	등급명	특징
1	Umutindi Nyakujya (The extreme poverty)	궁핍함. 살아남기 위해 구걸할 필요가 있음. 땅이나 가축이 없음. 적절한 주거지, 의복 및 음식이 부족함. 자주 병에 걸리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음. 아이들은 영양실조에 걸리고 학교에 보낼 여유가 없음. 이웃에게 존경받지 못하며, 차별을 경험함.
2	Umutindi (The very poor)	1등급과 가장 큰 차이점은 이 등급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소유한 땅에서 육체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임. 땅이 없거나 매우 작은 땅을 소유하고 있고 가축이 없음. 낮은 수확량으로 고통받고 의료 서비스나 학교 교육에 접근할 수 없음.
3	Umukene (The poor)	해당 등급 가구들은 약간의 토지와 주택을 가지고 있음. 그들은 저축은 없지만, 자기 노동력과 생산으로 살아가고 있음. 식사가 그다지 영양가가 높지 않더라도 끼니를 거르지 않고 먹을 수 있음. 하지만, 시장에서 팔 일여 생산물이 없고, 아이들은 종종 학교에 가지 않으며, 종종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음.
4	Umukene Wifashije (The resourceful poor)	해당 등급의 가구는 3등급과 비슷함. 그러나 이들은 적은 수의 소를 소유하고 있기도 하며, 자녀들은 초등교육을 받음. 이들은 적은 수의 가축과 몇 가지 다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약간의 수입이 있음.

동 사업은 UPG 모델을 활용하여 1. 기초생활 기반 마련 과 2. 생계 역량 강화를 통해 극빈곤 여성가장 가구의 극빈 상태 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업 초기에는 기본 생계조차 유지하기 힘든 가구에 기초 생계 지원금을 제공하여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후 사회적으로 고립된 여성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참여를 독려하는 **생활력 향상 교육**과 **인식개선 활동**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역량 강화와 함께 기초생활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는다. 또한, 금융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 문해력 교육**과 **저축 그룹 운영 활동**을 제공하여 각자 얻은 수익을 가계 내에서 적절히 소비 또는 축적할 수 있도록 기여한다. 이러한 활동은 본 사업을 통해 훈련을 받은 코치들이 월드비전의 자체 디지털플랫폼인 LMMS를 활용하여 **매달 300명의 참여자** 가정을 방문 모니터링하며 기록한다. 월드비전은 이러한 통전적 접근법(holistic approach)을 통해 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에 놓인 참여자들을 지원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해당 사업을 시작하였다.

본 사업의 중심에 있는 극빈층 여성 가정은, 가구별 소득 범위(Ubudehe) 1,2에 속하며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여성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주민 위주로 선발하였다. 여기에는 배우자가 경제적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정기적 수입이 없거나 비정기적 수입이 월 8,700rwf(약 7\$) 미만인 자), 근로 능력이 없는 자녀, 손주, 부모, 친인척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여성을 포함한다. 특히 사업 활동 참여가 가능한 64세 이하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며, 가구 내 장애인의 여부, 가구 크기, 임신 상태 등의 취약성을 점수화 하여 선발했다.

4. 사업 성과 유관 SDG 목표/세부 목표별로 나누어 작성

본 사업은 2030년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의 SDG 1(빈곤 종식)과 2(기아 해소), 5(성 평등), 8(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며, 10(불평등 감소), 3(건강과 복지), 4(교육) 목표에도 간접적으로 기여한다. 월드비전의 UPG 사업은 SDGs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뿐 아니라 이형 시 인권에 기반한 개발 원칙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다. 사업의 세부 성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2] SDGs목표에 따른 사업 성과

SDGs 목표	SDGs 세부목표	사업 성과
SDG 1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1.1 2030년까지 현재 기준에 하루에 \$1.25 미만으로 사는 절대빈곤 인구를 모든 곳에서 근절한다.	생계 지원금, 생산자산 지원, 생계 기술 교육 지원, 소득 활동을 통해 가구 소득 및 생활 수준이 개선됨(2021-2022년 기준)
	1.2 2030년까지, 국가별 정의에 따라 모든 측면에서 전 연령층의 남녀 및 아동의 빈곤 인구 비율을 최소한 절반으로 줄인다.	• 기초생계 지원을 통해 증가한 소득으로 저축, 대출금 상환, 생산자산(농기구, 가축 등), 의류, 생필품 등 기초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항목에 지출함
	1.4 2030년까지 모든 남녀, 특히 빈곤층 및 취약계층이 동등하게 경제적 자원 활용 및 기초서비스에 접근하고, 토지 및 기타 유형의 자산, 유산, 천연자원, 적정 신(新)기술, 소액 금융을 포함한 금융서비스에 관한 동등한 오피니언과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과제 농사로 연간 농업 소득이 증가한 가구원 수: 1,081명(100% 달성) • 가구별 저축액의 월평균 증가율: 110% 달성
	SDG 2 2.1 2030년까지 기아를 종식하고, 빈곤층과 취약계층, 영유아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일년 내내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충분한 식량에 대한 접근을 보장한다.	극빈곤 취약계층의 농산물 생산 역량 강화에 따른 판매 소득 증대 및 지속 가능한 농업 생산성 확보, 나아가 지역 내 안정적인 식량안보에 기여함(2021-2022년 기준)
2.3 2030년까지 토지 및 기타 생산자원과 투입재, 지식, 금융서비스, 시장과 부가가치 및 비농업 부문 고용 기회에 대한 안정적이고 평등한 접근성 확보를 통해 소규모 식량 생산자, 특히, 여성, 선주민, 가족농, 목축민, 어민 등의 농업 생산성과 소득을 2배로 증대한다.	2.3 2030년까지 토지 및 기타 생산자원과 투입재, 지식, 금융서비스, 시장과 부가가치 및 비농업 부문 고용 기회에 대한 안정적이고 평등한 접근성 확보를 통해 소규모 식량 생산자, 특히, 여성, 선주민, 가족농, 목축민, 어민 등의 농업 생산성과 소득을 2배로 증대한다.	• 농산물(과채) 생산 및 판매 활동에 참여하는 농가 비율: 68% • 농산물(과채) 생산을 통한 가정 내 섭취 농가 비율: 76% • 농산물 판매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한 먹거리 제공
	2.4 2030년까지 생산성과 생산을 증대하고 생태계 유지를 도우며 기후변화, 기상이변, 가뭄, 홍수 및 기타 재해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하고, 토지와 토질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키는 지속가능한 식량생산 시스템을 보장하고 복원력 있는 농업활동을 이행한다.	• 동 사업은 농업 생산물의 자가섭취 후 잉여 생산물을 판매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음. 또한 참여자들은 사업 참여 전 르완다 빈곤 보고서 기준 하루 0.3\$ 이하로 생활하는 극빈곤층으로 하루에 0-17개를 섭취할 정도로 영양상태가 열악했던 점을 고려할 때 사업 참여 후 농업 소득이 늘었다는 것은 참여자들의 생계 역량, 과제 생산 능력 강화를 반영함.

● 출처 : 르완다 MINECOFIN(2003), 르완다 UPG 사업 사례조사 결과보고서(한양대학교, MSC 방법 조사, 2023.12.06-16)
 ●● 코치들은 지역 내 좋은 본보기가 되는 모델로서 참여자들과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코치들은 각자 맡은 참여자 가정방문 외에도 저축 그룹, 과제 생산자 그룹을 관리하고 사업 전반의 주요 역할을 감당한다.
 ●●● Last Mile Mobile Solution : LMMS는 디지털 플랫폼으로 2008년 월드비전에 의해 개발되었다.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과 맞춤형 하드웨어를 결합해 인터넷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데이터 수집, 참여자 등록과 확인, 자원 배분과 관리를 가능하게 하며 모니터링 및 보고를 디지털화하여 참여자의 개선을 파악하고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참여', '임파워먼트', '비차별'의 적용

1. 해당 원칙에 대한 기관의 이해

월드비전(World Vision)은 전 세계 어린이와 가정을 돕기 위해 활동하는 국제 비영리 구호 기구로 현지 커뮤니티에 대한 **참여와 존중,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의 발전을 사명으로 한다. 가장 취약한 아동과 이웃을 돕고, 개인과 지역사회의 임파워먼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 기반의 파트너십을 형성하며, 현지 커뮤니티 리더십을 존중함으로써 프로그램을 설계 및 실행하고 있다. 또한, 인종, 성별, 종교, 출신 국가 등의 차별을 극복하고 다양성과 평등을 존중하는 사회를 형성하기 위해 모든 비차별을 지양하며, 개인과 가족을 평등하게 대우하는, 차별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힘쓰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월드비전의 모든 파트너십 기관(각 국가 본부 및 지역본부)에 핵심 원칙으로 적용되며, 모든 프로그램의 설계부터 실행, 관리, 환류 단계에까지 반영되고 있다. 월드비전은 어린이와 가정들을 위한 종합적인 개발 지원을 제공하며, 이러한 원칙을 통해 세계적으로 사회적 변화와 발전을 이루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세이프가딩(Safe Guarding) 정책을 전 직원에게 적용하여 아동 보호와 성범죄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리한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세이프가딩 정책이란 아동 및 취약한 상황에 있는 개인들이 어떠한 유형의 학대, 차별, 성희롱, 성적 남용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모든 직원이 사업 수행에 대한 교육을 받고 활동을 진행할 때 준수해야 하며 사업 참여자가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아동 및 취약한 상황에 있는 개인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안녕을 보장한다. 또한, 위험 식별과 평가, 적절한 보호 조치 및 대응, 사건 보고 절차 등을 수립하여 잠재적인 위험 상황에 대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 감독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여 이행을 보장하고 있다.

[표 3] 월드비전 세이프가딩 운영 정책 요약

월드비전 아동 및 성인 취약층을 위한 세이프가딩 운영정책	
목적 및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 및 성인 취약층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월드비전의 모든 사업(구호, 개발, 옹호), 프로그램 및 활동의 기반이 되는 사항이다. 월드비전은 아동과 성인 취약층에게 해를 입히지 않을 원칙을 우선적으로 지키며 우리의 모든 행동과 결정에서 취약층의 권리 존중과 아동 최우선 이익의 원칙을 중심에 두고 있다. 이 정책은 월드비전의 모든 사무소 및 관련 기관, 직원, 파트너 기관에 적용된다.
1.0 세이프가딩 정책과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원 및 관계자는 아동과 성인 취약층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와 책임을 가지며, 세이프가딩 교육을 받아야 한다. 파트너 기관과의 협약 시 세이프가딩 정책을 준수해야 한다.
2.0 행동규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도적으로나 의도치 않게 일어날 수 있는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용인되는 행동 및 용인 불가한 행동 강령들을 준수해야 한다.
3.0 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드비전은 아동 및 성인 취약층을 해치려는 의도가 있는 사람을 식별하고 예방하기 위해 모든 지원자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실시합니다.
4.0 사업장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방문객은 월드비전의 세이프가딩 정책을 준수해야 하며, 방문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SDGs 목표	SDGs 세부목표	사업 성과
SDG 5 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여아의 권한 강화	<p>5.1 여성 및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모든 곳에서 없앤다.</p> <p>5.5 정치, 경제, 공공부문 등 모든 차원의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와 리더십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한다.</p> <p>5.b 여성의 역량 강화 촉진을 위한 구현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CT)의 활용을 확대한다.</p>	<p>지역사회 소외계층인 국민군 여성 가정 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사회경제적 자원에 대한 평등한 권리 증진 및 역량 강화에 기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력향상 교육’ 참여 여성 가정 가구 수: 298명 국민군 여성의 지역 내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지역 사회 내 여성들 변화의 노력을 알리고, 사례 공유 및 발표를 통한 현지 여성들의 변화 지지를 독려함 여성 가정으로 구성되어 월 2회 이상 운영되는 저축 그룹 수: 24그룹 여성 참여자의 사회경제적 역량 증진을 위해 제공한 교육(생활력 향상 교육, 금융 문해력 교육, 모바일 기술 활용 교육 등)에 참여
SDG 8 지속적, 포괄적,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생산적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p>8.3 생산 활동,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업이 정신, 창의성과 혁신을 지원하고,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포함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형성과 성장을 장려하는 '개발지향 정책'을 촉진한다.</p>	<p>농업 활동 및 생산자 그룹에 참여하는 국민 여성 가정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참여자들은 농사 활동을 도와 주거나 시장에 과채 판매 시 수확물 운송을 도와줄 일용직을 지역 내에서 고용함,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며 영향력을 미침 (판매지소 구축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주민도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판매 지소를 총 2개 구축하여 지역 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 생활력향상 교육이란, 국민군중 여성이 지역 모임에서 목소리를 내고,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 활동임

5.0	커뮤니케이션, 소셜미디어, 디지털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진 및 영상 촬영 시 지역적 전통과 규제를 준수하며 맥락과 사실 관계를 진실하게 재현해야 한다. 주요 대상이 되는 아동 및 성인 취약층은 동의를 받아야 하며, 서면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이를 준수해야 한다. 아동 및 성인 취약층이 정보통신기술(ICT)을 안전하게 활용하도록 교육하고, 커뮤니케이션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조치를 취한다.
6.0	세이프가딩 위반 사건 및 대응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드비전은 세이프가딩 위반 사건에 대한 대응체계를 갖고 있으며, 사건은 심각성과 책임 정도에 따라 세 단계로 분류하여 대응한다.
7.0	사업을 위한 세이프가딩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직원과 관계자는 세이프가딩 위반 사건에 대해 보고 의무가 있으며, 보고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월드비전은 아동 및 지역주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고려사항을 갖춘다.
8.0	아동후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학대 대응 계획과 현지법을 준수한다.

2. '참여' 원칙 적용 과정 및 성과

1) 지역정부와 사회적 합의 모색

사업지인 루치로 시(District)는 르완다 30개 시 중에서 4번째로 빈곤율이 높은 곳이다. 지역 내 대부분 주민들이 하루 1.9불 미만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정말로 취약한 여성 가장 가구를 선발하는 것과 이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사업 진행 시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다. 빈곤이 만연한 곳에서 더 취약한 여성가장 가구 참여자를 제대로 선발하는 것과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중요한 요소라 생각하여 이를 잘 활용하고자 하였다.

사업을 통해 극빈곤층에게 다양한 생산 자원을 제공하게 되는데 기초생계지원금, 토지 임대, 가축 지원 등 현물성 자산과 농기구와 씨앗, 모육 등 생산 자산을 지원한다. 대부분 주민이 빈곤한 지역에서 위와 같은 지원은 사업지에 사는 누구라도 탐낼만한 것이었다. 참여하지 못한 자들의 불만과 지역 내 분란이 일어날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 내 합의가 필요했다. 그리하여 지역 내에서 누가 보더라도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선발하여, 참여자들의 적합성에 대한 지역 내 합의에 도달할 수 있게 지역사회를 적극 포함하여 참여자 선발을 진행했다.

표 4는 참여자 선별단계 7단계를 설명한 표이다. 정리한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참여자 선정을 7단계에 걸쳐 이 중 3가지 단계에서 지역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도록 하였다. 2, 5, 6단계에서 지역 주민과 지도자들은 지역마다 참여자 후보를 비교하고 분석하여 지역 내 정말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추려 나가는데 열린 토론을 진행했고, 교차 검증을 거쳐 더욱 취약한 참여자를 선발할 수 있었다. 현지 직원은 처음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사업 소개를 했을 때, 이미 극빈곤층 명단이 있음에도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문기가 빛났다고 한다. 지역 지도자중 한 명은 본인의 이름을 넣어 달라고도 하였다. 하지만 참여자를 선발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주민들은 사업 대상이 극빈곤층 이어야 하는 목적을 이해하게 되었다. 또한 교차 검증을 통해 허위로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경우도 발견하고, 지역 내에서 도움이 필요한 빈곤층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다고 한다. 이렇듯 참여자 선별 단계에서 지역의 의견을 세번이나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며 지역사회로부터 동의를 얻을 수 있었고, 이후에 지역 사회에서 참여자 자격 검증에 대한 논란을 방지할 수 있었다.

[표 4] 참여자 선정 7단계 표

단계		주요 활동
1단계	가구별 빈곤자료 분석	기관에서 후보 리스트를 프로파일링 하고 사업 지역 내 최빈곤층에 해당하는 여성가장가구 후보군을 선정함
2단계	지역사회지도자들의 후보군 선정	각 지역 사회 지도자들의 확인 과정을 거쳐 빠져 있거나 후보군으로 잘못 선정된 가구들을 선별
3단계	가구 환경 조사	훈련된 조사원이 가구 환경 설문조사 실시(참여자 선별 기준표 작성)
4단계	후보군 축소	참여자 선별 기준에 따라 최종 수혜가구 선정
5단계	주민참여를 통한 후보군 점검	각 섹별 '주민 설명회'를 실시하여 최종 후보군 점검 및 동의
6단계	적합성 검증	가정 방문을 통한 적합성 검증
7단계	LMMS 시스템 등록	최종 참여자 확정 시스템 등록

더불어 지역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정기 회의를 진행하여, 실제 사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려움과 이를 지역사회와 논의하여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다. 매년 지역사회 지도자들과 정기 회의를 개최하여 사업이 지역 사회에 미친 긍정적인 효과와 어려움을 함께 나누었다. 가장 작은 지역 단위의 빌리지 레벨의 마을 지도자부터 큰 단위의 루치로 시 공무원까지 초청하여 협력을 도모했다. 실제로 2차년도때 문제를 논의하며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세운 사례가 있었다. 22년도 정기 지역지도자 회의를 진행하며 일부 참여자의 농작물이 훼손되거나 절도가 발생하여 참여자들이 어려움을 겪은 일이 밝혀졌다. 이에 사업팀 내부적으로 해결 방안을 고민하며 지역정부에도 상황을 공유 하였는데, 루치로 시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절도 사건 발생 시 지역 리더, 경찰, 코치, 사업팀 직원이 함께 대응한다는 프로토콜을 만들게 되었다. 단순히 논의에서 끝나지 않고, 이후 약 한달 동안 지역 리더, 코치, 현지 직원이 함께 지역 내 문제가 있거나 성과가 낮은 70여명의 참여자들을 방문하여 추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함께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례는 지역정부 차원에서 사업팀과 함께 참여자와 주민들의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이 의미 있었다. 또한 문제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는 것이 지역 정부 또한 큰 관심과 책임을 가지고 사업을 바라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지역사회 참여 요소를 활용하여 가장 적합한 참여자를 선별할 수 있었고, 이것이 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책임 수준을 높여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자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었다.

2) 코치를 통한 사업 효과성 강화

참여자들이 사업 참여가 서툴고 부족할 때 코치의 존재와 조언이 실제 그들의 변화를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사회, 경제적으로 격리되어 있는 참여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팀에서는 이들과 밀접하게 소통하고 직접 코칭할 수 있는 코치를 24명 선발하였다. 주로 모범적인 농부나 지역 문제에 관심이 많은 적극적인 주민들로 구성하였으며, 이들의 역할은 코치 한 명 당 약 9~22명 정도의 참여자를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월 2회 참여자 가정과 농지를 방문하여 영양 상태, 경제 활동 등을 코보물●로 조사하며 조언을 제공하고, 현장 직원에게는 특이사항을 공유하여 참여자의 현황을 가장 가까이에서 파악하고 있다. 이에, 참여자들은 매월 정기 방문, 모니터링, 멘토링을 진행하는 UPG코치들의 참여와 노력의 결과로 성장하고 있다.

실제로 가장 의미있는 변화●조사 결과, 모든 참여자는 코치를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조연자로 꼽았고, 현장 직원들도 본 사업의 성공 요인으로 헌신적인 코치를 언급했다. 코치들은 참여자 모니터링에 적극 참여하여 참여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생산자산의 효과적인 활용법이나 농업 기술, 심리 상태 등을 면밀하게 확인함으로써 필요한 코칭을 제공하는 등 참여자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였다. 더불어, 사업 초기부터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참여자들의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여 사업 참여자 이탈을 방지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교육 활동에도 코치들이 항상 함께함으로써 참여자들의 참여를 독려하여, 모든 교육 참석률을 98% 이상 달성할 수 있었다. 이처럼 코치와의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는 참여자 스스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코치들의 매월 정기 모니터링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사업지가 산간 지역이라 아무리 같은 지역의 참여자라 하더라도 가구 간 간격이 도보로 1시간 이상이 걸리기도 하고, 집과 농지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가가호호 방문하여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참여자 중 알콜 중독자, 매춘, 무기력, 우울증세를 보이는 등 사회적으로 격리되어 있는 경우도 많아서 이들을 만나는 코치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코치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는 이유는, 사업팀에서 제공하는 활동비와 인센티브도 있지만, 무엇보다 코치의 역할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자부심과 뿌듯함이 큰 원동력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코치 Olive씨는 본인이 맡은 수혜 여성이 처음에는 본인과 눈만 마주쳐도 울고 도망가서 가정 방문 때 마다 곤란했다고 한다. 특히 수혜 가정 아이들은 방치되어 영양실조가 심했고, 항상 무력감에 빠져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본인이 같은 엄마의 처지로서 더욱 안타까운 마음에 가정 방문도 자주 하고 신경을 쓴 결과, 지금은 성실히 발달도 하고 아이들도 다시 건강을 회복하여 이러한 변화를 만든 자신이 자랑스럽다고 한다. 또한, 본인들이 만난 참여자들이 조금씩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그 누구보다 면밀히 보면서 이 사업에 대한 가능성과 애착이 생겼다고 한다.

이렇듯 코치는 사업에서 단순히 참여자의 상황을 파악하는 조력자가 아니라 본인들이 능동적으로 변화를 만들고, 참여자들의 가능성을 가까이에서 보며 응원하는 활동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코치들의 적극적인 활동은 참여자들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사업의 효과성도 높이는 데 주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했다.

【표 5】 '참여' 원칙이 적용된 지표 및 성과

참여 지표 측정 결과		
참여	객관적	주관적
정량적	사업 참여 관련 활동 참여자 수 (22년 기준) 1. 코치 분기회: 24명 2. 지역사회 지도자 정기 회의: 480명 3. 저축그룹 분기회: 70명	N/A
정성적	참여 관련 가이드라인 / 정책 존재 유무 : 세이프 가딩 정책	코치 대상 인터뷰

● MSC(Most Significant Change): MSC는 참여자, 이해관계자들, 직원의 수많은 변화의 이야기들 중 가장 의미있는 이야기를 발굴하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사업 효과와 영향력을 '이야기'로 당사자들로부터 광범위하게 수집한다는 점에서 참여적인 스토리텔링 사례로 주목받기도 한다. 이 기법은 자긍심, 역량강화와 같은 측정하기 어려운 사회변화를 추적하고 싶을 때, 결과보다는 사업의 임팩트에 기반한 데이터를 모으고 싶을 때, 사업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을 추적하고 싶을 때 사용되는 방법이다.

3. '임파워먼트' 원칙 적용 과정 및 성과

1) 사회적 임파워먼트

1-1. 생활력 상승 및 자신감 고양

MSC 방법론을 통해 사례를 조사한 바, 참여자들은 생활력 향상 교육과 더불어 다양한 교육과 경제 활동을 통해서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부분들이 자신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자들은 기초생계금을 지원받아 주체적으로 가게를 꾸리면서 가장으로서 스스로의 모습을 다시 되돌아보게 되었고, 각종 교육 및 방문 코칭을 통해 책임감을 갖게 되었다. 또한 생활력 향상 교육과 각종 그룹 활동을 통하여 타인과 관계 맺는 것에 대해 코치와 그룹원들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더불어 대다수 참여자가 지역사회에서 부지런하고 모범적인 주민과 농부로 인정받고 있다. 참여자 Betty 씨(가명)는 본인이 모범적인 농부로서 다른 지역 주민들에게 교육을 통해 배운 과제 기법과 종류에 대해 지식을 공유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녀는 해당 지역 사람들은 오이가 상품성이 있는 작물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데, 본 사업을 통해 오이 씨앗을 배분 받고 키우고 있는 참여자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이웃들과 공유했다. 직접 창작한 시 '발전을 위한 경작'에서 "우리가 배운 여러 지식들을 기회를 갖지 못한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라고 작성하였다. 이처럼 Betty씨는 빈곤한 처지에 있는 이웃들에게 사업을 통해 배운 것을 아낌없이 나누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위 사례를 통해 각 참여자의 생활 역량이 강화되었고 이전의 극빈곤 상태에서 벗어나 이제는 본인의 생계를 이어 나가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고, 한 단계 더 나아가 사업에 참여하며 배운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1-2. 참여자의 자발적 조직 운영

참여자들은 생산자그룹, 저축그룹 운영 교육을 통해 역량을 쌓아 의사결정을 조직 내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운영하고 있다. 저축그룹에서 투표로 임원을 선발하고, 위원회를 구성하여 그룹을 운영하고, 저축액, 벌금 등 내부 규정을 만드는 활동을 한다. 저축그룹에서 그룹 운영이나 임원선임은 본 사업의 교육을 통해서 도움을 받지만, 그룹 공동 기금●●(Social fund)과 관련하여서는 온전히 저축그룹 내부 논의를 거쳐서 결정된다. 일례로 한 그룹에서 공동기금의 주 사용처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농업 비료 구매 또는 아픈 자녀의 치료비 중 무엇이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 의견이 갈렸다. 이 기금이 저축 그룹을 구성하는 각 가구의 필요에 따라 쓰일 수도 있었지만 논의 끝에 시기별로 사용처를 구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즉, 농사철에는 농업 비료를 구매하고 그 외 기간에는 다른 위급 상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룹 공동 기금의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자들이 조직을 이끌어 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참여자들은 주로 농업에서 수입을 얻지만, 저축그룹 활동에 참여하며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과채로 로컬 주스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지역 농산물 중개업을 소개받는 등 다양한 소득원을 알게 되어 실행하고 있다. 그룹 활동을 통해 의견을 나누며 단순히 저축 활동을 넘어 가계에 맞게 안정적으로 자산을 증가할 방안을 서로 모색하고, 격려한다는 점에서 동료학습을 통해 같이 성장하고, 지속가능한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지역사회에서 참여 기회가 제한된 참여자들은 위 조직 활동과 운영을 통해 각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사 결정권을 발휘하며 역량 강화가 되었고, 개인 스스로와 지역 내에서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 Social Fund : 참여자들이 그룹별로 비상금으로 저축하는 공동기금이며, 합의를 통해 위기대응 및 긴급상황시(긴급 수술, 재난, 등) 사용처를 합의하여 빌려주거나 사용함.



【사진 1】 Betty 씨가 농작물 생산 교육을 듣고 작성한 자작시
'Cultivation for Development'



【사진 2】 저축그룹 활동 중인 참여자 여성들

1-3. 기초생계지원금을 통한 참여자의 역량강화

극빈곤 가구가 당장 해결해야 하는 기초적인 욕구를 충족하여, 향후 진행되는 활동에 원활히 참가할 수 있도록 기초생계금을 지원하였다.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1차년도 첫 6개월, 2차년도 첫 3개월에 걸쳐 매월 가구당 \$7을 지급하였다. 동 사업의 참여자로 최초 등록 시 지원금을 1차 지급하며, 1차년도에 진행되는 각 교육에 참가 시 마다 2차~6차까지 월별 지급하였다. 보통 타 UPG 사업에서도 인당 필요한 칼로리를 계산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르완다에서 감자 1포대를 살 수 있는 가격이 한 달에 \$9임을 확인하고 80%수준인 \$7정도를 지원하게 되었다.

1, 2차 기초생계금을 지원 시 참여자들 자율성을 고려하여 기초생계금을 지원했다. 각자 극빈곤의 형태가 다르고 가계의 우선사항이 다를 것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기초생계금 지원 시 코치들이 매달 2번씩 참여자들을 방문하여 지원금 사용처를 확인하고 지도할 예정이라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하지만 사업 팀 직원들을 포함한 코치들까지도 과연 참여자들이 올바르게 돈을 사용할 수 있을까 우려했다. 참여자들이 한 번에 큰 현금을 가지게 된 적이 처음이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그리하여 참여자들 모두에게 기초생계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지출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지도하였다. 우려와 달리 참여자가 기초생계금에 대해 주체적으로 생각하는 활동과 코칭이 함께 하여 사용자 모니터링 결과 대부분이 생활기반을 마련하는 데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었다.

현재 18명의 참여자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코치 Jacques씨는, 기초생계금이 처음 지급되고 모니터링을 나갔을 때, 그들이 받은 돈은 한 번에 다 써버릴까 걱정스러웠다고 한다. 실제로 본인이 맡았던 참여자 중 한 명은 처음 기초생계금이 지급되었을 때 평소에 자신이 먹고 싶었던 비싼 음식을 먹는데 모두 사용하여 단 며칠만에 돈을 다 썼다고 한다. 하지만 지출 계획서를 작성하며 본인의 소비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고, 다음부터는 지원금의 일정 부분은 가축 구매를 위해 저축하고 나머지 금액은 가족들의 식량을 사는 등 변화된 소비 활동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사용처가 정해지지 않은 큰 현금을 지원함으로써 인해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가계의 어느 부분에 지출할 것인지 생각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스스로 더욱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었다. 또한 그 현금을 가지고 가장으로서 가계의 상황을 다시 생각하고 규모 있게 사용하는 역량이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었다.

1-4. 코치와 지역사회 역량강화

이 사업에 참여하는 코치들은 참여자들을 돕는 동시에 스스로의 역량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한다. 동 사업에 참여하는 24명의 코치들은 각자 맡은 참여자 가정 방문 외에도, 저축그룹과 과채 생산자 그룹을 관리하고, 교육 출결을 관리하는 등 사업 전반의 핵심 관리자 역할을 한다. 참여자와 함께 각종 교육과 배분 활동에 참여하며 양질의 농업과 가축정보를 습득하기도 한다. 코치들은 농업과 가축 교육에 참여하여 본인의 실제 경험을 보충할 있는 이론적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교육 참여를 선호한다. 코치들은 활동 시 받는 교통비와 인센티브 지원(토지임대)을 통해 본인의 생계 활동을 넓혀 나간다. 코치 리더로 활동 중인 Jacques씨는 본인에게 가장 도움이 된 활동으로 금융 문해력 교육을 꼽으며, 금융 지식을 접한 후 코치 활동으로 얻은 자금으로 가게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 자그마한 구멍가게를 열었다고 말하였다. 또한 코치 활동비와 교육에서 얻은 새로운 지식은 코치 활동을 하는데 원동력이 되어 본인 스스로 뿌듯함과 역량강화됨을 느낀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코치 또한 참여자들과 더불어 성장해 나가며 사회적 역량이 향상되어감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코치의 존재는 지역 사회의 역량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코치들은 사업의 조력자를 넘어 참여자가 본 사업에 잘 참여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멘토 역할을 한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문제가 일어날 때 참여자의 편에 서서 도움을 주기도 한다. 이렇게 지역 사회 내에서 극빈곤 여성을 지지하는 코치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록 극빈곤과 소외된 여성에 대해 지역사회가 포용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2) 경제적 일파워먼트

2-1. 생계역량 강화

본 사업에서는 농업 자산(토지 임대, 씨앗, 묘목, 농기구 등)과 가축을 지원하여 극빈곤층인 참여자들이 기초생계를 마련하고, 지속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생산자산 배분과 더불어 생산자그룹 형성 교육, 과채 생산 및 판매 교육, 가축 사육 교육을 병행하여, 생계역량을 체계화할 수 있도록 했다. 1차년도 대비 2차년도 1인당 과채 판매량이 3배 증가하는 성과를 얻었다. 이는 참여자 모두 교육과 코치들의 코칭을 통해 이전보다 효율적으로 과채를 수확하고, 판매 시에도 과채 손상을 최소화하여 품질을 높여 판매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참여자들은 현재 사업 지역에서 자주 소비되는 과채품종 외에도 앞으로 시장 경쟁력이 있을 만한 작물들을 추가하여 총 26종류의 과채류를 재배하고 있다. 이는 참여자들이 교육과 생산자 그룹을 통해 현금성 있는 과채류를 파악하고, 능동적으로 농업 활동에 임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참여자 Betty씨는 과채 판매 교육과 생산자그룹 활동을 통하여 새로운 과채류들을 많이 알게 되었고,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과채를 생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코치들의 가정방문 보고에 의하면 참여자들이 이전에는 주로 농업에서 수입을 얻었지만, 저축 그룹 활동에 참여하며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 과채로 로컬 주스를 생산하고 판매하고, 지역 내 농산물 중개업(시장과 거주지까지의 거리가 있으므로 지역 농민들의 수확물을 대신 판매해주고 수수료 연음) 등 다양한 소득원을 알게 되어 실행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참여자들은 실제 마을의 필요를 파악하여 작은 가게를 열거나 바나나 중개 및 빔틀 판매 등을 통해 소득원을 다양화하고 있다. 더불어 농작물 수확량과 판매량, 매출액을 스스로 기록하거나 코치와 함께 작성함으로써 현황과 추이를 파악하고 계획을 세우는 역량을 키우고 있다.



[사진 3] (왼쪽부터) 염소, 농기구, 묘목을 지원받은 참여자들

2-2. 자산 운용 능력 및 금융 서비스 활용 역량 강화

2차년도 참여자 1인당 월 저축액은 1차년도 대비 54.6% 증가했으며, 매주 24개의 저축그룹이 꾸준히 저축그룹 활동을 하고 있다 참여자들은 저축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저축 관리 능력 및 위기관리 능력이 향상되었다. 이는 농업 활동으로 증대된 소득을 확보함과 동시에 금융 문해력 향상 교육을 통해 재무관리 방법을 습득하였기 때문이다.

참여자 Chloe(가명)씨는 저축그룹 활동을 통해 저축의 기반을 마련하고, 추가로 과채 농사를 통한 소득과 지역 은행(SACCO - Saving and Credit Cooperative Society)에서 대출을 받아 집 옆에 과채 및 생활물품을 파는 작은 가게를 개점했다. 과채나 가족의 경우 바로 팔아 현물화 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시장까지 이동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그녀는 가게 운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어 미래를 내다보고 가게를 차렸다고 한다. 이러한 생각은 관련 교육 및 저축그룹 활동을 통해 얻게 되었고, 그룹 내에서 관련 조언을 받으며 준비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를 볼 때 참여자들의 금융 지식 및 운용 능력이 저축그룹 내에서 동료학습을 통해 같이 성장함을 보여준다. 또한 매일의 생계를 해결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적은 금액이라도 정기적으로 저축을 하고, 향후 모은 돈으로 투자할 곳을 고민하고 필요 시 대출을 받아 투자하는 것을 통해 금융서비스에 대한 활용 역량이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



[사진 4]
Chloe 씨가 개점한 가게
(코치와 손님이 방문한 모습)

● 23년도 종료선 평가 시 측정 예정

[표 6] '임파워먼트' 원칙이 적용된 지표 및 성과

임파워먼트 지표 측정 결과		
임파워먼트	객관적	주관적
정량적	인식/기술 향상 캠페인/교육 횟수 및 참여자 수 (22년 기준) ● 생활력 향상 교육 299명 수료/270명 목표 ● 과채 생산 기술 교육 294명 수료/270명 목표 ● 과채 판매 기술 교육 291명 수료/270명 목표 ● 시장 정보 모바일 앱 사용법 교육: 298명 수료/270명 목표 ● 금융 문해력 교육: 294명 수료/270명 목표 ● 저축그룹 운영 교육: 294명 수료/ 270명 목표	지식 및 인식의 변화 정도 역량 향상 정도 사회적 임파워먼트 (자존감, 효능감, 신뢰, 소속감, 의사 결정 정도 등) ●
정성적	사회적 임파워먼트(사회적 관계망, 소속 사회단체): 생산자그룹 24개 경제적 임파워먼트(소득/자산/저축, 재정 서비스): 저축그룹 24개 ● 1인당 저축액 증가 비율 110%(22년도) ● 과채 농사로 연간 농업 소득이 증가한 가구원 수: 1081명 (1080명 목표, 22년도) 르완다 UPG 사업 사례조사 결과보고서 (한양대학교, MSC 방법 조사, 2023.12.06-16)	참여자 Betty씨가 작성한 시 생산자그룹&저축그룹 24개

4. '비차별' 원칙 적용 과정 및 성과

1) 참여자 선정 시 최취약계층 여성 가장 가구 선발

사업의 주 참여자가 지역 내 극빈곤 여성 가장 가구인 점을 통해 동 사업에서 비차별 원칙을 적극적으로 반영했음을 보여준다. 여성 가장의 경우 아이를 혼자 키우며 경제 활동을 홀로 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린다. 이들 중 중일 소작농으로 일을 해도 하루 500rwf(약 0.5\$)으로 5명의 가족이 생활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다 보니 여성가장 가구의 경우 아동들은 온전한 영양을 섭취하지 못하고 빈곤의 늪에 계속 빠지게 되어 여성 가장들 또한 무기력에 가정을 거의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이러한 취약성을 고려하여 본 사업은 여성 가장을 중심으로 참여자를 선발하였고, 선정 과정에서 각 가구의 취약성을 최대한 참고하기 위한 기준표를 만들었다.

[표 7] 참여자 선발 기준표

2021-2023 KOICA UPG Project Beneficiary Selection Survey Questionnaire for Graduation Participants(사업 참여자 선발 조사표)			
4. Ranking considering the importance(가점 요소)			
No	Factor(고려 요소)	Given Marks(배점)	Obtain Marks(점수)
4.5	Household Size(가구 크기)		5
4.6	# of Children(아동 명수)		5
4.7	Malnourished Under 5 Child(5세 미만 아동의 영양실조 여부)		3
4.8	Pregnant and Lactating Woman(임신 또는 수유 중 여성의 여부)		3
4.9	Disabled Member(가구 내 장애인 여부)		3
4.10	Over 65 Elders(65세 이상)		3

위 표와 같이 '가구 크기, 임신 및 수유 중인 여성, 가구 내 장애인의 여부' 등을 선별기준에 넣어 해당 사항이 있을 시 가점을 주었다. 따라서 단순히 여성 가장 가구 뿐만 아니라 홀로 10명 이상의 다자녀(자녀 및 손주)를 양육하는 여성, 시각장애가 있는 남편 대신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 정신 장애 아동을 키우는 여성 등 여러 취약한 계층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었다.

참여자 여성 가장가구 극빈곤층인 만큼 지역 내에서 이들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지역 여성의 사회적 통합 증진을 주제로 캠페인을 진행했다. 참여자들은 사업 참여 전, 지역에서 무시당하던 사람들이었다. 지역 행사나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고, 본인의 의견 또한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마제레제레 셀리더 Sophie씨는 참여자들은 지역사회에서 '버려진 존재'였다고 말했다. 아무도 이들과 이야기하고 싶어하지 않았고, 항상 지역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사업을 통해 생계가 안정되자 부끄러워하지만 지역 정기 회의에 꾸준히 나오려고 노력하고, 주위에 다른 극빈층들을 살피는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했다. 소피 씨는 캠페인을 통해서 어떻게 참여자들이 변화 해 왔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소외된 이들에 대한 '관심'이 이들을 변화시켰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며 지역사회에서도 소외된 여성과 극빈곤층에 대해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고 하였다.

본 캠페인은 지역 내에서 고위 공무원들이 참석하며 극빈곤 여성을 타겟으로 하는 유일한 행사였다. 지역에서 가장 소외된 여성 극빈층의 변화를 지역 고위층부터 빌리지 레벨의 리더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참여자들이 변화하고 나아갈 수 있는 지를 보여준 행사이다. 이전에 본인의 의견조차 제대로 낼 수 없었던 여성들이 본인들의 성과를 지역 관계자들에게 정당하게 알리고, 이를 함께 축하하며 사회적 목소리를 내는 소통의 장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었다.

[표 8] '비차별' 원칙이 적용된 지표 및 성과

비차별 지표 측정 결과		
비차별	객관적	주관적
정량적	1. 지역사회 인식개선 및 행동변화 캠페인 (참여자 수) : 480명 2. 참여자 선별 기준표 (취약계층 고려)	
정성적	N/A	N/A



[사진 5] 캠페인에서 춤과 노래로 본인들의 변화를 표현하는 참여자 여성들



[사진 6] 루치로 시 NGO 홍보 박람회에서 본인의 성장을 알리고 직접 생산한 과채류를 판매하는 참여자 여성들

5. '참여', '임파워먼트', '비차별' 적용 위기와 해결,

1) 참여자의 취약성에 따른 지표 달성 제약

극빈곤층의 생계 역량 강화라는 사업의 목적에 따라 주 참여자들은 지역 내에서도 취약성이 높은 여성가장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참여자 그룹 안에서도 취약성에 차이가 있어 농업 생산물 수량이나 판매량 격차가 크게 발생하거나 정량적 성과 지표가 낮게 집계되기도 하였다. 실제로 저축액이나 농업 생산량이 낮은 참여자들을 모니터링 한 결과, 지병이 있거나 나이가 많거나 가정 내 아이가 많아 소득활동에 제약이 있는 경우가 있었다. 참여자 그룹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제약이 큰 이들을 위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차년도 중순에 현지 직원, 코치, 지역 지도자들과 집중 모니터링이 필요한 75개 가정에 방문과 상담을 진행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성과가 저조한 참여자들의 실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고, 어떠한 어려움이 그들의 활동을 저해하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농업, 이웃과의 관계 등 다양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었다. 위 참여자들 같은 경우 타 참가자들에 비해 취약 정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한 성 지표 설정이 필요하며 추가적인 모니터링이 지속되어야 한다.

2) 비참여자의 상대적 박탈감

지역 사회의 이해와 합의를 거쳐 공정하게 참여자를 선별하고 사업을 진행하였음에도 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비참여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사업에 선정된 참여자들과 경제적 여건에서 큰 차이가 없었던 비참여자들의 질투에 기반한 절도가 지역에서 종종 발생하였다. 따라서 지역지도자 회의를 통해 절도 문제 발생 시 지역지도자, 코치, 현지직원이 함께 동행하여 사건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프로토콜이 루치로 시에 적용되도록 합의하였다. 그 후 지역 내에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프로토콜에 기반하여 해결되도록 하고 있으나, 보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비참여자들이 배제되지 않고 간접적인 사업 참여자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식의 전환과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수혜 여성들과 코치들이 사업을 통해 향상된 지식과 노하우를 주변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격려하여 동료학습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또한 경제사회적 역량을 갖춘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무엇보다 사업의 수혜가 특정 집단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주변에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사업의 스피illover 효과(Spillover Effect)를 염두에 둔 사업 활동 디자인과 지표 설정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3)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성의 사회적 재생산 고려

참여자들은 여성가장이자 농민의 역할을 감당하며 농업노동과 가사노동의 이중부담이 있을 수 있다. 성인지적 관점에서 임신 및 출산과 같은 여성의 사회적 재생산을 간과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과 참여자의 강한 사업 참여 의지 확인 및 참여 독려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코치들의 월별 가정방문 모니터링을 통해 참여자들의 어려움과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독려함과 동시에 사업 직원들은 사업 활동 및 교육시기를 참여자들의 농업시기나 수확시기를 고려하여 일정을 조정하고 진행했다.

교육을 통한 부르키나파소 농촌 여성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역량 개발

국경없는교육가회

6. 결론

UPG 사업 모델은 2030년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의 SDG 1(빈곤 종식)과 2(기아 해소), 5(성 평등), 8(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며 10(불평등 감소), 3(건강과 복지)과 4(교육) 목표에도 간접적으로 기여한다. 또한 '아동의 풍성한 삶'이라는 월드비전의 사명에도 맞닿아 극빈곤 여성과 그 가정을 가정 너머의 지역사회라는 보다 넓은 생태계와 연결함으로써 풍성한 삶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월드비전의 UPG 사업은 SDGs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뿐 아니라 이를 이행함에 있어 인권에 기반한 개발 원칙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다. 특히 참여, 임파워먼트, 비차별 원칙을 사업 활동에 포함함으로써 취약계층의 빈곤 개선 효과를 높일 수 있었다. 앞서 살펴본 UPG 사업의 특성과 3원칙을 중심으로 사업을 되돌아볼 때, 성공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었던 이유 2가지를 공유하고자 한다.

첫째, 사전 기획 단계부터 최소 3요소(참여, 임파워먼트, 비차별)를 의식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사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 사업에서는 사업 수행 주체 및 이해관계자들이 기획 의도와 사업 활동에 대한 동일한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사업 초기부터 충분히 논의 및 공유하였으며, 사업 중기에도 의식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강화하였다. 그 결과 참여자와 그 가정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었으며 지역사회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특히 극빈곤층 대상의 사업의 경우, 참여자의 실질적인 임파워먼트를 위해 참여자의 동기 부여를 제고할 수 있는 장치와 이를 위한 직접 참여의 요소를 적극 녹여내야 한다. 극빈곤층은 처한 환경으로 인해 삶에 대한 희망과 의지가 약한 경우가 있다. 이를 개선하는 것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특정 성과를 창출하는 것도 쉽지 않아 다양한 주체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이에 동 사업에서는 코치를 활용하여 참여자를 동기부여 하며 긴밀히 모니터링 하였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식을 교육 및 그룹 활동을 통해 제공하였다. 참여자들은 자신들에 필요한 지식을 얻을 뿐 아니라 배운 내용을 자녀나 이웃 등에 전달하면서 개인의 생계 역량강화 이루어 내었고, 자신의 목소리를 직접 내는 자신감 있는 주민으로도 성장하였다. 여기에 지역사회의 동료 학습(peer learning)을 통한 공동 성장의 기회도 가졌으며, 지역사회에서 일손을 돕는 일용직을 고용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 기타 사회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요소들이 사업 전반에 고려되고 적용된다면 극빈곤층의 지속가능한 삶이 조금이나마 더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본 사업에서 지원한 르완다 루치로 지역의 극빈곤 여성들의 더 의미 있는 변화와 성장도 함께 기대해본다.

2

교육을 통한 부르키나파소 농촌 여성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역량 개발사업

국경없는교육가회

기관명	(사)국경없는교육가회
프로그램명	교육을 통한 부르키나파소 농촌 여성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역량개발사업
사업목표	교육을 통하여 부르키나파소 농촌 여성 역량강화
사업지역	부르키나파소 와가두구(Ouagadougou), 보보-디올라소(Bobo-Dioulasso), 부세(Boussé), 레오(Léo)
사업기간	2010년 ~2021년
주요 파트너	(재)일가재단, (주)다비육종 ●, (사)굿파머스 ●●
유관 SDGs	1. 빈곤 종식, 4. 양질의 교육, 5. 성평등,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김은아, 국경없는교육가회

2019년 (사)국경없는교육가회에서 부르키나파소에 PM으로 파견되어 여러 교육개발 사업을 맡아서 진행하였다. 특히, 농촌여성들의 역량강화가 목표인 마르카사업을 3년 동안 이끌어오면서 참가자들이 교육을 바탕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었다. 국제개발협력이라는 건물을 지을 때 단단한 지면을 만드는 '교육'의 기초공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도 교육의 가치를 깨닫고 실천하고자 (사)국경없는교육가회에 몸담고 있다.

기관 및 사업 소개

1. 기관 소개

(사)국경없는교육가회(Educators Without Borders, 이하 EWB)는 2007년 국내외 교육자가 뜻을 모아 '교육을 통한 빈곤퇴치'를 위해 아프리카 및 아시아지역에서 교육개발사업을 수행하는 NGO이다. 특히, 한국 교육의 발전과 경험을 지식공유 방식으로 확산하여, 더 나은 교육의 기회를 보다 많은 지구촌 이웃들에게 보장하고 이를 통해 빈곤에서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자 한다. 글자를 읽고 쓰지 못하는 전 세계의 비문해 성인들에게 문해교육을 제공하고, 어린이들에게 공평하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협력과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2. 사업 소개

부르키나파소라는 나라를 아시나요?

EWB는 16년 전, 해외원조에 활발한 다른 선진국들조차도 관심이 없었던 아프리카의 알려지지 않은 부르키나파소와 인연을 맺었다. 그때 처음으로 EWB가 부르키나파소의 수도 와가두구에 발을 디딜 때만 해도 과연 지구상에 이런 곳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곳은 세계에서 가장 열악하고 취약한 나라 중 하나였다(부르키나파소 1인당 국내총생산 739.67 USD, 2021년 기준).

서부아프리카에 위치하는 부르키나파소는 말리, 니제르, 베냉, 토고, 가나, 코트디부아르의 나라와 인접해 있는 내륙 국가이며, 블랙 볼타(Black Volta)강●●●이 가장 길게 남서쪽에 위치하여 가나까지 이어지지만 다른 두 개의 주요 강인 화이트 볼타(White Volta)강 그리고 레드 볼타(Red Volta)강과 마찬가지로 건조한 시기로 인해 수운(水運)이 전혀 불가능하다. 연 평균 강우량은 600mm 미만으로 6월 ~ 9월 우기를 제외하고는 기나긴 건기로 메말라 있다. 우기가 다가오기 전인 4월에는 40도는 기본이고 때때로 50도가 육박할 때는 과연 인간이 견딜 수 있는 기온은 어디까지인지를 시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실제로 부르키나파소는 세계에서 가장 더운 나라 순위에서 2위로 그 이름을 올렸다.●●●● 또한 우기에는 모기가 극성이라 너도나도 말라리아에 걸려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곤 한다.●●●● 도대체 이곳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라고 이렇게 척박할까, 그곳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이었다.

- (주)다비육종으로부터 재정적인 협력을 받아서 (재)일가재단이 부르키나파소에 일가가나안센터를 설립하였으며 강의실 및 급식사에 사업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부르키나파소 양계협동조합사업 타당성조사에 참여해 주었으며 양계활동과 소액대출을 포함한 양계협동조합사업 구상을 제시해 주었다.
- 부르키나파소는 1984년까지 오트볼타(Haute-Volta)라고 불린 나라이다. Haute-Volta라는 뜻은 프랑스어로 '볼타강 상류'를 뜻하지만 실제로 부르키나파소 내에 물이 풍부한 강을 접하기는 힘들다.
- World Population Review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더운 나라는 1위 말리, 2위 부르키나파소, 3위 세네갈, 4위 투발루, 5위 지부티이며 이는 1991년부터 2021년까지의 연 평균 기온으로 낸 순위이다.
- WHO(World Health Organization)에 따르면 2021년 부르키나파소의 말라리아 사망률은 세계 6위로서 3.4%에 달한다.

부르키나파소는 한국의 중점협력 대상국이 아니기에 개발협력 지원규모가 낮은 편이다. 그러나 '정직한 사람들의 나라'라고 하는 국가명의 의미에서처럼 사업수행 현장에서 주민들은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이 사업의 현지 파트너 기관인 비정규교육진흥협회(APENF)의 높은 투명성과 책무성은 이 사업의 성공 요인이었다. 소수점 이하의 예산도 함부로 하지 않는 담당자들의 역할에서처럼, EWB는 현지 파트너 기관과의 튼튼한 협력을 토대로 10년 넘게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했다.

값아 사업의 탄생

APENF는 EWB가 부르키나파소에 도착하기 전부터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문맹인을 상대로 문해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그 교육방식은 리플렉트 ●● 교수법을 적용하였다. EWB는 APENF에서 해온 문해교육 운영방식을 토대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KOICA 시민사회협력사업으로 농촌 여성을 상대로 하는 문해교육, 기술교육, 소액대출 사업을 진행하였고, 2013년부터 2018년까지는 광명시의 지원으로 현지 적정기술을 이용한 문해교육센터를 다섯 곳에 지었으며 계속해서 문해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1] 글을 배우고 있는 농촌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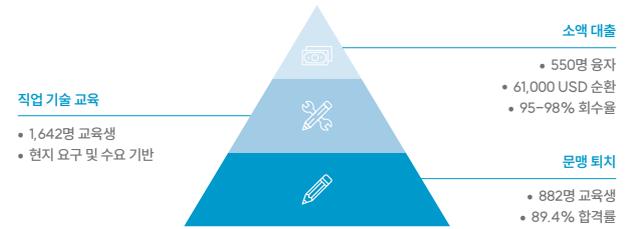


[사진 2] 셈을 하고 있는 농촌 여성

글을 깨우치고 셈을 하게 된 그들은 가계부를 작성할 수 있게 되었고, 그 후 기술을 익혀서 소액대출로 초기 투자금을 마련하여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들은 직접 만든 물건을 시장에 팔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수익이 나는지를 터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총 882명이 각자 1,200시간의 읽기, 쓰기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그 중 89.4%가 정부에서 인증하는 문해평가시험에 합격하였다. 그리고 1,642명(중복 포함)이 비누 만들기, 돛자리 제작, 땅콩도넛 만들기, 제빵기술, 양봉, 염색, 닭 사육, 경제교육 등을 받았다. 이 중 550명이 소액대출을 받았으며 95% 이상의 반환율을 보였다. 이 사업은 처음부터 값아(GAPA: Global Alliance for Poverty Alleviation)로 명명하게 되었는데 예전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기에 미국 등의 선진국의 도움을 받아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받음을 돌려주자는 의미로서 값아 사업이 탄생하게 되었다.

사업이 시작된 지 4년이 넘어갈 즈음, 레오 지역 완(Wan) 마을의 아름드리 나무아래 마을주민이 다 모인 가운데서 마을 족장의 말을 들어볼 기회가 있었다. 그의 말을 통해서 이 사업이 비단 사업에 참여한 여성뿐만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 2010~2015 값아 성과



“우리와 함께 한 지 벌써 4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은 교육을 받아드렸고, 지금 이 여성들은 부족어인 풀풀데어(Fulfulde)로 읽고 쓸 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성들은 특별한 기술도 배웠습니다. 어떤 여성들은 비누를 만들어 시장에 팔고 있습니다. 이제 그녀들은 스스로 돈을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EWB가 온 후 우리에게 몇몇 변화가 생겼습니다. 변화는 마을 남성들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일하고 배우는 것은 그들에게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또한 남편들과 부인들은 덜 싸우게 되었고 가정에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고 그들은 이러한 변화들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도, 레오 지역 완(Wan) 마을 족장 연설

[표 1] 2010~2015 값아 사업에서 진행된 직업기술교육 프로그램 수행 결과

기술교육 주제	참가자 수	기술교육 주제	참가자 수	기술교육 주제	참가자 수
비누 만들기	175	염색교육	34	자트로파 생산	41
일반, 장식용 돛자리 제작	34	닭 사육	69	마케팅	20
땅콩도넛 만들기	58	수입창출 경제교육	596	관계기술	46
채소경작 교육	34	세이버터 생산	55	양 사육	123
제빵기술	60	콩 가공 식품 생산	80	돼지 사육	140
양봉	49	참깨 생산	28	총 합계	1642

말을 했으면 실천으로 옮겨라!

값아 사업이 끝난 후, 이들에게 서로 의지하고 협력할 수 있는 협동조합의 필요성을 느낄 때, 2017년 마침 '삼성전자-사랑의 열매'에서 '나눔과 꿈'사업으로 기회를 주었다. 문해교육으로 문맹에서 탈피한 농촌 여성들 중에서 교육을 성실히 받고 양계에 뜻이 있는 사람을 선별하여 양계기술교육을 한 후, 마을별로 서로 협력하여 양계활동을 할 수 있는 양계협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취지로 하는 마르카●●● 사업을 2017년부터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마르카는 '부르키나파소 여성의 자립 및 역량강화를 위한 소액대출을 통한 양계활동'을 뜻하며, 값아 사업을 이어서 확장된 사업 모델이 되었다.

● APENF : Association pour la Promotion de l'Education Non Formelle du Burkina Faso
 ●● REFLECT : Regenerated Freirean Literacy Through Empowering Community Techniques의 약어로 브라질 교육학자 파울로 프레이리(Paulo Freire)의 문해교육 교수법.
 ●●● MARCA는 부르키나파소의 공용어인 볼어로 Microcrédit Avicole pour le Renforcement des Capacités et d'Autonomisation des Femmes au Burkina Faso의 약어이다.

마르카 사업은 총 5년 동안 진행되었으며 처음에는 1년, 단기 사업으로, 그다음 해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받은 상금을 재투자하여 자체적으로 사업을 이어나갔고, 그것을 바탕으로 3년 장기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주 사업 내용으로는 강사양성(TOT: Training Of Trainers)을 기반으로, 한국의 양계기술전문가를 파견하여 양계기술을 순차적으로 마을주민에게 전수하였다.

한국의 양계기술이 각 마을에 전달되기까지는 언어만 해도 4단계를 거치게 된다. 각지에서 모인 양계기술 강사들은 각각 다른 지역어를 사용하고 있기에 공용어인 불어를 해야만 강의시간 내에서 서로 소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한국 사람이 만든 영어로 된 교재를 불어로 번역했다. 그리고 한국 사람이 영어로 강의를 진행하면, 현지의 통역원이 불어로 바꿔서 설명했다. 이렇게 한국의 양계기술을 습득한 현지의 양계기술강사들은 각 지역으로 돌아가서 마을주민들이 사용하는 지역어로 현지에 맞게 전수한다. 값야 사업의 문해교육으로 지역어를 읽고 쓰게 된 마을주민들은 강사가 하는 말이나 칠판에 빼곡히 적힌 내용을 열심히 공책에 받아 적는다.

사실, 처음에는 이러한 전달 구조에 반신반의하였다. 같은 언어를 사용해도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태반인데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몇 단계의 언어를 거치지 말고 현지에서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사양성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양계기술을 고집한 이유는 한국의 양계기술만을 전수한 것이 아니라 한국 양계사업의 발전하는 과정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한국이 짧은 시간 내에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면서 '당신도 할 수 있다'는 동기부여를 함께 심어주기 위함이었다.

[표 2] 2017~2021 마르카 사업에서 진행된 마을주민대상 교육 활동

시행년도	교육명	참여 대상 가구 수	실제 참여 가구 수	참여율 ●●●	비고
2017년	양계기술교육(방신, 백신, 육추사양 등)	47	47	100%	한국 전문가의 TOT 선행팀
	경영교육	47	47	100%	
2019년	양계 적정기술교육(부화기사용법)	47	47	95%	
	양계 적정기술교육(사료제조법)	47	47	100%	
	마케팅교육	47	47	100%	
2020년	경영교육	13	13	100%	
	자기역량평가연수	13	13	100%	
	양계 기술교육(토종계 부화와 육추사양관리)	60	60	100%	
2021년	협동조합교육	60	60	100%	
	마케팅교육	13	13	100%	



[사진 4] 양계기술교육을 받고 있는 레오 지역 마을주민들

한국의 전문가를 투입한 강사양성을 기반으로 한 양계기술 교육은 우려와는 달리, 계사 방역, 병아리 백신, 사료제조기술 등이 현지에 고스란히 전해질 뿐 아니라 바로 적용하여 실천으로 옮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2019년, 한국의 사료기술 전문가가 현지의 적정기술을 이용하여 사료배합표와 사료제조법을 선보였더니, 마을 주민들에게 그 기술이 전수되자마자 그다음 날 직접 손으로(그 당시 삽도 제공되지 않았다) 사료를 만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언어가 몇 단계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문제없이 그대로 마을 사람들에게 전수되었던 것 또한 놀라운 일이지만, 사료제조법을 알게 된 그들이 맨손으로 바로 실천에 옮기고 있는 모습이 감동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누군가를 감동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행동은 절대 아니었다. 그들은 단순히 수입산 사료보다 적정기술을 이용한 사료배합표대로 원재료를 현지에서 구입해서 직접 만들게 되면 저렴하게 질 좋은 사료를 만들어 낼 수 있고, 그러한 사료를 먹이면 비용도 절감하고 병아리를 더욱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다는 것을 교육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이다.

'적정기술을 활용한 현지인 양계 기술자 양성' 과정이 이렇게 결과를 보인 후, 그다음은 함께 참여한 사람들끼리의 협동이 필요했다. 다년간의 양계활동으로 서로 노하우가 쌓이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그리고 함께 병아리를 구매하고 같은 시기에 판매를 할 경우 더 이익이라는 것을 알게 된 그들은 자연스럽게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였다. 예를 들면, 백신은 한 번 개사 되면 200마리 분량인데 100마리로 시작할 경우, 남은 백신은 버려야 하기에, 같이 시작하게 되면 백신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어 지출비용을 더 절감할 수 있었다.

양계활동에 있어서 폐사율을 줄이는 것이 가장 큰 사안이다. 그 방안으로 각 지역마다 수의사를 두어 계사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병아리가 병에 걸리는 등 비상시에도 바로 연락을 취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계사 모니터링은 병아리가 계사에 들어오고 난 후 한 달 이내에 실시되는데 이때 폐사율이 제일 높기 때문이다. 그들은 계사의 방역과 위생, 사료의 질, 병아리의 영양상태 등을 확인하여 일일이 피드백을 주어, 농민들이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진 5] 마을주민대상 사료배합 실습



[사진 6] 마을주민대상 사료제조 실습

●● 교육 참여율이 높은 이유는 농촌 여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는 경우, 남편이나 다른 가족이 대신 수업에 참여하였기에 대부분의 교육활동 출석률이 100%로 확인되었다.

[표 3] 2017-2021 마르카 사업의 지역별 양계 활동

지역	년도	병아리 수 (마리)	죽은병아리/ 닭 수(마리)	폐사율 (%)	닭 판매 수 (마리)	총 판매금액 (프랑세파)	순수익 (프랑세파)	순수익 KRW 전환 (1프랑세파= 2.15원)●
레오	2017	1,600	324	20%	1,276	2,552,000	765,600	1,646,040
	2018	1,495	561	38%	934	2,101,500	651,465	1,400,650
	2019	1,145	121	11%	1,024	2,560,000	793,600	1,706,240
	2020	1,010	299	30%	711	1,777,500	551,025	1,184,704
	2021	1,055	308	29%	747	2,054,250	636,818	1,369,159
소계		6,305	1,613	25%	4,692	11,045,250	3,398,508	7,306,792
부세	2017	1,500	319	21%	1,181	2,834,400	850,320	1,828,188
	2018	3,290	380	12%	2,910	6,838,500	2,051,550	4,410,833
	2019	2,222	221	10%	2,001	4,602,300	1,380,690	2,968,484
	2020	1,400	29	2%	1,371	3,221,850	966,555	2,078,093
	2021	2,810	239	9%	2,571	6,170,400	1,664,950	3,579,643
소계		11,222	1,188	11%	10,034	23,667,450	6,914,065	14,865,240
보보- 디올라소	2017	1,528	127	8%	1,401	2,802,000	840,600	1,807,290
	2018	2,325	80	3%	2,245	5,051,250	1,515,375	3,258,056
	2019	2,409	185	8%	2,224	5,838,000	1,751,400	3,765,510
	2020	2,795	112	4%	2,683	7,668,014	2,300,002	4,945,004
	2021	2,316	253	11%	2,063	5,497,895	1,701,975	3,659,246
소계		11,373	757	7%	10,616	26,857,159	8,109,352	17,435,107
총계		28,900	3,558	14%	25,342	61,569,859	18,421,925	39,607,139

강사양성 및 수의사 모니터링에 이어 이 사업에서 볼 수 있는 주요 특징은 매년 각 지역마다 우수양계활동가를 선발한 것이다. 선발 방법은 각 마을 수의사 및 마을관리자가 계사를 방문하여 계사 상태와 양계활동 현황을 파악한다. 그 파악된 결과를 점수로 환산하여 각 참여자들의 순위를 결정한다. 선발기준은 회기●●수, 병아리 수, 폐사율, 판매 수, 수익 등을 따져서 각 지역마다 2명씩 선정한다. 선발된 우수양계활동가들은 다른 지역의 우수계사를 견학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 간의 정보 공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가령, 지역마다 선호하는 병아리 종이 있으면 그 장점을 공유하여 다른 지역에서도 시도해서 더 수익이 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사업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무조건적인 100% 무상으로 지원했던 것이 아니라 유·무상으로 지원했다는 점이다. 처음 사업을 통하여 그들에게 지원했던 것은 100마리의 닭을 키울 수 있는 계사, 약 50만원 상당의 소액대출금이었다. 계사 건축비는 100% 사업비로 무상 지원 했지만 그 외에 필요한 병아리, 사료, 백신, 기자재 구매는 대출금으로 하되 사업이 끝나기 전에 반환하는 것이 조건이었다.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든 국경이 닫히고, 통금과 휴교령이 내려지고, 모든 시장과 가게가 문을 닫고, 행사나 모임이 일체 금지된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사업이 끝나는 시점에는 사업 참여자의 약 69%가 대출금을 반환했으며, 수익금을 계사 확장에 투자하여 기존의 100마리의 병아리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250마리로 늘려서 수익이 더 날 수 있는 방향으로 스스로 개척하고 있었다.

[표 4] 마르카 사업 지역별 소액대출 반환율

지역	반환율	보보-디올라소	부세	레오	총 반환율
		98%	63%	46%●●●	69%

2차년도 사업이 끝나갈 즈음인 10월, 보보-디올라소(이하 보보) 풀뿌리 마을관리자로부터 연락이 왔다. 드디어 정부로부터 정식 양계협동조합 증서를 받았다는 것이었다. 조합 이름은 줄리어(보보 지역어)로 'Kanké l'entiqui'라고 하였다. 그 뜻이 무엇이라고 물으니 나중에 사업평가회 때 조합원이 된 마을 주민이 직접 설명할거라고 하였다. 그리고 협동조합 로고도 만들 것이라고 하였다. 회의시간에 어떻게 로고를 만들 것인지가 안건으로 나와 있으며, 최종 선정되면 나중에 사업평가회 때 보여준다고 하였다.

정부로부터 인증하는 양계협동조합을 만드는 절차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1차년도부터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하였지만 그 중 미흡한 서류는 다시 만들어서 제출하기를 거듭 반복했고, 어떤 때는 관련 부서가 휴업을 하여 기약 없이 기다리기를 몇 개월, 드디어 최종 협동조합 증서를 받은 것이다. 총 세 곳의 지역에서 양계협동조합을 시도했고 그중 두 곳, 보보와 부세 지역에서 정식으로 양계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되었다. 각 지역에서 양계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동안, EWB는 한국의 협동조합 전문가를 파견하여 세계 협동조합 성공 사례를 설명하고 조합의 운영과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해 11월, 사업평가회 때 조합원이 된 대표 참가자의 설명으로, 드디어 보보 양계협동조합 이름의 뜻을 알게 되었다.

A man who says something, do it! (말을 했으면 실천으로 옮겨라!)



[사진 기] 보보의 양계협동조합 로고

- 환율은 사업 마지막 년도인 2021년의 사업비 예산 송금에 따른 가중평균환율을 적용하였다.
- 회기: 병아리를 닭으로 길러서 판매까지 완료되는 기간
- 레오 지역의 반환율이 다른 두 지역보다 낮은 이유는 지역 특성 상, 한 회기가 6개월 이상인 토종닭(개량종인 경우 3개월)을 선호하여 회기 수가 적어서 수익이 다른 지역보다 낮은 결과를 보였으며 그것이 반환율에도 영향을 미쳤으리라 본다.

‘참여’, ‘임파워먼트’, ‘비차별’의 적용

1. 해당 원칙에 대한 기관의 이해

EWB는 ‘교육’으로 빈곤을 퇴치할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곳에서 교육개발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SDGs의 4번째 목표인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양질의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실천한다는 사명 아래 국제개발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교육을 가장 우선으로 두고 있다.

특히, EWB는 ‘교육’은 다른 말로 개인의 지적·도덕적 역량을 강화하는 즉, ‘임파워먼트’를 강조한다. 교육이 정규교육과정에서는 일반적인 교육이라고 할 수 있지만, 비정규교육과정에서는 그 이상의 의미가 부여되어 임파워먼트가 더 확실하게 표출된다. 정규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지식, 기술 등의 교육에 참여를 이끌어내어 결과적으로 비차별에서 벗어나서 ‘힘’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한다. 본 기관은 이 개념을 바탕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실천해 오고 있다.

2. ‘참여’원칙 적용 과정 및 성과

지금,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2023년, 사업이 끝나고도 벌써 1년하고도 4개월이 지나가고 있었다. 사업이 마무리 되었기에 예전처럼 연락할 일이 없어졌지만 그곳에서 3년 넘게 그들과 함께 했던 터라 한국에 있어도 생각이 안날 수가 없었다. 마지막 연도에 지어졌던 1000수 계사●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텅텅 비어있지는 않을까? 원래는 2차년도에 신규 참가자 13가구를 모집하여, 대형 계사를 통해 공동으로 양계활동을 해보고자 했었다. 그 당시, 계사를 지을 수 있도록 마을 주축이 선포 땅을 내주면서,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함께 잘살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한 그의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하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2차년도 사업 일정이 다 미루어졌고, 마지막 3차년도에 계사를 짓고 병아리가 투입되는 것만 보고 떠났기 때문에, 사업의 지속성이 항상 마음에 걸렸다. 또한 단기사업 시작때부터 47가구에 지은 100수 계사●●는 계사로 사용되고 있을까? 사업이 끝났으니 모니터링 일도 없다고 생각하고 계사로 사용하는 것 대신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을까?(계사가 사람이 사는 곳보다 종종 더 좋을 수도 있다)

1년 전, 사업이 끝나갈 즈음 “앞으로 이들은 양계활동을 계속 할까요?”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그때 아주 당연하게 그들은 사업이 끝났다고 양계활동을 안할리가 없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모든 양계기술을 다 전수 받아서 그것을 토대로 5년 동안 양계활동을 하였으니 기술에 더하여 노하우까지 쌓였으니, 그리고 그들 스스로 투자하여 계사를 확장하는 것을 보고 왔기 때문에 안 할리가 없다고 호언장담했었다. 하지만 1년이 조금 지났을 뿐인데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번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상승하여, 운송비, 자재비 등이 대폭 오르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병아리 값부터, 백신, 사료 등 재료 값이 폭등하였다. 하지만 닭 판매값은 예전과 동일하다보니 양계활동을 소규모로 하기에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과연 그들은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외부의 지원도 없이 양계활동을 계속 하고 있을까? 아니면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을까? 궁금증을 참지 못해 APENF 국장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마르카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물었더니 마을별 보고서를 첨부하여 금방 답장을 보내왔다.

[표 5] 마르카 사업 종료 후, 2022-2023 지역별 양계활동 가구 수

지역 (사업 참여 가구 수)	보보-디올라소 마을 (16가구)	부세 볼로고 마을●●● (15가구)	부세 발랑고 마을 (13가구)	레오 마을 (16가구)
양계활동 가구 수	12가구	23년 3가구 (22년도 데이터 없어 파악불가)	13가구	12가구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물가가 폭등하는 등 경제 악화에도 불구하고 총 60가구에서 40가구 이상이 양계활동을 계속 이어오고 있었다. 또한, 1000수 계사는 올해 4월 전에 이미 500마리를 키워서 단 한 마리의 폐사된 병아리가 없이 전부 판매가 완료했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깨달은 점은 농촌 주민들이 양계사업 기획과 운영 전반에 참여하고, 문해 교육을 통해 쌓인 역량을 바탕으로 수익 활동을 한 경험이, 사업 종료 후에도 주민 주도의 참여와 사업의 지속성을 가져왔다는 점이다.

3. ‘임파워먼트’ 원칙 적용 과정 및 성과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은 값진 일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하세요.”

여성역량강화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세계 문맹퇴치 선구자인 브라질 학자 파울로 프레이리는 “문해교육은 기능학습이 아니라 임파워먼트를 향한 첫 걸음이다”라고 하였다. 그의 철학을 지역화한 교수법인 리플렉트는 단순히 글을 깨치는 것에 중점을 두지 않는다. 알파벳부터 배우는 아동 교수법과 달리 언어를 먼저 배우고 모음, 자음 순으로 배우는 방식으로, 실생활에 필요한 것을 위주로 배우으로써 성인들의 흥미를 일으킨다. 이 교수법은 현지 APENF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1차로 각 부족이 사용하는 모국어 가르친 후, 2차로 프랑스어를 가르치는 2중 언어 교육이 문맹퇴치사업의 내용이다. 대상자들은 3R(Read, wRite, aRithmetic), 즉, 읽기, 쓰기, 셈하기 뿐 아니라 시계 보기, 문화, 생산 및 판매 등의 실생활과 관련된 기초적인 지식을 교육받는다.

값아 사업은 이미 APENF에서 진행하는 문맹퇴치사업을 그대로 반영하였으며, 거기에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기술교육과 소액대출을 함께 포함했다. 약 6년 동안의 문해교육을 받은 그들에게 문해교육의 의미에 대해 인터뷰를 했을 때, 글을 깨우치고 나니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하였다.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을 공책에 적어 놓을 수 있게 되어서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였다.

● 1000수 계사: 한 번에 1,000마리의 병아리를 키울 수 있는 대규모의 계사.
 ●● 100수 계사: 한 번에 100마리의 병아리를 키울 수 있는 소규모의 계사.
 ●●● 부세 볼로고 마을의 경우는 22년도 데이터가 포함되지 않고 보고서가 전달되어서 그 수가 누락되었지만 세 지역 중 부세 지역이 가장 양계활동을 잘 했던 곳이기때 가장적인 문제로 못하고 있는 가구를 제외한 가구는 22년도에 대부분 양계활동을 했으리라 판단된다.

그들은 계획에 머무르지 않았다. 돈을 빌려서 사업을 시작하였다. 그것이 바로 양계협동조합 사업이다. 양계는 소나 양의 가족보다 크기가 작고 회기가 빨라서 여성이 수익을 내기에 적합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슬림 국가에서 누구나 소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닭고기였기에,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양계사업에 참여한 여성농민들은 몇 개월 안 돼서 수익을 창출하게 되었다. 어떤 이는 이렇게 큰 돈을 생애 처음 만져본다고 하였다. 가족들도 눈이 동그해졌다. 남편들은 처음에는 별 반응이 없다가 막상 아내가 돈을 버니 급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이다. 무거운 사료를 사러 갈 때는 오토바이로 직접 실어다 주었고, 계사가 다른 짐승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만들어 주기도 했다. 닭을 판매할 때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장에 가져다 주었다. 자녀들은 모이와 물을 주며 병아리들을 보살폈다. 이렇게 가족들의 도움을 받은 여성 양계인들은 더욱더 활발하게 양계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돈을 벌게 되자, 그들의 소비생활도 이전과 달라졌다. 전적으로 남편에게 의지하여 살아갔던 여성들은 이제 자유롭게 시장에 가서 장을 볼 수 있었고, 자녀들을 위해서 학교생활에 필요한 물건이나 옷을 샀으며, 고등교육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처음 글을 배울 때는 미처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지금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매 사업 평가회 때마다 각 마을관리자는 참가 농민으로부터 인터뷰한 내용을 발표하고 지역별 평가회 보고서로 그 내용을 기록했다. 지금까지 수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중 마담 상가레의 이야기가 가장 인상적이다. 그녀는 첫 해부터 우수양계활동가로 선발되었으며, 2019년 총 수익 금액 431,426 프랑세파(한화 약 906,000원)로 가장 높은 수익을 낸 장본인이다. 이제 자타 '양계 박사'로 불리는 그녀의 스토리를 들어보면 그녀가 이 사업을 통하여 자신감과 힘, 그리고 삶의 변화를 어떻게 이루어냈는지 알 수 있다.

마담 상가레 사라타(Mme. Sangaré Sarata) 이야기

<p>나는 세 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데 남편이 떠나간 후부터는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이 두렵고 무서웠다. 계속 숨으려고만 했고, 밖으로 나갈 용기가 없었다. 그러다 우연히 문해교육을 접하게 되면서, 서서히 세상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었고, 6년 동안 꾸준히 지역어와 프랑스어를 공부하였다.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 또 다른 기회가 주어졌다. 바로 마르카 사업에 동참할 수 있던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 당시 이 기회가 나의 삶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p> <p>2017년도 마르카의 지원을 받아 100마리의 병아리로 양계를 시작할 수 있었다. 나는 마르카에서 제공하는 양계기술교육을 하나도 빠짐없이 열심히 듣고 공책에 필기를 하였다. 몸이 아파도 꼭 참석하였고 신중하고 열심히 수업에 임했다. 이뿐만 아니라 나는 다른 양계기술교육도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들었다. 그래서 지금은 자격증이 두 개나 있다.</p> <p>2019년 올해 총 750마리를 판매했으며 그 수익금으로 모든 대출금을 갚을 수 있었다. 그리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났으며 가족들을 지원해 줄 수 있게</p>	<p>되었다. 자녀들이 하고 싶어 하는 고등교육도 시킬 수 있게 되었다. 예전에는 하루 두 끼 먹는 것도 힘들었지만, 지금은 세 끼는 물론 식사 후 과일도 식탁에 올릴 정도로, 우리 가족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p> <p>나와 우리 가족이 지금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주변의 도움 덕분이다. 나는 이 도움을 조금이나마 갚기 위해서 부모가 없는 아이를 입양하여 보살피며 학교에 보내고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도 도움을 환원하고자, 지금까지 배운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 양계기술강사가 되어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 한국의 양계기술을 전수하고 싶다.</p> <p>이 자리에서 그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나처럼 양계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단 하나이다.</p> <p>“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값진 일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하세요. 저에게 닭들은 제 자식과도 같습니다. 저는 그들을 무척이나 사랑합니다.”</p>
--	---

4. '비차별' 원칙 적용 과정 및 성과

EWB가 지구상에서 소외된 나라인 부르크나파소에 관심을 가진 것부터 비차별을 고려한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2023년 6월에 NRC는 2022년도 한 해 동안 이주 위기 문제로 세계에서 가장 소외된 나라 1위부터 10위를 발표하였는데, 1위가 부르크나파소다. 뿐만 아니라 유엔에서 발표한, 2022년 한 해 동안 테러가 가장 많이 발생한 나라 순위에서 부르크나파소가 아프카니스탄 다음으로 2위를 차지했다. 부르크나파소에서는 2022년 한 해 310번의 테러 사고가 있었다. 거의 매일 일어나는 테러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고, 마을을 점령당해 테전을 잃은 난민들이 속출하지만 정착 부르크나파소는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하고 있다.

EWB는 그러한 나라에 2007년 단체 설립 때부터 관심을 기울여, 2010년도부터 값싸 사업을, 2017년에는 마르카 사업을 이어서 진행하였다. 그 중에서도 비문해자와 문해자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문해교육부터 시작하였다. 대부분의 비문해자는 농촌의 여성이었다. 그들은 비문해자이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지역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차별을 받는 존재였다. EWB는 사업의 주 참가자를 농촌여성으로 선정하여 그들에게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하였고, 그것으로 기술교육을 익혀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이제 그들은 스스로 소득을 창출하며 차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참여', '임파워먼트', '비차별' 적용 위기와 해결

비협조적인 가족의 태도에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다!

그러나 사업에 참여한 모든 여성들이 다 좋은 결과를 내지는 못했다.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성의 역량 강화 즉, 여성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것이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다. 여성보다 남성 중심적 문화였던 부르키나파소는 여성은 남성 앞에서 수동적이고 의존적이었다. 실제로 시장조사를 위해서 마을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갔을 때, 여성들이 많이 모여 있었지만 그들은 말을 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만 있었고, 대신 마을 족장이나 남자들만 말을 하거나 의견을 제시했다. 여성을 상대로 사업을 시작했을 때, 남편의 반대가 있어서 중간에 참여를 못하고 그만 두는 경우가 있었다. 처음에 계사를 지어준다고 하니 참여는 했지만, 대출금을 갚아야 하고 기사 보수공사가 필요하자,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 또 다른 참가자는 폭풍으로 기사 지붕이 날아가서 더 이상 양계활동을 못한다고 하였을 때, 대출을 받아서 지붕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했으나, 남편이 반대한다고 하였다. 협동조합 정기회의 시간에 이러한 사정을 듣고자 안건으로 상정되기도 했지만, 결국, 더 이상 도움을 줄 수 없다고 조합에서도 결론을 내렸다.

차별받는 계층을 끌어내서 참여를 시키고 스스로 힘을 갖게 하려고 했지만 주변의 영향으로 끝까지 가지 못한 이러한 사례가 있어 안타까웠지만, 향후 우리 사업이 해결해야 할 교훈이 되기도 하였다.

결론

아프리카 극빈 농촌 여성의 임파워먼트와 성평등의 실현!

2021년 말 경, 값아와 마르카 사업은 유엔 경제사회국(UN DESA)에서 UN SDG Good Practices(지속가능발전목표에 도달한 모범 사례)로 등재되었다. ● 유엔 전담기관 15곳은 이 사례가 SDGs 중 4개의 목표를 이루는데 부합한다고 선정하였다.

- Goal 1 : 부르키나파소의 시골 여성들에게 문맹 퇴치, 기술 훈련 및 소액 대출을 제공하여 빈곤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 Goal 4 : 농촌여성에게 양질의 문해교육을 제공한다.
- Goal 5 : 문맹 퇴치 및 가계 소득에 대한 재정적 기여 증가는 가정과 지역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를 높인다.
- Goal 8 : 창업비용이 낮은 자금류 사육은 여성과 소외된 농민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수입을 제공한다.

본 사업은 UN에서도 평가하였듯이 교육을 통하여 여성의 지위를 높이고 남성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여 가정 내에서는 물론 지역사회에서도 여성이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하였다. 결론적으로 배움을 통하여 여성 스스로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남성의 적극적인 반응을 이끌어내어 협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EWB에서 진행한 값아와 마르카 사업을 10년 넘게 꾸준히 이어오면서 여성농민의 변화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가정과 지역사회의 변화를 보았다. 그 변화의 불씨를 당긴 것은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문맹'에서 벗어나게 되자,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으며 그것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준 원동력이 아닐까 싶다. 마지막 사업평가회 때 참가자들의 10년 후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그 중 어떤 이는 땅을 사고 계사를 계속 늘려서 한 회기에 2천수가 넘는 규모의 양계사업가가 되어 있을 거라 하였고, 다른 어떤 이는 기사 사업을 크게 하여 지역사회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가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또 어떤 이는 양질의 사료를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여 이웃에게 질 좋은 사료를 제공하겠다고 하였다. 나는 그때 그들에게 약속을 하나 제안했다. 10년 후에 이곳에 다시 와서 오늘 한 말을 확인하겠다고 했더니 그들도 흔쾌히 약속하였다.

지금에서야 생각해보면 이 약속은 사업을 담당했던 외국인을 위한 것도 아니고 지원을 해준 다른 나라 사람들을 위한 것도 아닌 그들 스스로의 '꿈'과 한 약속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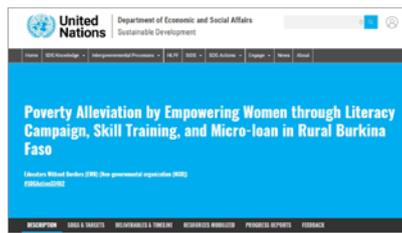
● 유엔 경제사회국(UN DESA)에 등재된 전문은 아래의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s://sdgs.un.org/partnerships/poverty-alleviation-empowering-women-through-literacy-campaign-skill-training-and>

라오스 소수부족 농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소득증대 사업

글로벌비전

참고문헌

- 1 UNDP 서울정책센터. (연도미상). 지속가능발전목표.
- 2 <https://www.undp.org/ko/seoul-policy-centre/sustainable-development-goals>
- 3 NRC(Norwegian Refugee Council). (2023). The world's most neglected displacement crises in 2022.
- 4 <https://www.nrc.no/globalassets/pdf/reports/neglected-2022/the-worlds-most-neglected-displacement-crisis-2022.pdf>
- 5 TRADING ECONOMICS. (2021). Burkina Faso GDP per capita.
- 6 <https://tradingeconomics.com/burkina-faso/gdp-per-capita>
- 7 WORLD BANK GROUP Climate Change Knowledge Portal For Development Practitioners and Policy Makers. (2021). COUNTRY Burkina Faso.
- 8 World Population Review. (2023). Hottest Countries in the World 2023.
- 9 <https://worldpopulationreview.com/country-rankings/hottest-countries-in-the-world>
- 10 Nations Encyclopedia. (2023). Burkina Faso.
- 11 <https://www.nationsencyclopedia.com/geography/Afghanistan-to-Comoros/Burkina-Faso.html#:~:text=The%20longest%20river%20in%20Burkina,in%20the%20central%20plateau%20region.>
- 12 <https://climateknowledgeportal.worldbank.org/country/burkina-faso/climate-data-historical>
- 13 유엔 경제사회국(UN DESA). (2021). Poverty Alleviation by Empowering Women through Literacy Campaign, Skill Training, and Micro-loan in Rural Burkina Faso. <https://sdgs.un.org/partnerships/poverty-alleviation-empowering-women-through-literacy-campaign-skill-training-and>
- 14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2022). Regional data and trends briefing kit: World malaria report 2022.
- 15 <https://cdn.who.int/media/docs/default-source/malaria/world-malaria-reports/world-malaria-report-2022-regional-briefing-kit-eng.pdf>
- 16 (사)국경없는교육개발. (2021). [국제기사]EWB, 유엔경제사회국 SDG 모범사례로 선정되다!
- 17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ewbkorea&logNo=222526492195&proxyReferer=%EC%97%90>



[사진 8]
유엔 경제사회국(UN DESA)에 갈아와 마르카 사업이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도달한 모범 사례로 등재된 메인 페이지

3

라오스 소수부족 농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소득증대 사업

글로벌비전

기관명	사단법인 글로벌비전
프로그램명	라오스 소수부족 농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소득증대 사업
사업목표	농업기술 향상을 통한 농가의 빈곤 감소, 농가의 자립역량 강화, 농업 가치사슬의 완성을 통한 지속가능 농업 시스템 구축
사업지역	라오스 싸이솜분 주 아누봉 군 싸이짚런 마을
사업기간	2020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3년)
주요 파트너 재정/실행/네트워크/평가 등	
재원협력 파트너	삼성 나눔과 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실행협력 파트너	싸이짚런 마을 인민위원회, 여성동맹/청년동맹, 가나안 농학교, 념땡 연구소, 굿파머스, 라오 국립 농림대, 밀크포라오(더 그린), 라오-코리안 컬리지 등
유관 SDGs	SDG 1.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SDG 8. 지속적·포괄적·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신혜영, 글로벌비전

글로벌비전에 입사하여 약 2년 간 본부에서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등 동남아시아 중점으로 사업 기획,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해당 소득증대 사업은 가장 먼저 맡게 된 라오스 사업으로 애정이 남다르다. 코로나 펜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1기 사업을 무사히 마무리했다.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국제개발협력 사업 수행을 지향하며, 꿈꿀 수 없는 이들이 꿈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일하고 있다.

기관 및 사업 소개

1. 기관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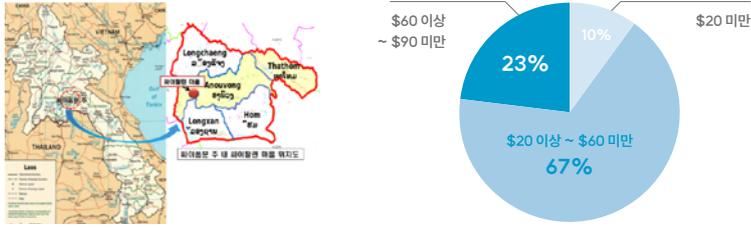
글로벌비전은 2007년도에 설립된 국제개발협력 NGO로서, '꿈꿀 수 없는 이들이 꿈꿀 수 있는 세상'을 미션으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오고 있다. 특히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 네팔,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아시아 6개국에서 아동의 권리 보장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중심의 해외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탄광촌 아동, 중도입국 청소년, 한부모 가정을 비롯한 국내 취약계층 지원 중심의 국내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외에도 복지시설 운영을 통한 사례지원과 각종 캠페인 활동을 통해 건강한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 및 인식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2. 사업 배경

글로벌비전은 2008년 라오스 지부를 설립하고, 청소년 대상 교육지원 사업을 진행하며 다수의 아동이 싸이짚런 마을 출신임을 알게 되었다. 싸이짚런은 라오스 북부의 싸이솜분 주 아누봉 군에 위치한 마을로, 수도 비엔티안으로부터 북동쪽으로 148km 떨어져있으며 주민의 70%는 크무족(소수부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7년 열대성 폭풍 "TALAS"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본 지역으로 지원이 필요한 빈곤지역임을 확인했다. 반짝이는 눈으로 거리를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위해 싸이짚런 마을에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건축하며 인연을 쌓게 되었다. 이후 우물 지원과 아동 교육 지원을 지속하며 마을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

동 마을은 도로가 포장되어 있지 않아 싸이솜분 주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 및 역량강화 등의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마을의 지리적인 특성은 주요 생계 수단인 농업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마을은 '헛하이'라는 고지대 지형으로, 작물이나 잡쌀 생산이 용이하지 않은 곳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급자족 하며 살아가는 이들은 잉여 생산물을 교환하거나 파는 수준에 그쳐 이를 통한 큰 수익원을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을 주민 중 150명을 무작위 추출해 조사한 결과, 마을 월 평균 소득은 약 45.9달러로 세계은행에서 제시한 기초빈곤선인 일일 1.9달러 보다도 낮은 1.53달러임을 알 수 있었다. 마을 내 빈곤선 이하의 가구는 약 77%를 차지하고 있었다. 마을 동사무소 문헌으로 알아본 마을 내 연령분포는 19~40세 청장년층이 약 40%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 중에는 일용직으로 이웃마을로 출퇴근하거나 주말에만 돌아오는 인원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마을 내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매해 청년층이 비엔티안 혹은 방비엥 도시 혹은 태국 등 타국으로 떠나고 있다고 했다. 이로 인해 마을 내 노동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의 심화가 우려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마을의 부실한 경제기반 구조를 탈피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해보았다.



라오스 지도

[표 1] 사이팔런 마을 월소득 조사결과(2019)



[그림 4] 까이랏



[그림 5] 하이브리드 품종



[그림 6] 초등학교 영양지원

인터뷰를 통해 마을 주민들은 안정된 일자리, 가계의 소득증대 등 마을 내에서 가계 수익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가정 내에서 사육할 수 있는 가축의 수를 늘리고 이를 통해 사업화하고자 하는 바람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민들이 사육을 선호하는 가축은 소와 닭이나, 사업의 규모와 기간을 고려했을 때 양계 사업을 통해 소득 창출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사업의 목표는 3가지였다. 첫째 농업기술 향상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 둘째 농가의 자립역량 강화, 셋째 농업가치사슬의 완성을 통한 지속가능 농업 시스템 구축. 단기성 사업이 아닌 지속성에 초점을 두고 주민들의 참여 욕구를 반영하여 사업을 꾸려나갔다. 농촌사회에 급격하게 충격을 주는 대형사업보다는 작은 마을에 소규모 임팩트를 주면서도 주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사업의 필요성을 실감했기 때문이다. 현지 주민의 경제력이나 기술력의 격차로 인해 발전되지 못하고 일회성 지원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많기에, 사이팔런 마을과 같은 산간지역에서 화전으로 인한 생태계의 영향을 줄이면서도 지역주민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경제력의 범위 내에서 작동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고자 노력했다.

3. 사업 내용

사업의 큰 줄기는 교육을 통한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양계 협동조합을 통한 소득증대 프로그램이다. 먼저 양계 조합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으로 기반을 닦았다. 농업교육센터(교실 1, 창고, 사무실)와 센터 양계장 1개(3칸), 그룹양계장 10개를 건축하였고, 1차년도에는 양계 교육 이수자 40가구를 대상으로 병아리 배분을 시작했다. 교육센터에서는 부화기를 통해 병아리를 부화시키며, 산란계를 사육해 유정란 공급 및 계란 판매가 가능하도록 구조화했다. 부화한 병아리는 그룹양계장에 배분하는 사이클을 만들고자 했다.



[그림 2] 교육센터



[그림 3] 유정란 부화기

처음 선정한 양계 품종은 '까이랏'이라는 라오스 토종닭이었다. 사이팔런 마을 주민들이 선호할 뿐만 아니라 라오스 식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식재료 중 하나로, 다리가 길고 몸통이 마른 것이 특징이다. 수입산에 비해 조류독감에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가격적인 면에서도 수입산에 비해 2배 이상 싸다. 그럼에도 전통 예식 등 중요한 행사에 재래종을 사용한다는 점으로 선호도를 파악하여 선정하게 되었다. 2차년도 특산품회 개발회의를 진행하며 다양한 현지 기관들과 연계·협력했고, 그 결과 하이브리드 품종 양계를 도입하게 되었다. 검은색을 띠는 해당 품종은 성장속도가 빨라 양계 생산 사이클을 가속화 할 수 있고, 육질은 까이랏과 비슷하며 계란에 단백질 함량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양계교육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주 생업인 참살농사와 그 외 종교교육, 옥수수 재배 교육을 포함한 농업교육을 진행했다. 인프라 구축 후 가장 활성화 되어야 할 2차년도 시점에 코로나 19로 인한 봉쇄 조치로, 양계 판매처 모색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으나 냉장설비를 도입하고, 코로나 관련 안전지침을 발빠르게 마련했다. 판매가 어려울 당시 사료비가 지속적으로 지출되자 센터 양계장에서는 사이팔런 마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영양지원을 위해 닭을 지급했고, 아이들은 환한 미소로 답했다. 더불어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집합을 최소화하였으며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을 의무화했다. 마스크 착용에 어색해 하면서도 "컵짜이(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하시던 주민 분이 기억에 남는다.

코로나 19가 완화되자 안타깝게도 3차년도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다. 곡물가는 폭등하고 양계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사료값은 동반상승했다. 이를 극복하고자 사료 직접 생산을 시도해보았다. 사료 기계 8대를 구비하였고, 사료 재료 중 하나인 옥수수를 재배했다. 옥수수 재배가 익숙지 않은 주민을 위해 추가 재배 교육을 진행하고, 양계 한 가지로는 안정적인 소득원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옥수수와 종묘(젝프루트, 아보카도, 용안류, 코코넛, 람부탄) 5종을 지원했다. 재배된 옥수수는 조합 내 전향 구매 후 양계 사료 및 판매되어 생산 및 자금의 안정성을 도모했다.

더불어 데이터의 중요성을 실감하며 재고관리시스템 프로그램을 자체 제작했다. 양계사업에는 다양한 사료와 백신, 약품이 들어가고 그룹별 폐사율과 사료요구율(FCR)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본부와 지부의 협업으로 프로그래밍 프로토타입을 개발했고, 라오-코리아 컬리지 연구센터를 통해 제작이 완료되었다. 센터 내 IT 기자재를 구축하여 전문성을 더하고자 했다. 현재 센터 직원은 해당 재고관리시스템 이용 교육을 받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취합하고 있다.

● 밀크포라오, 굿퍼머스, 가난한 농군학교, 아누봉군 농림부 영농조합 등
 ●● Feed Conversion Ratio

왜 협동조합일까? 협동조합이란 공동 소유한 사업체를 통해 구성원의 경제적 이익을 촉진하는 원칙을 바탕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해당 소득증대사업에 중요한 요소이며 사회적 자본을 토대로 경제적, 인간적 자본을 창출하며 지역에 기반하고 지역적으로 관리되는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최선의 비즈니스 모델이다. 기업은 소수의 인원이 지배구조를 이루어 책임소재가 집중되는 형태임에 반해, 조합은 운영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 조합원의 참여가 보장되며 정관에 따른 이익 배분처가 명확하고,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지역 주민간의 높은 연대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명확한 강점을 보인다.

해당 1기 사업 내, 그룹 양계장의 각 리더 약 10-18명은 협동조합의 정관과 운영 매뉴얼 제작을 위해 주도로 매월 조합회의를 진행하였고, 밀크포라오와 아누봉곤 농림부 영농조합 공무원을 통해 자문을 진행했다. XCPA(Xaychaluen Cooperative of Producing Agriculture)라는 이름으로 조합 로고를 제작하고 마케팅 컨설팅을 6회 진행하며 판매절차, 시장설문, 전락 등의 교육을 진행했다. 판매 현수막, 차량 랩핑, 양계 포장 비닐, 계란 라벨지, 전단지 등을 통해 브랜딩화를 진행했으며, 조합명으로 판매채널을 오픈하여 Facebook 광고를 진행하고 현지 신문을 통해 사업을 홍보했다. 3차년도 사업 종료 후 본격적인 판매를 기대하며 직거래 형태 판로를 취하고자 했다. 연말에는 조합원들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로고가 삽입된 단체 티셔츠를 착용하고, 발기인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본격적인 양계 조합 활동을 도모했다. 글로벌비전은 양계 협동조합을 통한 소득증대사업을 10년 장기 사업으로 기획하고 있다. 싸이팔런 마을의 자립 및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조합의 발전 단계에 초점을 맞추어 전략적으로 기획되었다.

[표 2] 장기사업 출구전략

기수	1기 사업	2기 사업	3기 사업
연도	2020년 ~ 2022년 (3개년)	2023년 ~ 2025년 (3개년)	2025년 ~ 2029년 (4개년)
단계	기초 조직화 및 조직 건설	조직 발전	조직 확대·확산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합 도입 양계 조합 연합체 활동 시장 네트워크 형성 소득증대 경험을 통한 적극적 동기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합 운영위원회 지도력 및 재무회계 역량 개발 조합원 가치사슬 참여 확대 생산성 증대 투입재 확대 및 접근성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 연대활동 및 비전 개발 조합원 수 및 조합활동 범위 확대 협동조합을 비롯한 다른 형태의 자조 조직이 만들어질 수 있는 지역공동체 사회구조 확립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계 기술/조합 기초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센터양계장, 교육센터, 그룹양계장 건축(18개) 아누봉곤 조합 접수증 발급 COVID19 위기 속 유연한 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합 심화교육을 통한 본격적 운영 (민주역량, 사회역량 개발) 대형 센터양계장(자연농법), 사료창고 건축 농산물 직판장 운영, 정기 납품 농업생산성 증대(양계/잡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비전의 자문 및 운영 보조 활동 추가 조합원 대상 그룹양계장 건축(확대) 자립 이후 선례로 삼아 유사 사업 확산



[그림 7] 차량랩핑



[그림 8] 페이스북



[그림 9] 발기인 대회

본 사업을 1기 사업(2020-2022)으로 기초 조직 건설의 단계에서 조합을 도입하고 연합체 활동을 진행해 왔다. 2기 사업(2023-2025)은 조직 발전 단계로서 조합 운영위원회의 지도력을 개발하고 조합원들의 가치사슬 참여를 확대하며 생산성 증대 및 투입재 확대와 접근성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조합 심화 교육을 통해 민주역량과 사회역량을 개발하여 본격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 3기 사업(2025-2029)은 조직 확대·확산 단계로 지역사회 연대활동과 비전을 개발하며 조합원 수와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협동조합을 비롯한 다른 형태의 자조조직이 만들어 질 수 있는 지역공동체 사회구조로 확립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지속성을 지닌 소득증대사업의 선례로 삼아 확산하고자 한다.

4. 사업 성과 SDG 목표/세부 목표별로 나누어 작성

SDGs 목표	SDGs 세부목표	사업 성과
SDG 1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1.1 2030년까지 현재 기준으로 하루에 \$1.25 미만으로 사는 절대빈곤 인구를 모든 곳에서 근절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 및 조합 교육, 양계 지원, 소득활동을 통해 가구 소득 및 생활 수준이 개선됨.
	1.2 2030년까지 국가별 정의에 따라 모든 측면에서 전 연령층의 남녀 및 아동의 빈곤 인구 비율을 최소한 절반으로 줄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참여를 통해 소득이 증가한 가구원 수는 192가구(100%)로 양계 판매 및 농업 생산성 증대를 통해 참여자 전원 소득이 증가함. 데이터 정확성을 위해 월 평균 수입과 지출을 조사해 비교함. 산출 결과, 일일 기준 1.53달러에서 2.1달러(2022년 기준, \$1=15,000Kip 적용)로 평균 약 137% 가계소득이 향상됨. 추가 수입은 식비, 의료비, 교육비 등 기초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항목에 지출됨.
SDG 8 지속적·포괄적·지속가능한 경제성장	8.4 2030년 내 소비와 생산에서 전세계 자원 효율성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선진국이 주도하여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관한 10년 계획'에 따라 경제성장이 환경악화로 연결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수부족, 청장년, 여성을 기준으로 사업대상자를 우선 선발하고 양계 협동조합을 통해 지역사회의 경제를 활성화 시킴. (참여자 구성: 소수부족 60%, 청장년층 60%, 여성 54%)
	8.6 2020년까지 교육 및 훈련에 참여하고 있지 않거나 실업 상태인 청년의 비율을 대폭 줄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2년 기준, 닭과 계란 판매를 통한 조합 수익은 147,886,000Kip(\$9,859)에 달함. 생산-유통-판매 중 한 차원으로서의 접근이 아닌 가치사슬 중 전체에 대해 통합적으로 접근하여, 사업의 효과성과 리스크를 관리함. 생산 단계에서 양질의 교육과 기초 인프라 지원으로 생산성을 보장함. 양계장 건축 및 백신 접종 지원으로 폐사율을 낮추고, 사료 정량 배급 교육 및 축사 관리 교육을 통해 효과적인 무계증량과 육질의 상성을 꾀함. 유통 단계에서 생산품을 관리하고 가공 및 유통하여 상품성을 향상시킴. 판매 단계에서 주민들이 자급자족으로 농사 및 방목 양계를 해왔음에도 시장과의 물리적 거리, 운송수단 부재, 도로 상황의 열악함, 판매처 모색 어려움 등의 이유로 현지 구조 상, 주민이 '시장'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조합을 통해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으며 조합단위에서 역할 분담을 통해 실제 시장에 접근하는 직거래 형태(판로)를 취함으로써 유통비용 절감 및 수익 증대를 추구함. 전문적인 형태의 양계사업은 지역 내 구매자에게도 높은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이익을 제공하여 그 효과성을 입증함. 더불어 출자금 적립 및 정기적 의결을 통한 권한 행사를 통해 단순 직무 위주의 활동이 아닌, 의사결정 주체로서의 활동을 유도했으며 조합원들은 편익 극대화 방안을 스스로 모색함.

'참여', '임파워먼트', '비차별'의 적용

1. 해당 원칙에 대한 기관의 이해

"꿈꿀 수 없는 이들이 꿈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듭니다." 글로벌비전의 핵심 미션이다. 우리 기관은 가난과 자 연재해, 경제적·사회적 차별로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아동, 가정, 지역사회가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 성장,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존재한다. 일시적 지원이 아닌 발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 미래를 개척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관의 철학과 가치를 두고 있다. 교육을 통해 차별받는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들의 참여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한다.

2. '참여' 원칙 적용 과정 및 성과

지역조사를 진행하며 싸이잘런 마을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대한 열망 뿐 아니라 새로운 소득 창출 방안을 모색할 자본금과 교육의 기회 부재로 자급자족을 통한 삶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발견했고, 이들과 논의와 협의를 통해 사업을 기획했다. 주민들은 일방적인 수혜대상이 아닌 사업을 함께 이끌어가는 참여자로서 기획단계부터 함께했다.

양계를 포함한 각종 농업 기술 교육을 진행하며 라오어로 교재가 제작되었고, 글을 읽지 못하는 주민들을 고려하여 교재에 그림을 삽입했다. 초기에 한국 전문가 파견으로 계획했으나, 통역을 거치면 집중도가 떨어진다라는 현지 의견을 반영하여 현지 전문가를 섭외하여 교육을 진행했다. 단순 이론 교육 뿐만 아니라 백신접종, 사료 제조 등 직접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은 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 평균 90점대를 달성하게 된 주요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양계활동과 조합회의를 진행하며, 소득증대에 있어서 농민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이슈 중 하나가 '판로'의 개척'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외부의 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직판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한다면 소득의 향상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결론을 함께 도출했다. 수직적 사업 수행이 아닌 마을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자발적 참여를 촉진했다.



[그림 10] 양계교육



[그림 11] 조합회의

사업 2차년도에는 코로나 19로 인해 라오스 시장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생필품 및 식품 중 중고가에 해당하는 육계의 소매는 급락하고, 도매판매의 경우, 대부분의 판로가 대도시인 비엔티엔, 방비엥에 위치해 있어 코로나 봉쇄 조치 시 판매가 불가하였다. 라오스 내 모든 사료는 수입에 전량 의존하는 구조인데, 인플레이션과 함께 곡물가가 폭등하면서 관련 사료 값 또한 동반 상승하는 이슈를 겪었다. 이와 관련하여 조합은 육계와 산란계 운영을 통해 지역 내 판로 확장 및 유지를 도모하고, 육계 가공 시, 위생밀봉 후 냉동 설비에 최대 1개월 간 보관하여 상품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러한 과정들이 모두 기관 차원이 아닌 조합회의를 통해 논의되고 결정되었다는 점에서 '참여' 원칙에 의의를 둘 수 있다.

지부 정기 모니터링(월별)과 본부 모니터링(반기 별)을 진행하며, 주인의식 제고를 위한 소통들이 참여를 촉진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더불어 모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1차년도 마을 내 건축된 교육센터에서 농번기를 피해 진행하고자 했으며, 회의 안전 제안 외 진행 방식은 자율 토크로 시작하였다. 또한 이들이 빈곤가구를 고려하여, 조합 출자금 납입 방식을 선 납입이 아닌 양계를 통한 수익에서 출자금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었다. 더불어 조직이 지배구조가 되지 않도록 조합원 1인당 1표를 행사할 수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참여 요소를 고려하였다.

Bounmee씨는 품꾼으로 고용되어 생계를 꾸려갔는데,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때는 산에서 나물을 캐다가 먹는 삶을 살았다. 소득증대 양계활동에 참여하면서 기존 대비 266.67% 월 소득이 증가하였고, 특히 자신의 땅이 없던 그는 개인의 땅이 없어도 그룹 양계장에서 체계적으로 닭을 기를 수 있어 매우 좋았다고 응답했다. 증가한 소득으로 자녀들에게 옷과 식량 등 생필품을 구매해줄 수 있었다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활동이 중단된터라 양계활동이 유일한 소득증대 활동이었고, 향후도 안정된 소득창출을 기대한다고 덧붙이며 해당 사업을 통해 더 나은 삶을 그리고 싶다고 전했다.

참여 지표 측정 결과		
참여	객관적	주관적
정량적	사업 누적 참여자 수 : 192가구 농업교육 • 1차년도 : 미진행 • 2차년도 : 2회, 75명 • 3차년도 : 8회, 80명 양계교육 • 1차년도 : 2회, 40명 • 2차년도 : 6회, 72명 • 3차년도 : 미진행	농업교육 만족도 조사 ● • 1차년도 : - • 2차년도 : 조사 미진행 • 3차년도 : 91.6점 양계교육 만족도 조사 • 1차년도 : 98.8점 • 2차년도 : 99.9점 • 3차년도 : -
정성적	• 사업 참여자 선정 시 가이드라인 존재 ●● • 정보의 접근성 : 라오어 교재 제작 • 의사결정과정에 참여 : 매월 조합회의 개최 • 자발적 행동 조직화 : 자체적 주 1회 소모임 개최	• 참여 동기: 추가 소득 창출을 통한 기계 월 수입 향상 • 참여 결과에 대한 사례: Bounmee씨 사례

● 만족도 조사 문항

- ① I am very satisfied with the activities that Global Vision has organized.
- ② The education and its topic helped me learn how to grow cereal/ how to make chicken feed/ how to manage my income.
- ③ I enjoyed the education in general.
- ④ I was satisfied with the education hall and food that the center provided to us.
- ⑤ I am willing to apply for this education again if the center host this education again.

●● "빈곤선 이하 수입을 가진 주민 중 소수부족, 청장년, 여성 손으로 우선 선발"

3. '임파워먼트' 원칙 적용 과정 및 성과

1~2차년도에 인프라 구축과 협동조합의 토대를 마련했다면 3차년도부터는 본격적인 조합등록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시간이었다. 조합과 기업 중 사업체의 형태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있었다. 주민들의 의견과 SWOT 분석을 통해 현재 규모에 조합이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조합 등록이라니 조금은 돌아가는 길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으나, 오랜기간 기다린 끝에 2022년 11월 10일, 아누봉군 최초로 조합 접수증을 발급받았다. 법인 정식 등록까지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조합의 자립과 운영의 체계화에 힘쓰며 양계 조합의 활동은 계속되고 있다.

조합 조직도가 구성되기 전 18개의 각 그룹(그룹 당 5~6명 구성, 그룹 양계장과 거주지 간 거리에 따라 그룹 구성) 리더들은 적극적으로 의사결정 활동을 리드했는데, 양계 질병 및 폐사의 문제점과 해결책, 조별 양계 방식 비교, 종량 방법, 정관규정, 차년도 계획 등 여러가지 사업 안건을 주제로 회의가 진행되었다. 그룹원과 그룹 리더들은 지역 주민간의 높은 연대감으로 신속하게 회의 내용을 전달하며, 조직단위 활동에 능숙해지고 있었다. 매 회의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통해 개인이 보유한 권한 행사를 확대해 나갔다. 마을 주민들은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방식이 익숙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빈곤층 가구원이 가족이 아닌 조합 운영을 위한 출자금 납입 의무를 인정하고 받아들여 이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조합원들이 스스로 가능한 금액인 20만킵으로 하한선을 정하였기에 조합 정관의 출자금 부분은 그 의미가 더 크다. 해당 출자금은 양계 판매를 통한 수익이 생긴 이후 납입하는 형태이다. 다만, 이러한 조합원의 임파워먼트 부문을 정량적 지표로 나타내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남았다.

"가족을 지원할만한 일자리가 생겨 감사해요. 그 전에는 찻살과 바나나 농사만 해왔는데 더운 날씨에 노동력이 너무 많이 투입되었어요. 양계는 상대적으로 3~4개월이면 판매가 가능해서 더 좋아요. 올해는 토양에 영양분이 부족해서 찻살 수확량이 줄었고, 이상 기후로 우기에 비가 오지 않다가 수확시기에 비가 왔어요. 또 종자를 심을 때는 비가 적게 와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양계 수익으로 자녀 학교를 보낼 수 있게 되었고, 의약품 구매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조합에 가입한 이후 여러가지 지식을 얻게 되었고, 스스로 양계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양계는 하나의 확실한 소득원이 되었습니다. 조합에 참여하고 닭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서 성공적으로 조합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거예요. 아직 조합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지만, 교육을 통해 조합에 대해 더 알고가고 싶어요."

2021년, 조합원 Phong씨 인터뷰(가명)

특히 사업 차원에서 월 1회 정기 조합회의를 진행한 것 외에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주 1회 소모임을 열어 양계 방식과 전망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는 것을 심층인터뷰를 통해 알게 되었다. 이들은 큰 성과라고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으나 사업 실무자 입장에서는 자립에 대한 토대가 마련되고 있는 것 같아 감동을 느낀 순간이었다. 양계 뿐만 아니라 거시적으로 마을의 발전에 대해 논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단순 조합 회의를 넘어서 마을 발전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발전했다는 점은 수직적 사업이 아닌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 의사와 참여를 반영하여 진행된 사업이라는 방증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로컬 거버넌스를 고려하게 되었다. 로컬 거버넌스란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이나 계획의 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모든 주체들이 참여하여 대등한 협력관계에서 토론을 거쳐 직접 결정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방식이다. ● 주민들이 행동가로서 주인공 정신을 갖고 능동적으로 참여했을 때 성과를 얻을 수 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소득증대사업으로 시작된 협동조합이 로컬 거버넌스를 고려한 방식을 채택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도모할 수 있겠다니 감개무량했다.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주민들이 물품 지원이 아닌 추가 교육을 요청했다는 점이 인상깊게 남아있다. "배운 것을 활용했더니 정말 생산량이 늘었어요. 내가 마을에서 가장 수확량이 좋은 사람일거예요. 유사한 교육을 더 많이 해주세요. 많이 배우고 싶어요."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모습이었다. 교육을 통한 역량강화의 효과성을 실감하던 순간이었다.

사업 참여자 뿐만 아니라 현지 직원들은 해당 사업을 통해 한국인 직원과 피드백을 주고 받으며 생산 관리, 회계, 사업 운영에 전반적인 역량이 강화되었다. 현지 양계 관리 직원은 '조합'이라는 운영체제에 적응하고 비지니스를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졌다고 응답했다. 또한 라오 국립 농림대학 실습생 2명이 사이팔런 마을 센터 양계장 내에서 주민들과 함께 활동했으며, 양계 실습을 통해 양계장 내 사육과 방목형을 비교하여 적합한 양계환경 및 사료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양계 전문가인 이들이 주민들에게 정보를 공유하며 역량을 강화했고, 이 중 한 명은 사업 종료 이후에도 센터 양계장에 머물며 근무하고 있다. 라오스 내 양계 사업 중인 밀크포라오●●, 굿파머스●●●, 가나안 농군학교●●●● 등의 연계 기관들과 함께 특산물 개발 회의 및 자문을 여러 차례 진행해왔다. 양계 질병이나 사료 배합 등 전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라오스 경제침체 상황 속에서 변화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라오스 내 소득증대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행사했다.

임파워먼트 지표 측정 결과		
임파워먼트	객관적	주관적
정량적	교육 횟수 조합회의 횟수 ● 1차년도 : 미진행 ● 2차년도 : 4회 ● 3차년도 : 12회 조합교육 횟수 ● 1차년도 : 미진행 ● 2차년도 : 2회 ● 3차년도 : 2회	조합교육 만족도 조사 ● 1차년도 : - ● 2차년도 : 91.9점 ● 3차년도 : 90.6점 역량 향상 정도 : 심층인터뷰 사회적 임파워먼트(자존감, 효능감, 신뢰, 의사결정 정도) : 심층 인터뷰
정성적	경제적 임파워먼트 : 협동조합 정관 및 운영매뉴얼 완성, 협동조합 접수증 발급	정치적 임파워먼트(주민 중심 거버넌스 사례)



[그림 12] 조합원

- 정세욱, 로컬 거버넌스와 지역사회발전, 지방자치정보_172호
- 밀크포라오 : 양계 환경 및 사료 투입량 논의
- 굿파머스 : 양계 질병 및 치료 논의
- 가나안 농군학교 : 하이브리드 품종 병아리 납품 및 자체 사료 제조 논의

4. '비차별' 원칙 적용 과정 및 성과

싸이짚런 동장, 총무, 청년동맹 대표가 함께 사업설명회를 진행하여 협조를 받아 기초선 조사 실시 후, 빈곤선 이하 수입을 가진 주민 중 소수부족, 청장년, 여성을 중심으로 선발하기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현지에 공유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3년간 누적 192가구를 지원했다.

또한 소수부족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일환 중 하나로, 글로벌비전 현지 직원 4인 중 3인을 크무족(소수부족)으로 구성했으며, 그중 1명은 해당 사업 현지 PM으로 근무했다. 특히 표준 라오어와 크무어가 다른 상황에서 현지 PM이 크무어로 소통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일조했다고 할 수 있다.

비차별 지표 측정 결과		
비차별	객관적	주관적
정량적	취약 계층 수/비율(빈곤, 소수부족, 나이, 성별) • 192가구 전원 빈곤선 이하 가구 선정 • 크무족(소수부족) 60%, 라오롱족 40% • 청장년층 60% 구성 • 여성 103명, 남성 89명 스태프 중 취약 계층 수 1명	-
정성적	-	-

'참여', '임파워먼트', '비차별' 적용 위기와 해결

해당 사업은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한 사업이었기에 역량이 강화된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소득증대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상 협동조합 법인 등록에 어려움이 있으며 접수증 발급 이후 상황이 호전되길 기대하고 있는 상태라는 점에서 그 한계를 갖는다. 라오스 내 타 지역에서 협동조합 등록이 된 사례가 있음을 전달하며 지속적으로 아누봉 군에 법인 등록을 요청하고 있다. 현지에서 법인 등록 없이 생산이나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 지속은 가능하나 완전한 자립을 위해 조합의 법인등록을 완료하고자 한다.

국가의 특성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조합회의 시간 조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농사 시간을 피한 19시 이후 또는 모두가 쉬는 일요일 진행이 가장 이상적인 시간대였으나, 현지 PM이 조합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성과물을 제출해야하는 프로젝트 사업의 특성 상, 늦은 시간이거나 일요일 진행은 어려웠다는 한계가 있었다.

한편 주민들의 욕구에 기반한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난관 속에서 조합원들의 참여에 동기부여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양계 판매 후 수익을 얻는데까지 시간이 소요되며, 코로나 봉쇄로 인한 판매 저조 및 곡물가 상승으로 인한 사료비 폭등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더불어 개인 양계장이 아닌 그룹별 양계장을 운영했기 때문에 책임의식을 고취시키는 것 또한 사업의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생업이 농업인 주민들의 특성 상, 농번기에도 양계장 관리를 소홀히 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지속적인 조합회의와 교육을 통해 전달했다. 또한 일방적인 지원은 주민의식에 저해

된다는 판단 하에 양계 판매 후 수익에서 사료비를 제하고 조합원이 돌려받는 것으로 논의되었다. 이를 통해 사료 과다 투입을 방지하고 양계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사료요구율(FCR)을 조절할 수 있었다. 더불어 금융지식 개선, 수익배분, 기자재 및 시설 재투자, 지역 환원과 관련된 내용으로 금융교육을 병행하고, 정관에 출자금 적립 및 일부 지역사회를 위한 비용 투자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모색했다. 이러한 노력은 그들의 주체적인 삶을 위한 것으로, 생산 협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궁극적으로는 농촌지역의 자립을 지향하고자 했다.



[그림 13] 비엔티안 타임즈_금융교육

자립 역량강화를 목표로 하는 본 사업을 진행하며 '참여'와 '임파워먼트'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였다. 사업 초반에 "이 사업의 리더는 누구인가요?"라는 질문에 마을 리더 혹은 글로벌비전을 가리켰던 마을 주민분들이 현재는 "제가 리더입니다."라고 정확히 응답한다. 교육과 경험을 통해 역량강화 된 조합원들이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주체적인 리더로 거듭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사업을 진행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소통'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주민 욕구에 기반한 사업이었다고 하나, 코로나 19로 인한 봉쇄 조치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곡물 가격 폭등, 인플레이션 발생까지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 속에서 소통마저 원활하지 않았다면 사업을 이어가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마을 내 초등학교 건축을 인연으로 사이좋게 마을과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고, 현지어가 능숙하신 지부장님과 현지 직원들의 진심어린 소통으로 기관에 대한 신뢰를 쌓아왔다. 조합원들은 현지 직원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문제상황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논의했다. 뿐만 아니라 라오스 내 다양한 연계 기관들은 양계 사업에 자문을 아끼지 않았다. 이처럼 주민과 현지 직원, 본부와 지부, 연계 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소통과 좋은 관계는 성과를 달성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1기 사업이 종료되고 2기 사업이 한창인 지금, 임파워먼트 강화를 목적으로 조합운영위원회를 조직했으며, 조합원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우수 조합원에게 추가 가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조합세미나 개최를 통해 연단위로 조합 운영 및 회계 사안을 공유하여, 운영위원회 뿐만 아니라 조합원 모두가 공동의 이익이 개인의 이익과 동일화됨을 깨달아가며 협동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한다. 더불어 농업기술 공유의 장을 열기 위해 농업 세미나 개최가 예정되어 있다. 1기 사업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조합원들의 리드 하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조직을 발전시켜 갈 계획이다. 자립을 최종 목표로 하는 사업인 만큼 참여를 독려하고 임파워먼트를 강화하기 위한 역량강화 교육이 준비되어 있으며, 비차별 요소를 고려하여 2기 사업 참여자 중 소수부족 비율을 85%로 구성하고 있다. 현재는 방비엥 시장이 재개되고 관광객이 증가하며 양계 판매에 긍정적인 전망을 보이고 있다. 사이잘런 마을의 소수부족 빈곤 농민들이 자립하여 조합 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발전으로 확대하고, 꿈꿀 수 없는 이들이 꿈꿀 수 있도록 글로벌비전이 함께하고자 한다.

말라위 중부지역 지속가능농업 및 조합 가치 사슬 개선을 통한 소득증대 사업

굿네이버스

4

말라위 중부지역 지속가능농업 및 조합 가치 사슬 개선을 통한 소득증대사업

굿네이버스

기관명	굿네이버스
프로그램명	말라위 중부지역 지속가능농업 및 조합 가치 사슬 개선을 통한 소득증대사업(소농가 지원 프로젝트)
사업목표	지속가능농업 및 조합 가치사슬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소득증대
사업지역	말라위 중부지역 카송구 지역 (굿네이버스 사업지역)
사업기간	2018.01.01 ~ 2023.12.31 (6년)
주요 파트너 재정/실행/네트워크/평가 등	
재원협력 파트너	한국국제협력단(KOICA)
실행협력 파트너	굿네이버스 말라위
평가협력 파트너	서울대학교 국제농업기술대학원
유관 SDGs	SDG 1, 2, 8



노성채 PM, 굿네이버스

대학생활 중 아프리카의 절대적 빈곤의 문제를 알게 되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4년에 굿네이버스에 입사하여 개발협력 일을 하고 있다. 2018년도부터 말라위에서 KOICA 민관협력사업 PM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감사하게도 사업을 통해 좋은 변화를 경험하는 농가를 많이 만날 수 있었다. 사업 대상자가 NGO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고, 스스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서, 굿네이버스의 도움 없이도 자립해 나가는 모습을 볼 때면 늘 보람을 느끼고 행복하다.

기관 및 사업 소개

1. 굿네이버스의 기관 소개

굿네이버스는 1991년 한국에서 설립된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이며, “굿네이버스는 굶주림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 굿네이버스는 빈곤과 재난과 억압으로 고통 받는 이웃의 인권을 존중하며 그들이 희망을 갖도록 복돋우어 자립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는 사명을 바탕으로 해외 42개국에서 지역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아동권리보호 및 지역사회 자립에 앞장서고 있다.

2. 사업 배경

사업 지역의 높은 빈곤율 | 말라위는 전체 인구의 51%가 빈곤선 아래에 위치하고 2018년 기준 인간개발 지수가 전체 189개국 중 172위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이다. 또한, 인구의 84%가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도농 간 빈부격차가 매우 크며, 사업 대상 지역인 중부지역(Central Region)의 빈곤율은 47.5%로 높은 상황이다.●

농산물의 낮은 시장 경쟁력 | 말라위 소농가는 △ 가져분소득 부족, △ 운송 수단 부족, △ 수확 후 관리 인프라 부족으로 수확 후 즉시 중개상인들에게 수확물을 판매하는 경향을 보이며●●, 또한, △ 수확 후 관리 기술 부족으로 수확 후 손실률이 20%에 이르며, 이는 판매 물량의 감소뿐 아니라 품질 저하로 이어져 수확물의 판매 경쟁력을 낮춘다.

불합리한 곡물 유통 구조 | 말라위 전체 곡물 생산의 85%가 소농가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곡물 유통 시장이 소농가에 불리하게 형성되어 있다.●●● 이는 △ 중개상인의 불공정한 거래와 △ 높은 가격 변동성(2019년 기준 중부지역 평균 가격 변동률 46.5%●●●●)에 기인하며, 정부의 최소 가격 정책 및 수출 금지 등 비효율적 시장개입과 COVID-19 등 내·외부적 요인도 가격 변동성에 큰 영향을 줬다.

3. 사업 내용●●●●●

굿네이버스는 말라위 카송구 지역의 빈곤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에 영농투입물을 제공하여 옥수수 생산량을 늘리고, 지속가능 농업과 퇴비를 지원하여 장기적으로 토양의 질을 개선하고자 한다. 또한 조합을 통해 곡물 판매 물량을 증대시켜 규모의 경제 효과를 높이고, 이를 통해 조합의 가격 협상력을 높여 시장 접근성

● Malawi National Vulnerability Assessment Committee, Malawi Baseline Livelihood Profiles. 2016
 ●● FAO, Agri-food Analysis of Malawi maize for Agri-food System, 2014
 ●●● IFPRI, Structure, Conduct and performance of maize markets in malawi, 2019
 ●●●● IFPRI, Structure, Conduct and performance of maize markets in malawi, 2019
 ●●●● 사업 소개 동영상
 영어 버전 : <https://www.youtube.com/watch?v=Mle6Db69TOA>
 한국어 버전 : <https://www.youtube.com/watch?v=Ws4L0C3gpjA>
 KOICA 평가 영상(한국어) <https://www.youtube.com/watch?v=guQpLlkd2sg>
 KOICA 평가 영상(영어) <https://www.youtube.com/watch?v=9HT4YESGq8E>

을 높일 수 있게 한다. 그리고 곡물 유통 사회적기업을 운영하여 시장에 바로 진출하기 어려운 조합의 곡물을 구매하며, 이를 통해 조합원의 소득을 높이고 또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게 돕는다. 이를 통해 사업 대상자가 농업 활동을 통해 소득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4. 사업 성과

SDGs 목표	SDGs 세부목표	사업 성과																																																																																								
SDG 1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p>1.1 2030년까지 현재 기준으로 하루에 \$1.25 미만으로 사는 절대빈곤 인구를 모든 곳에서 근절한다.</p> <p>1.2 2030년까지, 국가별 정의에 따라 모든 측면에서 전 연령층의 남녀 및 아동의 빈곤 인구 비율을 최소한 절반으로 줄인다.</p> <p>1.4 2030년까지 모든 남녀, 특히 빈곤층 및 취약계층이 동등하게 경제적 자원 활용 및 기초서비스에 접근하고, 토지 및 기타 유형의 자산, 유산, 천연자원, 적정 신(新)기술, 소액 금융을 포함한 금융서비스에 관한 동등한 옹호권과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p>	<p>1. 사업 참여 대상자 사업 성과(2018-2023)</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18/19</th> <th>19/20</th> <th>20/21</th> <th>21/22</th> <th>22/23</th> </tr> </thead> <tbody> <tr> <td>영농투입물 배분 받은 농가 수</td> <td>300</td> <td>300</td> <td>460</td> <td>676</td> <td>746</td> </tr> <tr> <td>수확에 성공한 농가 수</td> <td>260</td> <td>300</td> <td>455</td> <td>609</td> <td>733</td> </tr> <tr> <td>수확 성공 농가 비율</td> <td>87%</td> <td>100%</td> <td>99%</td> <td>90%</td> <td>98%</td> </tr> <tr> <td>소득 확보에 성공한 농가 수</td> <td>243</td> <td>284</td> <td>451</td> <td>607</td> <td>722</td> </tr> <tr> <td>소득 확보 성공 농가 비율</td> <td>81%</td> <td>95%</td> <td>98%</td> <td>90%</td> <td>97%</td> </tr> <tr> <td>인당 평균 옥수수 생산량 (0.5에이커 기준)</td> <td>601kg</td> <td>606kg</td> <td>886kg</td> <td>508kg</td> <td>815kg</td> </tr> <tr> <td>연간 평균 추가 소득(가구당)</td> <td>\$99</td> <td>\$77</td> <td>\$93</td> <td>\$68</td> <td>\$182</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right;">출처 : 굿네이버스 내부자료</p> <p>2. 사업참여 여부에 따른 생산량 및 소득 증대 결과</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조사시기</th> <th>참여그룹</th> <th>대조그룹</th> </tr> </thead> <tbody> <tr> <td>에이커당 옥수수 생산량</td> <td>기초선(2018)</td> <td>563.3kg</td> <td>519.8kg</td> </tr> <tr> <td></td> <td>종료선(2020)</td> <td>828.1kg</td> <td>714.4kg</td> </tr> <tr> <td>연평균 소득(\$)</td> <td>기초선(2018)</td> <td>\$442</td> <td>\$579</td> </tr> <tr> <td></td> <td>종료선(2020)</td> <td>\$681</td> <td>\$510</td> </tr> <tr> <td>옥수수 판매에 따른 연 평균 소득(\$)</td> <td>기초선(2018)</td> <td>\$38</td> <td>\$81</td> </tr> <tr> <td></td> <td>종료선(2020)</td> <td>\$154</td> <td>\$63</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right;">출처 : KOICA 민관협력사업 종료평가보고서</p> <p>3. 조합의 소액 금융을 위한 회전기금</p> <table border="1"> <thead> <tr> <th></th> <th>18/19</th> <th>19/20</th> <th>20/21</th> <th>21/22</th> <th>22/23</th> </tr> </thead> <tbody> <tr> <td></td> <td>\$16,065</td> <td>\$32,402</td> <td>\$46,128</td> <td>\$69,374</td> <td>\$109,217</td> </tr> </tbody> </table>	구분	18/19	19/20	20/21	21/22	22/23	영농투입물 배분 받은 농가 수	300	300	460	676	746	수확에 성공한 농가 수	260	300	455	609	733	수확 성공 농가 비율	87%	100%	99%	90%	98%	소득 확보에 성공한 농가 수	243	284	451	607	722	소득 확보 성공 농가 비율	81%	95%	98%	90%	97%	인당 평균 옥수수 생산량 (0.5에이커 기준)	601kg	606kg	886kg	508kg	815kg	연간 평균 추가 소득(가구당)	\$99	\$77	\$93	\$68	\$182	구분	조사시기	참여그룹	대조그룹	에이커당 옥수수 생산량	기초선(2018)	563.3kg	519.8kg		종료선(2020)	828.1kg	714.4kg	연평균 소득(\$)	기초선(2018)	\$442	\$579		종료선(2020)	\$681	\$510	옥수수 판매에 따른 연 평균 소득(\$)	기초선(2018)	\$38	\$81		종료선(2020)	\$154	\$63		18/19	19/20	20/21	21/22	22/23		\$16,065	\$32,402	\$46,128	\$69,374	\$109,217
구분	18/19	19/20	20/21	21/22	22/23																																																																																					
영농투입물 배분 받은 농가 수	300	300	460	676	746																																																																																					
수확에 성공한 농가 수	260	300	455	609	733																																																																																					
수확 성공 농가 비율	87%	100%	99%	90%	98%																																																																																					
소득 확보에 성공한 농가 수	243	284	451	607	722																																																																																					
소득 확보 성공 농가 비율	81%	95%	98%	90%	97%																																																																																					
인당 평균 옥수수 생산량 (0.5에이커 기준)	601kg	606kg	886kg	508kg	815kg																																																																																					
연간 평균 추가 소득(가구당)	\$99	\$77	\$93	\$68	\$182																																																																																					
구분	조사시기	참여그룹	대조그룹																																																																																							
에이커당 옥수수 생산량	기초선(2018)	563.3kg	519.8kg																																																																																							
	종료선(2020)	828.1kg	714.4kg																																																																																							
연평균 소득(\$)	기초선(2018)	\$442	\$579																																																																																							
	종료선(2020)	\$681	\$510																																																																																							
옥수수 판매에 따른 연 평균 소득(\$)	기초선(2018)	\$38	\$81																																																																																							
	종료선(2020)	\$154	\$63																																																																																							
	18/19	19/20	20/21	21/22	22/23																																																																																					
	\$16,065	\$32,402	\$46,128	\$69,374	\$109,217																																																																																					
SDG 2 기아해소, 식량안보 확보 및 지속가능 농업발전	<p>2.1 2030년까지 기아를 종식하고, 빈곤층과 취약계층, 영양아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일반 내내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충분한 식량에 대한 접근을 보장한다.</p> <p>2.3 2030년까지 토지 및 기타 생산자원과 투입재, 지식, 금융서비스, 시장과 부가가치 및 비농업 부문 고용 기회에 대한 안정적이고 평등한 접근성 확보를 통해 소규모 식량 생산자, 특히, 여성, 선주민, 가족농, 목축민, 어민 등의 농업 생산성과 소득을 2배로 증대한다.</p>	<p>1. 식량 안보</p> <p>1) Coping Strategy Index(CSI): 식량 부족 시 가구에서 받는 스트레스 정도</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조사시기</th> <th>참여그룹</th> <th>대조그룹</th> </tr> </thead> <tbody> <tr> <td>CSI(Coping Strategy Index) 평균 점수</td> <td>기초선(2018)</td> <td>1.82</td> <td>1.42</td> </tr> <tr> <td></td> <td>종료선(2020)</td> <td>1.32</td> <td>1.41</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right;">출처 : KOICA 민관협력사업 종료평가보고서</p> <p>2) 식량 비축 평균 기간</p> <table border="1"> <thead> <tr> <th>연도</th> <th>평균기간</th> <th>표준편차</th> </tr> </thead> <tbody> <tr> <td>2016</td> <td>7.14개월</td> <td>2.67</td> </tr> <tr> <td>2017</td> <td>7.66개월</td> <td>2.67</td> </tr> <tr> <td>2018</td> <td>6.9개월</td> <td>2.71</td> </tr> <tr> <td>2019</td> <td>7.28개월</td> <td>2.60</td> </tr> <tr> <td>2020</td> <td>7.8개월</td> <td>3.60</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right;">출처 : KOICA 민관협력사업 종료평가보고서</p>	구분	조사시기	참여그룹	대조그룹	CSI(Coping Strategy Index) 평균 점수	기초선(2018)	1.82	1.42		종료선(2020)	1.32	1.41	연도	평균기간	표준편차	2016	7.14개월	2.67	2017	7.66개월	2.67	2018	6.9개월	2.71	2019	7.28개월	2.60	2020	7.8개월	3.60																																																										
구분	조사시기	참여그룹	대조그룹																																																																																							
CSI(Coping Strategy Index) 평균 점수	기초선(2018)	1.82	1.42																																																																																							
	종료선(2020)	1.32	1.41																																																																																							
연도	평균기간	표준편차																																																																																								
2016	7.14개월	2.67																																																																																								
2017	7.66개월	2.67																																																																																								
2018	6.9개월	2.71																																																																																								
2019	7.28개월	2.60																																																																																								
2020	7.8개월	3.60																																																																																								

SDGs 목표	SDGs 세부목표	사업 성과																							
SDG 2 기아해소, 식량안보 확보 및 지속가능 농업발전	<p>2.4 2030년까지 생산성과 생산을 증대하고 생태계 유지를 도우며 기후변화, 기상이변, 가뭄, 홍수 및 기타 재해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하고, 토지와 토질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키는 지속가능한 식량생산 시스템을 보장하고 복원력 있는 농업활동을 이행한다.</p>	<p>2. 지속 가능 농업</p> <p>1) 지속 가능 농업 교육을 받은 농가 수</p> <table border="1"> <thead> <tr> <th></th> <th>2018</th> <th>2019</th> <th>2020</th> <th>2021</th> <th>2022</th> <th>2023</th> </tr> </thead> <tbody> <tr> <td></td> <td>297</td> <td>299</td> <td>160</td> <td>702</td> <td>582</td> <td>TBD</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right;">출처 : 굿네이버스 내부자료</p> <p>3. 토양 유기물 증가</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조사시기</th> <th>측정값</th> </tr> </thead> <tbody> <tr> <td>토양 유기물 함량(%)</td> <td>기초선(2018)</td> <td>1.43%</td> </tr> <tr> <td></td> <td>종료선(2020)</td> <td>1.51%</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right;">출처 : KOICA 민관협력사업 종료평가보고서</p>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97	299	160	702	582	TBD	구분	조사시기	측정값	토양 유기물 함량(%)	기초선(2018)	1.43%		종료선(2020)	1.51%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97	299	160	702	582	TBD																			
구분	조사시기	측정값																							
토양 유기물 함량(%)	기초선(2018)	1.43%																							
	종료선(2020)	1.51%																							
SDG 8 지속적, 포괄적,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생산적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p>8.3 생산 활동,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업이 정신, 창의성과 혁신을 지원하고,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포함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형성과 성장을 장려하는 개발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p>	<p>1. 사회적기업 현지직원 수</p> <table border="1"> <thead> <tr> <th></th> <th>2015</th> <th>2015</th> <th>2015</th> <th>2018</th> <th>2019</th> <th>2020</th> <th>2021</th> <th>2022</th> <th>2023</th> </tr> </thead> <tbody> <tr> <td></td> <td>1</td> <td>1</td> <td>1</td> <td>8</td> <td>8</td> <td>6</td> <td>3</td> <td>5</td> <td>5</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right;">출처 : FAIRWAY Enterprise 사회적기업 내부 자료</p>		2015	2015	2015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1	1	1	8	8	6	3	5	5			
	2015	2015	2015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1	1	1	8	8	6	3	5	5																

● 2022년 말라위 옥수수 생산량은 2021년 피충 후 비가 예상보다 늦게 오고, 장기간의 가뭄이 발생하여 최근 5년의 평균 생산량보다 14.88% 낮은 생산량을 기록하였음. 사업 지역인 카송구 지역 또한 평년보다 비가 늦게 오고 가뭄 등이 발생함에 따라 옥수수 생산량이 평년보다 감소하였음.

'참여', '임파워먼트', '비차별'의 적용

1. 해당 원칙에 대한 기관의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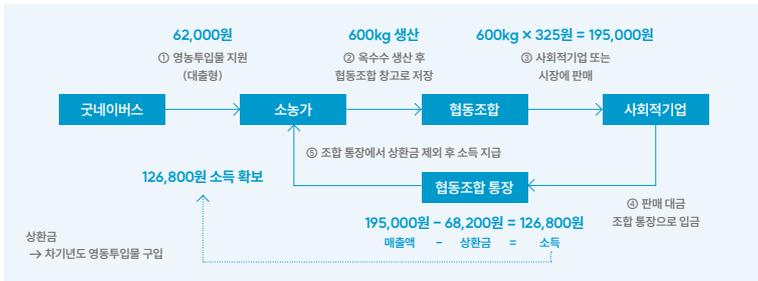
굿네이버스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역주민이 자립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간다. 굿네이버스는 사업이 수행되는 지역에서 그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이끌어내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자원봉사자, 파트너 및 지역위원회와 같은 조직화를 통해 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 또한 사업의 기획 과정부터 참여적 사정기법(Participatory Appraisal Process)●●을 활용하여 지역주민과 지역이 가진 역량을 활용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지역 개발위원회(CDC)●●●와의 총회, 회의를 통해 사업의 내용을 기획, 실행, 평가하며, 사업 기간 내 교육위원회, 식수위원회, 협동조합, CHW(Community Health Worker)●●● 등과 같은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여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사업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참여' 원칙 적용 과정 및 성과

1) 무상 지원이 아닌 대출형 프로그램을 통한 자립 강화

말라위에서 진행되는 소농가 지원 프로젝트는 소득증대에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지원하지 않고, 대출 형태로 지원한다. 이는 첫째, 사업에 대한 참여의지가 높은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함이고, 둘째, 사업대상자의 참여 적극성을 높여,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하고, 셋째, 프로젝트가 종료되더라도 지속적으로 해당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회전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무상 지원이 익숙한 지역 주민에게는 이러한 대출형 프로그램이 사업을 참여하는 데 있어 진입 장벽의 요소가 될 수 있다. 이에 2018년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에 취지와 목적을 전달하여 참여를 높이고자,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진행했다. 특별히 영농 투입물(비료와 옥수수 종자)을 대출 형태로 지원한다는 내용과 상황에 실패할 경우 사업에 계속 참여할 수 없는 원칙을 공유했다. 사업 초기에는 대출형 프로그램이라 참여율이 높지 않았으나, 사업을 통한 효과를 경험하고는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했다.

[그림 1] 영농 투입물 대출 프로그램*



2) 사업 대상자분들의 높은 사업 참여도

굿네이버스는 농가의 행동 변화는 ANALYZE-THINK-CHANGE가 아닌 SEE-FEEL-CHANGE의 순서로 변화된다는 행동 변화 접근법에 근거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농민분들이 실제로 “농사를 통해 소득이 확보되는 것을 경험하고(SEE/FEEL), 이를 통해 농업 및 조합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CHANGE)”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래서 사업 초기인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사업 대상자들이 농산물을 판매하여 소득을 확보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많은 지원을 했다. 비료 제공도 1차 비료를 나눠주고, 사용 여부를 확인한 후 비료 사용 농가에만 2차 비료를 제공했다. 또한 탈곡기를 지원해서 농가들이 옥수수를 바로 곡물수집소에 저장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굿네이버스와 농가들의 이러한 노력으로 곡물수집소에 저장된 옥수수를 좋은 가격에 판매하게 되었고, 농가는 농업 활동을 통해 소득을 확보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경험 이후 많은 농가는 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2018년 사업을 시작했을 당시에는 총 3개의 사업장에서 300명의 농가와 함께 사업을 시작했고, 이중 총 243명의 농가만이 대출 상환에 성공했다.(81% 상환율) 하지만 2019년도부터 사업의 효과를 확인한 농가들은 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이에 2019년도부터는 매년 90% 이상의 농가가 소득을 확보하여 상환에 성공하고 있다. 2023년의 경우 746명의 농가 중 722명의 농가가 소득 확보에 성공했다.(97% 상환율)

[그림 2] 프로젝트 주요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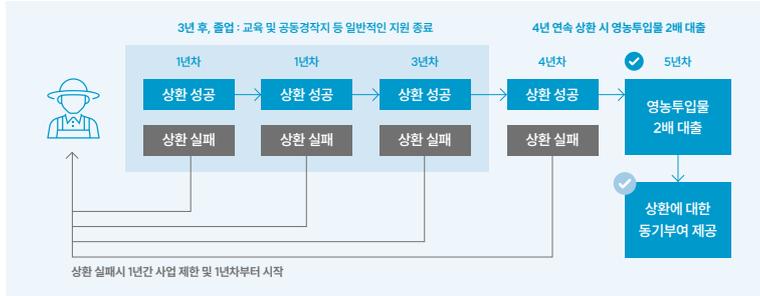


* 해당 그림과 같이 굿네이버스에서 농가에게 영농 투입물(비료 및 옥수수 종자)을 대출형으로 지원하면, 농가에서 생산 및 수확한 옥수수를 조합의 곡물수집소에 운송하여 저장한다. 조합은 곡물을 판매하고, 대출금을 제한 후 수익금을 조합원에게 지급한다.

- 굿네이버스 3대 사업 추진방향 중 네트워크
- Good Neighbors Participatory Appraisal Process(A comprehensive Assessment Guide)
- 지역개발위원회(CDC, Community Development Committee): 굿네이버스 지역개발사업을 담당하는 지역의 대표 조직
-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지역보건원으로 산모의 건강관리와 보건 인식개선에 힘쓰고, 안전한 출산을 지원한다.
- 굿네이버스 회전자금이란 지역 내에서 대출 및 상환, 자산가치 등의 방식을 통해 회전이 지역 내에 누적, 회전되므로 지역경제활동의 자원이 되는 예산이다.
- People in Need, Behaviour Change Toolki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practitioners (May, 2017), P3.

굿네이버스는 또한 4년 연속 상환한 농가에는 두 배의 영농투입물을 대출해 줌으로써 사업 대상자가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졸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4년 연속 상환을 하는 것은 불확실성이 높은 농업 사업에서 쉽지 않으며, 사업 기간에 COVID-19 상황 발생에 따라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2018년의 처음 사업에 참여한 300명의 농가 중 134명이 (44%) 4년 연속 상환에 성공하여 2022년에 두 배의 영농투입물을 받았다. 2023년에는 이 농가들이 지역사회 내를 모델이 되어 다른 농가들이 더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동기부여 하고 있다.

[그림 3] 영농 투입물 졸업 프로그램



3)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현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토론하여 결정하기보다는 제한된 기간 안에 결과물을 달성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프로젝트팀이 많은 것을 결정하게 되기도 한다. 하지만 굿네이버스는 사회경제적개발의 핵심 가치를 사업 운영 시 최대한 지키고자 하며, 사업 대상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8년에 한 농가에 NPK, UREA ● 비료를 각각 20kg씩 제공하였다. 2019년 농민분들과 사업 평가를 하는데 비료의 양이 너무 적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래서 “그럼 몇 kg을 원하세요?”라고 물어보니 35kg을 있어야 한다고 했다. 비료와 생산량은 비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프로젝트팀은 많은 토론 끝에 예산을 늘려 30kg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2020년에 농민들과 사업 평가를 하는데 이번에는 비료의 양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비료량이 많아지면 값이 낮아져서 실제 수익이 줄어드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논의해서 25kg을 제공하기로 했고, 2023년인 지금까지 25kg을 매년 제공하고 있다.



[사진 1] 조합과의 회의



[사진 2] 사업 관련 논의

“올해는 어떤 작물을 할까요?”	“곡물수집소 건축은 어디에 건축하나요?”
“계본을 원하나요, Mbeya ●● 퇴비를 원하나요?”,	“옥수수를 얼마에 판매할 건가요?”
“옥수수 종자는 어떤 종자를 할까요?”	“올해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올해 비료는 얼마나 필요한가요?”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까요?”

4) 우수 농가 및 우수 그룹 선정에 대한 불만 그리고 변화

‘사업 대상자가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3개의 사업장에서 사업장마다 한 명씩 우수 농가를 선정하여 “자전거”를 선물로 전달하고, 또 10명으로 구성된 그룹 중 성과가 좋은 우수 그룹을 선정해서 “식료품”을 선물로 제공하기로 했다. 생산량, 지속 가능 농업 실천율, 소득, 상환율 등을 기준으로 매년 선정하여 전달하고있었는데, 2020년 사업3년 차에 몇몇 농가들이 우수 농가 및 우수 그룹 선정에 불만을 제기했다. 우수 농가로 선정된 농가보다 더 우수한 농가가 있다는 것이다. 굿네이버스는 해당 부문에 일정 부분 동의를 했는데, 생산량, 소득 등 정량적인 지표 이외에 리더십, 성실성 등 정성적인 부분을 반영하지 못했던 것이다. 조합위원회와 논의를 한 결과 굿네이버스에서 1차 후보 선정을, 조합 위원회에서 최종 선정을 하기로 했다. 물론 조합위원회가 최종 선정하는 것에도 불만을 가지는 농가가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해를 거듭할수록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 함께 해결해 나가고 있다.



[사진 3] 우수 농가에게 선물로 지급한 자전거



[사진 4] 우수 그룹에게 선물로 지급한 식료품

5) 사업 대상자분들만큼이나 중요한 현지직원의 변화!

사업 대상자분들의 참여를 이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는 현지직원을 동기부여하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사업국 대표, PM●●●, PO●●●●, 현지 매니저,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실제 현장에 상주하는 필드 코디네이터까지 한 비전을 품고, 동일한 메시지를 현장에 전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PM은 “꼭 모든 농가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 현장에 있는 필드 코디네이터가 농민에게 “안 갚아도 괜찮아요”라고 다른 메시지를 전달한다면 프로젝트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된다. 또 직급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고, 직원들이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 NPK비료는 질소, 인, 칼륨 세 가지 주요 영양소를 포함하는 비료이며 UREA 비료는 요소비료임.
 ●● Mbeya 퇴비는 화학비료를 줄이기 위해 고안된 유기질 비료로, 화학 비료의 양을 전체 생산대비 20%로 낮출 수 있는 비료임.
 (Mbeya 퇴비 제조방법 : 옥수수 밀기울 (20kg) + 말린 배설물 (20kg) + 화학 비료 (10kg) + 제 (10kg) = 60kg > 50kg (공정 후) = 1에이커 사용 가능)
 ●●● Project Manager ●●●● Project Officer

이를 위해서 굿네이버스는 2019년부터 매년 필드에 상주해 농민들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필드 코디네이터부터 사업국 대표, PM을 포함한 모든 직원이 프로젝트 연례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장의 상황을 더 잘 이해하고, 현장에 기반한 전략과 계획을 세워 나가고 있다. 모든 직원이 사업의 목적과 중요 원칙을 이해하고 좋은 팀워크로 사업을 운영해 나가는 것은 사업 보고서에 담길 수 없는 내용이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처음에는 본인들의 의견을 말하는 데 소극적인 직원들이었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이야기했고, 직원들이 제안한 내용 중 사업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이 있었다.



[사진 5] 2019년 사회적기업 연례회의



[사진 6] 2023년 굿네이버스 프로젝트팀 연례회의

참여 지표 측정 결과		
참여	객관적	주관적
정량적	영농투입물을 배분받은 농가 수 : 746명(23년 기준) 지속 가능 농업 교육 받은 농가 수 : 582명(22년 기준)	사업 대상자의 태도, 인식, 지식 수준 변화 지속 가능 농업에 대한 인식 변화
정성적	참여관련 기관 가이드라인 존재 유무 • 굿네이버스 소득증대사업 가이드라인 • 굿네이버스 세이프가딩 • 굿네이버스 PAP 가이드라인	정부 농업 공무원 인터뷰 조합원 인터뷰

3. '임파워먼트' 원칙 적용 과정 및 성과

1) 경제적 임파워먼트(기술, 능력, 자원, 접근성)

1-1. 역량 강화 1단계 : 농업을 통해 소득을 확보하는 역량

첫 번째 달성해야 할 과제는 사업 대상자가 스스로 소득을 낼 수 있는 역량과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는 것이다. 농업 활동으로 소득을 확보한 경험이 부족했던 농가에게 처음 소득확보를 경험시켜 드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옥수수 농사를 진행하는데, 일부 농가는 대출로 받은 비료를 바로 판매하기도 했고, 어떤 농가는 배운 대로 농사를 짓지 않고, 잡초 제거도 하지 않았다. 또 실제로 생산을 하더라도 참고로 가져오지 않고 개별 판매하는 농가도 있었다. 이에 굿네이버스는 10명을 1그룹으로 구성해 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서로를 모니터링하고 격려할 수 있게 했고, 필드 상주 직원도 한 달에 한 번씩 모든 농가의 밭을 모니터링했다. 또 옥수수를 수확할 때는 PM과 직원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니터링을 해서 옥수수를 곡물수집소로 가져올 수 있도록 도왔다. 그리고 처음으로 옥수수를 판매하고, 대출금을 제한 후 실제 순수익금을 농가에게 배분했다.

“옥수수를 판매해 본 적이 처음이에요.”
“이렇게 큰돈을 처음으로 가져봐요.
이 돈으로 뭘 해야 하죠?”

“옥수수 농사로 돈을 벌 수 있군요!”
“이 돈으로 아내가 있는 병원에 가서
병원비를 내야겠어요”

2019년 소득을 배분할 때 마을 주민들의 반응이었다. 사업 대상자들은 농업을 통해 소득을 경험했고, 이 경험 이후에 사업 대상자는 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1-2. 역량 강화 2단계 : 조합 운영 역량 강화

굿네이버스 소득증대사업은 구성원 공동의 이익 실현을 위해 협력하는 지역주민들의 집단인 조합에 의해 수행된다. 조합은 민주적인 의사결정 및 참여에 기반해 집단의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키는 공동의 관심사를 가진 지역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모임을 의미한다. • 2018년 사업 첫해에 300명의 농가 중 243명의 농가가 대출금(10% 이자 포함)을 상환 후, 소득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잦은 모니터링, 행정 지원, 물류 지원, 동기 부여 등 많은 노력을 했기에 상기의 결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굿네이버스의 지원이 중단돼도 동일하게 소득을 확보할 수 있을까?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굿네이버스의 지원은 점점 줄여야 하고, 굿네이버스의 역할을 할 조직이 필요하기에 굿네이버스는 조합을 조직 및 운영을 지원했다. 그리고 해마다 굿네이버스 직원이 한 역할을 하나둘씩 조합 구성원이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사진 7] 옥수수 보관 기록을 확인하는 조합



[사진 8] 옥수수 곡물 창고 관리

2019년에는 굿네이버스 직원이 판매처를 찾는 걸 도와줬다면, 2020년도부터는 조합이 스스로 판매처를 찾게 했다. 2020년도에는 참여 조합은 사회적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에 옥수수를 판매했고, 2022년에는 상쿨라, 칭구오 조합이 직접 시장을 찾아 판매했다. 또 2022년부터는 굿네이버스 필드 상주 직원이 했던 농장 모니터링을 각 그룹의 장이 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 일도 조합에게 이양했는데, 예를 들어 현금 배분 전에 각 사업 대상자마다 얼마의 옥수수를 곡물수집소로 가져왔고, 얼마에 판매했고, 대출금을 제하고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를 2022년까지는 굿네이버스 직원이 하였지만, 2023년의 경우에는 이 서류를 조합이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각 조합마다 영농투입물 대출 받은 리스트 작성도 조합에게 맡겼다. 이외에도 사업 대상자 선정, 창고 유지 보수,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 우수 농가 선정, 중도 탈락자 확정 등 굿네이버스가 지원했던 일을 하나씩 줄이고, 그 역할을 조합이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한 사업 종료연도인 2023년에는 더 이상 굿네이버스에서 재원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조합들에게 내년 운영비를 미리 모으든 어떻게 제안했다. 3개 조합 모두 동의하였고, 조합원 당 원화 기준 5,000원에서 25,000원을, 각 조합 당 1,000,000원에서 2,500,000원을 자발적으로 모았다. 제안을 하면서도 조합원들이 정말 운영을 위해 개인 자금을 낼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모아서 놀랐다. 그만큼 조합 운영의 필요성을 스스로 느끼고, 동참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1-3. 역량 강화 3단계 : 조합 회전기금을 통한 자원 접근성 강화

이제 개인 농가도 옥수수 농사를 통해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역량이 생겼고, 조합도 수확한 옥수수를 곡물 수집소에 잘 보관해서 직접 시장을 찾아 판매하는 역량도 갖추었다. 하지만 아무리 (1) 의지와 (2) 역량이 있더라도 실제 운영을 위한 (3) 자본이 없다면 사업을 지속해 나가기 어렵다. 굿네이버스는 이에 2018년도부터 대출 형태로 사업을 진행했고, 매년 상환금이 저축되어 2023년에는 회전 기금이 약 1억원 이상 확보하게 되었다. 이 회전 기금은 사업 종료 후에도 조합이 지속적으로 영농투입물을 구매할 수 있는 자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KOICA 시민사회협력 사업비로 영농투입물 구매비를 사업비로 배정해 두었지만, 2023년에는 조합의 회전기금으로도 충분히 구입이 가능하여 조합 회전기금으로 비료와 종자를 구매하기로 했다. 물가 상승률을 10% 가정하여 이자율을 10% 적용하고, 상환율은 90% 이상인 거라 가정했을 때, 해당 회전 기금은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게 된다. 농가의 의지와 역량과 함께 이 사업을 운영할 든든한 자본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사진 9]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는 조합



[사진 10] 직접 물품을 구입하는 조합

1-4. 소득을 통한 삶의 변화

소득 증가가 사업 대상자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에 근거하여 사업을 진행하지만, 소득증대가 항상 삶의 긍정적인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증가한 소득으로 술 구입 또는 도박 등 생산적이지 않은 활동에 쓸 수도 있다. 그래서 2021년부터는 농업 교육을 할 때 소득 활용 방안도 함께 교육했다. 확보된 소득으로 더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2023년 8월 종료선 평가를 위해 사업 대상자분들과 FGD를 진행했는데 다음과 같은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p>“2021년에 얻은 소득으로, 돼지 3마리를 구매했어요. 지금은 그 돼지가 18마리가 되었죠.”</p> <p>“아이들을 학교에 보냈어요.”</p> <p>“아이의 대학 등록금을 낼 수 있었어요.”</p> <p>“지붕을 철제 지붕으로 바꿨어요.”</p>	<p>“집을 지었어요.”</p> <p>“비료를 더 샀고, 소도 한 마리 샀어요.”</p> <p>“사업 참여 전에는 하루 1끼도 어려웠었는데, 이제는 하루 3끼를 먹을 수 있어요.”</p> <p>우리 아이들이 더 건강해진 걸 지켜요.”</p>
--	--

사업 비참여그룹은 “돈이 생기면 무엇을 할 것인가?”란 질문에 식량을 살 거라고 대부분의 농가들이 답변한 반면, 사업 참여그룹은 비료를 사거나, 비즈니스 활동에 투자한다는 답변이 많았다. 사업을 통해 사업대상자들은 사업참여 경험을 통해 증가된 소득을 미래의 수익을 위한 투자를 희망하는 것으로 인식이 변화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소득 증가를 넘어 그 소득을 통해 파생된 효과들(교육, 보건, 재투자 등)을 볼 수 있었다.



[사진 11] 양철 지붕으로 바꾼 사업 대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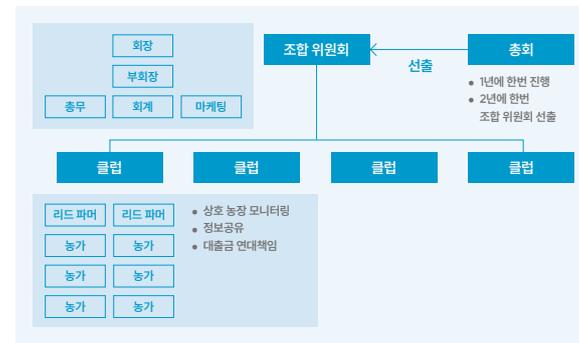
[사진 12] 돼지를 구입 한 농가

2) 사회적 임파워먼트(역할, 관계, 존엄, 신뢰, 소속감)

2-1. 조합 거버넌스 구축

굿네이버스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 아래와 같이 조합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각각의 역할을 교육했다. 조합 위원회는 조합원 모두가 모이는 총회에서 투표로 선출되며, 선출된 조합위원회는 2년간 조합을 위해 일한다. 또한 조합은 그룹을 나누는데, 한 그룹은 10명으로 구성되며 각 그룹마다 2명의 리더파머가 있다. 그룹은 서로를 모니터링하고 상환금에 대한 공동 책임을 진다. 조합과 그룹을 조직함으로써, 지역 사회에 있는 사회적 자본을 활용하고, 더 나아가 공동체 의식 및 신뢰 관계를 증대시키고자 했다. 이는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사업을 운영할 조직과 역량을 갖추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처음에는 조합위원회와 리더파머 모두 각각의 역할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 2019년 옥수수 판매 시 조합원 100명이 각자 원하는 가격이 달랐다. 어떤 농가는 kg당 150원, 또 다른 농가는 kg당 200원을 원했다. 조합 위원회가 조합원들의 의견을 조율해서 가격을 정하고, 마케팅 활동을 해야 하는데, 가격 결정이 늦어서 판매처를 놓치기도 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조합원과 조합 위원회는 각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2023년의 경우는 조합 위원회가 시장을 찾고, 가격을 신속히 결정하고 있다.



[그림 4] 조합 거버넌스 구축

그룹 운영의 경우 10명이 한 그룹으로 운영되고, 만약 한 사람이 상환을 못하면 다른 9명이 상환금을 대신 갚도록 했다. 처음에는 농가가 그룹의 목적을 잘 몰랐지만, 상환금을 실제로 갚는 상황이 되니 본인이 속한 그룹원들을 서로 격려하여 상환금을 갚을 수 있도록 독려했다. 한번은 한 농가가 영농투입물을 받아 갔는데, 그 해당 그룹원들이 와서는 이 농가에게 영농투입물을 지원하면 안 된다고 했다. 해당 농가의 경우 농사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룹원들이 대신 상환금을 대신 갚아주었다는 것이다. 또 다른 경우 어떤 한 농가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중도 탈락이 되었는데, 그룹원들이 와서 그 농가의 상환금을 대신 갚아주었다. 그러면서 그 농가가 작년에 병에 걸려서 농업 활동에 어려움이 있었으니, 다시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 굿네이버스는 상환 여부에 따라 중도 탈락을 하기 전에, 조합 위원회와 그룹에 중도 탈락자 리스트를 공유하고, 위원회와 그룹이 최종 선정을 하는 절차를 만들었다. 굿네이버스 보다 각 농가의 상황을 알고 있는 조합 위원회와 그룹이 더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임파워먼트 지표 측정 결과		
임파워먼트	객관적	주관적
정량적	조합원 수 : 746명 (23년 기준) 연간 조합의 매출액 : \$228,715(23년 기준) 조합 상환율 : 97% (23년 기준) 조합 회전기금 : \$109,217(23년 기준)	조합에 대한 인식, 태도, 지식 변화
정성적	임파워먼트관련 기관 가이드라인 존재 유무 • 굿네이버스 소득증대사업 가이드라인 • 굿네이버스 참고사업 가이드라인	정부 농업 공무원 인터뷰 조합원 인터뷰

4. '비차별' 원칙 적용 과정 및 성과

굿네이버스는 사명을 달성하기 위한 8가지의 핵심가치를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중 첫 번째 핵심가치는 “인종, 종교, 사상과 지역을 초월하여 도움이 필요한 곳은 어디든 달려간다” 이다. 이 핵심가치는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 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 늘 고려하는 핵심가치이다.

1) 사업 홍보 및 모집

사업 대상자를 모집할 때 어떻게 사업을 최대한 많은 사람이 알게 하는지가 중요하다. 정보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의 경우 사업을 참여한 기회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마을 지도자에게 사업 홍보를 부탁할 경우 마을 지도자가 아는 분들 위주로 사업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내용을 지역 주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굿네이버스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사업을 홍보했다. ① 마을의 시장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센터에 사업 소개서를 부착하여 많은 사람이 사업을 알 수 있게 했다. 또 ② 스피커를 빌려 마을을 다니며 직원이 사업을 홍보하기도 했다. 사업 대상자분들과 인터뷰했을 때 어떻게 사업을 알게 되었는지 물었을 때 앰프로 홍보하는 소리를 듣고 사업을 신청하게 되었다는 사업 대상자도 많이 있었다. 그리고 ③ 사업 신청 기간을 한 달 이상 가졌다. 기간이 짧아 신청 못하는 이들이 없도록 모두에게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다.

2) 사업 대상자 선정

사업 대상자가 사업 참가 신청을 할 때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적고, 또한 취약계층 여부(장애 여부, 한부모 가정 등) 정보를 함께 적도록 했다. 그리고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 굿네이버스 직원과 조합 위원회, 리

드파머가 함께 사업 대상자를 선정했다. 최대한 많은 이해관계자를 사업 대상자 선정에 참여시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부정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굿네이버스에서는 (1) 중복 수혜 방지(한 가구 1인 참여 가능), (2) 취약계층 우선 선정 가이드라인을 주고 선정 과정을 모니터링 했다. 최종 선정이 된 이후에도 PM이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혹시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한 후 최종 사업 대상자를 확정했다.

3) 사업 참여를 통한 여성의 차별 감소

2023년 사업 대상자 중 58%가 여성 참가자이며, 소득 증대 활동을 통해 여성의 권리가 강화되고 차별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지역에서는 토지의 소유권이 주로 남성에게 있고, 여성의 의견이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업을 통해 여성들의 생계와 소득 상황이 개선되면서 지역 사회에서 인정받고, 주요 의사결정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요즘에는 집에서 주요한 결정을 할 때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과부가 되어 생계유지가 어려웠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소득 활동에 저를 참여시켜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2년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녀의 학비를 내지 못해 학교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학비를 낼 수 있고, 학교 운영위원회에도 선정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저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저에게 프로젝트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도움을 청합니다”

또한 2개의 조합의 회장이 여성으로 선출되었으며, 조합 위원회에도 여성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는 해당 지역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며, 여성의 경제력 향상이 기존의 차별을 감소시키고 여성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차별 지표 측정 결과		
비차별	객관적	주관적
정량적	사업 대상자 중 여성 비율 : 53% (2,752명 ● 중 1,466명 여성, 22년 기준) 조합 회장 여성 비율 : 67% (23년 기준)	N/A
정성적	비차별관련 기관 정책 존재 유무 • 굿네이버스 미션 및 비전, 핵심가치 • 굿네이버스 세이프가딩	여성의 선택권 강화 저소득자의 차별 감소

● 지속가능농업 조합원 수 및 사회적기업에 국물을 판매한 소농가 수의 합

국제농업소농가 지원 프로젝트는 “굶주림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특별히 빈곤에 처한 말라위 지역 주민이 자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이다. 이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의 1번 목표인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과 2번 “기아 종식, 식량 안보와 개선된 영양 상태의 달성, 지속 가능한 농업 강화” 8번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증진” 달성에도 함께 기여하고 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사업의 원래 목적과 의도를 생각하기보다는 많은 행정 업무에, 예측하기 어려운 현장의 일들에 압도되어 말라위의 일부 건축 업체처럼 기반을 다지기 전에 벽돌을 올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다. 또한 이러한 “참여”, “임파워먼트”, “비차별”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더라도 단기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문제는 없다. 사업이 잘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업이 종료되면 그 문제는 하나 둘씩 드러나기 시작한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사업의 효과”가 중단되는 것이다.

“참여”, “임파워먼트”, “비차별”이 잘 다져진 기반에 진행된 사업은 사업 종료 후에도 그 효과가 지속될 수 있다. 2023년은, 2018년부터 시작된 소농가 지원 프로젝트의 마지막 해이다. 6년간 사업을 진행하고 종료를 향해 가는 사업을 보면서 10년 후에도 사업 대상자들이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게 된다. 그리고 그 힘은 6년간 다져진 조합과 농가의 힘에서 나올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 중요하고 기본적인 원칙이지만 지키기 어려운 이 세 원칙을 개발협력의 중요 원칙으로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 많은 개발협력NGO의 비전과 사명을 이루고,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이루는데 이 세 원칙은 흔들림 없는 기반이 되어 줄 것이다.

몽골 학교급식 시범운영사업

위드

5

몽골 학교급식 시범운영사업

위드

기관명	(사)위드
프로그램명	몽골 학교급식 시범운영사업
사업목표	몽골 학교급식 시설 구축 및 기자재 지원, 학교급식 및 영양위생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지급식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몽골 어린이의 영양 인식개선 및 건강 증진
사업지역	몽골 울란바타르시(1차 시범학교), 아르항가이 아이막 아르항가이시(2차 시범학교), 볼드금 아이막 다신질링숨(3차 시범학교)
사업기간	1995년~2019년 (1차 시범학교) 2006년 11월 ~ 2010년 9월 (2차 시범학교) 2008년 11월 ~ 2011년 9월 (3차 시범학교) 2010년 10월 ~ 2013년 12월 (정책유호 활동) 1995년 10월 ~ 2019년 12월
주요 파트너 재정/실행/네트워크/평가 등	
재원협력 파트너	(주)수양F&G(위드의 비즈니스 협력기관), KOICA
실행협력 파트너	몽골교육과학부 및 지방 교육청, 몽골국립과학기술대학교 산업기술대학, 몽골영양개선연구소
평가협력 파트너	몽골영양개선연구소
유관 SDGs	(SDG 2) 2.1, 2.2, (SDG 4) 4.1, 4.3 (SDG 8) 8.5, (SDG 16) 16.6



서연경 소장, 위드영양개선연구소

대학시절 오병이어선교회와 인연을 맺어 2004년 설립된 Yellow Window 영양개선 연구원(현 위드영양개선연구소의 전신)의 창립멤버로 활동하다가 2010년부터 지금까지 위드 전략연구팀 팀장, 위드영양개선연구소의 소장으로 위드가 섬기는 Yellow Window 국가의 사업발굴부터 성과관리에 이르는 연구조사와 전문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진행하고 있다. 몽골은 2010년 몽골영양개선연구소를 지원하면서 몽골 학교급식 시범사업 이양단계부터 만성질환, 영유아영양급식관리 등 생애주기별 영양중재사업을 지원, 총괄했고 학교급식법 제정을 위한 위드의 전사적 노력에 함께 참여하면서 적극적 기다림이 정부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는 특별한 경험을 했다. 가장 중요한 가치는 건강한 공동체를 자신이 서 있는 이 자리부터 이루는 것으로 서로를 채워 온전함을 세워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오늘도 부르심의 현장에서 한걸음 발도장을 찍고 있다.

기관 및 사업 소개

1. 기관 소개

위드는 1986년 창립된 오병이어선교회를 모체로 국내 결식아동 지원과 함께 몽골, 중국 등에서 활동해오다가 사랑과 나눔의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식품·영양·급식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2006년 국제보건영양 전문 비영리기관으로 외교부에 등록되었다. 위드는 기아와 영양불균형, 빈곤에 처한 개발도상국(Yellow Window 73개국)의 건강한 변화와 지속가능한 식생활영양개선을 위해 글로벌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국내외 영양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전문성 기반의 생애주기별 통합적 보건영양중재사업 전략을 가지고 현재 몽골, 캄보디아, 탄자니아를 포함한 8개국에 지부를 두고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2. 사업 배경

몽골은 러시아와 중국 사이의 내륙국가로 한국의 16배의 영토를 가졌지만 인구는 한국의 1/15인 약 335만명으로 전세계적으로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이다. 그 중 울란바타르 수도에 거주하는 인구가 약 51%인 167만명이며 전체 인구의 69%가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 현재 몽골은 하위중소득 국가이면서 세계 10대 자원 부족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나라이지만, 우리가 처음 접한 1990년대 몽골은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긴급한 식량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할 만큼 식량부족을 겪고 있었고, 이로 인해 5세 미만 아동의 약 30%(1999년)가 만성영양불량(stunting)을 겪고 있는 가난한 국가였다. ●● 이는 1990년 몽골이 구소련의 사회주의체제 붕괴로 인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면서 구소련의 기술적, 경제적 지원이 끊어져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영향이 컸다. 몽골의 현재 영양상태는 2017년 몽골 보건부의 5차 국가영양조사보고서에 따르면, 5세 미만 아동의 성장부진(stunting) 6.1%, 저체중(underweight) 비율 0.7%로 낮은 수준이지만, 비타민 D 결핍증 61.0%, 빈혈 26.6%로 미량영양소 결핍증이 만연하며, 과체중과 비만은 11.7%를 차지하고 있고 학령기 아동의 과체중과 비만 비율이 28.6%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 따라서 경제발전과 수명 연장, 에너지 밀도가 높은 식품(junk food) 섭취와 낮은 활동량으로 인해 영양부족에서 영양과잉으로의 영양의 전환기(nutrition transition)를 맞고 있는 몽골에서 영양불량의 다중부담(영양부족, 미량영양소 결핍증, 영양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아동기부터 시급함을 볼 수 있으며, 몽골 학령기 아동의 영양개선과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건강한 식사 제공과 영양교육 등의 통합적 영양관리사업인 학교급식의 체계 마련 및 제도화가 더욱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 CIA. 2023.6.10. <https://www.cia.gov/the-world-factbook/countries/mongolia>

●● World Bank. 2023.6.10 <https://data.worldbank.org/country/MN>

FAO, UNICEF, WFP, WHO. 2014. Mongolia—Food and Nutrition Security Profile

●●● MoH, NCPH, UNICEF. 2017. Key Nutrition Concerns in the Population of Mongolia. Fifth National Nutrition Survey

3. 사업 내용

몽골 학교급식 시범운영사업은 몽골 아동의 영양개선과 건강 증진을 위해 몽골교육문화과학부(현 몽골교육과학부)와 위드가 협정을 맺고 2006년 11월 1차 시범학교를 시작으로 2013년 12월 3차 시범학교의 이양까지 총 7년간의 사업수행기간동안 3개 지역의 시범학교에서 학교급식 모델을 구축 및 진행했다. 3개 지역의 시범학교는 급격한 도시화로 생성된 울란바타르 수도의 도시빈민 학교(1차), 수도와 지방 간 격차를 보여주는 아르항가이 지방도시 학교(2차), 몽골의 특성을 반영한 기숙사 시설이 있는 시골 유목민 학교(3차), 총 3개교를 선정하여 학교 급식의 몽골 전국 확대를 위한 효과적인 학교급식사업 수행 및 체계를 마련했다(그림 1). 세부 내용으로는 1~3차 시범학교에 몽골 현지에 맞는 학교급식 운영체제 구축을 위한 자문과 함께 급식 설비 및 주방 기자재를 지원했고 한국의 전문인력을 파견하여 학교급식 운영을 위한 기술을 전수하며 학교급식 제공 및 영양위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가했다. 또한, 지속가능성을 위해 학교급식 운영을 위한 현지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배치하고 급식 운영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했다. 이양 후 기술자문과 함께 학교급식 운영 표준매뉴얼을 발간, 전국에 배포했고 몽골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학교급식 관련 정책 및 제도화를 이루었다.

[그림 1] 몽골 학교급식 시범운영사업 대상지역



몽골 사업의 실제 사업 시행기간은 7년(2006~2013)이었으나 1995년부터 국제협력교류활동을 통한 인식개선의 준비단계(1995~2005), 몽골 정부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영양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사업시행전 단계(2000~2006), 이양 및 기술자문을 진행한 이양단계(2010~2013), 정책화를 통한 확대기반 마련 단계(2013~2019)까지 포함한 중장기적 전략으로 진행되었다(도식도 1). 이 모든 과정에서 위드는 몽골교육과학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부가 몽골 국민, 특히 영양취약계층인 아동을 중심으로 건강권과 안전하고 영양이 있는 식량 접근 권리 강화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학교 급식을 우선순위로 정하였다. 또한, 학교급식 운영 및 관리체계 역량과 인적, 물적 자원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몽골과학기술대학교와 합자 연구소인 몽골영양개선연구소(Mongolia Center for Improvement of Nutrition, MIN)를 중심으로 인식개선 세미나 및 초청연수, 학술교류 및 기술 자문,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 운영 체계 마련 및 법제화를 협력 수행했다.

[도식도 1] 몽골학교급식 시범운영사업 단계(1995년~현재)



4. 사업 성과

SDGs 목표	SDGs 세부목표	사업 성과
SDG 2 기아해소, 식량안보 확보 및 지속가능 농업발전	2.1 빈곤층과 영양취약계층에게 안전하고 영양이 있는 충분한 식량 접근을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소 등 필수 영양소가 포함된 식사(학교급식)를 제공받은 1~5학년 학생 수 : 2,250명(평균 식수인원으로 남·여 비율=1:1.2) 몽골 정부 및 해당 교육청, 시범학교의 3개 시범학교 급식 운영 급식비 지원 : 100%
SDG 4 양질의 교육-모두를 위한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	4.1 모든 소녀와 소년이 적절하고 효과적인 학습 성과로 이어지는 무상의 공평하고 양질의 초등 및 중등 교육을 달성하도록 보장 4.3 대학을 포함한 전문 직업 교육에 대한 모든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교육 접근성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3개 시범학교 초등학생의 영양교육 제공 횟수 : (1차 시범학교) 주 1회 (2차) 월 1회 (3차) 총 5회 3개 시범학교의 영양교육을 제공받은 1~5학년 초등학생 수 : 2,250명(100%) 영양학과를 통해 배출된 영양전공 졸업생 수 (2005년~2023년 5월 현재) : 280명 학교급식 영양전문인력 인턴십 프로그램 수료생 수 (2008년~2023년 6월 현재) : 48명(9회 실시) 학교급식 영양전문인력 집중 코스를 이수한 수료생 수 (2017년~2023년 6월 현재) : 33명(3회 실시)
SDG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8.5 모든 여성과 남성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직업 기회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몽골 공립 및 사립학교 중 학교급식 영양사 고용 비율 12.1%
SDG 16 평화, 정의 및 제도 구축	16.6 모든 사업 계획 및 실행, 평가단계를 통해 효과적이고 투명하며 책무성 있는 제도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급식법 국회 통과(2019년 5월 30일) 몽골 교육과학부 및 시교육청 내 학교급식 전담인력 배치(2010)

SDG 2 : 기아종식, 식량안보 및 영양개선, 지속가능한 농업

3개 유형별(수도 도시빈민지역형, 지방도시형, 시골유목민형) 시범학교 급식 모델을 구축하고 시행함으로써 영양취약계층인 3개 학교 1~5학년 아동에게 위생적으로 안전하고 채소 등의 필수 영양소를 포함한 영양이 있는 식사를 개발, 제공했고 장기적으로 모든 형태의 영양실조(성장부진, 저체중, 과체중 및 비만, 미량영양소 결핍)를 해소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몽골 성장기 아동의 하루 권장량에 부합하는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몽골 정부의 급식비 지원이 2006년 1~2학년 300투그릭(당시 한화 300원)에서 2007년 1~5학년 400투그릭, 2013년 1~5학년 600투그릭으로 인상되어 진행되고 있다.

2.1 빈곤층과 영양취약계층에게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충분한 식량 접근을 보장

- 채소 등 필수 영양소가 포함된 식사(학교급식)를 제공받은 1~5학년 학생 수 : 2,250명(평균 식수인원으로 남:여 비율=1:1~1.2)
- 몽골 정부 및 해당 교육청, 시범학교의 3개 시범학교급식 운영 급식비 지원 : 100%

SDG 4 : 양질의 교육-모두를 위한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

3개의 시범학교에서 건강한 학교급식을 무상으로 시행함으로써 3개교의 1~5학년 모든 초등학생들이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고 양질의 교육을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증진했다. 또한, 몽골과학기술대학교 내 몽골 최초의 영양학과 개설을 통해 영양학 전공자를 양성 배출했고, 학교급식 영양전문인력 인턴십 프로그램과 집중과정을 통해 새로운 학교급식 분야의 전문 기술을 익힐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했다. 1차 시범학교의 사례에서 하루 6시간의 수업을 받는 학생들에게 따뜻하고 건강한 식사가 제공됨으로써 아침 식사를 하지 않아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피곤해하던 학생들이 힘을 얻어 수업 참여도가 좋아졌으며, 급식을 먹기 위해서 결석이 줄어들었다. 또한 학교급식을 진행하면서 받는 영양교육을 통해 학년이 높을수록 영양 지식도가 높게 나타나고 급식의 맛과 위생상태에 대해 2/3 이상의 학생이 매우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1 모든 소녀와 소년이 적절하고 효과적인 학습 성과로 이어지는 무상의 공평하고 양질의 초등 및 중등 교육을 달성하도록 보장

- 3개 시범학교 초등학생의 영양교육 제공 횟수: (1차 시범학교) 주 1회 (2차) 월 1회 (3차) 총 5회
- 3개 시범학교의 영양교육을 제공받은 1~5학년 초등학생 수: 2,250명(100%)

4.3 대학을 포함한 전문 직업 교육에 대한 모든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교육 접근성 보장

- 영양학과를 통해 배출된 영양전공 졸업생 수(2005년~2023년 5월 현재) : 280명
- 학교급식 영양전문인력 인턴십 프로그램 수료생 수(2008년~2023년 6월 현재) : 48명(9회 실시)
- 학교급식 영양전문인력 집중 코스를 이수한 수료생 수(2017년~2023년 6월 현재) : 33명(3회 실시)

SDG 8 :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학교급식 영양전문인력 및 조리인력 양성을 통해 학교급식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학교급식으로 인해 파생되는 산업(식품 생산, 가공 및 유통, 급식 시설 및 설비 생산, 시설 유지보수 기술인력 양성 등)과 일자리 또한 확대될 수 있다. 특히 2019년 5월 30일 학교급식법이 국회를 통과되면서 몽골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내 학교급식이 전면 확대되는 기초가 마련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다소 지연되었지만 몽골 교육부가 전국확대 계획을 가지고 2022년~2026년 코이카 국별사업인 '몽골 초중고등학교 급식환경개선 및 역량강화 PMC 사업(PM사: 위드)'이 진행중에 있어 학교급식 분야에 양질의 더 많은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8.5 모든 여성과 남성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직업 기회 보장

- 몽골 공립 및 사립학교 중 학교급식 영양사 고용 비율 12.1%

SDG 16 : 평화, 정의 및 제도 구축

위드는 몽골 과기대와 합자연구소인 몽골영양개선연구소(MIN)을 설립하고 이를 주축으로 학교급식 시범 운영사업 시행 전부터 정부 관계자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학교급식 시행에 정부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를 시작했다. 2005년 한·몽 학교급식추진위원회를 조직하여 급식 전반과 관련된 법률제정 자문을 진행했고, 2006년 교육부와 시범사업관련 협정을 맺은 이후로 정부의 정책회의에 계속적으로 참여하면서 법제화 추진을 위한 자문을 지속했고 2017년 학교급식 운영매뉴얼을 발간하여 전국 초등학교에 배포했다. 이와 함께 여성 국회의원들을 주축으로 정부 관계부처(교육청, 보건부, 농림부 등) 주요 담당자들과 학교급식의 방향성을 논의했고 그 결과 '몽골 학교급식 법제화를 위한 한·몽 국제교류세미나'를 개최하여 한국의 학교급식 발전과정과 경험을 바탕으로 몽골 상황에 맞는 학교급식법 제정을 위한 준비 및 협력의 자리를 마련했다. 또한 2018년 11월 몽골 학교급식에 관련된 민간관계자 견학단이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의 학교급식 현황과 정책, 식자재 조달 체계 등을 견학했고 미디어를 통한 학교급식의 몽골 대국민 홍보를 지속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19년 5월 30일 학교급식법이 몽골 국회를 통과하는 성과를 얻었다.

16.6 모든 사업 계획 및 실행, 평가단계를 통해 효과적이고 투명하며 책무성 있는 제도와 추진

- 학교급식법 국회 통과(2019년 5월 30일)
- 몽골 교육과학부 및 시교육청 내 학교급식 전담인력 배치(2010)

‘참여’, ‘임파워먼트’, ‘비차별’의 적용

1. 해당 원칙에 대한 기관의 이해

우리의 사명과 비전은 서로의 섬김을 통해 고통받는 지구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전인적으로 회복되어 건강한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이며, 헌신, 공동체, 섬김, 투명성, 전문성에 핵심가치를 두고 있다. 위드의 핵심 전략은 통합적 전인교육을 통해 양성된 국내외 인력이 주축이 되어 전문성 기반의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위드의 모든 활동은 전문성을 기반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한 사람도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으며, 자신의 고유한 재능을 적극적으로 발휘하여 연합할 수 있도록 통합적 인재를 양성하고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여 이들의 적극적이고 주도적 참여로 건강한 성장과 성숙을 이끌어가고자 한다.

2. ‘참여’ 원칙 적용 과정 및 성과

1) 한·몽 학교급식 추진위원회의 조직 및 의사결정 참여

국가 전체를 아우르는 영양상태 개선을 위해 장기적인 해결책으로서 학교급식을 모색했다. 먼저 1995년부터 한·몽 국제교류 세미나와 몽골 학교급식 견학단의 한국 초청 방문 등을 통해 교육관련 정부관계자와 학계 전문가, 식품영양 전공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인식을 개선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MIN이 실행 주체가 되어 한국과 몽골을 연결하고 소통하는 구심점의 역할을 담당했고, 2005년 몽골 교육부차관과 국회의원, 몽골과기대 관계자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한국 학교급식 시설을 시찰했다. 이를 계기로 몽골교육부 차관, 몽골과학기술대학과 MIN, 학교장 등으로 구성된 몽골측 대표단과 위드의 회장, 본부장, 학교급식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국 측 대표단이 한·몽 학교급식 추진위원회를 조직하여 시범 운영사업의 시작부터 함께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사업수행 과정뿐만 아니라 이양 이후 사업의 지속성과 지역사회의 주도적 참여를 이끌어내었고 주무 관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시범사업 이후 몽골 정부 주도로 전국에 학교급식을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한·몽 학교급식 추진위원회는 학교급식 전반과 관련한 법률 제정 자문을 비롯해 시범학교 선정 기준을 세우고, 협정서 초안 마련, 학교급식 실시를 위한 세미나 주최, 대상학교의 영양상태 평가, 학교급식 시행에 관한 예결산과 인사권 등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협의하고 심의하는 등 몽골 학교급식 시범사업의 준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2) 학교급식 운영 및 확대를 위한 인지도제 및 정부의 급식비 지원

학교급식 시범사업이 실행되는 동안 정부와 법령화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반드시 필요했던 것은 바로 학교급식의 중요성과 확대 가능성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 당시 몽골에서 유일한 대규모 학교급식 운영체계를 갖춘 시설이 바로 1차 시범학교였다. 이곳에 몽골 대통령을 비롯하여 관련 부처 차관, 국회의원 등 정부관계자들과 올란바타르시 학교관계자, 단체급식 식품조리전문가 등이 정부가 지원하는 급식비로 진행되는 새로운 학교급식 모델을 방문하였다. 급식 진행과정을 견학하면서 몽골의 모든 학교에 급식을 확

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1차 시범학교급식을 준비하던 2006년 9월 몽골 정부의 전국 학교의 1~2학년 학생에게 매일 300투그릭(당시 한화 300원)의 점심 간식비(빵, 차 등)를 지원한다는 법령이 통과되었다. 이 과정에서 위드와 MIN이 몽골 교육부에 한국의 점심 제공 사례를 소개하면서 교육부 관계자들을 이해시켰고 법통과를 빠르게 이루었다. 또한, 몽골 영양권장량을 기준으로 산출한 한끼 식사비가 약 600투그릭 수준이라는 위드와 MIN의 사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07년 몽골정부가 1~5학년 초등학생들에게 400투그릭의 급식비를, 2013년 600투그릭까지 점차 확대 지원하게 되었다.

3) 학교급식 제도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인지 제고 및 정책옹호 활동

특히 법제화의 과정에서 교육부의 협력뿐만 아니라 몽골 여성국회위원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영양 분야는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는 분야이자 사업 필요성에 대한 여성의 이해가 높은 분야인데, 2016년 몽골 국회의원 선거결과 여성 국회의원들이 많이 선출되었다. 이때 MIN이 위드와 함께 학교급식 법제화를 위한 국회의원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여성의원들에게 학교급식의 필요성을 설득하였고 한·몽 세미나 개최, 한국 방문 등 인지 제고 및 정책옹호활동을 이어갔다. 그리하여 여성국회의원 중심의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학교급식법 제정을 위한 학교급식법팀이 2016~2019년에 구성되었다. 2017년 11명의 여성 국회의원들을 주축으로 정부관계부처(교육청, 보건부, 농림부 등) 관계자를 초청하여 한국의 학교급식 발전과정과 법제화 경험을 소개하는 ‘몽골 학교급식 법제화를 위한 한·몽 국제교류 세미나’를 개최했다. 또한, 2018년 몽골 학교급식에 관련된 정부, 학계, 식품유통 인사들로 구성된 민간관계자 견학단이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 학교급식 운영현황, 한국 정부의 학교급식법 정책 마련 등을 공유하였다. 마침내 한국방문 이후 학교급식법의 필요성에 대한 100% 의견일치로 이어져 2019년 법제화까지 빠르게 진행되었다.

참여 지표 측정 결과		
참여	객관적	주관적
정량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계별 사업참여촉진 활동 참여자 수 학교급식 중요성 인식을 위한 학술교류 세미나 횟수 13회 학교급식 모색 및 인식개선을 위한 한국 초청 연수 실시 횟수 25회 한·몽 학교급식 추진위원회 조직을 통한 학교급식 준비 및 실행(100%) 몽골 정부 및 해당 교육청(시범학교)의 3개 시범학교 급식 운영 급식비(식재료비,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100%) 법제화를 위한 참여활동 참여자 수 정부 및 국회관계자 초청 시범학교행사를 통한 정책 옹호활동 개최 횟수 7회 관련 정책입안자를 포함한 네트워크 및 인식개선 세미나 개설 여부(100%) 학교급식 법제화 관련 한국 연수 진행 횟수(1회) 몽골 교육부와 시교육청 내 학교급식 전담인력 배치 여부(배치) 	
정성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급식 시범사업을 위한 몽골교육과학부/관할교육청 및 시범학교와의 협정서(역할 명시) 2006년 점심차에 관한 법령 2019년 학교급식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촉진 또는 방해요소 제거 방법, 참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사례 도야체렉 몽골과기대 학장 인터뷰 틀람란드 교육부 담당자 인터뷰

3. '임파워먼트'원칙 적용 과정 및 성과

1) 사회적 임파워먼트

1-1. 초등학교 대상 학교급식 영양교육으로 인식개선 및 만족도 변화

몽골의 전통적인 식사는 유목생활의 영향으로 관습이 된 '채소는 동물이 먹고 사람은 동물을 먹는다'라는 채소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육류, 특히 육류 지방과 우유 및 유제품, 감자와 밀가루 등 열량 위주의 식품을 주로 섭취하고 채소와 과일의 섭취가 부족했다. 따라서 성장기 아동에게는 비타민· 무기질 등의 미량 영양소 결핍증이 많이 발생했고 이후 과체중이나 비만으로 인한 만성질환의 발생이 증가하는 영양불균형의 문제를 초래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급식 및 영양교육을 통한 건강한 식습관의 변화가 필수 과제였다. 실례로 1차 시범학교에서 처음 급식으로 밥과 햄버거 스테이크, 양배추 샐러드, 따뜻한 우유차로 건강한 식사를 제공했을 때 대부분의 샐러드가 잔반으로 버려지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시범급식을 통해 식습관이 형성되는 초등학교 때부터 채소를 잘 먹을 수 있도록 매일 다양한 샐러드를 제공하면서 영양교육을 병행했고, 1차 시범학교의 경우 매주 한 학급당 1회씩 약 30분간 올바른 손 씻기를 포함하여 영양소의 종류와 역할, 식품군, 올바른 식생활, 치아 위생, 식사예절 등의 교육활동을 진행했다. 그 결과 채소를 기피하던 아이들이 골고루 먹는 것의 중요성과 왜 채소를 먹어야 하는지 인식하게 되었고 급식이 지속될수록 채소의 섭취율이 높아지고 잔반량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양교육을 통해 영양과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인식과 지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급식의 맛과 기호, 식사량, 위생상태에서도 2/3 이상의 학생들이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2. 몽골과기대 내 영양개선연구소 및 최초의 영양학과 개설을 통한 영양전문인력 양성

위드는 영양학이 전무했던 몽골에 위드의 비즈니스 협력기관인 (주)수양에프앤지로 진출하여 1995년 6월 몽골과기대와 학생식당 운영 및 학술교류, 한국연수 및 견학 프로그램 등의 목적으로 협력했다. 학생식당 운영, 수차례의 학술교류 세미나, 영양학 교수 파견과 함께 5년간 연 1~2회씩 한국외식산업 견학프로그램을 교수와 학생 50여 명에게 제공했고, 10명의 식품조리학과 졸업생에게 1달간의 한국 연수교육도 실시했다. 이러한 협력 및 신뢰관계 속에 2000년 2월 합자연구소인 MIN이 몽골과기대 내 설립되었다. MIN은 2년을 임기로 한국인과 몽골인이 번갈아가며 소장을 맡는 체제로 협정을 맺어 처음에는 한국에서 파견된 영양연구 전문인력인 초대 소장과 책임 연구원이 현지 연구원들과 함께 일하였다. 이후 2008년부터 몽골 측이 소장직을 전담하게 되었고 현재는 한국인은 자문의 역할로 남고 몽골 소장과 몽골연구원들이 다양한 사업과 교육 프로그램의 수행 역량을 갖추고 활동하고 있다. 또한, 위드는 영양학 교과과정 개발, 전문교수인력을 위한 단기교육 과정 등을 운영하여 2000년 9월 몽골 최초의 영양학 전공과정이 몽골 과기대 식품생명공학대학(현재 산업기술대학) 내에 개설되었다. 이후 위드와 MIN이 영양학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사회 진출에 대한 방향성을 모색하게 되면서 출구전략의 하나로 2005년 임상영양 인턴십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학교급식 영양사 인턴십 프로그램을 2007년부터 시행하여 학교급식이 몽골 전역에 확장되는데 기여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게 되었다. 그뿐 아니라 학교급식을 담당할 급식 조리인력 교육도 함께 실시하여 대량조리의 생소하고 과중한 업무를 자부심을 가지고 잘 수행하도록 했다(표 1). 급식 시행 초기에는 매일, 그 이후에는 주 1회씩 학교급식 영양사가 전담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했고 위생, HACCP, 시설안전, 영양, 친절 교육 등 학교급식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연간교육계획안에 따라 계획적으로 운영했으며 교육 후에는 시험을 통해 조리원들이 잘 인지했는지 확인했다.

[표 1] 몽골 학교급식 참여인력의 역할

구분	역할	
관리자	영양사 식재료 검수 및 관리, 조리원 작업관리·위생관리, 배식관리, 시설관리, 소모품 관리, 교육, 서류 작성 등	
종사원	조리원	식재료 전처리, 조리, 배식준비, 일부 설거지 및 정리 등
	세정원	각종 조리기계, 기구, 배식도구의 전반적인 설거지 등
	청소원	벽, 바닥, 각 실 청소, 쓰레기 처리 등
기타	학교재정 담당자	식재료 구매, 검수
	학부모	식기구 운반 및 배식 도우미

1-3. 3개 시범학교 및 교육부처 내 영양전문인력 배치 및 매뉴얼 배포

위드는 3개의 시범학교를 3~4년간 시범운영 후 교육부, 해당 관할 교육청과 학교에 이양한 뒤, 이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MIN과 함께 표준화된 학교급식 운영매뉴얼을 발간 배포했고 기술 자문을 계속적으로 지원했다. 무엇보다 1차 학교의 급식을 실시 전 학교급식팀을 구성하여 MIN의 학교급식담당 현지연구원을 총괄팀장으로, 한국에서 파견된 학교급식 전문가를 코디네이터로 두고 1차 학교 급식전담인력으로 선발된 현지 영양학과 졸업생을 훈련하며 급식 식단과 운영지침서 개발, 조리 및 배식 등의 급식 시범운영 등 6개월 간의 사전준비 기간을 가졌다. 초기 1년의 실행기간 동안 급식 실무 및 급식 조리 인력 교육, 영양교육에 이르기까지 관리 지원했으며, 1차 학교의 경험과 매뉴얼을 바탕으로 2차 및 3차 시범학교 담당 현지 영양전문인력을 1차 학교에서 현장 실습 후 파견함으로써 급식 운영을 현지 전문인력이 주도적으로 감당해 나가도록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2010년 교육부와 울란바타르시 교육청에 영양전문가가 학교급식을 전담하는 인력으로 세워졌고 3개 시범학교 내 학교급식 영양전문인력의 배치가 제도화되면서 관할 교육청 및 시범학교에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부담하여 학교급식체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방안과 문제점 해결을 모색하는 중요한 구심점이 되었다.

임파워먼트 지표 측정 결과

임파워먼트	객관적	주관적
정량적	사회적 임파워먼트 1) 학교급식대상자 • 초등학교 영양교육 제공 횟수 : 내부저널 자료 및 보고서 (1차 학교) 주 1회 (2차 학교) 월 1회 (3차 학교) 총 5회 2) 학교급식운영자 • 시범사업 기간 내 학교급식 전문인력(영양/조리) 대상 학교급식 관련 교육 인원수 : 내부보고서, 20명 (영양 4명, 조리 16명) • 학교급식 운영 관련 교육을 이수한 급식 관련 인력 (영양사, 조리원, 세척원) 배치 여부 : 배치(100%) • 몽골 교육부와 시교육청 내 학교급식 전담인력 (영양전문가) 배치 여부 : 배치(100%)	사회적 임파워먼트 1) 학교급식대상자 • 초등학교 급식 만족도 평균 점수 : 내부저널자료/survey (1차) 94.5점(2007년) (3차) 89.6점(2010년) • 영양위생교육을 받은 초등학교의 영양인식 변화 : 내부저널자료/survey (1차) 2008년 12월 71.4점 -> 2009년 10월 78.1점 (2차) 2008년 10월 56.4점 -> 2010년 10월 86.8점
정성적	• 몽골과학기술대학교 내 몽골영양개선연구소 개소 • 몽골과학기술대학교 내 몽골 최초 영양학과 개설 • 시범학교 및 몽골 교육부처 내 영양사 배치 제도화 • 학교급식 운영매뉴얼 발간	

4. '비차별' 원칙 적용 과정과 성과

지역별 격차를 고려한 3개 시범학교 선정 및 3개 유형별 급식 실시

위드가 학교급식 사업을 수행한 3개교는 몽골의 전체 상황을 잘 대변하면서 사회적 영양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몽골 국민의 약 50%가 거주하는 수도 울란바타르시의 빈곤취약층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도시빈민지역의 1개교(1차 시범학교)와 수도가 아닌 도시에 거주하지만(전체 국민의 약 20% 거주) 지방 간 격차가 심한 아르항가이 지방도시지역 1개교(2차 시범학교), 그리고 몽골의 문화적 특성을 잘 반영한 다신질링숨 시골 유목민 지역의 1개교(3차 시범학교)를 선정하여 지역적 격차를 고려한 3개 유형별 시범학교급식 운영체계를 구축했다. 표 2와 같이 시범학교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급식 운영체계를 설계했는데, 1차 시범학교는 수도에 위치하여 시장접근성, 식자재 조달은 원활했지만 난방 및 상수도 사용이 중앙관리체계가 아닌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하므로 새롭게 구축했고, 전기가 자주 나가는 상황에 대비하여 급식 설비를 가스과 전기 두 가지 형태로, 세척실은 자동화 시스템으로 설계했다. 반면 2차 시범학교는 난방 및 상수도 시설이 도시 중앙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고 도청소재지에 있어 전기 공급이 중단되는 일이 드물었지만, 잦은 고장으로 운영상 어려움이 있는 자동화 설비보다 노동력을 증가시키는 형태로 전환하여 지방 도시 상황에 맞게 전기를 연료로 하고 자동과 수동이 가능한 준자동 시스템을 구축, 불필요한 투자를 최소화했다. 3차 시범학교는 슝(시골 지역단위로 한국의 군개념)의 특성상 전기 사용이 어려울 때를 대비하여 전기와 함께 뿔감을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존의 아궁이 시설을 보완하고 모든 설비를 수동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급식 모델을 도입했으며 시설 구축비용을 코이카의 자금 지원으로 진행했다. 특히 3차 시범학교의 시설은 2023년 현재까지 튼튼하게 작동하고 있어 많은 관계자들의 견학 장소로 활용되고 있으며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좋은 기자재를 도입하고자 인식하게 했다.

[표 2] 시범학교의 시설 설비의 특징

구분		수도형(1차)	지방도시형(2차)	유목민시골형(3차)
시설 상황	상하수도 시설	있음	있음	있음
	시장접근성/물품조달여건	원활	보통	저조
급식설계	원료공급	전기 + 가스	전기	전기 + 뿔감
	시설설비	자동	준자동	수동
배식방법		교실형급식	교실형급식	식당형급식

비차별 지표 측정 결과		
비차별	객관적	주관적
정량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유형별 학교급식 모델 구축: 3개 학교 100% 구축 이양 후 몽골정부의 학교급식 시범학교 운영여부: 3개 학교 100% 운영 3개 시범학교의 채소 등 필수영양소가 포함된 식단을 제공받은 1-5학년 학생 수: (1차) 1,200명/일 (2차) 700명/일 (3차) 350명/일, 평균식수인원임 3개 시범학교의 채소 등 필수영양소가 포함된 식단을 제공받은 1-5학년 학생 비율: 100% 	-
정성적	-	-

'참여', '임파워먼트', '비차별' 적용 위기와 해결

정치적 영향

위드가 몽골에 전문인력을 처음 파견한 1994년 이후 25년 만인 2019년에 마침내 학교급식법이 제정되었다. 위드와 MIN은 처음 학교급식법 제정을 위한 조사부터 참여했고 몽골 정부관계자와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그들이 주도하여 몽골 국민을 위한 법제화를 이끌어가게 했다. 그러나 25년의 기간 동안 차관만 6번이 바뀌는 등 수차례의 정치적인 변화로 인해 정책결정자가 교체되었고 그동안 구축해온 네트워크가 실효성을 잃는 경험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교체 때마다 위드와 MIN이 정책화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새로운 담당자를 찾아가서 네트워크를 다시 구축하고 몽골국민을 위한 학교급식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관해 진정성 있게 설득해 감으로써 정치적 한계를 극복해 나갔고 법제화를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었다. 2016년 몽골 학교급식법을 위한 입법팀이 구성되었을 때에 관계자들 모두가 학교급식법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동일하게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위드와 MIN이 입법팀을 적극적으로 만나고 한국 학교급식 전문가를 초청하여 몽골 정부 관계자 대상 세미나와 이후 10일간의 한국 견학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법령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가 달라졌고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법이 통과될 수 있었다. 2019년 학교급식법 제정 이후 몽골 교육부는 법의 적용을 받는 약 900개의 학교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학교급식 운영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한국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이어가고 있다.

참여, 임파워먼트, 비차별의 3원칙과 SDGs 성과 측면에서 바라본 몽골 학교급식 시범운영사업은 여러 측면에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SDG 2의 빈곤층과 영양취약계층에게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충분한 식량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비차별' 원칙의 관점에서 3개 유형별 학교급식 사업모델을 개발하여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빈곤층의 영양취약계층인 3개 학교의 사업수혜대상 아동들뿐만 아니라 영양취약계층인 모든 학령기 아동이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충분한 식사를 제공받아 장기적으로 모든 형태의 영양 불량을 해소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SDG 4와 SDG 8은 '임파워먼트' 측면에서 학교 급식 대상자인 초등학생의 교육을 통한 변화뿐만 아니라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주도적으로 이끌 급식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직업 교육 접근성을 보장하고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SDG의 성과가 지속되고 확대되기 위해 학교급식의 법제화를 달성해 가는 과정에서 위드가 촉진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현지 정부 및 학계 파트너 기관이 사업 발굴부터 준비, 시행, 이양과 정책화의 모든 단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25년의 시간을 함께 발전하고 성장하고 이루어 나간 것이다. 사례 연구를 통해 SDG의 성과 달성에 있어서 위드의 강점과 기여, 역할에 대해 3원칙을 적용함으로써 그 의미를 찾아보고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다른 사업에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베이직포걸스: 여성 청소년 성·생식 보건 사업

월드비전

6

베이직포겔스: 여성 청소년 성·생식 보건 사업

월드비전

기관명	월드비전
프로그램명	베이직포겔스: 여성 청소년 성·생식 보건 사업
사업목표	월경위생 관리에 친화적이고 교내 젠더기반폭력에 대응하는 환경 조성을 통해 10-15세 여성 청소년의 성 재생산 건강을 향상시킨다
사업지역	잠비아(Zambia) 남부 마자부카(Mazabuka)구 마고예(Magoye) 지역
사업기간	2019년 10월 ~ 2022년 12월
주요 파트너 재정/실행/네트워크/평가 등	
재원협력 파트너	자체 사업
실행협력 파트너	월드비전 잠비아
평가협력 파트너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잠비아 경제사회연구소
유관 SDGs	SDG 3. 모든 연령층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복지 증진 SDG 4.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 학습 기회 증진 SDG 5. 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 및 여아의 권익 신장 SDG 6.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 가능성과 지속 가능한 관리 보장



정유선 대리, 월드비전

NGO파견단원으로 인도에서 3년간 살며 사람에 대한 사랑을 배웠다. 2018년 월드비전 후원동행본부에 입사, 현재는 ESG사회공헌본부 임팩트프로젝트1팀에서 식수위생 사업과 베이직포겔스 사업 위주로 해외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사업을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각자의 1인칭 언어를 갖고 든든히 서기를 꿈 꾸면서, 베이직포겔스 사업에서 여아들의 목소리가 사업에 반영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행복을 느낀다.

기관 및 사업 소개 유관 SDGs 목표/세부 목표와 관련 지어 설명

1. 기관 소개

월드비전은 기관의 설립이념에 따라 투명경영을 실천하며 기독교 정체성을 토대로 국내외의 가장 취약한 아동·가정·지역사회가 빈곤과 불평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70년 역사와 사업 전문성을 토대로 개인 및 다양한 단체와 함께 협력하여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국제개발사업', '국제 구호사업' 등 범세계적인 나눔 실천을 비롯하여 '국내·북한·옹호사업' 등 가까운 이웃의 복지 실천을 위해 각종 캠페인을 진행함으로써 종교·인종·민족·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의 풍성한 삶을 위해 헌신한다.

2. 사업 배경

가장 취약한 아동을 위한 사업을 고민하면서 월드비전은 전 세계 각 사업에 성평등과 사회 통합 원칙(GESI)을 적용하고 있다. 장애인 보행로가 포함되어 있고 유니세프에서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는 여아 친화적 화장실을 짓거나, 각 사업마다 관련 역량 교육을 받고 책임을 갖는 위원회 설립 시 반드시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국가와 지역에 따라 인권 상황은 다를지라도, 많은 경우 여아들은 문화적 관습과 차별적 지위로 인해 더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었다.

특히나 월경 문제는 모든 여아가 겪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화권에서 드러내 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주제로 여겨져 조용히 심화되고 있다. 충분한 생리대를 구할 수 없는 여아들은 일상에서 생리대 대용품을 찾아 사용하는데, 낡은 천, 매트리스 조각, 나뭇잎 등 위생적이지 않은 용품들은 여아 생식 건강에 해를 수반해 없다. 그나마도 물이 부족하고 위생시설이 열악한 국가의 경우, 학교 화장실도 매우 열악하다 보니 여아가 사용한 생리대(대용품 포함)를 학교에서 처리하기 쉽지 않다. 여기에 월경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월경을 터부시하는 문화도 겹쳐지면서 여아들은 월경 기간 학교에 출석하기가 점차 어려워졌다.

네팔 여아의 41%와 남수단 여아 57%가 학교의 위생시설 부족을 언급하며, 결석의 가장 큰 사유가 월경이라고 응답했다. 이와 같이 잦은 결석으로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고, 학년이 올라가면서 중퇴 비율이 높아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2022년 UNDP 자료에 의하면 잠비아의 초등교육 중퇴율은 여아 13% 남아 18%로 오히려 여아의 중퇴율이 낮지만, 중등교육 단계로 넘어가면 여아 61% 남아 44%로 역전된다.

● Gender Equality and Social Inclusion의 약어

● Ogega, J., Douglas, Z. & Winter, E. (2020). Gender Equality and Social Inclusion : The World Vision Approach and Theory of Change. World Vision.

● Jewett, "It's a Girl Thing"

2017년 잠비아 초등교육 중퇴율은 여아 1.7%, 남아 1.3%이며 중등교육 중퇴율은 여아 1.5%, 남아 0.6%로 2배 이상의 큰 격차로 벌어진다. ● 그 중에서도 임신으로 인해 학교를 그만두는 여아의 비율은 2019년 기준 34.2%에 달하였다. ●● 이러한 상황에서 월드비전은 여아 지원·보호 사업을 점차 전개해 왔다. 한국 월드비전의 경우, 2012년 케냐 여학생 교육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해외 여아 사업을 지속해 왔고, 2015년 에티오피아 여아 월경 위생 환경 사업으로 본격적으로 여아들의 월경 위생 환경 개선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특히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4개 국가(잠비아, 탄자니아, 케냐, 네팔)에서 Basic For Girls 라는 이름 하에 여성 청소년 성·생식 보건 사업(이하 베이직포걸스)을 다년도 사업으로 진행하였다. 이는 여아 사업의 통합적 접근 사례로, 다층적 통합(개인, 관계, 조직, 사회), 생애주기 통합(10-15세 여성 청소년), 섹터 통합(아동보호 및 보건)을 적용한 사례이다. 또한 이 사업은 대중 참여 캠페인과 연계 운영되었다. 한국 후원자들이 생리대와 파우치를 직접 바느질 제작하여 월경위생 환경이 열악한 국가 여아들에게 발송하는 캠페인으로, 참여를 통해 얼마나 많은 여아들이 열악한 월경위생 환경에 있는지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국제사회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권을 보장하고자 여성차별철폐협약(1979)을 채택하고, 베이징 행동강령(BPFA)을 통해 이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였으며, 나아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하나로 성평등을 포함하고 있다. SDG5의 ‘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여아의 역량강화’에는 인신매매나 성착취, 조혼이나 여성할례 등에 대한 철폐뿐만 아니라 성재생산건강권리나 경제적 권리 등 동등한 기회와 권리의 보장을 포함하고 있다. ●●●

이러한 선상에서, 잠비아는 열악한 월경위생관리 환경과 여아 인권 이슈가 심각한 나라인 동시에 주민과 아동이 사업에 적극적 태도를 보인 나라이기도 함을 고려해 사업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잠비아 지역사회에는 조혼이 만연하여, 2018년 기준 20-24세 여성의 29%가 18세 이전에, 5%가 15세 이전에 결혼하였다. ●●●● 조혼으로 어린 나이에 학업을 중단한 여아들은 교육 기회 박탈로 소득 증대 기회를 얻지 못하고 가난한 가정과 육아에 대한 막중한 책임 아래 살아가며, 열악한 보건 시설로 인해 산모와 신생아의 사망률도 높다. 또한 어린 나이의 학업 중단과 조혼이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만큼, 월경 문제로 인한 학교 중퇴 또한 조혼과 상당 부분 엮여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림 1] 한국 후원자들이 만든 생리대를 보급 받은 학생들 모습

이에 따라 잠비아 정부도 조혼 근절을 위한 국가 전략 문서를 발간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높은 에이즈 유병률 등을 고려하면서 통합적 성교육을 교과 과정으로 편성한 바 있다. 아이들은 교과 과정 내에서 인권, 성평등, 생식 건강, 성폭력 근절 등의 내용을 조금씩 배울 수 있고, 교내 월경위생관리 환경을 조성하라는 정부 지침도 일부 지역에 시험 진행하고 있었다. 그 결과 2013년에 여학생의 출석률이 개선된 경험을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부 방침은 일선 학교 예산 배분으로 연결되지 못하여, 꾸준한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재정 악화로 휴지나 비누 등 소모품도 구비하지 못하는 학교가 많고, 학교 건물 또한 낙후되었다. 학교 화장실 83%에 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문을 잠글 수 없는 낡은 화장실이 다수를 이룬다. 특히 마고에 지역은 2017년부터 가뭄이 이어지면서, 지역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져 생필품 구매조차 어려운 가정이 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많은 아동과 청소년이 교육 대신 위험한 환경에 놓였으므로 학교 출석률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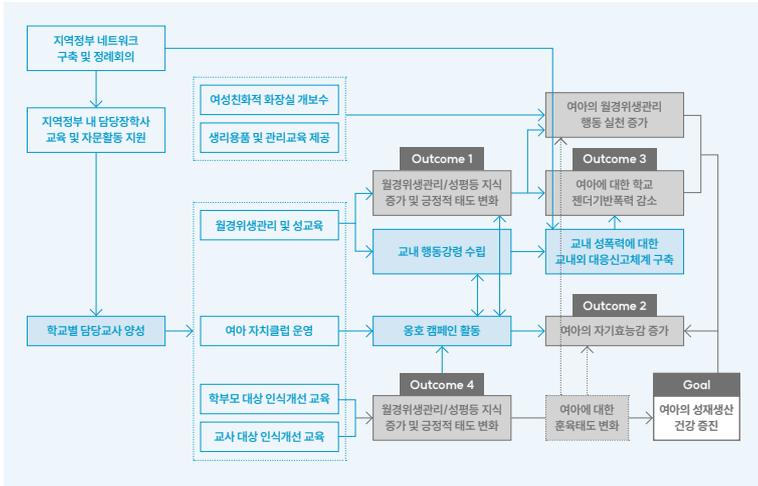
실제 본 사업에서 2019년 시행한 기초선 조사 결과, 여학생의 40%가 월경으로 학교를 결석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기존 월드비전 잠비아의 연구 결과에서도 확인된 사실이다. 개인차는 있으나 월 3-7일 가량 결석을 할 경우 학업 성취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이는 중등학교 진학률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또한 월경위생관리 지식에 대한 조사 결과, 여아들은 대체로 지식이 아주 낮다고 볼 수는 없는 선(실험군 63.1점, 대조군 70.9점)이었음에도, 유독 “생리 기간 중 가능한 신체 활동” 문항에서 유난히 낮은 지식을 보였다. 다수의 응답자가 생리 기간 요리를 할 수 없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지역 내 만연한 관습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지역에 “생리 중인 여성이 요리를 해서는 안 된다” 혹은 “생리 중인 여성이 식물을 만져서는 안 된다” 등의 부정적이고 차별적인 관습이 있음을 확인하여, 이러한 인식 개선 활동을 사업에 포함하였다. 연구진은 회귀 분석을 통해 월경위생관리 행동과 월경위생관리 관련 자기 효능감에서 높은 점수를 보일수록 월경으로 인한 결석이 낮아지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이는 월경위생관리 행동뿐 아니라 월경위생관리 관련 자기 효능감을 증진하는 사업이 여학생들의 월경 결석 비율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여학생 몸과 마음의 건강은 이들의 학교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를 감안하여, 사업은 환경 조성(생리대/성평등 지식 증가)을 통해 긍정적 태도와 자아 효능감까지 제고하는 방향으로 기획되었다.

● World Vision Zambia. (2021). The Urban and Rural Programme for Learners' Inclusion, Foundation, and Transformation through Education.
 ●● United Nations ZAMBIA. (2022). ZAMBIA : Sustainable Development Cooperation Framework 2023-2027.
 ●●● 신혜수. (2017). 젠더기반 국제개발협력과 인권. 국제개발협력, (4), 39-64.
 ●●●● Zambia Statistics Agency, Ministry of Health Zambia, and ICF (2019) Zambia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 2018. Lusaka, Zambia, and Rockville, Maryland, USA: Zambia Statistics Agency, Ministry of Health, and ICF.

[그림 2] 잠비아 베이직포글스 사업 Impact Pathway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여아를 둘러싼 환경 개선: 교내 화장실/수도 시설 건축과 생리대 구비, 면 생리대 만들기 교육을 통해 여아의 월경위생관리 환경을 갖추고, 교내 성폭력 신고 시스템을 마련한다. (2) 주변인 인식 개선: 남아/교사/양육자/마을 지도자 대상 월경위생 관련 교육, 올바른 성 인식 교육을 두루 진행한다. (3) 여아 성장 지원: 월경위생 교육과 성교육을 통해, 월경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버리고 자신의 신체를 긍정할 수 있도록 돕고, 여아가 직접 선택하여 스포츠 활동이나 클럽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 성과 확인은 2019년 기초선 조사와 2022년 종료선 조사를 중심으로, 1년에 한 번씩 관련 지표를 추적 기록하여 진행하였다. 기초선 조사와 종료선 조사 시 양적 데이터는 잠비아 마고에 12개 학교(실험군 6개교, 대조군 6개교)에서 ODK(Open Data Kit) 태블릿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집하였으며, SPSS Version 23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만 3년에 걸친 사업 결과, 다음과 같은 성과가 있었다.

SDGs 목표	SDGs 세부목표	기여한 사업 성과
SDG 3	3.3 2030년까지 AIDS, 결핵, 말라리아, 소위열대질 환 등의 전염병의 대규모 확산을 근절하고, 간염, 수인성 질환의 살 보장과 성 질환 및 기타 감염성 질환을 퇴지한다.	HIV/에이즈를 비롯한 성병 예방 교육 진행 ● 여아 3,715명 대상 포괄적 성교육 시행 ● 남아 3,382명 대상 성교육, 성평등 인식 개선 교육 167회 시행
SDG 4	4.1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가 유의미하고 효과적인 학습 성과를 달성하도록 형평성 있는 양질의 초등 및 중등 교육을 무상으로 이수하도록 보장한다. 4.5 2030년까지 교육에 대한 성별 격차를 해소하고, '장애인, 선주민,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을 포함한 모든 취약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 및 직업 훈련에 '동등하게 접근하도록 보장한다. 4.a 아동, 장애, 성별을 고려한 교육 시설을 설립 및 개선하고,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 교내 여아 대상 폭력 목격에 대한 응답 실험군 ● 17.59% > 7.04%*** 대조군 7.97% > 13.04% ● 학교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여아 비율 실험군 88.44% > 93.48% 대조군 92.46% > 86.23% ** 교과 외 교육 지원으로 보다 양질의 교육 조성 ● 여아 1,804명 스포츠 클럽 지원(운동복, 콘트 등 운동 용품 지원 포함) ● 아동 579명 월경위생관리 교내 클럽 월경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여아들의 학교 접근성 확대

SDGs 목표	SDGs 세부목표	기여한 사업 성과
SDG 5	5.1 여성 및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모든 곳에서 없앤다. 모든 여성 및 여아의 권익 신장 5.2 인신매매, 성 착취 및 기타 유형의 착취를 포함하여, 공적 및 사적 영역에서 여성과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철폐한다. 5.6 [국제인구개발회의의 행동계획], [베이징행동강령] 및 검토회의의 결과 문서에 따라 합의된 대로, 성·생식 보건과 재생산권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한다.	성평등 인식 개선 및 관련 환경 조성 <여아/남아 대상> ● 여아 4,484명 대상 면 생리대 제공 (한국 후원자가 만든 생리대 포함) ● 아동 595명(여아 460명 남아 135명) 면 생리대 만들기 교육 수행 ● 여아 774명 대상 월경위생관리 교육 및 상담 > 여아 월경위생관리 지식 상승: 실험군 13.27% 상승 (대조군은 6% 상승으로 약 2배) > 여아 월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실험군 11%*** (대조군 2%) > 올바른 생리대 사용 여아 비율 실험군 (40.82% > 85.71%)* 대조군 (39.39% > 69.70%)* ● 여아 3,715명 대상 포괄적 성교육 시행 ● 남아 3,382명 대상 성교육, 성평등 인식 개선 교육 167회 시행 <양육자/교사 대상> ● 젠더 담당 교사 56명(여성 35명, 남성 31명) 대상 포괄적 성교육 지도자 훈련 실시 ● 10개 학교 젠더기반폭력 대응 시스템 구축 ● 10개 학교 학부모교사위원회 40명 대상 교내외 성폭력 근절 및 대처 교육 ● 교사 303명 대상 올바른 성 인식 교육 시행 ● 양육자 1,223명 대상 올바른 성 인식 교육시행 ● 그 외 여아 주변 이해관계자 818명 (여성 357명 남성 461명) 대상 양성 평등 인식 교육 ● 아동 조혼 등 모든 형태의 여아 대상 폭력 근절 훈련 진행 ● 젠더기반폭력 근절을 위한 옹호 캠페인 22회 실시 ● 16개 학교에서 젠더기반폭력 행동강령 수립 ● 부모 양육 상담 진행 <마을 지도자/종교 지도자 대상> ● 마을 지도자/종교 지도자 1,579명 (여성 681명 남성 898명) 대상 월경 관련 지식 및 올바른 성 인식 교육 시행
SDG 6	6.2 2030년까지 여성과 여아 및 취약 계층의 필요에 모두를 위한 물과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모두에게 적절하고 공평한 위생의 이용 가능성과 지속 가능한 관리 보장	학교 내 위생시설 및 식수시설 설치 ● 14개 학교 내 여아친화적 화장실 14동 건축 ● 기계식 관정 시스템으로 마을/학교 내 식수대 46기 설치

● 본문을 제시된 조사 결과치는 대체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수치별로 유의확률 기준에는 차이가 있으며, *p<0.1인 경우(이하 *로 표시), **p<0.05인 경우(이하 **로 표시), ***p<0.01인 경우(이하 ***로 표시)를 각각 확인하였다.

● 실험군은 월드비전에서 수행한 본 Basic for girls 사업에 이미 참여한 학교를 의미하며, 대조군은 3차년도 사업 대상 학교로 아직 Basic for girls 사업에 참여하지 전인 학교를 말한다.

‘참여’, ‘임파워먼트’, ‘비차별’의 적용

월드비전은 사업 수행에 있어 현장 주민과의 관계, 현장 주민의 참여를 중요시하고 있다. 주민 대상 사업 설명회를 진행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분기별 회의를 통해 여인이 사업에 계속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특히나 아동 참여를 강조하여, 아동이 단순 시혜의 대상이 아닌 변화의 주체로 서도록 하고 있다.

모든 사업에는 주민과 아동의 역량 강화가 반드시 포함된다. 예컨대 식수위생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지역에 식수위생 위원회를 조직하여, 주민들이 직접 시설 운영 역할을 기르고 주민의식을 갖도록 한다. 교육 사업이라면 마을 주민들이 저축모임과 학교 위원회를 조직하여, 학교 운영기금 관리와 시설 유지보수를 공동의 책임으로 한다. 이러한 원칙으로 월드비전 식수시설은 80% 이상이 평균 20년 이상 작동하는 등,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해 왔다.

비차별 원칙 또한 적용되고 있다. 위원회에는 반드시 여성, 아동/청소년, 장애인도 참여하게끔 되어 있으며, 수혜자 선정 과정에서는 가장 취약한 아동과 가정을 중심으로 한다. 이 과정 또한 주민 참여를 통해 이루어진다. 아동이나 취약 성인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직원과 자원봉사자는 월드비전의 관련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만 한다. 아동/취약 성인 보호 교육과 성범죄 방지 교육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베이직포겔스 사업 또한 이러한 원칙 위에서 진행되었다.

1. ‘참여’ 원칙 적용 과정 및 성과

1) 주민들의 참여 선순환

기초선 조사 전 약 1주에 걸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조사 참여 희망자에게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학생 440명(여자 220명, 남자 220명), 교사 80명, 양육자 120명 대상을 목표로 사업 내용, 조사 연구 목적, 조사 방식과 과정, 수집된 내용의 사용, 익명성 보장,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 등을 상세히 안내하였다. 설문 참여 이후라도 원치 않을 경우 설문 참여를 철회할 수 있도록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도 함께 전달하였다. 설문 참여에 대한 경제적 보상은 없었지만, 이 연구 성과가 어떤 사업으로 이어질지, 그 사업에서 주민들과 아이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명확히 설명하였다. 주민들은 설명을 잘 듣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목표 모수에 비해 많은 인원(여자 239명, 남자 255명, 교사 100명, 주양육자 148명)의 유효 응답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적극성의 배경에는 아동과 주민들이 이미 경험한 성취의 선례가 있다. 마고에 지역은 2005년부터 한국 월드비전의 지원으로 사업을 진행해 온 지역으로, 많은 주민들은 이미 소득증대, 교육, 식수위생 등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며 삶의 변화를 체감해 온 지역이다. 이렇듯 참여의 경험은 향후 또 다른 사업 진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주민 참여를 통한 선순환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사업 진행 과정에서도 주민들의 참여도가 좋았다. 오래 전통으로 내려온 관습과 젠더 의식, 월경 관련 지식 등 다소 내밀하고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영역이었음에도, 양육자와 교사뿐 아니라 마을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까지 교육과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우리 마을에서 원래 월경 중인 여자는 가족을 위한 식사 준비를 해서도 안되고, 어떤 식사에도 소금을 넣어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혼자 있어야 한다고 믿어왔어요. 여자가 월경 중일 때는 나쁜 영에 사로잡힌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생리대 천을 보는 것도 금기였습니다. 이런 문제로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을 피하고, 비방하고, 여자아이들은 학교를 빠지고 했죠. 하지만 베이직포겔스 사업으로 여러 교육을 받으면서, 여자들이 청결한 환경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며 학교에 다니도록 보장하는 것이 저희 어른들의 역할을 배웠어요. 이제 우리는 월경이 정상적인 생물학적 과정이고, 나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임을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월경은 불경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고, 아이들은 월경 관례해서 부모님이나 친구들과 이야기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우리도 면 생리대 만드는 법을 배웠고, 아이들과 부모님들께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빈센트(Vincent, 2020년 당시 55세), 심와바 지역 사천드웨 마을 촌장

2) 여아의 참여와 자기 효능감 증진

이러한 선순환의 일환으로, 당사자인 여아들이 자신이 참여할 사업 활동을 직접 결정하도록 하였다. 월드비전이 활동을 일반적으로 정하는 대신 여아들과 논의를 함께 하고, 여아들의 결론에 따라 필요한 용품을 지원하는 형태로 기획하여, 여아들이 주도권을 쥐도록 한 것이다. 여아들에게 자기 효능감 증진을 위한 다양한 교과 외 레크리에이션 과정을 소개하고, 논의하여 하고 싶은 활동을 직접 선택하도록 했다. 많은 여아들이 스포츠 활동을 선택하여, 학교에 스포츠 클럽을 조성하고 유니폼, 공, 네트 등 운동 용품을 지원하게 되었다. 이 스포츠 활동은 여아들의 참여에서 그치지 않고, 주변인의 인식 변화로 이어졌다. 스포츠 행사를 구경하러 온 여아의 가족들은 자유롭게 뛰어놀고 몸도 마음도 건강한 여아의 모습을 보며, 자연스럽게 여아의 신체 활동 제약에 대한 인식이 깨지는 경험을 하였다.

여아들이 직접 결정한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면 생리대 만들기 교육을 수료하고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금도 여아들은 모임을 이어가고 있다. 생리대는 매달 사용하는 물건이라 소모품이기도 하고, 초경 즈음의 여아들에게도 전달 교육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모임에서는 면 생리대 만들기를 계속하고, 인식 개선 활동을 기획하기도 한다. 사업 기간 이후에도 사업 활동이 지속되고 심지어 더 많은 여아들에게 확장되고 있는 것은, 여아들이 직접 참여하였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제가 월경을 처음 했을 때, 생리대가 마땅치 않았어요. 월경에 대해서는 선생님께도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었고, 전통적으로 할머니께만 배울 수 있다고 했거든요. 할머니께서는 학교를 빠지라고 하셨어요. 월경 기간에 제가 가진 생리대로는 학교에서 몇 시간 동안 버틸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여자아이들은 집에 있는 게 속 편하고 좋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학교 수업도 빠지지 않고, 면 생리대 수업도 들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앞으로 몇 년은 넉넉히 사용할 수 있는 면 생리대가 생겼어요. 저는 더 이상 월경 중에 공공장소에 있는 걸 피하지 않아요. 포괄적 성교육 시간에 배워서, 사춘기 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신체 변화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도리스(Doris, 2020년 당시 12세), 무넨가 중등학교 재학생



[그림 3] 면 생리대 만들기 교육을 받는 마을 지도자들 모습



[그림 4] 현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활용하면 생리대를 만드는 도리스 모습



[그림 5] 스포츠 용품을 지원받은 여아들의 모습



[그림 6] 여아 대상 포괄적 성교육 수업이 진행 중인 모습

월경 기간의 여아가 소외당하고 배척당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던 공동체의 다른 일원 즉 여아 주변인의 태도 또한 변화하였다. 월경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고, 월경을 이유로 여성이 사회 활동이나 학교 생활에서 소외되어서는 안 됨을 인지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이는 사회에서 여성의 존엄이 인정받고, 여아와 남아 사이 폭력이 아닌 신뢰의 관계가 쌓일 수 있는 기반이 된다.

2) 자원 접근성 증대와 지속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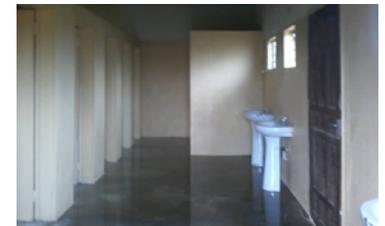
잠비아 베이직포겔스 사업에는 소득증대 활동이 들어있지 않지만, 재사용 가능한 면 생리대 만들기 교육을 통해 가정 내 자원 활용도를 높여 간접적으로 가정 경제에 이바지했다. 이 활동은 특히 여성 양육자, 즉 여아의 어머니들에게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이들은 여아의 가장 가까운 주변인인 동시에, 한때 월경 기간 학교에 다니는 일을 힘들어한 당사자였기도 하기에, 그 동안 여아의 생리대 구입 문제에 있어 가장 적극적인 역할을 해왔다. 본인이 생리대가 없어 천을 대용으로 쓰고 생리혈이 새서 괴로웠던 기억이 있다 보니, 평상시에 남편이나 시아버지에게 거의 항상 순응하다가도 딸의 생리대 비용만큼은 단호하게 요구했다는 어머니도 있을 정도였다.

면 생리대 만들기 교육은 현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천을 활용하여, 사업 기간은 물론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생리대를 직접 만들어 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이로써 생리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가정의 자원 접근성을 높였고, 이는 가정 내 여성의 권리 의식과 존엄성을 향상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한편 식수 위생 환경 구축을 통해서도 자원 접근성이 증대되었다. 그동안 잠비아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필요한 식수 시설과 화장실이 세워지지 못한 일선 학교가 많았으나, 베이직포겔스 사업을 통해 14개 학교에 수도, 생리대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 문을 잠글 수 있는 시설 등 유니세프 기준을 충족하는 여아 친화적 화장실과 샤워실까지 설치할 수 있었다. 또한 기계식 관정 시스템을 건축하여 학교와 인근 마을에 식수대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깨끗한 식수를 마실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7] 완공된 화장실 외관



[그림 8] 완공된 화장실 내부

참여 지표 측정 결과		
참여	객관적	주관적
정량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 생리대 만들기 교육을 받은 아동의 수 (595명) 포괄적 성교육 받은 여아 수 (3,715명) 포괄적 성교육 및 성평등 인식 개선 교육을 받은 남아 수 (3,382명) 올바른 성 인식 교육을 받은 교사 수 (303명) 올바른 성 인식 교육을 받은 양육자 수 (1,223명) 올바른 성 인식 교육을 받은 마을 지도자/종교 지도자 수 (1,579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아들의 월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 완화 (4점 척도, 낮을수록 긍정적인 결과) 실험군 2.51 > 2.22점 (p < .001) 대조군 2.54점 > 2.47점 여아들의 월경 관련 차별적 관습에 대한 동의 정도 (4점 만점, 높을수록 부정적인 현상) 실험군 3.19 > 3.09점 대조군 3.32 > 3.42점
정성적	N/A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 지도자/종교 지도자 대상 올바른 성 인식 교육 수료 후 이들의 협력으로 조혼 여아 2명이 학교에 복학한 사례 아동 조혼 등 모든 형태의 여아 대상 폭력 근절 훈련 후 아동학대(3살, 12살 여아 2명 학대) 가해자를 체포한 사례

2. '임파워먼트' 원칙 적용 과정 및 성과

1) 여아와 주변인의 여아 존중 태도 변화

본 사업은 그동안 여러 사회 통념 상 수치스럽고 괴로운 것으로만 여겨지던 월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여아뿐 아니라 여아 주변인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여아가 보다 자기 신체를 긍정하고 스스로의 존엄성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월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 포괄적 성교육, 스포츠 활동과 월경위생 관련 클럽 활동을 통해 여아는 자신의 신체를 긍정하고 존중할 수 있게 된다.

여아들이 스스로 평가한 자기 효능감 점수는 소폭 상승하였다. (18.68 > 19.11) 반면 대조군에서는 소폭 하락(19.08 > 18.15)을 보여, 사업의 개입이 없으면 오히려 낮아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설문에 참여한 아동 다수가 사춘기를 겪을 법한 나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기 효능감이 하락할 수 있는 시기임을 감안하면, 적은 차이이기도 하나 방향성의 명확한 차이에 의미를 둘 수 있다.

여아들의 젠더 의식에 대한 점수는 더욱 유의미한 수준으로 차이를 보였다. 마찬가지로 대조군은 낮아지고 (26.92 > 26.5), 실험군은 높아지는 양상이었다(27.44 > 28.35**). 자기 효능감이나 젠더 의식은 내면 깊은 곳에 자리잡고 있어, 행동이나 태도에 비해 변화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분명한 방향성의 의미가 더욱 빛난다.

식수를 얻는 데 들이는 시간과 품을 줄이고 수인성 질병을 예방하여 장기적으로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 이러한 자원 접근성 증대는 그 자체로 가정 경제에 이바지하기도 하지만, 기존에 어렵게 얻어내던 자원을 스스로의 힘으로 얻거나 조율할 수 있다는 점, 그로 인해 발생한 시간과 품을 다른 활동에 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여성과 여아들의 권리 향상에 기여한다.

3) 관습에 어긋나도 괜찮다는 말

문화적으로도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 “생리 중에 요리를 하면 안 된다” 혹은 “식물을 만지면 안 된다”는 부정적인 관행을 어겼을 때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말에 대해 “진짜로 그렇게 될까?” 하는 의문을 많은 여아들이 품고 있었다. 이 의문을 속시원하게 해결해주고 “괜찮아”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고, 처음에는 의문을 갖기도 하고 반항을 하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이러한 부정적 인식 속에 살아간다면 여아는 장차 이 잘못된 인식에 순응하고 나아가 수호하는 어른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

사업 전후로 지역 내 만연한 월경 관련 부정적 관습에 공감하는 정도를 물었을 때, 실험군에서는 3.1%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대조군에서는 오히려 증가하였다. 따로 교육을 받지 않으면 해당 관습에 더욱 동화된다는 의미이다. 잠비아 정부에서 도입한 통합적 성교육 내용이 교과에 있음에도, 월경을 입에 올리는 일이 터부시 되고 부정적인 관습이 더욱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이는 교과 교육뿐 아니라 교과 외 교육까지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생각해 보면 우리도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사회에 산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름을 빨간 글씨로 쓰는 일이나 문지방을 밟고 서는 일을 꺼리는 분위기가 있다. 잠비아 주민들과 여아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 관습에서 자유로워질수록 여아가 월경과 스스로의 신체를 긍정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이미 만연한 관습을 조금씩이나마 조정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 여아들이 “그래도 괜찮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견고한 인습이 아주 깨지지는 못했지만 변화의 밑그림은 마련된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임파워먼트 지표 측정 결과		
임파워먼트	객관적	주관적
정량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학생 대상 월경위생관리 교육 참여자 수: 774명 • 월경위생관리/성교육 연수를 받은 젠더 담당 교사 수: 56명 (여성 35명, 남성 31명) • 연 생리대 만들기 교육 참여 학생 수: 595명 (여아 460명, 남아 135명) • 여아 포괄적 성교육 참여자 수: 3,715명 • 스포츠 클럽/아동 월경위생관리 클럽 활동 참여 아동 수: 2,383명 (스포츠 클럽 1,804명, 월경위생관리 클럽 579명) • 젠더반폭력 근절 캠페인 진행 횟수: 22회 • 올바른 성 인식 교육 참여 교사/양육자/이해관계자 수: 2,344명 (교사 303명, 양육자 1,223명, 주변 이해관계자 818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학생 242명, 남학생 243명, 남녀 교사 각각 40명, 아동 보호자 148명-여성 94명, 남성 43명 설문조사 시행 • 월경위생관리 관련 지식, 태도, 행동의 변화 • 자기 효능감의 변화 • 학교 내 젠더반폭력에 대한 인식 변화 • 성평등 의식 및 지식
정성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젠더반폭력 대응/신고 시스템을 마련한 학교 수: 10개교 • 젠더반폭력 행동강령을 제정한 학교 수: 16개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적 인식에 대한 여아들의 상담 전후 변화 차이 • 여아 임파워먼트 지수 • 실험군 18.68 > 19.11, 대조군 19.08 > 18.15*

3. '비차별' 원칙 적용 과정 및 성과

1) 여아 중심의 사업 전개

여아의 삶을 둘러싼 다양한 차별을 해소하는 것을 큰 목표로 갖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 사업의 모든 활동이 여아에 대한 비차별을 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올바른 성 인식 교육 및 성폭력/성차별 근절을 위한 교육을 지역사회 주요 구성원들이 받도록 하였다. 월경을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조심스러운 문화권에서 진행하다 보니, 월경에 대한 교육이나 생리대를 배부하는 문제의 경우,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도 젠더가 참여 가부를 가리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기초선/종료선 조사 시에는 여성 조사원을 반드시 일정 비율 포함하여, 여성이 편안하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남아를 배제하지 않는 사업

베이직포겔스 사업을 기획하다 보면 “왜 남아는 지원하지 않고 여아만 지원하나요?”라는 말을 종종 듣곤 하는데, 이 말은 후원자의 입에서도 현장 직원이나 주민들의 입에서도 나왔다. 베이직포겔스 사업은 얼핏 보면 여아를 둘러싼 환경을 개선하고, 여아에 대한 지원 만을 하는 사업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상기 서술했듯 여아를 지원한다는 말이 곧 남아를 배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베이직포겔스 사업을 통해 여아와 남아 특히 사춘기에 이른 청소년 사이 상호 차이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월경에 대한 편견과 몰이해로 상호 부정적인 감정이 쌓일 소지를 줄이고, 건강하고 올바른 성 인식을 쌓도록 교육한다. 남녀 구분 화장실과 식수 시설은 남아의 생활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남아 대상 교육과 활동 또한 사업에서 신경 쓴 부분이었다. 여아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려면 여아와 여성만의 변화로는 완성될 수 없기에, 모든 교육과 활동은 남성과 남아를 대상으로도 진행되었으며, 기초선/종료선 조사 또한 여아, 남아, 교사, 양육자를 분리하여 측정하며 차이를 면밀히 살펴왔다.

에컨대 연 생리대 만들기 교육에 남아들도 함께 참여하였다. 남아가 직접 사용하는 물건이 아니지만, 월경을 골방에서만 이야기하는 소재로 남겨두지 않고 열린 담론의 소재가 되도록 함으로, 월경에 대한 이해는 물론 나아가 남아와 여아 사이 상호 이해를 증진할 필요가 있었다. 실제로 사업에 참여한 남아들의 반응 또한 긍정적이었다.

2023년 3월 잠비아에서 만난 남자 아동은 지금도 “주 2회 아동클럽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동클럽 활동 시간에는 바느질을 배웠는데 연 생리대도 만들고 발 매트도 만들었다. 위생 교육도 받고, 아동학대와 성폭력 예방 교육도 받는다. 아동클럽 시간에 월경 위생 교육을 받고 난 후로, 여자아이들이 왜 한 번씩 학교를 빠지는지 알게 되었다. 월경이라는 게 있다는 건 알았지만, 자세히는 몰랐다. 남자아이들이 월경에 관해 이야기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이제는 함께 토론하고, 직접 생리대 만드는 법도 배운다. 특히 여자아이들에게 교육 기회가 평등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 나중에 여동생들에게 연 생리대에 대해서도 알려줄 것”이라고 했다.

'참여', '임파워먼트', '비차별' 적용 위기와 해결



[그림 9] 남아 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하는 모습
해당 교육을 받은 남학생 일부는 월경위생 클럽에 참여하여
면 생리대 만들기를 배우겠다고 결정하였다.



[그림 10] 월경위생 클럽에 참여하여 면 생리대 만들기
활동을 한 레오나드(Leonard)

“저는 3남 4녀 가정의 셋째인데, 지금까지 누나와 동생들에게 매달 생리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슬프지만, 추수 직후라서 수입이 있을 때에도 부모님께서 생리대를 사 주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베이직포리스 사업으로 학교에 새로운 클럽 활동이 시작됐는데, 그 중에 바느질 클럽이 있었어요. 거기서 재사용 가능한 면 생리대를 만드는 법을 배우겠다고 해서 저도 가입했습니다. 직접 만든 면 생리대를 누나와 동생들에게 주었을 때, 너무 기뻐해서 저까지 기분이 좋았어요. 누나와 동생들뿐 아니라 주변 많은 친구들이 월경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 가족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저희 가족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앞으로 계속 면 생리대 만들기 활동을 할 거예요.”

레오나드(2021년 당시 15세, 칼레야 초중학교 11학년)

비차별 지표 측정 결과		
비차별	객관적	주관적
정량적	젠더기반폭력 근절 옹호 캠페인 22회 실시	여아의 젠더 인식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험군 27.44점 > 28.35점** • 대조군 26.92점 > 26.5점 남아의 젠더 인식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험군 28점 > 29점** • 대조군 27.44점 > 27.08점
정성적	잠비아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이직 선언 및 행동강령 ● 서명 및 참여 • 2013 조혼 근절 위한 국가적 캠페인 개최 • 2016~2021 조혼 근절 위한 국가 전략 5개년 계획 수립 	N/A

● 해당 선언 내용 중 본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다.
 29. 여성과 소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방지하고 철폐한다.
 30. 교육과 보건 의료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과 대우를 도모하고 교육뿐 아니라 여성의 성·재생산 관련 건강을 증진한다.
 34. 모든 연령층의 소녀와 여성의 전면적인 잠재력을 개발하고, 만인을 위하여 더 좋은 세상을 이룩하는데 그들의 완전하고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며, 발전과정에 그들의 역할을 강화한다.

사업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코로나19 상황이 되었다. 2020년 3월, 잠비아는 선제적으로 지역 간 이동을 금하고 교육기관을 포함한 많은 시설의 운영을 중단하였으나, 조치 시행 바로 다음 날 첫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하였다. 개학은 2021년까지 미뤄졌고, 위생시설 건축은 예정대로 진행되었지만, 교육 활동이나 캠페인 활동은 예정보다 늦은 시기에 진행되거나 2차년도 계획으로 변경되어야 했다. 많은 인원의 집합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민 참여를 끌어내는 일은 쉽지 않았다.

또한 1차년도에 10개 학교 대상 동일한 활동을 진행해도 학교별로 성과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 성과가 낮은 학교에는 추가 지원이 필요하였다. 참여를 기반으로 사람을 기르는 사업인 만큼, 인식 개선의 속도와 코로나19로 교육 가능 환경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꼭 고려해야 했다. 다년도 사업이다 보니 촘촘한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 계획을 수정할 수 있었다. 1차년도에서 발견된 사항을 2차년도 사업 계획에 반영하면서 주민 참여를 계속 이끌어냈다.

본 사업은 여아의 삶에 변화를 도모하는 사업이지만, 남아, 양육자, 교사, 마을 지도자 등 다양한 그룹별로 모두 교육과 활동에 참여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보니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였다. 본 사업의 필요성과 목표에 대해 사업 대상자들과 사전에 긴밀히 논의하고 동의를 구했으며, 특히 전통이라는 미명 하에 월경에 대해 부정적 관습을 전수해 온 양육자와 마을 지도자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였다. 이는 많은 시간을 요했으며,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발생하였다.

예를 들어 양육자, 특히 여아와 가장 친밀하게 연결된 어머니들의 경우, “생리 중 요리를 해서는 안 된다” 혹은 “생리 중 여성은 식물을 만져서는 안 된다” 등의 관습에 더욱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는 여아의 행동을 강력하게 제약하며, 많은 여아들을 고민에 빠지게 만든 부분이지만, 양육자는 시작점부터 월경에 대한 일반적 태도가 매우 부정적이었고, 사업으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때 부정적인 관습으로 삶을 제약받고 고민했던 소녀였던 여성 양육자 당사자들이 이러한 관습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였다. 이러한 관습은 지키지 않을 경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내용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나 가족의 건강에 해가 생길 거나 생명에 위협이 갈 것이라는 내용인 경우에는 거스르기가 쉽지 않다.

한편 남아들의 경우에도 월경 관련 부정적 인식 개선 교육에서 의외의 결과를 보였다. 부정적 관습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 결과, 여아들은 유의미한 변화(부정적 관습에 동의하는 정도, 4점 만점: 실험군 3.19점 > 3.09점**, 대조군 3.32점 > 3.42점)을 보였으나, 남아의 경우에는 오히려 역으로 작용하여 실험군에서 부정적 태도가 높아지고 대조군에서는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실험군 2.9점 > 3.19점 **, 대조군 3.03점 > 3점) 다른 지표에 비해 도드라지는 이 역방향성을 파악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아 대상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업 이전까지 남아들은 월경에 대한 지식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다. 사업을 통해 월경에 대한 지식과 올바른 성 인식을 익힌 것은 좋았으나, 부정적인 관습에 대한 인지 또한 이전의 백지 상태에서 오히려 '이러한 관습이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된 것이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는 말을 들으면 그때부터 코끼리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과 비슷한 일이 있었던 셈이다. 교육의 효과는 뚜렷하여, 남아들은 교사의 말을 신뢰하고 우직하게 받아들였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이러한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가 아니라, "이러한 인식이 있다"라고 고만 받아들인 것이다. 예컨대 "생리 중인 여성이 소금을 만지면 안 된다고 하니까 내가 소금을 대신 넣어 야겠다"와 같은 식의 사고를 거친 것이다.

이는 관습에 대한 교육에 즉각적으로 반응한 여아들과는 다른 것이었다. 월경에 관해 부정적인 관습들이 그동안 남아보다는 여아의 삶을 제약해 왔기에, 여아들은 자신의 행동을 직접 제약하는 관습 앞에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 관습들이 진짜일지, 어기면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던 여아들은 교육을 받았을 때 마음 편하게 받아들였다. 반면 이전까지 이러한 관습에 대해 직접적으로 들은 적이 없거나 어렵듯하게 느끼기만 해온 남아들의 경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교사처럼 신뢰하는 대상이 제공하는 정보를 편견 없이 수용한다는 점에서, 남아는 교육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반면 한때 부정적인 관습에 대해 가장 치열하게 고민했을 여성 양육자들은 사람에 따라 반감 혹은 순응의 기간을 거쳤었으나, 결과적으로 부정적 관습의 가장 보수적인 지지자가 되었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통해서, 아동일 때에 더욱 적극적으로 장기적 관점의 교육이 필요함을 인지할 수 있었다.

생리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나 행동에 비해, 여아의 자기 효능감이나 성 인식, 부정적인 인식 개선은 좀 더 시간이 걸린다. 당사자와 주변인이 모두 참여하여 통합적인 변화를 추구할 경우 더욱 그렇다. 그러나 변화의 속도가 느릴 뿐 방향성은 확실하며, 시행착오를 통해서도 교육의 효과가 유의미함을 확인하였다.

결론

참여, 비차별, 임파워먼트는 아름답지만 아득하게만 존재하는 단어가 아니다. 이러한 원칙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사업 기간 종료와 함께 그동안 성과처럼 보였던 것들이 사상누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발협력 사업에서 이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원칙이다. 결국 주민들의 참여와 변화가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요인이 됨을, 그들이 사업과 변화의 주체임을 기억해야 한다.

당연히 쉽지는 않다. 아침에 10분 일찍 일어나는 일이나 양치 방법을 바꾸는 일처럼 일상적인 생활 습관 하나 바꾸는 일조차 쉽지 않다는 걸 우리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한다고 믿고 싶지만, 사람들이 꺼려 하는 미신적 습관을 굳이 어기고 싶어 하지 않는 모습 또한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 그러나 잠비아 주민들에게도 당연히 이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로 SDG가 달성되기를 우리 모두 희망하고 있기에, 원칙의 계속적 적용이 필요하다.

여기에 시간이 걸리고,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 간의 입장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차곡차곡 경험을 쌓아야 할 것이다. 참여의 경험은 주민의 물리적 참석 여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교육을 받고 또 전달 교육까지 하면서 역량 강화로 이어지고 이는 임파워먼트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사업 초기 꼼꼼한 기초선 조사와 분위기 파악이 필요할 것이다. 잠비아 남아들을 대상으로 교육의 효과는 분명히 있었으나 사업 기획 시 희망한 효과와는 다른 방향으로 작용했던 것처럼, 문제 상황을 인지하고 이에 알맞게 교육 계획을 짜더라도 우리의 기대와 다른 결과가 빚어질 수 있다.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는 없겠지만, 기초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 대표나 현장 직원 등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사업 원칙과 목적을 분명히 알려, 공동의 이해를 만들어가는 것 또한 필요하다.

참여, 비차별, 임파워먼트 원칙을 통해 사업은 더욱 풍성해지고, 지속 가능해진다. 주민과 아동들이 자신들이 할 활동을 직접 고민하고 결정하고, 이를 사업 기간 이후에도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를 기반으로 잠비아 베이직포겔스 사업은 2019년부터 2022년에 걸친 사업의 후속으로, 2023년 단계적 철수를 진행 중이다. 지금껏 지역 주민, 아동들과 함께 쌓아온 시간에 내재된 참여, 비차별, 임파워먼트의 원칙이 앞으로도 잠비아에서 많은 여자아이들을 자유롭게 하고, 더 풍성하고 건강한 사회 환경을 빛어갈 것을 기대한다.

미얀마 지역사회기반 재난위험경감 사업

조계종사회복지재단

7

미얀마 지역사회기반 재난위험경감 사업

조계종사회복지재단

기관명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프로그램명	미얀마 지역사회기반 재난위험경감 사업
사업목표	마을 및 학교 재난관리 거버넌스 구축 DRR 인지제고를 위한 마을 및 학교 단위의 역량 강화 재난대비 인프라 및 조기경보체계 구축
사업지역	미얀마 에아와디주 라뷰타군 (Labutta District, Ayeerwady Region,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사업기간	2016. 4. 1. ~ 2020. 12. 31. (5년)
주요 파트너 재정/실행/네트워크/평가 등	
재원협력 파트너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
실행협력 파트너	KCOC(운영기관), Share Ayeerwaddy(현지 시민사회파트너), 마을 및 학교 재난위원회, 지역 정부 및 관계 부처
평가협력 파트너	KCOC, KOICA
유관 SDGs	SDG1(빈곤퇴치), SDG3(건강과 웰빙), SDG4(양질의 교육), SDG9(산업, 혁신과 사회기반시설), SDG11(지속가능한 도시 및 거주지 조성), SDG13(기후변화 대응)



오성근,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라오스 지부장

2020년 5월부터 재단 인도적지원 담당자로, 미얀마 쿠테타로 인해 사업이 중단된 2021년 말까지 해당 사업을 담당했다. 현재 라오스 지부장으로 파견되어 사업 및 지부 운영 관리를 총괄하고 있다. 최근 모로코 지진의 예로 볼수 있듯이, 국가 수준부터 지역 사회까지 각 수준별 재난 대응 역량이 모두 중요하지만, 특히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자 (First Responder)로서 지역 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다시금 되새기고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상기 사업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애착을 갖고 있다. 다만, 쿠테타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로 사업이 중단된 점이 매우 아쉬워한다. 지역과 주민들이 가진 잠재력을 믿으며, 느리지만 꾸준히 그리고 현실에 두 발을 딛고 이상을 꿈꾸며 지금 여기 그대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기관 및 사업 소개 유관 SDGs 목표/세부 목표와 관련 지어 설명

1. 사업 배경

사업대상인 미안마 에야와디 강 하류 삼각주(델타) 지역은 미안마에서 가장 홍수의 피해가 큰 지역이며, 또한 벵골만 인근에서 발생하는 태풍 피해가 다발하는 지역으로 지난 2008년 태풍 나르기스로 인해 많은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자연 재난에 대한 취약성이 높은 지역에서 재난위험을 경감하고, 지역 사회의 재난 복원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민들의 재난대비 역량 강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재난 대응 체계 조성 등 통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난위험경감 활동이 매우 필요하다.

2. 사업 내용

재난 취약지역에서 현지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사회재난 대응 및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복원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1) 인식 개선 및 역량 강화 2) 관리 거버넌스 구축 3)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4) 대응 인프라 구축 5) 심리지원 및 COVID-19 대응을 진행했다.

3. 사업 성과

유관 SDG	세부 목표	성과
SDG 3 건강과 웰빙	3.d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국내 및 국제적 차원의 건강 위험에 대한 조기 경보, 위험 경감과 관리를 위한 역량을 강화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RR 인식 제고 및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 훈련 등 주민 역량강화 7,155명의 주민 및 학생 (총 303회) • 조기경보체계 수립을 위한 물품 제공 (54개 마을, 27개 학교)
SDG 4 양질의 교육	4.a 아동, 장애, 성별을 고려한 교육 시설을 설립 및 개선하고,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 교실을 겸한 다목적 대피소 건축(총 5개소)
SDG 9 산업, 혁신과 사회기반 시설	9.1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의 동등한 접근에 중점을 두고, 경제발전 및 인류의 웰빙 증진을 위해 지역차원 및 초국경 사회기반시설을 포함하여 신뢰성 있고 지속가능한 양질의 복원력 있는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한다. 9.a 아프리카 국가, 최빈국, 내륙개도국 및 군소도서 개발국에 대한 재정, 기술, 전문적인 지원을 확대하여,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을 촉진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 교실을 겸한 다목적 대피소(5개소) • 대피용 교량(8개소) • 대피용 도로(4개소)
SDG 11 지속가능한 도시 및 거주지 조성	11.b 2020년까지 포용, 자원 효율성,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자연재해에 대한 복원력을 위해 통합된 정책과 계획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도시와 주거지의 수를 대폭 늘리고, 샌다이 방재 프레임워크에 따라 모든 수준에서 통합재난위험관리를 개발하고 이행한다. 11.c 최빈국이 현지 자재를 활용하여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건물을 건축하도록 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4개 마을과 27개 학교에서 재난관리위원회를 조직하여 지역사회기반 재난관리체계의 기초 마련 • 초등학교 교실을 겸한 다목적 대피소 건축(총 5개소)

유관 SDG	세부 목표	성과
SDG 13 기후변화 대응	13.1 모든 국가에서 기후관련 위험 및 자연 재해에 대한 복원력과 적응력을 강화한다. 13.3 기후변화 완화, 적응, 영향 감소, 조기 경보 등에 관한 교육, 인식제고, 인적·제도적 역량을 강화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RR 인식 제고 및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 훈련 등 주민 역량강화 7,155명의 주민 및 학생 (총 303회) • 교육, 훈련을 받은 후 재난위험 인식도와 자식이 6.73%에서 91.35%로 84.62%p 향상 • 조기경보체계 수립을 위한 물품 제공 (54개 마을, 27개 학교)
	13.b 여성, 청년, 지역 공동체 및 소외된 공동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포함해 최빈국과 군소도서개발국에서 기후변화 관련 효과적인 계획과 관리를 위한 역량 개발 메커니즘을 증진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30,912명의 사업 참여자 중 여성은 15,584명 (50.4%), 남성은 15,328명 (49.6%) • 재난 발생 시 취약계층들의 최우선적 구조 및 대피를 위해 마을별 재난 대응계획에 이를 반영하고, 취약계층 구조팀을 구성 • 재난관리위원회 구성 시 최소 30% 이상 여성 참여 보장 • 노인, 장애, 아동 등 취약계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참여’, ‘임파워먼트’, ‘비차별’의 적용

주민들은 2008년 태풍 나르기스 이후에도 크고 작은 자연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경험하고 있고 실제 삶과 매우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참여 동기가 높은 편이었다. 2016년 아웅산 수치의 집권 후 민주화 이행과정에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고조되는 분위기도 영향이 컸다. 하지만, 아웅산 수치 집권 이후 사회의 변화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군부 통치의 영향으로 권위주의적 방식의 동원에 익숙한 주민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참여하는 것을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분명히 존재했다. 사회 전반적으로 여성들의 지위가 낮은 미얀마 상황, 특히 보수적인 농촌지역에서는 여성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데 있어서 한계가 존재했다.

따라서 지역의 재난 피해 생존자 청년 그룹을 모태로 설립된 현지 파트너기관은 지역의 문화, 사회적 맥락에 높은 이해를 가지고 있어, 현지의 기존 질서를 존중하면서도 대화와 설득을 통해 변화를 촉진했다. 각종 교육, 위원회 조직 등에 여성 비율을 의무 할당하여 소외되기 쉬운 여성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참여를 보장했다.

1. 지역사회 기반 재난위험경감 사업의 목표는 지역사회가 재난위험을 인식하고 대응역량을 강화하여 재난 복원력을 향상시켜 재난 발생 시 생명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주민과 지역사회의 재난대응 역량을 “임파워먼트”하는 것과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의 재난관리 거버넌스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재난에 취약한 노인, 아동, 장애, 여성 등을 최우선적 고려해야 하고, 소외되지 않아야 하기에 “비차별” 원칙은 사업에 주류화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재난 발생 시 취약계층들의 최우선적 구조 및 대피를 위해 마을별 재난 대응계획에 이를 반영, 취약계층 구조팀을 구성하였고, 재난 모의 훈련 시에도 이에 따라 진행하였고, 실제 노인, 아동, 장애 등 취약 계층이 실제로 참여하거나 그 역할을 대행하여 지역사회가 경험하게 하는 등 인권 주류화를 위한 노력을 했다.

따라서, 사업 수행을 위해 상기 3원칙은 그 자체가 사업의 목적 자체이며, 시작과 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실행기관(재단과 현지 파트너)도 이를 핵심 가치로 두고 사업 전반에 내재화하려고 노력했다. 사업 실행주체인 재단은 창립 후 “차별없는 세상, 다 함께 만들어 가요”란 모토로 “참여”와 “비차별”의 원칙에 기반하여 국내외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으며 현지 파트너 기관도 재난 생존자 그룹을 모태로 창립된 기관으로 주민 “참여”에 기반한 지역사회 재난 대응 및 관리 역량을 “임파워먼트”하는데 전착해온 기관이다.

2. ‘참여’ 원칙 적용 과정 및 성과

가. 자연 재난의 생존자로서 참여

주민들은 2008년 태풍 나르기스 경험을 통해 재난의 위험성과 대비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현지 파트너 기관도 지역 사회일원이자 같은 재난 생존자로서 강한 당사자성을 가지고 있었기에 주민들과 호흡하며 참여를 잘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나. 주민 조직화

마을 공동체를 기반으로 재난관리위원회를 조직함. 기존의 질서를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군부 정권 종식 후 아웅산 수치 집권으로 높아지던 주민들의 정치적 효능감과 싹트기 시작한 민주주의와 자치에 대한 열망 등 이전보다 우호적인 환경에서 주민들이 마을과 학교(교사와 학부모, 학생)의 위원회를 설립했다.

다. 여성 참여 보장

사회적, 지역적인 이유로 성평등이 낮은 상황에서, 여성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충분히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기 위해 프로그램 및 재난위원회에서의 여성 참여 비율을 의무 할당했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여성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했다. 하지만 할당이라는 형식적 참여를 넘어 동등한 여성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는 지역 정서, 관습 등으로 인한 한계가 존재했다.

라. 지표

참여 지표 측정 결과		
참여	객관적	주관적
정량적	프로그램 참여자수 ※ 종료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RR 인식 제고 및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 훈련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153회 진행, 4,051명 참가) • 재난 모의 훈련(123회 진행, 2,389명 참가) • 재난관리위원회 조직(54개 마을 및 27개 학교) • 워크숍 진행(25회) 	※ 해당 자료 없음.
정성적	각종 정보 및 보고서의 접근성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재난관리위원회 명단 작성 및 공유 여부 • 마을별 위험요소 Mapping, 마을별 재난관리 계획 등 참여의 결과물이 현지어로 주민들이 작성 및 공유 여부 	참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조직을 기반으로 재난관리위원회 발족, 임원 선출 등을 진행 • 주민들이 마을별 재난대응팀(Rescue, First Aid, Early Warning)을 지원 또는 임명하여 조직 • 마을 재난위험지도 작성 등 참여된 기법을 통해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에 상존하는 재난 위험요소에 대해 인지 • 재난 발생 상황을 가정한 재난모의 훈련을 통해 마을별 수립된 비상계획을 마을 차원에서 현지 파트너 기관과 함께 모니터링 및 평가하고 이를 반영하여 수정 보완

3. ‘임파워먼트’ 원칙 적용 과정 및 성과

가. 재난 대응역량 강화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주민들의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Mapping 교육과 실습을 통해 지역사회 재난 위험 요소를 인지하고 평가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재난관리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비상 계획 및 재난 관리 계획 수립했다. 위원회를 통해 재난대응팀(탐색구조, 응급치료, 조기경보팀)을 구성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술 훈련 및 탐색구조, 경보, 응급치료 물품을 지원했다. 팀별 역할을 마을별 재난대응계획 및 실제 재난모의훈련 시에도 반영하여 실제 재난 발생 시 지역사회의 초기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했다.

나. Learn by Doing을 통한 역량 강화

현지 파트너 기관은 지역사회 출신의 재난 생존자 그룹을 중심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지역 맥락에 대한 높은 이해 그리고 강한 당사자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민대상의 교육훈련의 트레이너로서 전문성만 가지고 있을 뿐, 사업 관리를 위한 경험이나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다년간 KOICA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을 수행하며 리포팅 및 회계 정산에 대해 “Learn by Doing”으로 기본적인 역량을 쌓을 수 있었다. 실행 주체인 재난도 영어 소통에 익숙치 않은 현지 파트너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의 어려움과 트레이닝을 넘어 지역사회 재난관리 거버넌스 구축을 촉진하고 사업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역량이 충분치 않았으나, 다년간의 현장사업 수행을 통해 운영관리, 파트너십에 대해 많이 배우며 성장할 수 있었다.

다. 지표

입파워먼트 지표 측정 결과		
입파워먼트	객관적	주관적
정량적	역량강화 프로그램 횟수 및 참여자 수 ※ 종료평가 • DRR 인식 제고 및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 훈련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153회 진행, 4,051명 참가) • 재난 모의 훈련(※ 123회 진행, 2,389명 참가) • 워크숍 진행(※ 25회) 사회적 입파워먼트(사회관계망) • 재난관리위원회 조직 (※ 54개 마을 및 27개 학교)	지식 및 인식의 변화 정도 ※ 종료평가, 사전사후 설문 • 교육, 훈련을 받은 후 재난위험 인식도와 지식이 6.73%에서 91.35%로 84.62%p 향상
정성적	사회적 입파워먼트(사회관계망) • 재난관리위원회 조직 및 임원진 구성 • 회의 등 위원회 활동	인식/역량/구조의 변화에 대한 사례 • 각종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의 재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재난 발생 전/중/후 대응을 위한 행동에 대해 인지 • 각 마을 재난관리위원회별로 선출된 Search & Rescue, First Aid, Early Warning팀에 대한 훈련을 통해 지역사회의 재난대응을 위한 기술적인 역량 강화 • 재난위험도 평가(VCA)를 통해 상존하는 재난 위험 요소, 취약성 등에 대해 인지하여 마을별로 재난 위험 요소 지도(Hazard Mapping) 작성 • Mapping을 바탕으로 경감하고 완화하기 위한 재난 관리계획 및 비상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른 재난모의훈련을 진행하는 등 지역 사회의 재난 대응 역량 강화 • 현지 파트너와의 다년간 KOICA HPP 프로그램 수행으로 기관의 현장사업 수행, 주민 조직 및 운영 관리 역량 강화

4. '비차별' 원칙 적용 과정 및 성과

가.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접근

재난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노인, 장애, 아동, 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적인 고려하고, 비차별 원칙을 사업에 적용하여 인권을 주류화 하고자 했다. 교육 훈련 및 계획 수립 등 의사결정과정에서 취약계층이 소외받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했다.

나. 여성 참여 보장

여성의 지위가 낮은 지역의 사회적, 문화적 특성을 고려, 프로그램 참여자, 위원회 구성에서 여성들이 차별받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여성 비율을 30% 이상 의무화했다

다. 지표

비차별 지표 측정 결과		
비차별	객관적	주관적
정량적	프로그램 참여자 중 여성의 수 • 총 30,912명의 사업 참여자 중 여성은 15,584명 (50.4%), 남성은 15,328명 (49.6%) 재난관리위원회 여성 비율(%) • 재난관리위원회 구성 시 최소 30% 이상 여성 참여	※ 해당 사항 없음.
정성적	※ 해당 사항 없음.	차별 개선 사례 • 마을재난관리위원회 구성 시 여성 비율을 의무 할당 하였으며, 재난 상황에서 취약계층인 아동, 노인, 장애 등에 대한 고려를 주류화 • 각종 교육훈련이나 모의 훈련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최우선적 고려, 계획 수립 등 과정에서 그들의 목소리가 배제되지 않도록 하였음. 모의 훈련 시에도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역할을 부여받고 참여 • 대응 계획에 따라, 취약계층의 빠른 대피를 위한 대피도우미를 지정하여 모의 훈련 시에 이를 실제로 적용 • 대피 교량을 통해 대피 시간 측정에서도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측정하였으며, 이는 실제 재난 발생 시에도 최취약계층들이 소외받거나 차별받지 않고 이들도 포함되어 대피 계획을 수립하기 위함.

'참여', '임파워먼트', '비차별' 적용 위기와 해결

가. 참여

Grant 사업 | 지역사회기반 재난위험경감 사업(CBDRR) 특성상 주민들의 참여가 절대적이고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한정된 기간에 목표물을 산출하고 달성해야 하는 Grant 사업 특성상 "참여" 원칙과 "약속사업" 사이에서 균형을 가지고 수행하는 것은 실행기관(본 재단 및 현지 파트너)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도전이었다.

환경적 요인 | 주로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의 농사 사이클(농번기), 작은 지류 사이에 좁은 땅에 거주하기 때문에 작은 선택으로 이동해야 하는 지형, 그리고 계절의 영향(삼각주, 우기)이 큰 상황에서 주민들의 참여로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변수와 어려움이 많았다.

경제적 요인 | 빈농/일용직들이 대다수인 지역 특성상 하루 소득을 포기하면서까지 프로그램 참여를 이끌어 내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재난에 취약하여 누구보다 프로그램 참여 수요가 높은 빈곤 가구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해결 방안 및 결과

- 프로그램 참가로 인해 포기해야 했을 노동에 대한 기회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교통비(실비)와 여비(정액)를 현지 파트너기관과 협의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주민들의 참여 의지를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 지급했다.

정부 | 통합적인 지역사회기반 재난위험경감을 위해서는 지역 정부 중심의 재난관리 거버넌스 구축이 매우 필요하지만, 해당 사업에서는 주민 및 지역 사회의 참여에 비해 지역 정부 및 관계 부처의 관심과 참여는 매우 한정적이라는 한계가 존재했다.

나. 임파워먼트

시간적 제약 |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KOICA HPP(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이 단년도 공모였기에 약정을 맺고 실제 사업 착수부터 종료까지 8~9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이었다. 또한 선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지역에서의 사업보다 인근 지역으로 이동해 동일 사업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기획하게 되어 임파워먼트를 위해 필요한 기간이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단년도 사업 사이의 공백기가 존재하여 현장에서 원활한 임파워먼트를 촉진하는데 있어서 제도에 따른 한계도 존재했다.

현지 파트너 | 사업 초기에 현지 파트너기관은 재단 미얀마 지부 역할을 위임받아 한국 본부와의 소통을 통하여 현장에서의 사업 운영 및 관리 전반에 참여했다. 현지 파트너는 주민과의 라포(rapport) ● 형성 및 DRR 교육을 직접 수행하는 데는 우수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현장 활동은 원활하였으나, 사업 운영관리에 필요한 행정 처리 및 의사소통(언어적 장벽)의 어려움이 많았다.

해결 방안 및 결과

- 부족한 현지 파트너의 역량을 강화하고 데스크와 현장의 차이를 줄이고자 2018년부터 한국인 PM을 파견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리포팅 및 회계정산 등의 사업 운영관리를 위한 기본 역량을 높이고자 했다.
- 주민 개개인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 수준의 임파워먼트를 위해 촉진자로서 부족한 현지 파트너 기관 대상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추가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쿼데타로 인해 실행되지는 못했다.

지역 특성성 | 삼각지 지역의 지류 사이에 마을이 산개되어 형성되어 정부의 접근과 지원이 부족했다. 그런 이유에서 주민 개개인이나 마을 단위를 넘어, 지역 정부의 임파워먼트를 진행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았다.

기획 문제 | 실행기관의 역량 대비 너무 광범위한 지역에 활동이 과도하게 기획되어 교육훈련 등 프로그램 실행에 있어서 주민들의 임파워먼트라는 본질보다는 정량 목표 달성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다. 비차별

양성평등 | 미얀마는 "아웅산 수치"라는 여성 국가지도자가 존재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낮고 차별 받는 사회 분위기가 존재한다. 또한, 남성 중심의 문화가 강하고 성평등이 낮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 여성에 대한 소외를 줄이고 참여를 독려하고자 프로그램 참여 및 위원회 구성 시 여성 의무 할당했으나, 실제 여성들의 참여와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기에는 여전히 제약이 있었다. 절차적이나 제도적으로 여성 참여 및 비차별을 보장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그것이 프로그램 전반에 있어서 충분히 적용되지 못했다는 것이 한계였다.

소외계층 | 재난에 취약한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에 대한 소외와 차별을 방지하고자 취약계층에 대한 최우선적인 고려를 주류화하였고, 지역사회도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대한 저항감은 없었으나, 실제적으로 오래된 사회적 인식과 관습으로 비차별 원칙에 대한 기관의 의지나 기대와는 다른, 현실에서는 일정 부분의 차이가 존재했다.

해결 방안 및 결과

- 사업 실행 주체로서 재단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을 고도화하기 위해 지역사회기반 재난위험경감(CBDRR)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현장 사업수행 역량을 "임파워먼트"하고자 하였으나, 쿼데타로 인해 컨설팅이 반영된 활동은 실행하지 못했다.

●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호 신뢰관계

1. SDG2. 빈곤퇴치

세부목표 1.5 “2030년까지 빈곤층 및 취약계층의 복원력을 구축하고 극심한 기후관련 재해 및 경제, 사회, 환경적 충격과 재난으로부터 노출과 취약성을 경감한다.” 관련해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포용성 측면에서 “비차별”과 “참여”의 원칙이, 지역사회 재난 복원력 강화로 취약성이 경감되는 측면에서는 “임파워먼트”의 원칙이 적용된다.

2. SDG3. 건강과 웰빙

세부목표 3.d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국내 및 국제적 차원의 건강 위험에 대한 조기 경보, 위험 경감과 관리를 위한 역량을 강화한다.” 관련해 개도국을 포함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비차별”과 “참여”의 원칙이, 위험 경감 및 관리를 위한 역량 강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임파워먼트”의 원칙이 적용된다.

3. SDG13. 기후변화 대응

세부목표 13.1 “모든 국가에서 기후관련 위험 및 자연 재해에 대한 복원력과 적응력을 강화한다.”, 세부목표 13.3 “기후변화 완화, 적응, 영향 감소, 조기 경보 등에 관한 교육, 인식제고, 인적·제도적 역량을 강화한다.” 그리고 세부목표 13.b “여성, 청년, 지역 공동체 및 소외된 공동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포함해 최빈국과 군소도서개발국에서 기후변화 관련 효과적인 계획과 관리를 위한 역량 개발 메커니즘을 증진한다.” 관련해 소외된 공동체에 초점, 최빈국 및 군소도서개발국 포함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비차별” 및 “참여”의 원칙이, 복원력과 적응력 강화 그리고 교육, 인식제고, 인적, 제도적 역량강화 또, 계획과 관리를 위한 역량개발 메커니즘 증진 측면에서는 “임파워먼트” 원칙이 적용된다.

3원칙 적용에 따른 교훈 / 개선방안

가. 사업의 목적과 의미

본 사업은 재난 취약지역에서 지역사회의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재난 대응 및 관리 역량 및 거버넌스를 “임파워먼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여성, 아동, 노인, 장애 등 취약 계층이 소외되지 않는 “비차별”의 원칙하에 포용적인 사업을 하고자 했으며, 사업 수행을 통해 주요 주체이자 매개체인 현지 파트너의 “임파워먼트”를 통한 성장도 의미가 있다.

나. 참여, 임파워먼트, 비차별 관련 노력과 달성 정도

재난이후 지역 내 자조조직을 바탕으로 창립된 현지 파트너기관이 지역 사회의 눈높이와 맥락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사회의 “참여”를 촉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파워먼트” 진행하였다. 또한 보수적이

고 성차별적인 지역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소외되었던 여성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등 “비차별”의 원칙을 적용하며, 재난에 가장 취약한 계층들도 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다만, 단기간의 사업기간, 지역 특수성 등의 이유로 위의 3원칙을 충분히 적용하고 이를 내재화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었음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다. 교훈 및 개선 방안

- 지역사회기반 재난위험경감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참여”, “임파워먼트”, “비차별”은 그 자체가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이며 또한 시작과 끝이다.
- 단기간에 소정의 산출을 내야 하는 보조금(Grant) 사업의 특성상, “참여”, “임파워먼트”, “비차별”의 3원칙을 적용하는데 분명 한계가 존재한다. 이를 충실히 적용하고 내재화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실행 주체, 현지 파트너 및 지역사회의 역량을 고려한 사업 기획이 필요하다.
- 주민과 지역사회뿐 아니라 그 촉매역할을 하는 주요 주체 중 하나인 현지 파트너 기관 임파워먼트를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
- 지속가능한 재난관리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주민과 지역사회 뿐 아니라, 지역 정부,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 수행이 꼭 필요하다.
- 조직 리더십의 충분한 이해와 지지 필요하며 관련한 명확한 원칙 및 이행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 기획 단계부터 평가까지 3원칙 적용이 반영된 성과관리 프레임워크의 수립과성과관리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 보조금(Grant)사업을 고려할 경우, 단년도 사업이 아닌 다년도-단계별 사업으로 기획하여 3원칙 적용을 위한 충분한 사업기간 확보가 필요하다.

방글라데시 로HING야 난민 및 수용공동체 여성 심리사회 회복역량강화사업

아디

8

방글라데시 로HING야 난민 및 수용공동체 여성 심리사회 회복역량강화사업

아디

기관명	사단법인 아디
프로그램명	방글라데시 로HING야 난민 및 수용공동체 여성 심리사회 회복역량강화 사업
사업목표	로HING야 난민 및 수용공동체 여성의 심리사회적 회복역량강화를 통한 권익 신장 및 자립
사업지역	방글라데시 치타공 콕스바자르 우키아 로HING야 난민캠프14 (하킵파라)
사업기간	2018.03.01~2024.12.31
주요 파트너 재정/실행/네트워크/평가 등	
재원협력 파트너	한국국제협력단(KOICA), 세계보공재단, 기쁨나눔재단, 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JTS, 래피젠
실행협력 파트너	RWWS, 사람들에게평화를심리사회지원교육원, KCOC
평가협력 파트너	RWWS
유관 SDGs	SDG 3,4,5,8



공선주 팀장, 아디

공선주 팀장은 2016년 사단법인 아디를 공동 창립하였다. 아시아의 분쟁 지역에서 인권 실태기록을 토대로 한 피해마을 및 피해생존자의 인도적 지원과 커뮤니티 평화구축, 평화연대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2017년 로HING야 집단학살 당시 미안마에 체류하며 차별받는 로HING야의 두려움을 몸으로 느꼈다. 2018년 로HING야 난민캠프를 방문하여 여성들과 마음으로 만나기를 결심하고, 현재까지 본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은 '그 사람의 삶에 함께 하는 것이다'는 생각으로 서로에게 따뜻한 지지와 응원이 되는 공동체를 만들고, 세상을 함께 바꾸기 위해 아시아 현장과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기관 및 사업 소개

1. 기관소개

사단법인 아디(Asian Dignity Initiative)는 ‘인권이 실현되는 아시아’라는 비전 아래 인권 기반 접근, 당사자 주도, 소통과 관계의 가치를 바탕으로 1) 아시아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폭력으로부터 인권을 보호하고 2) 아시아 피해 공동체의 일상생활 회복에 기여하며, 3) 아시아 인권 향상을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하는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2. 사업소개



“군경은 아기들을 어머니로부터 빼앗아 강물에 던졌습니다. 제가 강을 건너는 동안 많은 아기 시체가 떠다니고 있었고, 물 속에서 제 몸과 닿았습니다.”

“그들은 할머니를 향해 긴 칼을 휘둘렀고, 그곳에 버려 뒀습니다. 장신구와 돈도 빼앗아 갔습니다.”

“여자들을 때리고 성폭행했습니다. 성폭행이 끝나면 민가의 문을 걸어 잠그고 불을 질렀습니다.” ●

미얀마군의 방화로 전소된 라카인의 마을(2017년) ©경향신문

2017년 8월 25일 미얀마 서북부 라카인주의 로힝야 마을 400여곳에서 대규모 학살이 벌어졌다. 미얀마군은 ‘소탕 작전(clearance operation)’을 실시하여 로힝야 민간인을 대상으로 폭격, 무차별 사격, 집단 강간, 식량과 가축 약탈, 방화 등의 만행을 저지르고, 노인, 아동을 구분하지 않고 로힝야를 전멸시키듯 살해했다. 이로 인해 라카인주 전역에서 9천명 이상의 로힝야족이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며,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수천 채의 집, 학교, 상점, 모스크가 불에 탔다. 그 결과, 70만 명이 넘는 로힝야가 죽음을 피해 방글라데시로 피신했다.

극약무도한 인권 유린을 경험한 생존자들은 일상생활에서 만성적인 두려움과 불안에 갖고 살아간다. 반복적인 악몽으로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급성 스트레스로 두통, 식욕부진, 소화불량, 공황 증상을 일상적으로 달고 산다. 한편 낯선 곳으로의 강제 이주는 미얀마에서의 학살이나 폭력 경험에 대한 심리적 어려움을 나눌 가족이나 이웃조차 부재하게 했다. 이렇듯 사회적 혼란, 국가와 가족의 상실, 새 주거지에서의 적응과 경제적 어려움, 송환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로힝야 사람들은 늘 불안에 떨며 산다.

● 사단법인 아디x경향신문. (2019). 로힝야의 눈물,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로힝야 학살 보고서. http://news.khan.co.kr/kh_storytelling/2019/rohingya/?fbclid=IwAR0vSpr28cgTPuZalITjZaeCTUBThvg51FRUI3M7AE7ZnKHGZNF33SKo

이런 상황에서 여성들은 더욱 열악한 조건에 노출되어 살아간다. 실제로 로힝야의 보수적인 사회문화적 젠더 규범으로 인해 로힝야 여성들은 주로 집에서 가사와 육아 등의 전통적인 성 역할만을 수행하며 살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로힝야 남성의 53%가 여성의 외출(집 밖을 나서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했고, 로힝야 여성의 42%는 하루 평균 21시간에서 24시간가량을 집에서 보낸다고 답변했다.

●● 그만큼 로힝야 여성들은 외출이 자유롭지 않으며, 이로 인한 로힝야 여성들의 사회적 고립 문제 또한 문제적 수준이다.

본 사업 지역인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는 미얀마 라카인의 마웅도우, 뿌띠동에 가장 인접해 있는 곳으로, 미얀마를 떠난 대다수의 로힝야가 가장 먼저 닿게 되는 지역이다. 로힝야 대학살이 벌어졌던 2017년 9월 이후, 이곳에만 총 34개의 난민캠프가 설치되었고, 약 96만명 ●●●의 로힝야가 임시 정착하여 살고 있다. 문제는 로힝야 메가캠프가 설치된 콕스바자르 지역 또한 원주민 33%가 빈곤선 이하로 가난하게 살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수용공동체와 로힝야 모두 지속적인 생계의 어려움에 처해있다.

3. 사업 내용

아디는 <아시아 분쟁지역 집단학살 트라우마 치유 프로젝트>모델을 수립하고, 로힝야 난민 및 수용공동체 여성 심리사회적 회복역량강화를 위하여 1) 피해생존자의 심리안정 2) 사회적 관계망 구축 3) 보호 환경 조성 및 지속 가능한 사회적 참여 역량 강화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본 사업은 로힝야 난민 및 수용공동체 여성의 심리사회적 회복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스티븐 포지스 박사의 “다미주 이론, ●●●●에 근거하여 수립된 트라우마 치유 프로젝트 모델을 기반으로 수행되고 있다. 먼저 집단학살의 트라우마 치유를 목적으로 (1단계)는 이를 이겨내기 위한 내적 자원을 복구하는 작업부터 시작한다. 이를 통해 참여자의 심리안정을 돕는 한편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할 심리지원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도 함께 수행한다. (2단계)는 사회적 관계망 구축을 통해 상호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다. 집단과의 연결감을 매개로 정서를 조절하며 심리적 안정감을 향상할 수 있도록 자조모임을 조직해 심리지원 세션을 제공한다. (3단계)는 문해수리교육 및 커뮤니티 비즈니스 교육, 공동체 행사, 젠더인식개선 교육 등을 제공하며 사회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사회적 참여가 가능한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작업이며 동시에 2017년 집단대학살로 인한 심리적 응급 처치 이후 사회경제적 참여와 활동 여건을 조성하여 심리적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러한 치유 모델에서 본 사업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는 <로힝야여성심리지원단 교육과정>이다. 극심한 두려움을 안고 일상을 살아가야만 하는 피해 생존자의 심리 안정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표로 본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동료 지지가 가능한 로힝야 심리치유 전문가를 양성했고 이들이 모든 활동을 주도해 나간다.

●● ISCG. Gender Profile No.1 For Rohingya Refugee Crisis Response Cox’s Bazar, Bangladesh (as of 3rd December 2017)

●●● (2023년 5월 기준 Joint Government of Bangladesh UNHCR. (2023.06.07.). OPERATIONAL DATA PORTAL REFUGEE SITUATIONS(2023.06.07). Population Factsheet as of May 2023. <https://data.unhcr.org/en/documents/details/101160>)

●●●● 다미주 이론(The Polyvagal Theory)은 심리적 경험과 신체적 증상 사이의 연관성을 강조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생물행동적 조절을 회복하는 치료전략을 과학적으로 개발한 이론이다.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행동의 신경 경로들이 건강, 성장, 회복을 지원하는 신경 경로들과 공유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타인과 근접해 지내는 것이 건강을 증진하고 상해, 질병, 그 밖에 다른 해로운 경험들에서 회복되도록 돕는다고 설명한다. 그 기반에는 안전함을 느끼는 환경이 중요하며, 자발적인 사회 참여 행동, 타인과의 자발적인 관계에 참여하여 안전감을 획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사회적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사람의 호르몬이라 불리는 옥시토신(oxytocin)이 분비되어 자기조절이 가능하게 된다는 사회적 유대와 건강 사이의 관계성을 과학적으로 밝혀냈다.

시단법인 아디 아시아 분쟁지역 지원사업		로힝아 난민 수용 공동체 여성 심리사회적 회복역량 강화사업		제노사이드 트라우마 치유 프로젝트
트라우마 치유	지원	자조	연결	
<p>3 (사회) 안전한 환경 조성 사회 참여 확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행동의 표현을 통해 사회적 참여 가능 Core Regulation을 통해 건강, 성장과 연관되어 회복력 강화 	<p>3.1 보호 환경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남성 지도자 인식 제고 여성중중 가족놀이) 여성자치모임 조직 및 운영 <p>3.2 지속가능한 사회적 참여 역할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PSS 고통 및 인센티브 지급 아제 씨앗 및 알뜰 포상을 통한 씨드머니 배분 문해 교육 및 생활기술 교육 긴급구호 지원(홍수, 화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힐링센터를 커뮤니티 여성 다목적 센터로 활용 (커뮤니티 교육, 인식제고 프로그램, 어드보카시 활동) 평화행길 마라톤 캠페인 운영 스몰 비즈니스 클러스 운영 (교육-실습-컨설팅) 스몰 비즈니스 아이템 개발 문해 교육/생활기술 교육 여성들에 의한 기록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힐링센터 커뮤니티 자원 활용한 자조 플랫폼으로 운영 어드보카시 활동 연대 평화행길 마라톤 캠페인 운영 수용 공동체 연계한 스몰비즈니스 아이템 안정화 스몰비즈니스 자조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운영 커뮤니티 플랫폼이 스몰 운영 (무료 교육 운영) 	
<p>2 (관계) 사회적 상호 유대감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트라우마는 고립이 치명적 이므로 강력한 사회적 의존성과 집단과의 연결감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 향상, 정서 조절 가능 	<p>2.1 사회적 관계망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조모임 운영(724그룹 3,196명) 자조모임 정기 방문(주 1회) 힐링센터 2개소 운영 찾아가는 힐링 세션 아웃리치 활동(7,240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조모임을 교육훈련(사회 경제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 조직으로 전환 힐링센터 2개소 운영 - 심리 프로그램 운영 - 아웃리치 힐링 세션 힐링센터 운영위원회 조직 힐링센터 커뮤니티 자조 운영 체계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힐링센터 2개소 자조 운영 시스템 구축 로힝아 심리지원단 여성조직 결성 	
<p>1 (개인) 무너진 자원 복구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갈신경계가 작동되는 트라우마 사건은 내적 자원이 겹쳐짐수록 회복력이 강화됨 <p>• 사람들에게 평화를 입력</p>	<p>1.1 심리안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캠프 여성 방문 심리지원 (3,196명) 힐링센터 설치 및 6 Zone 심리프로그램 운영 (1,247명) <p>1.2 심리지원 전문가(PSS) 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로힝아 및 수용공동체 여성 심리지원단 교육/양성 (수료 여성 390명) 방문 심리지원단(2인 1조)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커뮤니티 심리 프로그램 운영 (여성중중 가족놀이 Zone 개설, 부모-아동 애착관계 안정화 가족기능향상) 로힝아 및 수용공동체 여성 심리지원단 심화 교육 (사람들에게 평화를 - 여성 심리지원단) PSS 교육훈련모델 양성과정 자체 운영(여성 심리지원단 - 로힝아 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커뮤니티 심리 프로그램 운영 힐링센터 2개소 자조 운영 로힝아 및 수용공동체 심리지원단 유지보수 교육 (비대면 슈퍼비전) PXX 교육훈련모델(다단계 교육 및 양성과정) 구현 	

트라우마에 치명적인 '고립'을 해결하고, 공동체로의 일상 안에서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조모임을 조직하는 등 가족과 이웃을 연결하는 상호지지망을 조직했다. 또한 캠프 내 종교문화적 젠더 규범의 시선에서 벗어나 여성들만의 독립적이고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힐링센터(Shanti-Khana, '산티카나' 평화의 집이라는 의미)를 설치했다. 안락한 공간에서 전문 심리지원단이 이끄는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동체 행사 등의 문화행사를 치르는 등 서로 소통하며 지지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여성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문해수리교육, 생계지원 기술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양성된 로힝아 여성심리지원단에게 활동 수당을 지급하여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등 개인에서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다각적 측면에서 로힝아 여성을 위한 보호적 환경을 구축했다.

3. 사업 성과

SDGs 목표	SDGs 세부목표	사업성과
SDG 3 모든 연령층의 건강한 삶 보장 및 웰빙 증진	3.4 2030년까지 예방과 치료를 통해 비강염성 질환으로 인한 조산 사망을 1/3 수준으로 줄이고, 정신 건강과 웰빙을 증진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캠프 14 성인여성의 84%(6,002명 연인원/7,101명)가 힐링센터를 방문, 힐링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받음(2018년~2023년 상반기) 로힝아 여성 자조 모임 724개 그룹(3,196명)을 조직하여 7,240회 방문, 찾아가는 방문 심리지원을 1,489회 제공하여 고립되어 있는 여성들의 심리적 안정감을 높임(2018~2021년). 상설 심리지원 참가자 FGD 결과 50명의 여성과 20명의 남성(지역 지도자) 만족도 100%를 나타냄.

SDGs 목표	SDGs 세부목표	사업성과
SDG 3 모든 연령층의 건강한 삶 보장 및 웰빙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년도 참여 심리지원단 여성 회복탄력성 수치가 안정적이고 높은 반면(50.2-> 50.4), 프로젝트 참여 경험이 없는 여성은 하락하고(47.8 > 46.8) 회복탄력성 점수가 감소함. 더불어 두 그룹의 차이는 T검증을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밝혀냄(2022년). 무작위 선정 일반 여성의 경우 높고 안정적인 회복탄력성을 가진 여성의 비율이 83%이나 다년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로힝아여성심리지원단의 경우 96%로 비교적 높음(2022년). 프로그램 참가자 110명의 여성 모두 18% 심리적 웰빙이 향상됨(2021년). 다년간 사업에 참여한 여성과 사업에 산발적 혹은 1년 미만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는 여성의 회복탄력성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프로젝트 참여 횟수별 회복탄력성 수치 결과에 따르면, 참여횟 수가 많고 정기로 참여할수록 회복탄력성 수치가 높음(2022년).
		<p>"집에만 있을 때는 고향 생각이 나서 혼자 계속 울기만 했는데, 이런 생각이 다시 떠오를 때 자조모임에서 만난 이웃을 찾아가거나 활동에서 배운 소매틱 신체 활동을 하면 마음이 평화로워져요. (2018, 로힝아여성참여자 A)"</p> <p>"전에 내 마음은 매우 어둡고 외로웠으며 긴장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로힝아여성심리지원단이 되고 나서는 자신감도 커지고 항상 행복해요. 긴장이 점차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2019, 로힝아여성참여자 B)"</p>
SDG 4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로힝아여성심리지원단 양성 교육과정을 총 23회 운영(2018년 5회기, 2019년 6회기, 2020~2021년 6회기, 2022년 6회기) 하여 양질의 교육을 제공함.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 내적 자원을 복구 및 발굴하여 회복력을 강화시키는 단계별 심리지원 교육 과정(장애인, 선주민, 취약한 상황에 처한 이동을 포함한)을 마련, 총 416명(연인원) 양성, 102명(실인원)의 전문인력을 배출함(2018년~2022년). 심리지원 최고급 과정을 수료한 로힝아 트레이너 26명을 배출함(2022년). 로힝아여성심리지원단 인력풀을 조직하여 취약한 인구의 심리치유 접근성을 높임. 매주 1회 심리치유법 실습, 문해수리교육, 매월 1회 리더십 및 젠더인식교육 실시하여 취약 여성 416명의 교육 접근성 강화에 기여함(2019년~현재). 태블릿PC와 그림을 출력한 자체 교육 자료를 사용하여 문해수리교육 실시하는 등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효과적인 학습환경을 제공한다. 여성의 독립공간 2곳(힐링센터) 설치 및 운영하여 여성이 안전한 공간을 마련함.
		<p>"어느날 제가 가게에서 장을 봤는데, 가게 주인이 저를 속이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숫자를 셀 줄 알았고, 그를 잡아낼 수 있었어요. 전 더 배우고 싶어요. (2022, 로힝아여성참여자 C)"</p> <p>"영어로 내 이름을 쓸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어디든 달려갑니다. (2021, 로힝아여성참여자 D)"</p> <p>"채소 이름, 신체 부위 이름을 쓸 수 있구나! 너무 행복해요. (2022, 로힝아여성참여자 E)"</p>

● 초급(beginner)-중급(intermediate)-고급(advanced)-최고급(supervision)의 4단계 심리지원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리치유를 위한 교과별 이론 및 실습, 자유자의 리더십 양성을 위한 비폭력대화, 심리응급처치, 연결 리더십, 슈퍼비전 등이 제공되는 한편 또한 자조모임 조직, 힐링센터 운영, 트래이닝 강사 등 단계별로 주어진단.

SDGs 목표	SDGs 세부목표	사업성과
SDG 5 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 및 여아의 권한강화	<p>5.1 모든 곳에서 여성 및 여아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없앤다.</p> <p>5.4 국가별 상황에 맞춰 공공서비스, 사회기반시설, 사회보장정책, 가정 내 책임 공유 촉진을 통하여 무급 돌봄노동 및 가사노동에 가치를 부여하고 중요성을 인식한다.</p> <p>5.5 정치, 경제, 공공부문 등 모든 차원의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와 리더십에 대한 공평한 기회를 보장한다.</p> <p>5.6 여성의 자력화를 증진시키는 구현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ICT)의 활용을 확대한다</p> <p>5.c 모든 수준에서 성평등과 여성 및 여아의 자력화가 이루어지도록 견고한 정책과 시행 가능한 법안을 채택하고 강화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및 여아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취약한 사회적 지위에 있는 여성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여 사업을 수행함. • 문해력이 낮은 로힝아 여성을 로힝아여성심리지원단 전문 인력으로 양성함. • 로힝아 여성 심리지원 전문가(PSS, Psycho Social Supporter) 모두를 힐링센터 운영 인력으로 고용해 치유센터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고, 전문 기술의 실천 기회 제공함. • 여성들의 안전한 독립공간인 산티카나 힐링센터를 통해 여성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여성들 간의 상호 연결망을 형성함. • 로힝아 공동체 내 당사자 간, 동료 간 심리지원이 자체적으로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혜자라는 수동적 역할만을 벗어나 치유자라는 주체적 역할을 부여함. 이는 전통적인 여성상(요리, 보육 등 가사 노동을 수행하는 여성)이 팽배한 보수적인 로힝아 사회에서 여성의 위상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됨. • 프로젝트 여성 참여자 55명의 젠더 인식에 대한 긍정적 변화율이 8%, 남성 참여자의 긍정적 변화율은 17%로 각각 상승함(2021년). • 로힝아여성심리지원단 중 2명이 여성 마을 이장(Majhi, 마지)으로 선정되어 이웃 간 분쟁 조절, 캠프 관리자(CiC ●)에게 공동체 의견을 개진하는 등의 정치적 리더로 성장함. • 로힝아여성심리지원단에게 활동수당(주/한화 26,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여성의 노동(직업)을 인정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가족관계에서도 여성을 존중하는 변화를 만들어 냄. • 활동수당으로 아이들의 교육 물품을 구입하거나, 자신을 위한 화장품과 옷을 구입하는 등 물품 구매 결정력이 향상됨. • 여성자치모임-권익위원회-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2019년~현재) • ‘공동체 프로그램(헤나 그리기, 코란 필사 대회 등)’을 통해 여성 간 이해와 결속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함. • 남성 지도자 젠더 인식 교육을 총 40회 운영(2020-2021년), 20명의 종교지도자와 20명의 마을 이장(Majhi, 마지)이 참여하였고, 프로그램 참여 여성의 남자 가족 구성원(35명)도 참여하여 공동체 젠더 인식 기반을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함. • 2020-2021년 가족 놀이 프로그램을 운영, 960가구 중 총 758가구 818명(연인원)의 남성이 가족 놀이에 참여하여 여성의 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등 여성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가정 내 폭력 근절을 유도함
<p>“전에는 남자만 밖에 나가고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여자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집안일만 한다고 생각했어요. 트레이닝을 받고서 이런 생각들(트레이닝)을 가족과 나누었는데 가족들의 생각도 바뀌었어요. (2019, 로힝아여성심리지원단 F)”</p> <p>“전에는 나는 소녀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트레이닝 이후에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2019, 로힝아여성심리지원단 G)”</p>		

SDGs 목표	SDGs 세부목표	사업성과
SDG 8 모두를 위한 지속적· 포용적·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및 안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p>8.5 2030년까지 장애인 및 청년을 포함하여 모든 여성, 남성을 위한 생산적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을 달성한다.</p> <p>8.8 이주노동자, 특히 여성 이주자와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는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노동환경 조성을 확대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힝아여성심리지원단에게 활동 수당(Volunteer Incentive)을 지급하여 여성들의 생계 소득 창출에 일조함. • 직업유무 사후 조사에 응한 로힝아여성심리지원단 교육 수료생 중 21%가 교육 이수 후 다른 직업을 구할 수 있을 정도로 노동능력을 향상시킴. • 커뮤니티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여성들의 자영업 창업을 지원함(2022~현재). • 커뮤니티 비즈니스 프로그램 운영 40명 훈련, 29명 수료(2022년) / 40명 훈련(2023년) • 2022년 커뮤니티 비즈니스 프로그램에 참여한 여성 중 53%는 소득창출 성공(2023년)
<p>“커뮤니티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통해 하고 싶었던 사업을 하게 되어서 기쁘요. 돈도 없었고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었는데 산티카나가 있어서 든든합니다. 한달에 1,000타카(한화 13,000원)를 못 벌고 있지만 여 정도 추가 수입에 만족하고 있어요. (2022, 로힝아여성심리지원단 H)”</p> <p>“주로 이웃으로부터 주문을 받아서 새 재봉틀로 옷을 만들어 팔고 있어요. 번 돈으로는 가족을 위해 지출하고 저축하고 재투자하고 있어요. (2023, 로힝아여성심리지원단 I)”</p> <p>“심리지원단으로 고용되어 일하면서부터 남편과 시어머니가 제 집안일을 도와주고 있어요. 앞으로는 다른 데서 일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있어요. (2022, 로힝아여성심리지원단 J)”</p>		

● CiC(Camp In Charge)는 RRRRC(Refugee Relief and Repatriation Commissioner) 산하에 있는 해당 캠프를 관할하는 방글라데시 행정관이다.

‘참여’, ‘임파워먼트’, ‘비차별’의 적용

1. 해당 원칙에 대한 기관의 이해

아디는 존중(Respect), 사람 중심(People-oriented), 자발성(Self-driven), 과정 중심(Process-oriented), 평등한 협력관계 (Equal partnership)를 활동 원칙으로 아시아 현장사업을 추진해왔다.

1) 현장 존중과 사람 중심 접근

아디는 존엄한 인간의 삶을 평등하게 실현하기 위해 아시아 분쟁 지역에서도 가장 취약한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 여성과 아동 활동이 중심을 이룬다. 비차별을 주요 기준으로, 정치경제적 조건 및 사회문화적 환경을 조사하여 취약 인구의 사회적 위치 및 관계, 젠더, 장애, 지역, 계층, 종교 등을 고려하여 활동을 기획한다. 당장의 성과보다는 현장 중심의 지속가능한 변화를 위해 현장을 긴 호흡으로 바라보며 사람들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2) 자발성과 당사자 주도성

아디는 현장의 당사자 및 공동체가 스스로 변화를 일구어 낼 가능성과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을 기반으로 모든 활동을 현장 파트너 기관 및 참가자들과 협의하여 기획, 추진하고 있다. 주요 의사결정 또한 평등한 협력관계 안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며, 당사자들의 자발성과 주도성을 해치는 사회적 제약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기회를 만들고 보장한다. 따라서 이들의 자발성과 주도성이 활동의 기반이 되도록 사업화하고 있다.

2. ‘참여’ 원칙 적용 과정 및 성과

참여 지표 측정 결과		
참여	객관적	주관적
정량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사자 조직의 협업 범위와 비중(프로젝트 기획, 실행, 모니터링 및 평가, 리스크 대응 등) 로힝아여성여성성심리지원단 양성 교육과정 단계별 참여자/수료자 수 416명(2018~2022년) 로힝아여성성심리지원단 102명(~2022년) 자조모임 724개(~2022년), 참여자 3,196명(~2022년) 산티카나 힐링센터 힐링 프로그램 참여자 수 6,002명(~2023년) 힐링센터 전체 방문자 중 20% 10회 이상 방문 힐링센터 방문자 재방문율 33%(2022년) 힐링센터 방문자 1시간~2시간 체류율 91%(202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사자 조직의 사업역량 모니터링 및 평가보고서(2018~2023) 참가자 1:1 및 그룹인터뷰(2018~2023)

정량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웃리치 힐링 프로그램 참여자 수 1,489명(2021~2022년) 문해교육 참여자 수 195명(2022년) 사랑방(여성들의 담소 및 취미공간) 방문자 366명(2022년) 커뮤니티 비즈니스 참여자 40명, 수료 여성 29명(2022년) 가족놀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남성 수 818명(2020~2021년) 심리지원 카드 및 생계 지원 물품 수령자 수 18,463명(~2022년) 여성권익위원회 참여자 수 72명(2020~2021년)
정성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 관련 가이드라인/정책 포함: 인사정책, 젠더 정책, 모니터링 및 평가(M&E) 정책, 성적 착취 및 학대 보호(PSEA) 정책, 보호 정책, 행동 강령, 운영 지침 및 코로나19 긴급 대응 지침 프로젝트 직원 역량강화 교육 자료(영어, 컴퓨터 등) 당사자 조직 역량강화를 위한 기초/중요 보고서(영어, 한국어), 모니터링 보고서, 현장파견보고서(영어, 한국어) 참여동기에 대한 인터뷰 사례 참여과정 및 결과에 대한 사례 사업 수행 과정의 문제점 및 대응 현황 사례 컴플레인 박스 활용사례 힐링센터 여성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회의록

1) 분쟁 피해 당사자 조직의 참여와 주도

아디는 현장의 피해 당사자 조직 및 네트워크와의 협업을 통해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본 사업 또한 로힝아 여성 ‘Razia Sultana’가 대표로 있는 여성복지회(RWWS, RW Welfare Society, 난민캠프가 있는 치타공 소재)와의 파트너십으로 시작되었다. 여성복지회 대표는 2017년 미얀마군에 의해 로힝아 여성 및 소녀를 대상으로 자행된 집단강간 300명의 사례 보고서(Rape by Command)를 발간하고, 분쟁 안에서의 젠더 폭력의 잔혹성에 착안하여 2017년부터 피해 생존 여성에 대한 적극적 지원 및 보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아디는 로힝아 당사자로서 로힝아 여성(젠더), 방글라데시 사회문화적 이해가 있는 현장 조직인 여성복지회와 결합한 덕분에 로힝아 피해 생존 여성을 세심하게 살필 수 있었다. 여성복지회는 현장 활동을 주도하며 아디와 로힝아 여성 간 가교 역할-사회문화적 맥락이나 젠더 규범에 대한 상호 이해를 유도-를 해주었고, 사업 수행 가능성 및 실행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도 사업 참여자와 이해관계자 간 원활한 소통을 하는데 큰 역할이 되어 주었다. 여성복지회 덕분에 아디는 로힝아 공동체에서 단기간에 신뢰를 구축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사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도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었다.

실제로 여성복지회 대표가 캠프의 산티카나 힐링센터를 방문하는 날에는 프로그램 후에도 여성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 같이 모여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거나 방글라데시의 정치사회적 상황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만큼 여성복지회는 로힝아 여성들을 모으는 구심점이 되어 주기도 했다. 또한 여성복지회는 사업 내에서 벌어지는 사건사고들, 본 사업을 둘러싼 캠프 사람들의 사회문화적 반응들, 사업 세부 활동에 대한 다양한 피드백을 활발히 나눠주었고, 이러한 의견들이 프로젝트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율하는 역할도 해주었다. 여성복지회는 코로나19나 방글라데시 정부의 잦은 난민 정책 변경, 로힝아 공동체의 치안문제 등으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맞닥뜨렸을 때에도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으며, 장기간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데 가장 큰 공로자이기도 하다.

2) 분쟁 피해 당사자 여성의 단계적 참여와 역할 확장

2018년 사업 기획 당시 사업지인 캠프 14(하킴파라) 내 전체 인구 중 여성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51%였으며, 성인 18세-59세 여성 인구는 7,101명으로 전체의 약 23%를 차지했다. 따라서 본 사업의 대상은 난민 중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이며, 특히 로HINGA의 사회문화적 특성으로 낮은 사회적 지위와 고립으로 심리적 트라우마를 갖고 생계 유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실제로 남편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혹은 장애인이나 환자인 경우의 여성 가장 가구를 비롯해 조모 가정, 장애인이거나 환자가 있는 가구 등으로 함께 사는 여성 비율이 14%에 달했기 때문에 이 여성들을 중심으로 '로HINGA 여성심리지원단'과 자조모임을 조직해 나갔다.

심리 지원 방법과 기술을 익히는 일은 기나긴 시간(6년 과정)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정밀한 교수법을 기본으로 배우고자 하는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다. 이에 아디는 참여 여성들의 의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뿐만 아니라 활동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가정과 공동체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며, 참여 여성들의 가족뿐만 아니라 로HINGA 캠프 리더인 이맘과 마지에게 사업을 이해시키는 과정도 거쳤다. 한편 문해력이 낮고 집단 교육에 익숙하지 않은 로HINGA 여성들의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여 교육 인원을 최소 규모로 구성하였고, 소그룹부터 4명, 8명, 16명 순의 단계적으로 교육 인원을 늘려가며 교육을 진행하였다.

회차가 거듭될수록 '트라우마', '심리'라는 용어의 개념에 대한 참여 여성들의 이해도도 상승했다. 두 용어는 로HINGA 사회에서 기존에 없던 개념들로, 실제로 사업 시작 당시 용어에 대한 로HINGA 여성들의 이해도가 낮은 상태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참여 여성이라면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이론보다는 몸 감각 중심의 소매틱 트라우마 치유법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참여 여성들은 소매틱 치유법 중 일부인 소매틱 신체 활동, 호흡법, 요가 등을 통해 심리 안정 방법을 훈련했다. 해당 과정을 통해 여성들은 점차 심신의 안정을 회복하기 시작했고, 두통, 소화불량, 약물과 같은 신체적인 증상들이 실질적으로 개선됨을 느끼며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들이 캠프 내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며 프로그램 비참가자들 또한 참여 희망 의사를 강력히 피력하기도 했다. 비록 시작은 어려웠지만 점진적으로 흥미를 느끼며 적극적으로 참여한 여성들 덕분에 4명으로 시작한 교육 그룹이 5개월만에 60명 규모로까지 확대되었고, 집단 훈련도 가능하게 되었다. 훈련받은 로HINGA여성심리지원단은 두 명씩 짝을 지어 가가호호 찾아가 해당 가구에 살고

있는 여성들에게 자조모임의 참여 의사를 물었고, 참여를 희망하는 여성들을 중심으로 5명-7명 규모의 자조모임(Self-Help Group)을 조직하여 이웃 여성들을 방문하는 등 심리 치유 활동을 이어 나갔다.

문해력이 낮은 사람들이나 교육에 참가하지 않았던 일반 사람들도 소매틱 치유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손쉬운 신체 활동 기법을 활용한 소매틱 치유법 그림책 [밝은 마음, 어두운 마음], [점점 따뜻해져요]를 출간 및 배포했다. 또한 가족놀이, 공동체 게임, 함께하는 요가, 타시타시(몸을 두드리는 요법) 등 동료나 이웃,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방법을 확장해 나갔다.

한편 지난 5년간 로HINGA 여성들의 참여 의지가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로HINGA여성심리지원단의 심리 치유 활동을 '직업'으로 인정하여 수당(Volunteer Incentive)을 지급한 것이 생계에 보탬이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가정에서 돌봄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여성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힐링센터를 아침 9시~13시까지만 운영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동체 내에서 여성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간 것이 참여를 지속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처음에 이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은 돈이 많이 필요해서였어요. 돈이 없으면 사람들이 저를 존중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활동을 계속하고 싶은 다른 이유는 신체활동을 할 때 마음 편안해지는 것을 느껴서예요. 그리고 다른 심리 지원단을 알게 되고 자조모임에 가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예요. 지금 그들은 저의 가까운 친구가 되었어요."

2020, 로HINGA여성참여자 K

"일부 사람들이 불린티어라고 불러주고, 간호사라고 불러주고, 아파라고 불러줘요. 아살람(무슬림 인사말) 아살람 말레이쿰의 줄임말로 평화가 당신에게 있기를 바란다는 뜻)이라고 먼저 인사해주고 NGO 활동가라고 여기고, 존중해주니 계속 여기서 일하고 싶어요."

2019, 로HINGA여성참여자 L

3) 로HINGA여성심리지원단의 활약

로HINGA여성심리지원단은 분쟁 피해 생존자에서 심리 치유자로, 또 자조모임 조직가에서 자조모임 운영자이자 힐링센터 프로그램 운영자로 변화되었다. 현재는 심리 치유 트레이너이자 힐링센터 운영위원회가 되었다. 지난 5년간의 로HINGA여성심리지원단의 급격한 성장은 로HINGA 여성들의 활약이 그 기반이 되었다.

캠프 내 로HINGA 여성이라면 자발적인 의지와 선택으로 누구나 교육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있었고, 이후 교육과정에서 단계별 테스트를 거쳐 더 높은 과정으로 승격될 수 있었다. 그리고 단계적인 교육 과정을 거쳐 수료하게 된다. 로HINGA여성심리지원단은 캠프 내 가가호호 방문하여 참여 의사를 묻고 참여 희망 여부에 따라 5~7명의 로HINGA 여성 자조모임을 조직하였다.

- Families with people with specific needs 전체 가족수 중 해당하는 비율이다.
- ● 무슬림 종교 지도자를 이맘(Imam)이라고 부른다.
- ● ● 난민캠프 내 로HINGA 리더를 마지(Majhi)라고 부른다. 방글라데시 캠프 관리자인 CIC의 관할 아래 마을 이장 역할을 한다.
- ● ● ● 방글라데시 로HINGA 난민캠프 관리 정책에 따라 로HINGA 고용이 금지되어 있어 Volunteer라고 부른다.
- ● ● ● ● 보통 오후 1시에 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 기도(살라)를 한다.
- ● ● ● ● 나이 많고 존경하는 사람에게 부르는 존칭이다(elder sister).



또한 구성원들과 자조모임의 이름을 함께 정하며 소속감을 갖도록 하는 등 참여를 유도했다. 동네에 마을을 나가지 못하거나, 가족 외 다른 여성들을 만나보지 못했던 여성들이 심리치유 교육 과정을 통해 캠프를 활발하고, 다른 여성들에게 자조모임을 권하는 과정이 처음부터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몇몇은 가정방문이 어려워 심리지원단을 그만두기도 했고, 또 몇몇은 가정방문이 부끄러워 그저 웃기만 하며 직원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했다. 부끄러움이 많은 여성들은 자조모임 전문 조직가인 여성에게 노하우를 전해 듣고 재시도를 통해 자조모임을 구성해보기도 했다. 한편 어떤 여성들은 한 번의 우연한 성공으로 자신감을 얻어 자조모임 전문 조직가가 되기도 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문자를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임 구성 정보를 외워 방글라데시 직원들에게 전달하기도 했고, 기억하지 못하는 정보는 직원들을 직접 데리고 가서 문서에 적기도 했다. 이곳의 여성들에게 혹은 캠프에서 발품 팔아 옮겨 다니며 텐트 문을 두드려 사업을 설명하고, 참가 의사를 묻고, 가족의 의사를 확인하며 구성원의 명단을 만들어 나갔다. 로힝아여성심리지원단의 이러한 적극적인 활동이 없었다면 로힝아 여성들의 720개 3,196명의 상호연결망은 완성되지 않았을 것이다. 보수적인 로힝아 공동체에서 외부자인 방글라데시 프로젝트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로힝아여성심리지원단은 매주 목요일 정기회의를 통해 일주일 동안의 활동(일-수, 4일)을 돌아보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시간을 갖는다. 이 회의를 통해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개선하고 필요하다면 힐링센터 운영에 반영한다.

힐링센터 여성들은 한국에서 온 전문 사진작가의 사진이 못생기게 나왔다면서, 결국 핸드폰의 필터를 사용하여 본인의 프로필 사진을 '예쁘게' 만들었다. 투표로 힐링센터의 대표색을 하늘색으로 정한 후 이용객 카드와 도장을 하늘색으로 변경했다. 사실 힐링센터의 첫 번째 명칭은 장미 센터(Rose center)로 결정되었으나, 여성들이 평화의집(산티카나, Shanti-Khana)이라고 부르며 지금의 산티카나라는 이름에 안착하게 됐다. 그리고 여성들은 이제 힐링센터 방문자 관리를 위해 스캐너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전원을 켜는 것도 무서워하던 여성들은 기본적인 문해력(숫자와 간단한 영어)과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힐링센터 활동을 기록하고 있다. 힐링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매를 위한 지출 및 구매 결의 시스템에 센터 여성들을 참여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공지판을 설치하여 활용하고 있기도 하다. 경험이 없고 문해율이 낮다고 해서 참여에 걸림돌이 되진 않았다. 다소 시간이 걸릴 뿐, 필요하다면 직접 만들어내고, 또 필요하다면 직접 해내는 여성들이었다. 산티카나는 그렇게 그녀들의 손을 거쳐 만들어지고 있다.



4) 동료학습 방식의 성과

2018년 활동을 시작한 시점부터 함께했던 4명의 여성들은 핵심 리더로 양성되었다. 한국의 심리지원원들에게 4명의 리더들은 특별 훈련을 받았고, 이후 4명의 리더들이 전체 교육 과정에 들어가 그룹장을 맡아 보조 강사 역할을 했다. 각 그룹에서 핵심리더가 각 그룹을 가르치고 한 그룹씩 실습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매주 2회 다음 주 방문 활동 내용을 미리 교육받고 실습했다. 그렇게 핵심 리더 4명이 방글라데시 직원(직训 트레이닝을 완료한)들과 함께 여성들을 교육하고 이끄는 역할을 했다. 동료 간 교육훈련 방식은 미리 훈련받은 동료 보조 강사들의 활약으로 80명 규모의 강의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했고, 동일한 사회문화적 정서를 가진 당사자 간의 동료 학습은 교육 내용에 대한 빠른 이해를 도왔다. 실제로 여러 번 걸친 외국인의 설명보다 동료 보조강사의 한 번의 설명으로 참여 여성들은 고개를 끄덕인다. 본 사업의 치유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치유 효과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동료 강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보조강사로 시작해 코어리더에 이르기까지 여성심리지원단 프로그램의 모든 훈련 과정을 마친 여성들은 방문 심리치유자, 센터 치유 프로그램 안내자, 센터 운영자로 일하게 되었다.

5) 참여자들의 투표를 통한 대표 선출과 운영위원회 운영

2019년부터 힐링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서 힐링센터를 이끌어 갈 운영위원회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리더십을 주제로 한 고급 교육과정이 실시된 이후, 문해력이 낮은 로힝아여성심리지원단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얼굴 사진으로 선거 후보자 명단을 만들어 운영위원회를 직접 선출해 보기도 했다. 선거의 경험이 없다 보니 무효표도 있었고, 자신의 얼굴 사진에 표기를 하는 사례도 많았다. 그렇지만 축제처럼 모두가 선출의 첫 경험을 즐거워하며 함께 시간을 보냈다.

운영위원회(10명)는 월 1회 자체 정기 회의를 갖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갖는다. 예를 들어 '센터와 거리가 먼 곳에서 온 여성들의 경우 땀을 많이 흘리니 손과 얼굴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준비하자.' 라거나 '방문자들을 위해 힐링센터를 아름답게 꾸미자.'라는 의견도 나온다. 혹은 '장애를 가진 방문자가 방문할 경우, 오르막 길이며 울퉁불퉁한 길이 많아 이동이 불편하니 프로그램 종료 후 귀갓길을 함께 동행하자.'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사라방이 너무 더워서 선풍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나 '힐링센터 근처에 뱀이 자주 출몰해 참여 여성들이 불안해하니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보자.'는 제안도 나온다. 혹은 '활동 사진 촬영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방문자도 있으니 조심하자.'는 의견도 운영위원회에서 나왔다. 그렇게 산티카나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센터 운영에 대한 여러 이슈들을 함께 점검하며 공동의 의사결정을 해 나가고 있다.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이 참여 여성들의 자부심과 주인의식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이다.



3. '임파워먼트' 원칙 적용 과정 및 성과

임파워먼트 지표 측정 결과		
임파워먼트	객관적	주관적
정량적	1) 심리적 임파워먼트 • 로힝아여성심리지원단 단계별 참여자 수 (초급 289명, 중급 47명, 고급 80명, 최고급 40명) • 산티카나 힐링센터 힐링프로그램 참여자 6,002명 2) 사회적 임파워먼트 • 자조모임 724개 그룹, 7,240회 모임 개최 • 공동체 프로그램 개최 횟수 6회 • 문해수리교육 참여자 수 195명 • 캠페인 집단행동 횟수 및 참여자 수 3) 경제적 임파워먼트 • 커뮤니티 비즈니스 프로그램 참가자 40명/수료자 29명 • 심리지원단 교육 후 취업에 성공한 비율 21% • 비즈니스 프로그램 이후 소득 창출에 성공한 여성의 비율 73% 4) 정치적 임파워먼트 • 여성권익위원회 참여자 수 72명 • 마을 이장(Majhi, 마지)으로 선출된 여성 수 2명	• 프로그램에 참여한 안정적이고 높은 회복/자아탄력성을 가진 여성의 비율 96% • 로힝아여성심리지원단 우울증 37% 감소, 자조모임 참가자 우울증 22% 감소 • 심리지원 프로그램 만족도 100% • 기초선/종료선 평가를 통한 역량 향상 비율
정성적	문해수리 시험 결과	• 심리지원 활동의 일상에서의 적용 • 타인과 의사소통 시 스트레스 대처 향상 • 여성 간 사회적 보호와 지지 관계 형성 • 가정 및 공동체 내 권위 향상 • 정보 접근성 확장 • 이동성 향상 • 11 및 그룹 인터뷰 기록 • 문화적 관습 및 인식 변화 사례

본 트라우마 치유 모델은 1단계) 심리적 임파워먼트 2단계) 사회적 임파워먼트 3단계) 경제, 정치, 문화적 임파워먼트 과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1) 심리적 임파워먼트

아디는 사업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2022년부터 자아탄력성 척도인 ER89(Block&Kremen, 1996)를 사용하여 프로젝트 사전/사후 회복탄력성을 측정하고 있다. 문해력이 낮은 여성들이 사용해야 하기에 15문항 아래로 4점 척도만을 사용한 척도와 2018년부터 내부적으로 측정해오던 요소들을 조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아디에서는 여성들이 심리적으로 임파워된 상태가 회복탄력성이 높은 상태라고 보고, 여성들의 정신건강과 심리사회적 어려움에 대처하는 자기조절능력, 사회적 소통과 관계를 형성하는 대인관계능력, 삶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 및 자아 낙관성을 가진 긍정성을 회복탄력성의 요소로 구분하고 있다.

2022년 기초선/종료선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꾸준히 프로그램에 참여한 여성 중 높고 안정적인 회복탄력성을 가진 비율이 96%이다. 무작위로 선정된 일반 여성은 83%로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본 프로그램 참여자는 비참가자에 비해 우울감 및 불안감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캠프생활을 활동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무작위로 선정된 캠프의 비참가자 여성들에 비해 회복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감 관련 질문 중 무기력 증상과 관련한 조사에서도 심리지원단의 우울증은 37% 감소, 자조모임 참가자 22% 감소로 큰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로 참여자들은 “전혀 (무기력증을)느끼지 않는다. 몸이 평범하다. 일도 하고 사람들과 이야기도 잘하고, 먹는 것도 잘 한다. 아이들과 행복하고 질병도 없다. 내가 해야 할 모든 일을 했다.” 고 응답했으며, 심리지원 세션에 대한 만족도가 100%로 나타났다.

지난 50여 년간 미안마 군부로부터의 체계적인 억압과 차별, 2017년 집단학살, 그리고 방글라데시 로힝아 난민캠프에서 반복되는 화재, 홍수, 산사태, 내부 불안 등을 일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로힝아 여성들의 회복탄력성이 높게,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여성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사회적 활동들과 트라우마 심리지원 기술들이 참여자 개인의 내적 자원을 발견하고 자존감 및 효능감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여성들은 일상생활에서 그 방법들을 활용해 자기 조절을 하고, 리더십 역할까지 발전시키고 있다.

“지난주에 저는 남편과 말다툼을 했어요. 저는 매우 화가 났고 남편이랑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조용히 앉아서 배운 호흡법을 활용했어요. 제가 이 신체활동을 할 때면 화가 조금씩 사라지는 것이 느껴져요. 그때 저는 이 활동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2022, 로힝아여성참여자 M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너무 더워요. 이때 아이들이 집안일과 요리를 방해하면 화가 나요. 화가 날 때 천천히 (트레이닝에서 배웠던) 호흡법을 하면서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생각해요.”
2023, 로힝아여성참여자 N

회복탄력성 요소에 따른 ER89 문항구성표 ©아디

회복탄력성 요소에 따른 The Ego Resilience Scale(ER-89) 질문		
회복탄력성 요소	질문 번호	[ER89 영문본]
자기조절능력	2	I quickly get over and recover from being startled.
	10	I usually think carefully about something before acting.
	14	I get over my anger at someone reasonably quickly.
대인관계능력	1	I am generous with my friends.
	4	I usually succeed in making a favorable impression on people.
	9	Most of the people I meet are likable.
긍정성	3	I enjoy dealing with new and unusual situations.
	5	I enjoy trying new foods I have never tasted before.
	6	I am regarded as a very energetic person.
	7	I like to take different paths to familiar places.
	8	I am more curious than most people.
	11	I like to do new and different things.
	12	My daily life is full of things that keep me interested.
13	I would be willing to describe myself as a pretty "strong" personality.	

● ER89(Ego-Resilience 89)는 자아탄력성 척도로서 Block과 Kremen(1996)이 탄력성에 “ego”라는 접두사를 붙여 자아탄력성(ego-resiliency)이라는 개념을 제안하면서, 자아탄력성이란 ‘변화하는 상황적 요구나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에 적절한 자아 통제를 바탕으로 융통성 있게 반응하여 성공적인 적응을 이룰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정의한 자아탄력성 개념을 바탕으로 한 척도(ego-resiliency scale, 이하 ER)를 개발하였고 심리학계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2) 사회적 임파워먼트

로HING아 여성들은 임파워먼트를 ‘힘’이라고 이야기한다. 내가 힘이 있을 때 스스로가 강하다고 생각하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느낀다. 다만 로HING아어에는 임파워먼트라는 단어가 없어 그들의 생각과 변화를 충분히 표현하지 못했던 지점도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에 참가한 로HING아 여성들은 ‘개인의 교육과 배움 > 이를 통한 자기 자신의 변화 > 이웃에 대한 기여 > 전체 로HING아에 대해 본인이 할 수 있는 것과 하고 싶은 것과 같은 의지’를 ‘임파워먼트’와 연결지어 이야기하곤 한다.

2018년 웰터에서만 지냈던 여성들은 가족의 식사 준비와 집안 청소, 아이를 돌보며 하루를 보냈지만, 본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부터는 힐링센터를 관리하고,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로HING아 난민캠프 내 여성 자조모임을 조직하고, 자조모임 및 취취약계층을 주 1회 방문해 심리지원을 하고, 긴급구호(홍수, 화재, COVID-19) 활동가로 활약하고, 힐링센터 운영위원이 되어 센터를 책임지고 있으며, 이를 넘어서 이웃들의 싸움과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문해수리교육에 참가해 영어 알파벳을 읽고 쓰게 되면서 구조물품 현장에서 서명을 하거나 이웃의 이름을 써주는 등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향상으로 집 밖의 활동에 대한 두려움과 망설임이 없이 사회에 참여하는 일이 늘어났다.

히잡으로 얼굴을 가리고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수줍어 하던 여성들은 일련의 교육과정을 통해서 다른 로HING아 여성들을 가르치는 리더가 되었다. 리더가 되는 과정은 이론적 교육을 통해서가 아닌 실제적으로, 그리고 단계별로 그들이 그룹을 이끌고 참가자들에게 자신이 배운 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와 권한, 역할을 부여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활동을 통해 자신의 역할을 배우고 확장하고 성장했다. 로HING아여성 심리지원단은 다년에 걸쳐 4단계의 어려운 교육과정을 거쳐 심리지원 전문가가 되었고,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많은 동료들 만들어 냈으며, 개인적인 친구로의 친밀한 관계까지 확장하면서 여성 공동체를 만들었다. 실제로 2022년 심리지원단 구성원의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 어려운 형편에 모든 심리지원단들이 돈을 모아 축하파티를 하기도 했고, 결혼을 위해 말레이시아로 불법 이주하려는 동료의 안전을 걱정해 모두 가 며칠을 울면서 이주를 만류했다.

“예전에는 세상에 나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누구도 나를 도울 이가 없고 이웃도, 그 어떤 외부 사람과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트레이닝에 참여한 이후부터는 마음이 변했어요. 지금은 (주위에) 많은 이웃이 있고, 급한 상황에서는 이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해요.”

2023, 로HING아여성참여자 O

2018년~2019년까지 조직된 724개의 자조모임 3,196명의 구성원들은 현재까지 관계를 지속하며 상호 지지가 되고 있다.

“예전에는 울기만 했는데 이제는 웃기도 하고, 웃을 일이 많아요. 자조모임원 한 명이 병원에 갈 때, 다른 자조모임원에게 아이를 맡기고 병원에 간 일도 있었어요. 또 다른 멤버는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갈 때 다른 자조모임원 로키가(가명)가 아이들을 돌봐주었어요. 이들은 이전에 서로 모르는 사이였어요.”

2019, 로HING아여성참여자 P

자조모임, 방문심리지원과 힐링센터 활동이 대인관계를 경험하게 하고, 소통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적인 네트워크로 연결되기 때문에 모임의 참가 경험이 여성들을 사회로 향하게 하고 있다. 자존감, 효능감 등 심리적 안정감을 바탕으로 한 활동이 그룹과 공동체에 대한 신뢰와 소속감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사회적 관계망을 구성, 유지, 확장시키는 삶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전에는 밖에 나가지도 않고 다른 여성들과 얘기한 적이 없었어요. 캠프 안에서 보건소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지금은 우리 캠프 1구역부터 19구역까지 다 가봤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알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CiC 사무실이 무서웠고 가면 처벌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이제는 두려움 없이 CiC 사무실에 갈 수 있어요.”

2020, 로HING아여성참여자 Q

여성들은 이러한 소그룹 활동 경험을 통해 공동체 전체의 갈등 중재 및 문제해결에까지 나서고 있다. 캠프에서 아동 실종과 인신매매에 관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심리지원단이 캠프 내에서 실종된 한 소년을 발견하고 마을 이장(Majhi, 마지)에게 데려다주어 가족을 찾아주기도 했다. 사업 시작 5년이 흐른 지금 여성들은 불의가 있으면 참지 않고 CiC에 바로 보고하며 공동체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이 힘든 상황에도 다른 여성을 돕고, 공동체 내 타 기관의 회의에도 참석하는 등 목소리를 높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제 저는 스스로 뭘든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요. 어제 엄청 용기를 내어 배분 센터에 혼자 갔어요. 줄을 서고 있었는데 제 앞에 한 남자가 끼어들었어요. 저는 남자에게 ‘너는 끝에 가서 서야 해. 뒤로 가서 줄서’라고 말했어요. 전에는 저는 혼자 집을 나서지 못했고 배분 센터에 가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이번엔 혼자 가서 배분 물품을 가져왔어요.”

2022, 로HING아여성참여자 R

심리지원기술, 생활기술, 문해교육 등으로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여 가정 내 의사결정권이 개선되었으며, 공동체 내 스스로의 권위가 향상되었고, 정보 접근성 확장, 발언권 강화, 이동권이 향상된 변화를 느끼는 여성들은 개인의 변화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거듭났다.

3) 경제적 임파워먼트

로HING아의 보수적인 종교적, 문화적 규범상 여성이 적극적으로 사회적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전통적 성 역할과 충돌함에 불구하고, 1개월 1인 8달러의 식량을 배급받는 로HING아 사람들에게는 가계에 보탬이 되는 여성들의 활동 수당(Volunteer incentive) 덕분에 활동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받았다. 또한 문해력이 낮고 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로HING아 여성들이 생계비를 마련할 수 있는 일자리가 캠프 내에서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여성들과 그 가족들의 호응도가 높았다.

로HING아여성심리지원단은 매주 목요일 활동 수당(한화 26,000원가량, 방글라데시 캠프 관리 정책에 따라 시급으로 계산된다)을 지급받는다. 생전 처음 돈을 벌해보는 여성들은 목요일 전날에는 설레서 잠을 설쳤다고 한다. 자신이 일해 돈을 벌며 가족들을 위한 식재료를 구입하고, 아이들을 위한 물품을 구입하고, 자신을 위한 옷과 화장품 구입할 수 있어 여성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로HING여성심리지원단 양성 교육훈련을 받은 여성들은 현재 힐링센터에서 활동하고 있지 않더라도, 타 기관에 고용된 여성이 21%(2023년도 상반기 기준)로 나타나 본 사업이 여성들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기초적인 역량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을 위한 생계지원의 창구가 되자 가족들의 지지와 사랑을 받았다고 느끼는 여성들이 많았다. 심리지원단 중 한 명은 처음에 남편이 활동을 반대했다고 답했지만 가족 내에서 자신이 유일하게 경제활동을 하면서 현금소득이 생기자 남편이 자신의 활동을 지지해준다고 한다.

또한 2022년부터 시작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프로그램에 참여한 여성들은 작은 잡화 가게를 운영하고 양재, 어망 제작, 비둘기 키우기 등으로 4개월간 작가는 1,000타카(약 13,000원)에서 8,000타카(약 104,000원)까지 수입을 얻었다. 참여 여성의 73%(2023년 3월 기준)가 소액이지만 수익을 내었고, 문해수리 교육에서 배운 가계부 작성을 활용하여 저축과 재투자를 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활동을 통한 소득 창출은 캠프 내에서 여성들의 삶에 활력을 주고, 다년간의 심리지원 활동이 지속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인자로 가정 내에서 여성들의 실질적 지위와 권위를 향상시켰다.

“저는 여자이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일하며 돈을 벌고 있어요. 저는 이 돈으로 저와 같은 구역에 사는 여자아이들이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도왔어요. 그리고 이번 년도에 캠프에서 화제가 많이 나서 조카의 집도 불에 타버렸어요. 하지만 저는 도울 수 있었죠. 그리고 화재로 인해 다른 캠프에서 온 4명의 사람도 제가 도왔어요. 제가 모은 돈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2022, 로HING여성참여자 S

4) 정치적 임파워먼트

예전에는 남성만 집 밖으로 나가 돈을 벌 수 있고, 여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집안일만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본 사업을 통해 많은 변화를 경험했다. 가족들의 ‘여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공동체에 서로 ‘일하는 여성’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었다.

“며느리가 밖에 나가고 이웃을 방문하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며느리의 일이 우리 불락 사람들의 인식을 넓히기 때문이죠.”

2022, 로HING여성심리지원단 가족 T

“어머니가 밖에 나가고 이웃을 방문하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삶을 좋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2022, 로HING여성심리지원단 가족 U

“여성이 일하는 것을 봐서 놀랐어요. 여성들이 일하는 것이 좋아요. 미얀마에서는 교육을 받지 못했잖아요. 공동체 평화를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해요. 심리지원단 여성들이 일해서 우리 사회 인식을 높이니까 좋죠.”

2021, 로HING난민 V

2021년 하반기부터 UNHCR은 구역 리더로 여성 대표도 선출하여 캠프 위원회를 결성하고, CiC, 군과 함께 정규회의를 진행했다. 로HING여성심리지원단 중 1명(36세, 초등교육 완료, 남편은 미얀마 거주)이 2021년 캠프 14 A 구역 여성 마을 이장(Majhi, 마지)으로 선출되었고, 2022년 9월 1명(30세, 초등교육을 받지 못함, 남편 함께 거주)이 추가로 여성 마을 이장(Majhi, 마지)으로 선출되었다. 이들은 남성 마을이장들로부터 ‘리더십이 있고, 강한 여성’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추천되었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로HING여성심리지원단 초급자의 경우, 다수가 누군가 자신을 모욕할 경우 거리를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하여 심리지원법을 활용한다고 답변 반면, 고급과정 참여자의 다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목소리를 높여야만 하며 사이트 매니저먼트 담당자나 CiC에게 신고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즉 참가 경험이 길수록 자신과 여성의 사회적 위치와 권리에 대한 인식과 행동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는 젠더기반폭력(GBV)과 관련해서 저항할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으로서 우리는 서로를 모욕할 수 없고 서로 존중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여성의 명예(honor)에 반하는 그 어떤 것도 참을 수 없어요.”

2022, 로HING여성참여자 W)

또한 매년 12월 ‘젠더기반폭력 반대 16일 캠페인(16 days of Activism against Gender-Based Violence)’에 참여해 여성들에 대한 폭력 반대 구호가 적힌 플랜카드를 들고 행진하고 있다. 이에 더해, 책임 있는 남성의 모습, 가족계획의 중요성, 이슬람 교리에서의 남편과 아내의 역할, 가정폭력에 대한 방글라데시 법률상 처벌 수위 등에 대해 안내하며 공동체의 남성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고 있다.

본 사업을 통해 개인적인 단계에서의 자기보호부터 사회적인 권리옹호까지 나아가는 여성들의 변화는 정치적 임파워먼트의 단계를 보여준다. 보수적인 무슬림 로HING 공동체에서 젠더 규범 장벽을 깨고 여성들이 공동체 리더로 자리하는 것, 그 과정은 곧 공동체에서 여성의 능력을 긍정적으로 인정받는 절차이며, 젠더 위상에 변화를 가져오는 시작이자 성과라고 볼 수 있겠다.

4. '비차별' 원칙 적용 과정 및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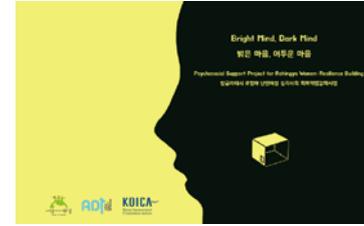
비차별 지표 측정 결과		
비차별	객관적	주관적
정량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별 분리 통계(성별, 연령, 학력, 장애, 가족구성원, 거주구역, 취약성) • 남성 지도자 젠더인식 교육 참여자 수 75명 • 가족놀이 프로그램 참여 남성 수 818명 • 산티카나 서비스 이용자 중 세부 취약성이 있는 인구 42%(2022), 56%(2023) 	
정성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 및 볼런티어 선발 기준에 취약성 포함 • 비차별관련 가이드라인/정책 포함: 인사정책, 젠더 정책, 모니터링 및 평가(M&E) 정책, 성적 착취 및 학대 보호(PSEA) 정책, 보호 정책, 행동 강령 • 산티카나 힐링센터 운영 매뉴얼 (음성, 비디오, 포스터, 로HING아어, 영어, 한국어) • 그림책 교재 [밝은마음어두운마음] (그림, 영어, 한국어) • 그림책 교재 [점점 따뜻해져요] (그림, 로HING아어, 방글라어, 미얀마어, 영어, 한국어, 아랍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의 차별 요소에 대한 인식 개선 정도 사례 • 젠더 인식 변화 사례 • 프로젝트 여성 참여자 55명의 젠더 인식에 대한 긍정적 변화를 8%, 남성 참여자의 긍정적 변화를 17%로 각각 상승(2021년)

미얀마 군부의 무차별 공격을 당한 로HING아 여성들은 대다수가 GBV 피해자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의 순결과 관련하여 피해 사실을 숨기는 로HING아의 사회문화적 특성상 피해 여성을 집중 지원하는 것은, 오히려 차별과 편견의 대상이 되어 피해자를 낙인찍을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를 선별하거나 드러내지 않게 GBV 피해자라는 기준을 두지 않은 상태로 참여자들과 젠더 인식 활동을 보편적인 여성의 권리 중심으로 가져가면서 좀 더 세심하게 여성들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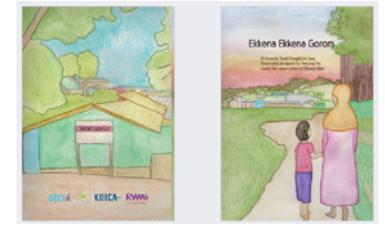
대다수의 로HING아 여성들은 무슬림의 퍼다(Purdah)● 문화와 사회문화적 젠더 규범으로 인해 낮은 사회적 지위와 고립에 처해 있었지만, 이 여성들 중에서도 더욱더 취약한 사회적 지위에 있는 여성들에게 우선적으로 활동 안내를 했다. 로HING아 남성들도 취약한 조건의 여성들에 대한 지원을 합리적이라고 이해했다. 남편의 사망이나 실종 등으로 인해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여성 가장, 노동이 가능한 남성이 없는 가정의 여성, 부양해야 할 가족이 많은 대가족 여성, 가족 중 환자나 장애인 있어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여성, 손녀를 돌보는 노인 여성, 임신부나 수유 여성 등이 심리지원과 생계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로HING아 여성들이 집 밖을 나와 집단적으로 교육을 받고, 다른 가정을 방문하고, 남들 앞에 나서는 모습을 쉽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성 지도자들에 대한 젠더교육과 가족놀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여성 활동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여 여성들에 대한 차별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보통 난민캠프에서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영어 등을 활용한 의사소통 능력이 좋거나, 읽기와 쓰기가 가능해야 한다.●● 즉 문해력이 있는 로HING아만 볼런티어로 고용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성들은 일자리를 얻

● 퍼다(Purdah)는 이슬람국가에서 여자를 베일로 가리는 관습으로 여자들이 가족이나 친척이 아닌 남자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격리하거나, 외출 할 때 얼굴과 몸을 가리는 것이다.
 ●● 국경없는의사회와의 언어교육을 위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방글라데시 캠프에 살고 있는 로HING아 인구 중 2/3가 공식적인 정규교육을 받지 못했다.



그림책 [밝은 마음 어두운 마음]



그림책 [점점 따뜻해져요]

을 수 없었다. 하지만 로HING아여성심리지원단은 2018년 40명의 교육훈련 시 교육경험이 전무한 여성이 53%, 초등 과정을 마치지 못한 여성이 35%로 전체 중 88%가 읽고 쓰지 못했다.

따라서 음성과 시각(그림 등)자료를 활용한 의사소통을 시도하고, 프로젝트 여성 직원을 추가 고용하여 이를 보완하며 사업을 수행했다. 이에 더해 심리지원 교재를 그림책('밝은 마음 어두운 마음', '점점 따뜻해져요')으로 제작하고, 로HING아어를 알파벳으로 표기해 로HING아 여성들 스스로 읽을 수 있도록 했고, 문자해독이 가능한 로HING아 누구나 사용될 수 있도록 내용을 공개했다. 매뉴얼의 경우 로HING아 여성 스스로 힐링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로HING아어로 번역 및 표기하고, 음성, 비디오, 포스터 등으로도 제작 중이다.

취취약계층의 경우, 여러 가지 이유로 인도적지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구 방문을 통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 이들 개인의 고립은 가족을 고립시키고, 사회적으로도 배제되기 쉽다. 취취약계층 피해생존자들은 물리적인 제약으로 힐링센터 방문이 어렵고, 인도적 지원 정보 수집에도 한계가 있어 본 단체의 힐링센터 프로그램 참가율이 매우 낮다. 따라서 훈련된 로HING아여성심리지원단이 찾아가는 힐링 서비스를 통해 취취약계층을 가가호호 방문하여 심리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웃과의 연결망을 조직하여 공동체 내에서 지속적으로 돌봄이 순환될 수 있는 지지망을 연결하고 있다.

로HING아 난민캠프에서는 로HING아어와 영어, 방글라데시 치타공어, 미얀마어를 주 소통언어로 삼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로HING아 사람들은 로HING아어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들의 언어사용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로HING아어와 70~80% 유사한 방글라데시 치타공어 사용이 가능한 방글라데시 직원들(주로 콕스 바자르와 치타공 거주)만 채용하였다.

‘참여’, ‘임파워먼트’, ‘비차별’ 적용 위기와 해결

1. 문해력이 낮고 교육경험이 없는 여성들과 함께하기

문해력이 낮고 교육훈련 경험이 없는 여성들을 훈련해야 했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시작을 4명의 훈련과정으로 구성했다. 대신 4명의 훈련에는 많은 자원(1년간 외국인 심리지원 트레이너 4~6명의 5번의 현지 출장, 본 교육훈련 담당 직원 8명 등)이 투입되었다. 문자로 제작된 교재를 사용하는 강의나, 강사의 주도로 학생을 교육 훈련하는 수업방식에 익숙한 문화에서 교재 없이 로형아 여성들을 훈련하는 것도 큰 도전이었다. 초기에는 심리지원 수업 시간에 강사의 이야기에 집중하지 못했고, 강사의 안내에 따라 몸을 움직이는 것도 하지 않았다. ‘듣고 있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매순간 있었다. 또한 약 40명이나 되는 규모로 여성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것을 처음 경험한 참가자들은 그것 자체를 낯설고 어색해했다. 심리지원 수업이기에 참가자들과 마음을 나누는 소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데, 온 몸을 가리고 눈만 보이는 허잡을 쓰고 가만히 있기만 한 참가자들의 표정과 감정을 읽을 수 없어 수업 진행이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수업 도중 지도를 알리는 아잔이 울리자 서둘러 신발을 신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기도 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성별, 나이, 가족구성원, 가족의 이야기 등 로형아 여성과 트레이너가 라포 형성을 위한 공통점 찾기에 나섰고, 서로의 인생의 이야기를 나누고, 마음을 여는 심리지원 기술들을 활용했다. 그 정성으로 모두가 모여 앉아 무더운 날 천막 텐트에서 며칠을 구슬땀을 함께 흘렸다. 그렇게 몇번의 과정이 지나자 허잡을 쓰고 반응하지 않고 앉지만 있는 여성들이 허잡을 벗고, 웃고, 눈을 마주치고, 손을 내밀고, 일어나 춤을 추게 되었다. 또한 로형아 여성 참가자들 중 단 한 명도 읽고 쓰기가 가능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자조모임을 구성하거나 힐링센터를 운영하면서 수반되는 서류 작성을 위해 프로젝트 직원을 추가 채용하거나, 쓰기가 가능한 사람과 인턴뷰 일정을 조정하거나, 핸드폰을 나눠주고 음성녹음과 사진 촬영 방법 등을 가르치는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사람을 훈련하는 프로그램은 사람들이 완성해나가기 때문에 이를 위한 인력과 예산 투입이 많을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과정 자체가 프로그램이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2. 불투명한 미안마로의 송환이나 이직으로 인한 인력 유출

‘미안마에 있는 내 집으로 가고 싶다’는 로형아 여성들은 국제사회에서 송환 이슈가 떠오르면 잠을 설치기도 하고, 이웃, 동료들과 함께 이에 대한 이야기를 시시각각 나누기에, 힐링센터는 술렁이기 시작한다. 송환 명단에 이름을 올려 활동을 정리하려다가 다시 송환을 포기하게 된 경우도 있으며, 의지와 상관없이 송환 명단에 올라가기도 했다. 또한 10명 이내의 일부 참여자는 본 사업의 프로그램 도중 타 NGO에 취업(보통 보다 높은 급여와 고용 조건으로 채용된다)이 되어 중도 하차하게 된 사례들이 발생했다. 본 사업은 참여자들을 장기간 훈련시키고 이들의 전문 역량과 주도로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기획되었기 때문에 다년동안 교육훈련한 인재들의 유출은 프로젝트의 질적 성장에 어려움을 미친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로형아 여성심리지원단 102명의 인력풀을 구성하여, 활동 중단 시 대체할 수 있는 잠재 인력 명단을 만들어 두거나, 특정인에게 권력이나 역할이 집중되지 않도록 순환제 근무를 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결론

2018년에는 집단학살이라는 가능하기 어려운 거대한 사건을 경험한 여성들과 시작한 심리지원 사업이 여성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리라고는 감히 상상하지 못했다. 당장 두통과 불면증 같은 신체적 고통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작은 바람은 지난 6년의 시간 동안 여성들 개인의 마음의 안정과 행복감은 물론이고, 이들에게도 상상하지 못했던 삶의 긍정적인 경험과 변화들을 선사했다. 이 사업은 집단학살을 경험한 피해자로만 인식되던 여성들이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SDGs 달성에 성공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사업은 집단 학살 생존자 동료들의 지지로 여성들이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서로의 연결로 삶을 건강하게 회복하는 과정이며(SDG 3), 로형아 여성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문해 및 산술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기초교육, 심리지원훈련, 커뮤니티 비즈니스 교육, 젠더 인식 제고 교육 등이 이루어졌다. 양질의 기술훈련, 생계훈련을 제공해 3차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기회가 되었다(SDG 4). 또한 독립적인 학습공간이자 치유공간인 힐링센터는 종교문화적 규범으로 차별받고 있는 여성들에게 안전한 공간을 조성하고 여성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장이었다. 여성들은 공동체에서 젠더 역할의 위상을 바로 세웠다(SDG 5). 그리고 로형아 여성들의 일자리를 창출해, 소액이나마 좀 더 나은 삶의 기초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SDG 8).

본 사업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교훈은 아래와 같다.

첫번째는,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중요성이다. 본 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었던 심리지원은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심리적 안정과 자존감, 효능감 향상을 바탕으로 한 회복역량강화, 즉 심리적 임파워먼트만을 목표로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달성되니, 자연스럽게 사회적·경제적 임파워먼트, 정치적·문화적 임파워먼트로 연결되어 전반적인 삶의 변화와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위의 다양한 임파워먼트 요소들이 결합될 수 있도록 개인의 심리적 안정감과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두번째는, 개인적 참여와 공동체적 참여의 중요성이다. 당초 무슬림 여성들이 모인다는 것, 그리고 여성들을 교육시키는데 대한 공동체의 우려가 있었지만 참가 여성들의 성공적인 사례가 공동체의 인식을 변화시켰다. 참가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도로 교육 이후 실무들을 직접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다양하게 경험의 폭이 넓혀지자 여성들의 역량이 자가발전되었다. 그리고 분절된 개인의 참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성과 여성들을 연결하는 자조모임이나 상호 연결망을 통한 참여 기회는 서로 배움이 되어 상당한 깊이와 속도로 여성들의 임파워먼트를 성장시켰다. 여성들이 이렇게 역량이 강화된 모습들을 로형아 공동체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여성의 가족뿐만 아니라 공동체까지 긍정적으로 이 사업을 바라보게

우간다 서부 지역 지체장애인 직업훈련학교 지원 및 장애 인식 개선 사업

희망친구 기아대책

되었다. 즉 개인과 공동체가 '참여'할 수 기회와 조건들을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이유는 모두에게 참여 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경험과 활동은 개인과 동료와 이웃, 그리고 공동체 역량의 발전으로까지 빠르고 쉽게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여와 임파워먼트는 공동체가 함께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체 안에서 존재하는 임파워된 여성들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지지와 응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로힝야 문화를 존중하고, 여성들과 함께하는 사업에 남성 리더들을 초대해 공부하고, 가족들과 함께 하는 장을 마련하고, 공동체 행사를 열어 공동체를 사업에 초대해왔다. 이것이 인도적지원에서의 보호환경 조성의 맥락을 같이 한다.

아디는 임파워먼트란 모든 인간이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원과 능력들을 발현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이것은 일반적인 심리치유의 목적이기도 하다. 로힝야 난민 및 수용공동체 여성들과의 심리사회 회복역량 강화 사업에서의 임파워먼트란 여성들이 꽃피게 되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발아와 발화의 조건을 만드는 이웃과 공동체에 의해서 가능했다. 자리와 기회를 만들면, 사람들은 모여 물을 주고, 정성껏 들여다보고, 그리고 함께 꽃을 피워냈다.

서로 다른 조건을 가진 다양한 모두가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세심히 살피면서 서로를 돌보는 '참여'를 통해 공동체에서 '차별'받던 여성들은 프로젝트가 상상하지 못했던 '임파워먼트'를 일궈냈다. 그 과정마다 나타나는 여러 어려움들은 걸림돌이 되기는 했지만, 함께하는 여성들을 멈춰 세우지는 못했다.

9

우간다 서부지역 지체장애인 직업훈련 학교 지원 및 장애 인식 개선 사업

희망친구 기아대책

기관명	희망친구 기아대책
프로그램명	우간다 서부지역(Region) 지체장애인 직업훈련학교 지원 및 장애 인식 개선 사업
사업목표	우간다 서부 지체장애인의 취/창업 기회 확대
사업지역	우간다 서부 카바롤레-구 포트포탈-지역 (Fort Portal, Kabarole District, Western Region, Uganda)
사업기간	2022년 4월 ~ 2023년 12월
주요 파트너 재정/실행/네트워크/평가 등	
재원협력 파트너	KOICA
실행협력 파트너	기아대책 우간다지부
평가협력 파트너	연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
유관 SDGs	Goal 4(4.3, 4.5), Goal 8(8.6), Goal 5(5.1)



이하나 과장, 희망친구 기아대책 국제사업본부 국제개발협력팀
2012년부터 희망친구 기아대책 국제사업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의 교육, 아동 및 공동체 개발 사업을 관리하며 개발협력 경험을 쌓아왔으며, 현재는 기관 해외사업 성과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기관 및 사업 소개 유관 SDGs 목표/세부 목표와 관련 지어 설명

1. 기관 소개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국내 최초의 국제구호개발NGO로, 지난 34년간 국내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전 세계 50여국에서 일하고 있다. 경제적·사회적·정서적·영적 빈곤으로부터 고통받는 이웃의 회복과 자립을 미션으로 하여 국내복지·국제구호개발·사회적경제 등에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한다. 특히 가장 취약한 지역과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이를 위해 지역사회 역량 강화를 중심에 두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일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교육 및 인적자원 개발, 생계 및 식량 안보 향상, 보건의료 등을 지원하는 한편, 재해로 피해를 입은 국가의 복구를 돕고 있다.

2. 사업 배경 해당 국가/지역/타겟 그룹 특수성, 해당 프로그램의 필요성 제시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우간다 국회 내 장애인 정책 담당자이자 외교정책 위원장인 국회의원의 제안을 통해 우간다 내 장애인들의 경제활동과 사회진출 기회가 매우 열악한 상황임을 알게되었다. 이후 사전 조사를 통해 이를 제한하는 근본 원인은 1) 장애인의 직업훈련에 대한 낮은 접근성으로 인한 장애인의 기술 경쟁력 부족, 2)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 이에 따른 차별과 사회적인 낙인으로 분석하였고, 이러한 사업 수요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사회진출 기회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다.

우간다 인구의 12.4%, 약 450만 명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UBOS, 2016)●, 대다수의 우간다 장애인들은 낮은 학력과 사회적 차별, 낙인으로 인해 취업 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간다 정규 노동 인력 중 장애인은 1.3%로 조사되어, 장애인들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에서 배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본 사업의 대상지인 8개 지역(Bundibugyo, Bunyangabu, Kabarole, Kamwenge, Kasese, Kyegegwa, Kyenjojo, Ntoroko Districts) 중 인구가 가장 많은 Kasese 지역(district)은 14,728명의 성인 장애인 중 50%는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로 가족들에게 의존하며 살고 있으며, 단 633명(4%)만이 고용되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애인의 직업훈련에 대한 낮은 접근성으로 인한 장애인의 기술 경쟁력 부족

대다수 장애인은 공식적인 학교 교육이나 기술교육 또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서부 지역의 8개 districts의 경우에도 장애인이 기술을 배울 수 직업훈련학교가 부족한 실정으로, 지역 대

● UBOS, (2016), The National Housing and Population Census Report.
 ●● Mary Wickenden, (2020), Accelerating disability inclusive formal employment in Bangladesh, Kenya, Nigeria, and Uganda: What are the vital ingredients?, p.24.
 ●●● Mary Wickenden, (2020), Accelerating disability inclusive formal employment in Bangladesh, Kenya, Nigeria, and Uganda: What are the vital ingredients?, p.24. (재인용).
 ●●●● Access to Employment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Uganda (2014), 256p
 ●●●●● UKAID, UNFPA, UBOS, (2019), Person with disability bridging the gap through statistics, p. 26.

표 도시인 포트폴리오에만 장애인으로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학교가 1곳에 불과하여 장애인들이 직업훈련에 접근성이 낮은 상황이었다. 이 외 지역별 공립 직업훈련학교의 경우,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등록 학생 중 장애인 학생의 비율은 학교별 1~5명 정도로 정원의 1%도 채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 이에 따른 차별과 사회적 낙인

우간다 내 장애인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비장애인(정부 관계자와 고용주, 주민, 장애인의 가족 등)의 낮은 장애인식 상태를 들 수 있는데, 직업 기술 역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인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장애인이 취업이나 창업을 통해 사회에 진출할 기회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간다의 경우, 고용주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부담이 있으며, 장애인은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것이라는 편견으로 창업을 위한 대출에 제한이 있다고 조사되었다. ● 그럼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장애인식 교육, 공익광고 등의 애드보커시 활동은 정부 차원에서 소극적인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옹호 활동의 민간 주체가 될 수 있는 장애 기반 조직들의 경우에도 재정 및 역량 부족의 문제로 애드보커시 활동이 부진한 상황이었다.

3. 사업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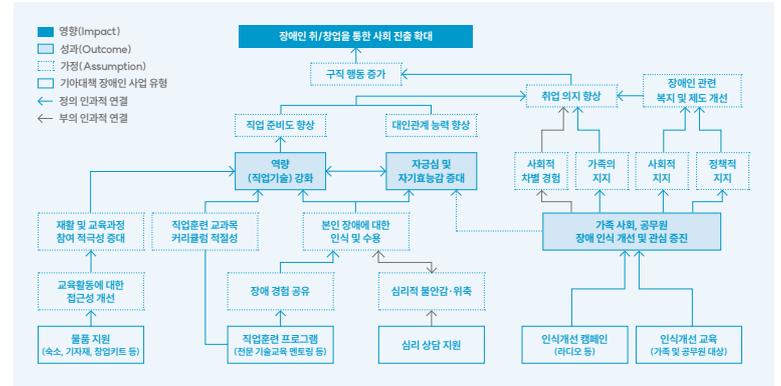
이러한 배경 아래 ‘기아대책 우간다 서부 지역(Region) 지체장애인 직업훈련학교 지원 및 장애 인식 개선 사업’은 우간다 서부지역 지체장애인들의 직업학교 접근성 확대를 통해 장애인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옹호활동을 통해 지역 내 장애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장애인의 취·창업 기회 및 사회진출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목적을 가지고 시작되었다.

본 사업의 주요 사업 대상자는 우간다 서부지역 내 하지 지체 장애인과 그 가족, (District 수준의) 지역 정부 관계자, 장애인기반조직인 서부장애인협회, 넓게는 옹호활동의 대상인 지역사회 주민까지 포함된다. 사업활동은 크게 1) 장애인 직업기술훈련 프로그램 제공, 그리고 2) 장애 인식 개선 애드보커시(advocacy) 활동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직업기술훈련 프로그램은 양손 사용이 가능한 14세 이상의 하지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현지 직업훈련 학교인 Rwenzori Special Needs Foundation(이하 RSNF)과 Queen Mother Best Vocational Foundation School(이하 QMBVS)과 협력하여 진행되었고, 장애 학생들의 원활한 프로그램 이수를 위해 장애인화재 시설 조성, 기숙 제공, 멘토링 프로그램,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 장애 인식개선 애드보커시 활동은 지역정부 공무원 대상으로 장애 인식 개선 교육 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서부장애인협회의 역량강화를 통해 장애 인식 개선 강사를 양성하여 옹호활동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더불어 라디오 방송, 전광판 및 신문지면을 활용한 캠페인 활동을 수행하여 지역사회 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표 1] 사업활동

구분	세부 활동
양질의 직업 훈련 기회 제공	• 장애인 전문 직업훈련 프로그램 제공(기술훈련, 멘토링, 건강검진, 심리상담 등)
장애인 직업훈련학교의 물리적 접근성 향상	• 직업훈련학교 2곳(RSNF, QMBVS) 장애인 편의시설, 안전시설 설치 • 직업훈련학교 2곳(RSNF, QMBVS) 장애인 기숙 시설 제공
서부장애인협회 장애인식 개선 옹호 활동 역량 강화	• 서부장애인협회 대상 애드보커시 강사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서부장애인협회 기자재 제공
지역 내 장애 인식개선 애드보커시 활동 활성화	• 지역 정부관계자 대상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지원 • 커뮤니티 대상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실시 • 장애인 옹호 활동(라디오 토크쇼, 전광판 광고) 홍보 진행

[그림 1] 사업 변화이론



4. 사업 성과 SDGs 목표/세부 목표별로 나누어 작성

SDGs 목표	SDGs 세부목표	사업 성과
SDG 4	4.3 2030년까지 모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양질의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	본 사업은 양질의 직업훈련을 제공하여 직업기술을 보유한 청년의 수를 증가시키는데 기여하였으며, 취약계층인 장애인이 양질의 직업훈련에 동등하게 접근하도록 보장하는 성과가 있었다. 그 중에서도 여성 장애인에게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 성별 격차 해소를 통해 여성 차별을 없애는데 기여했다.
SDG 5	5.1 모든 곳에서 여성 및 여아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없앤다.	• 직업기술을 보유하게 된 장애 청년의 수: 총 218명(여성 장애인 수 157명(72%)) • 국가공인기술자격증(DIT)을 취득한 학생의 비율: 98.2% • 지역 내 장애인 포용적 직업훈련을 제공하기 위한 환경 및 역량을 갖춘 학교 수: 2개 • 장애인화재 시설을 갖춘 직업훈련 학교 수: 2개 • 장애인 대상 교육 역량을 갖춘 교사의 수: 총 17명 • 장애인 대상 제공 직업훈련 교과목 수: 총 6개 ●●
SDG 8	8.6 2020년까지 교육 및 훈련에 참여하고 있지 않거나 실업 상태인 청년의 비율을 대폭 줄인다.	본 사업은 직업훈련 참여 이전 교육 및 훈련에 참여하고 있지 않거나 실업 상태에 있던 장애 및 여성 청년의 비율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하였으며, 공무원 및 지역사회의 장애인식을 개선함을 통해 장애인 차별을 줄이고 사회적 포용을 증진시켜 고용 및 일자리 증진에 기여했다.
SDGs 10	10.3 차별적인 법규, 정책, 관례를 철폐하고 이와 관련한 적절한 법, 정책, 활동을 중진하는 등의 노력을 포함하여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결과의 불평등을 감소한다.	• 직업훈련 이후 취업 또는 창업한 졸업생 비율: 약 71% • 장애인식개선 옹호캠페인 횟수 및 노출된 지역주민 수(전광판, 신문광고, 라디오광고 활용): 총 6회, 약 118,270명 ●●● • 장애인식개선 교육 참여자의 평균 장애 인식 개선률: 12% • 장애인식개선 교육 참여 지역정부 수/공무원 수: 8개 지역정부(district office)/ 총 240명

● Access to Employment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Uganda (2014), 256p
 ●● 목공, 양재, 미용, 공예, 뜨개, 재봉 과목. 해당 과목은 사전조사 시 장애인 대상 설문결과(선호 과목), 우간다 내 직업훈련 현황조사, 협력 학교의 기존 교과목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했다.
 ●●● 매체별 추정치 합산

'참여', '임파워먼트', '비차별'의 적용

1. 해당 원칙에 대한 기관의 이해

기관 전체/지부의 사명, 비전, 가이드라인, 프로그램 실행/관리 원칙에서 해당 원칙에 대한 강조 및 적용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해외 지역개발 프로그램 수행 시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지역사회 역량강화를 주요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지도자 교육훈련을 통해 사업 기획 단계부터 그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장단기적인 지역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교육, 보건 분야 등 프로그램의 주요 방법론으로 가정의 인식 및 행동변화를 목적으로하는 주민조직(캐스케이드 그룹)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주민리더의 역량을 강화하고 결과적으로 지역주민의 인식 및 행동변화를 촉진한다. 기아대책은 취약계층 세이프가딩 규정에 모든 참여자의 본질적 가치를 존중하며 참여자의 특성이나 배경과 관계없이 모든 참여자의 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의도적으로 특정 참여자를 배제 혹은 편애하지 않음을 명시하여 비차별의 원칙을 사업에 적용하고 있다.

2. '참여' 원칙 적용 과정 및 성과

서부장애인협회 주도의 이해관계자 네트워크를 활용한 참여자 선정

직업훈련학교의 학생을 모집하고 선정하는 과정에 장애인복지조직인 서부장애인협회의 주도적인 참여가 이루어졌다. 우간다의 경우 장애인 등록을 하는 법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역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부장애인협회는 8개 District에 1,000여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어, 이들이 보유한 네트워크는 학생 모집에 큰 자원이 되었다. 서부장애인 협회는 지역별로 장애인 대표에게 학생 모집 홍보를 진행하고, 직업학교 입학 기준에 맞는 학생 추천을 요청하였고, 이런 과정으로 추천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서부장애인협회와 2개 직업훈련학교, 기아대책이 함께 지원서와 추천서, 인터뷰 과정을 거쳐 학생을 선발했다. 서부장애인협회 주도적 참여자 선정 과정을 통해 장애인 학생 등록률 110%의 성과를 달성했다.

협의체 운영을 통한 직업훈련 운영 의사결정 과정에 이해관계자 참여

장애인 직업훈련학교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사업 종료 시 원활한 이양 체계를 마련하여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했다. 구성원은 각 학교의 교장 및 교사, 재학생, 졸업생(멘토)과 지방정부관계자 총 20여명으로 이뤄졌다. 협의체 정기 회의는 사업 현황에 대한 공유와 개선방안 토의로 진행되었으며, 그간 논의되어 개선방안이 마련된 사례로는 학생의 졸업 후 취/창업 장려책, 창업시 초기자본 마련 방안, 사업 종료 이후 장애인 학생 지원을 위한 지속 가능 방안 등의 주제가 있었다. 이해관계자 서면 인터뷰 결과, 참여자들이 협의체 활동이 사업 개선 방향, 각 단체에 추가·보완이 필요한 재원 등을 논의하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응답하여, 사업 내에서 직·간접적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여 지표 측정 결과		
참여	객관적	주관적
정량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록 학생 수: 총 218명(여성비율 72%) 장애인 직업훈련을 위한 협의체 참여자 수: 총 20명(여성비율 50%) 협의체 운영 횟수: 총 4회 직업훈련학교 졸업생 네트워크 참여자비 비율: 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만족한 학생의 비율: 100% 협의체의 의사결정 참여로 프로그램의 효율성/효과성 향상된 건수: 총 5건
정성적	참여 관련 가이드라인/정책: 기아대책 세이프가딩 정책 제3장 7호 하(사전조사 및 모니터링/평가 단계에서 참여자 참여보장)	협의체의 의사결정 참여로 프로그램의 효율성/효과성 향상된 사례

3. '임파워먼트' 원칙 적용 과정 및 성과

직업훈련 제공을 통한 서부지역 지체장애인 사회, 경제적 역량강화:

직업기술 역량강화, 자아존중감 및 대인관계역량 향상, 경제활동 참여도(취업률) 향상

본 사업은 우간다 서부지역 지체장애인의 기술 역량 강화를 도모하여 장애인들의 창업 및 취업을 통한 소득 창출을 가장 주요한 목표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장애 직업훈련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과정의 전문 직업훈련 뿐 아니라, 멘토링 프로그램,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여 장애 학생들의 기술역량과 더불어 자아존중감, 장애수용도, 대인관계역량 등 개인의 내적인 역량 강화 또한 고려했다. 또한 졸업 후 창업 준비를 위해 창업 교육, 창업 계획서 컨설팅, 창업키트 제공 활동 등을 통해 창업 역량을 강화하고자 했다. 그 결과, 직업훈련 학생 설문조사를 통해 '직업 기술 역량강화' '자긍심 및 자기효능감 증대' '장애수용 및 대인관계 역량' 이 향상된 것을 확인하여 역량강화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

직업훈련학교 학생들을 인터뷰 시, 대부분의 학생들이 훈련 이전에는 집에서 하는 일 없이 가족의 도움만이 필요한 부담이 되는 사람으로, 소득이 없거나 낮았다고 응답했다. 졸업생 설문조사를 통해 본 사업의 직업훈련을 통해 기술 역량을 갖춘 후, 이를 활용하여 창업 혹은 취업을 한 졸업생의 비율은 71%로 임을 확인하였으며, 이전 보다 소득이 증가한 경우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중 한 사례로, 졸업생 중 한 명은 기존에는 카사바칩 판매로 근근히 돈을 버는 상황이었지만, 미용과정에서 기술을 취득한 후 현재는 미용 서비스와 미용기술 과외활동을 통해 기존에 비해 4배가 넘는 소득을 창출하고 있다. 또 다른 졸업생의 경우 이 전에는 동네에서 일용직으로 농사일을 하며 근근히 생활을 하었는데, 직업훈련을 통해 재봉기술을 익혀 수선일을 하며 더 나은 업무환경에서 더 높은 소득을 얻게 되었다.

● 연세대 산학협력단과 협력하여 진행한 자체평가 결과, 본사업의 변화이론을 통해 식별한 가정인 '교육활동에 대한 접근성 개선' '재활 및 교육과정 참여 적극성 증대' '직업훈련 교과목 커리큘럼 적절성' '장애경험 공유' '장애수용' 등의 가정이 충족되어 인과적 경로를 확인하였으며, 회귀모형을 통해 사업활동과 위의 성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관계를 가지는 것을 확인함.



RSNV 양재과정 수업



QMBVS 목공과정 수업

지역정부 공무원의 장애인 관련 인식 및 지식 개선: 장애인식 개선을 약 12% 향상

지역정부(District 수준) 공무원을 대상으로 추후 장애인 관련 정책 제언 및 예산 수립 시 장애인 관련 이슈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8개 지역에서 일반직 공무원과 장애인 의회 리더 240명을 대상으로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2회 진행했다. 장애 인권 전문 강사가 장애인의 신체적/사회적/경제적 특징, 장애인에 관한 차별 사례, 장애인 관련 국내 및 국제법령 등을 주요 주제로 채택하여 1회 1일간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또한 지역 정부장(LC5)과 지역 정부 산하 복지부장(DCDO)에게 주요 장애 법인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2020> 책자를 배포하여 장애인 관련 법에 대한 인지도를 향상시키고자 했다. 그 성과로 장애인식이 얼마나 개선이 되었는지 사전 사후 평가를 통해 측정된 결과, 평균적으로 교육참여자의 인식개선도가 1차년도 약 12%, 2차년도 약 28% 향상한 것으로 나타나 활동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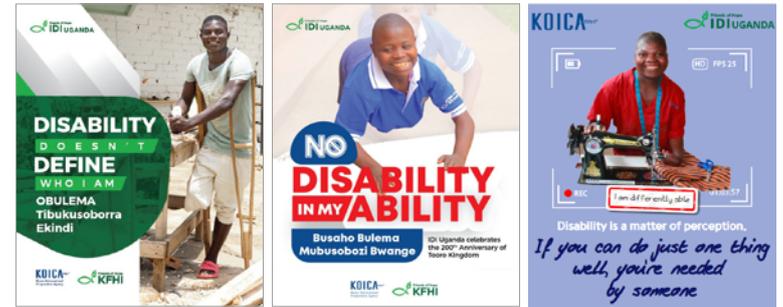


지방정부 관계자 장애인식개선교육

서부장래인협회의 옹호활동 역량강화: 장애인식개선 강사 배출

장애인의 사회진출기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주민 장애인식개선 옹호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지의 장애인조직인 서부장래인협회의 옹호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했다. 서부장래인협회는 서부지역(Toro 지역의 8개 District)을 대표하는 공인 장애인 협회로 약 1,000여명의 장애인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협회이며, 옹호활동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나 옹호활동의 경험이나 역량이 부족한 상태였다. 협회 임원들을 중심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 양성 훈련을 1회 진행하였고, 강사 양성 훈련 후 모의 강연 시연을 통해 수료한 사람들을 평가, 우수한 성적을 받은 이들은 선정하여 사업 내 인식개선 교육 강사의 기회를 제공했다. 2년에 걸쳐 총 8명이 훈련을 이수하였고, 그 중 성적이 우수한 2명이 선정되어 강사로 활동하는 성과가 있었다.

임파워먼트 지표 측정 결과		
임파워먼트	객관적	주관적
정량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업훈련학교 졸업생 중 창업 또는 취업자 비율(%) : 71% 국가 공인 기술자격증을 취득한 학생 수의 수/비율 : 107명/98.2% 장애인식개선 옹호활동 진행 매체 수/횟수 : 3개 /6회 에드보커시 강사 양성 교육을 이수한 임원 수 : 6명 양성된 에드보커시 강사 수 : 2명 졸업생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졸업생의 비율 : 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업훈련학교 학생의 직업 준비도가 향상된 학생의 비율 : 87% 대인관계역량이 향상된 학생의 비율 : 96% 자아존중감이 향상된 학생의 비율 : 91% 장애수용도가 향상된 학생의 비율 : 77% 공무원 장애인식 개선률(%) 11.66%
정성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해수리 시험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문구 경연대회 결과물 (학생들이 고안해 낸 캠페인 문구를 통해 장애수용도, 자아존중감이 향상됐음을 알 수 있다) 장애인 졸업생 인터뷰 내용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홍보물 - 장애인 훈련생 문구 경연대회를 통해 선정한 문구이다

4. '비차별' 원칙 적용 과정 및 성과

우간다 내 취약계층인 장애인, 그 중에서도 여성 장애인을 중점대상으로 수혜

본 사업은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및 인권 증진을 위해 설계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사회 진출 및 교육 기회에 있어 차별을 겪는 여성 장애인에게 직업훈련의 기회를 형평성 있게 제공하여 여성의 인권 신장에 기여했다.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가 취약계층인 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 약 72%의 참여자가 여성 장애인으로 선정되었다.

우간다에서 여성 장애인은 장애인 중에서도 남성에 비해 교육의 기회가 낮아 성별에 따른 교육 기회의 격차가 있으며, 이에 따른 결과로 취업률 또한 낮아 더욱 취약한 계층이다. 우간다 비장애인 청년의 경우 36%가 교육을 받고, 장애가 있는 청년의 경우 27%만이 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장애가 있는 청년 중에서도 남성의 경우 34%가 교육을 받는 것에 반해 여성의 경우 21%만이 교육을 받고 있어 장애, 성별에 따른 교육 기회의 격차가 있는 상황이다.

직업훈련 과정에 미용, 재봉, 공예와 같이 여성의 선호도가 높은 과정을 개설하고, 학생 선정 시 성비를 고려하는 방식으로 여성의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어, 성평등 달성 및 여성 자력화(SDG 목표5)에 기여했다.

● (재인용) Inclusion Works Uganda Institutional Analysis June 2020 update, p21

희망친구 기아대책과 협력하여 장애인에게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학교는 2곳으로, 그 중 1곳인 QMBVS의 경우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제공해왔던 학교로 장애인이 교육받기 적절하지 못한 환경을 가진 학교였다. 해당 학교의 시설은 장애인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장애인이 이용하기 어려웠었고, 교사들의 경우에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육한 경험이 없어 직업훈련 커리큘럼이 비장애인에게만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었다. 본 사업을 통해 학교에 장애 친화적인 시설이 마련되어 장애인 학생들의 시설 접근성이 개선되고, 장애교육 전문가를 통한 교사훈련을 통해 교사들의 장애인 교육 역량이 강화되어, QMBVS가 향후 장애 포용적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비차별 지표 측정 결과		
비차별	객관적	주관적
정량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훈련생 중 여성 비율: 72% • 공인 기술 자격증(DIT) 취득자 중 여성 비율(%): 72% 	
정성적	차별 방지 가이드라인/정책: 세이프가딩 정책 제3장 7조 하 (참여자 선정 및 수혜 시 비차별)	

'참여', '임파워먼트', '비차별' 적용 위기와 해결

장애가 있는 학생 중 기숙생활이 가능한 신체적 상태와 직업훈련을 따라갈 수 있는 최소한의 교육수준(초등교육 이수) 등을 기준으로 학생을 선정하였으나, 사회생활 경험 부족이나 지적 장애 등으로 인해 수업 및 단체생활의 적응이 어려운 경우 혹은 건강 상태가 만성질환 등으로 좋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이로 인해 학기 중 사회/조직생활의 어려움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학업을 중단한 사례가 발생하여 성과 달성 과정에서 위험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생 입학 시 학생 및 가족 면담을 진행, 보유 질환 및 건강 상태를 세밀히 파악하였고 이를 통해 직업 훈련 및 기숙 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건강상태를 가졌는지 확인했다. 또한 학기 중 학생들의 건강 상태 유지와 관리를 위해 학기별 최소 1회 건강검진 시행 및 공립병원 연계 치료 제공, 기숙사 비상 약품 구비, 연 2회 교직원 응급 훈련 시행, 응급상황 대응 지침을 마련하여 학생의 건강을 우선했다. 또한 수업 및 단체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정기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현지 직원이 학교에 수시로 방문하여 학생들과 소통하며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는 등 학생의 직업훈련 완수를 위한 활동을 보완했다.

본 사업은 포용적인 양질의 직업훈련의 기회를 취약계층에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확대하고, 직업기술을 보유한 청년의 수를 증가시키고 그들의 취업률을 증가시켜 장애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도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 장애인의 자력화에 기여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사업 참여자 및 이해관계자 역량강화, 이해관계자의 참여 촉진, 취약계층 포용의 원칙 적용을 살펴볼 수 있다.

우간다 서부지역의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그들의 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기획된 사업으로, 참여자의 수요인 기술역량 강화 및 취창업 준비를 위한 활동으로 구성되어 장애인 훈련생의 역량강화와 이에 따른 사회진출에 매우 큰 효과가 있었다(공인 기술 자격증 취득률 및 취/창업률). 또한 장애인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현지의 기존 직업훈련 학교의 인적·시설적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현지의 장애 포용적 직업훈련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옹호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서부장애포럼의 역량강화를 도모하여 장애인옹호활동 지속가능성의 토대를 마련했다.

사업 참여자와 이해관계자(장애인 직업훈련생, 서부장애포럼, 지역 정부 관계자 등)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상하였고, 이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사업에 대한 관심 정도와 참여율이 높았다. 이를 통해 사업 진행과정에서 지속해서 모니터링과 학습, 프로그램 개선을 가능하게 하여 사업 효과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 종료 후 장애인 직업훈련 및 장애인식 개선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사업 활동의 모든 과정, 참여자 선정부터 훈련 제공, 협의체 운영 등의 과정에서 취약계층인 장애인 중에서도 더욱 취약성이 있는 여성을 고려하여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 및 여성의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사회적 경제적 측면의 장애인 및 성별 포용을 증진하는데 기여했다.

케냐 우아신 기슈 오토바이 택시 안전 증진을 위한 기사 조직화 및 역량강화 사업

지구촌나눔운동

10

케냐 우아신 기슈 오토바이 택시 안전 증진을 위한 기사 조직화 및 역량강화 사업

지구촌나눔운동

기관명	지구촌나눔운동
프로그램명	케냐 우아신 기슈 오토바이 택시 안전 증진을 위한 기사 조직화 및 역량강화 사업. '안전을 타다, 평화를 보다'(Bodaa Salama)
사업목표	오토바이 택시 기사 자조그룹 활동을 통한 저속/ 금융 접근성 향상 및 교육, 인식개선을 통해 오토바이 택시가 지역 내에서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자리잡게 함
사업지역	케냐 우아신 기슈 카운티
사업기간	2021.01.01. ~ 2023.12.31.(총3년)
주요 파트너 재정/실행/네트워크/평가 등	
재원협력 파트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과꿈
실행협력 파트너	지구촌나눔운동 케냐사업소(GCS Kenya)
네트워크 파트너	케냐교통안전청 NTSA: National Transport and Safety Authority, 여성단체 Rural Women Peace Link, 우아신기슈 카운티 정부 Uasin- Gishu County Office, 케냐 보다보다 협회 Bodaboda Association of Kenya, 모이대학교 Moi University
유관 SDGs	SDG1, SDG2, SDG5, SDG16



하민혜 대리, 지구촌나눔운동

비영리경영 석사를 마친 후 워싱턴 디씨에 소재한 고문생존자 지원단체와 국내 국제개발협력 NGO에서 짧게 일을 하다가 인생의 동반자를 만났다. 결혼을 하고 아프리카로 건너 가, 탄자니아와 말라위에서 8년간 살면서 두 딸의 엄마가 되었다. 아프리카에서 어게 너머로, 귀동냥으로 경험한 국제개발협력 현장의 사업을 2021년부터 지구촌나눔운동에서 실무자로서 수행하고 있다. 주로 르완다와 케냐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케냐 우아신 기슈 오토바이 택시 안전 증진을 위한 기사조직화 및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서 현장의 의견과 역동이 사업의 핵심이라는 것을 새롭게 배운다. 현장의 문제에 대한 답은 현장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현지 직원들과 사업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깨끗하고 정교한 그릇에 담아내는 활동가로 성장하고 싶다.

기관 및 사업 소개 유관 SDGs 목표/세부 목표와 관련 지어 설명

1. 기관 소개

지구촌나눔운동은 세계 빈곤문제 해결과 시민사회 발전을 위해 1998년 한국에서 설립된 국제개발 NGO다. 지구촌 가난한 이웃의 자립을 돕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현재 아프리카 3개국, 아시아 5개국 총 8개국(르완다, 케냐, 에티오피아, 태국, 베트남, 몽골, 동티모르, 미얀마)의 9개 사업소에서 주민교육, 지역개발, 소득증대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 사업 배경 해당 국가/지역/타겟 그룹 특수성, 해당 프로그램의 필요성 제시

케냐의 사회적 문제, 보다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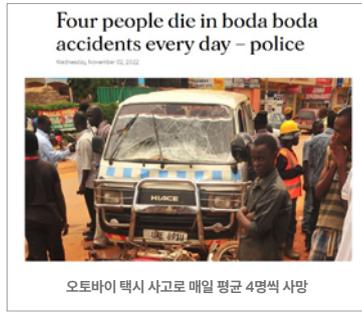
사업지역인 우아신 기슈 카운티(Uasin-Gishu county)는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서 북서쪽 방향 315km 지점에 위치한 카운티로, 유수의 마라톤 선수들을 배출한 챔피온의 도시 엘도렛(Eldoret)이 위치한 곳이다. 지구촌나눔운동은 이 지역에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3년동안 장애인들의 사회통합과 자립 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케냐 내 지체장애인들이 중 많은 수가 오토바이 택시 사고로 인해 후천적으로 장애인이 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오토바이 택시(스와힐리어로 보다보다: bodaboda)는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저렴하고,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서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교통수단이다. 따라서 보다보다로 인해 장애를 갖게 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사실은 보다보다 기사는 물론 서민들도 일상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11%에 달하는 높은 실업률 속에서, 많은 청년들이 오토바이 주행법만 익힌 후 보다보다 업계에서 영업을 시작하고 있었다. 교통법규나 교통신호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도 없이, 안전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운행을 하기 때문에 사고발생률도 높고, 사고를 당할 경우 중상과 사망으로 이어지는 비율도 매우 높았다. 케냐 내에서 교통사고 사망 사고의 36.1%는 오토바이 사고로 인해 발생했고 중상을 입게 되는 비율도 39.2%에 달했다. 카운티 내 교통안전청(NTSA: National Transport and Safety Authority) 공무원과의 면담을 통해 우아신 기슈 카운티 내 약 5천여명의 보다보다 기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으나 이들 중 운전면허를 보유한 기사는 20% 정도로 추산된다는 내용을 확인했다.

바로 현금을 벌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서 많은 청년들이 보다보다 기사가 되기를 선택하지만 실상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기사의 경우 매일 지불해야하는 오토바이 대여료와 유류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리비와 치료비의 부담까지 모두 떠안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을 내거나 저축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매우 부족했고 유사시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도 제약이 많았다. 약 1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운전면허 취득비용을 모으는 것도 오토바이 기사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교통안전 교육이나 면허 취득의 필요성을 알더라도 섣뜻 행동으로 실행하기는 쉽지 않았다.



경찰이 보다보다 기사들의 범죄 기담을 경고



오토바이 택시 사고로 매일 평균 4명씩 사망

보다보다의 위험성을 알리는 케냐 뉴스 기사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세계 불안정성이 높은 보다보다 기사들이 범죄에 쉽게 연루된다는 사실이었다. 2019년 케냐 국립범죄연구 센터에서 진행한 '케냐 내 보다보다 기사 교통안전 문제'라는 연구에 따르면 케냐 내 발생하는 전체 살인사건 중 38.6%, 폭행강도 사건의 52.9%, 음주운전 사건의 52.7%, 그리고 성폭행 사건의 17.2%가 보다보다 기사와 관련이 있었다. 또한 반대로 보다보다 기사들이 강도나 집단 폭행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었다.

'안전을 타다, 평화를 보다'(보다살라마: Boda Salama) 사업

2021년 사업에 착수하면서 보다보다 기사 403명, 보다보다 이용객 112명, 그리고 여론주도층 30명을 대상으로 보다보다 실태조사를 시행했다. 본 사업의 자문단으로 활동한 모이대학교(Moi University)의 자문을 받아 설문설계를 설계했고, 9명의 조사자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 어플리케이션 활용방법을 교육했다. 조사는 보다보다 기사들의 정류장 10곳에서 무작위로 진행되었다. 기초선 조사의 결과 응답한 보다보다 기사 중 75%는 무면허로 오토바이 택시를 운행하고 있었고 기사들의 평균 월 평균수입은 한화로 약 13만 5천원 정도였다. 보다보다 기사들 중 자조그룹에 가입되어 있는 기사는 응답자의 약 26%에 해당했고, 보다보다 이용객들 중 86%는 보다보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안전운행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보다보다 이용의 위험요소로는 사고로 인한 부상(78%), 강도(70%), 성적괴롭힘(51%)을 꼽았는데, 보다보다 기사의 위험한 행동에 가장 취약한 그룹은 10대 여성(96%)으로 나왔다.

지구촌나눔운동은 보다보다 정류장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보다보다 기사들과 유관기관의 추천을 받은 보다보다 기사들 중 사업 참여자를 선발했다. 개인사업자처럼 운행하면서 모든 어려움을 혼자 해결해온 기사들을 조직화하고 그룹 내에서 연대하고 지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했다. 10개의 지역에서 각각 30여명으로 구성된 자조그룹들이 만들어졌다. 이 그룹들은 대표를 선출하고 정관을 만들면서 정기적인 모임을 진행했다. 정기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주 만날 때마다 일정 금액을 저축하는 일이었다. 그룹 내에서 저축된 돈은 그룹원들 중 급하게 대출이 필요한 그룹원에게 저리로 빌려주고 상환받았다. 이 기금은 각 그룹의 합의에 따라 연말에 그룹원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기도 하고, 그룹의 비즈니스를 위해 적립되기도 했다. 이렇게 공동의 목표를 갖는 것은 그룹을 서로 결속시키고 정기적인 모임에 참석하는 동기가 되었다. 하지만 선출된 자조그룹의 대표들도 그룹을 이끌어 본 경험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구성원들간의 의견 충돌이 발생할 때에 조율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리더십교육에 참여 중인 자조그룹원들

문제가 발생했다. 결국에는 구성원들이 리더십의 교체를 요구해 해체되는 자조그룹도 생겼다. 본사업의 첫 해는 자조그룹을 조직하고 코칭하면서 안정화시켜 사업의 기본태도를 다지는 해였다.

지구촌나눔운동은 조직된 10개의 자조그룹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면서, 보다보다 기사들의 사고와 범죄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교통안전 교육과 인권·젠더 감수성 교육을 함께 진행했다. 교통안전 교육을 수료한 참여자들 대상으로 헬멧, 흉부보호대, 방한복, 야광조끼 등의 안전장비를 지원했고, 인권·젠더 감수성 교육을 수료한 참여자들 중 일부가 캠페인 기획단으로 활동하면서 지역사회의 공동체 감수성 증진을 위한 캠페인을 주도적으로 진행했다. 또한 남성 중심의 보다보다 업계가 다양한 승객들의 필요와 공동체 감수성을 반영하는 업계로 변모하기 위해 여성기사들을 선발해 면허취득과 보조금 지급, 멘토링 지원 등을 통해 보다보다 기사 활동을 유지하도록 도왔다.

3. SDGs 목표별 사업 성과

1.4. 빈곤층 및 취약계층의 금융서비스 보장: 참여자의 자산 증가 및 금융서비스 접근성 향상

보다보다 자조그룹이 매주 저축을 하고, 저축된 기금이 그룹 내에서 대출로 순환되면서 참여자들의 저축액과 그룹의 자산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각 그룹별로 그룹 비즈니스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창업을 한 그룹들도 생겨났다. 이는 SGD 1번 목표인 빈곤의 종식, 그 세부목표인 1.4. 2030년까지 모든 남녀 특히 빈곤층 및 취약계층이 동등하게 경제적 자원 활용 및 기초서비스에 접근하고, 토지 및 기타 유형의 자산, 유산, 천연자원, 적정 신기술, 소액 금융을 포함한 금융 서비스에 관한 동등한 오너십과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목표의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6.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및 상해 감소: 참여자들의 안전 증진

기초선조사에서 보다보다 기사들이 교통안전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높은 비율로 답변을 했듯이 사업에 참여하는 보다보다 기사들의 교통안전 교육에 대한 참여도나 열의는 굉장히 높았다. 보다보다 기사들은 실질적으로 안전에 필요한 교통법규나 표지판, 안전주행 방법, 기본적인 정비 기술, 응급처치 등을 학습했고 교육을 수료한 참여자들에게는 안전장비가 지원되었다. 오토바이 기사들을 위험으로부터 지켜줄 안전운행 지식과 안전장비는 현지에서 보다보다 기사들에게는 무엇보다 절실한 부분이었다.

1차년도 사업을 진행하던 중 킵켄요(Kipkenyo) 자조그룹에 속한 엘파스(가명)가 자동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다. 엘파스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을만큼 위험했던 당시의 사고를 회상하며 헬멧과 가슴보호대를 착용해 치명적인 부상을 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SDG목표 3번 모두를 위한 전 연령층의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과 그 세부목표 3.6.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및 상해 절반으로 감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3년의 사업기간동안 본 사업에 참여한 총 369명의 보다보다 기사들 중 사고로 인해 중상을 입거나 사망한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는 사실로 볼 때 실제로 본 사업은 오토바이 기사들의 안전을 위한 교육과 안전 장비 지원을 통해 사업 지역 내의 사고발생과 치명적인 부상을 줄이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5. 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 및 여아의 자력화: 여성 기사 지원

보다보다 기사의 97% 이상은 남성이다. 여성이나 아동,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이 보다보다를 위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상황에서 남성 중심인 보다보다 문화에 변화를 꾀하고 여성들도 동등하게 보다보다 기사로 경제활동을 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본 사업에서 매년 10명의 여성 기사를 선발해 운전면허 취득과 생활보조금을 지원했다. 지역사회 내 여성단체와 지역 지도자들을 통해 보다보다 기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여성들을 추천받아 면접을 통해 참여 의지를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10명의 여성들을 선발했다. 여성 기사 양성은 SDG 목표 5번, 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 및 여아의 자력화에 기여한다. 실제로 자녀들을 오토바이 택시로 등학교시키는 부모들은 여성 보다보다 기사들이 더 조심성 있고 아이들을 잘 돌봐 준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고, 안심하고 자녀들을 여성 보다보다 기사들에게 맡기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또한 본 사업은 세부목표 5.2. 인신매매와 성착취 및 기타 유형의 착취를 포함하여, 공적 및 사적인 영역에서 여성 및 여아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을 없애려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더 넓은 차원의 성평등 달성을 위한 활동을 포함시켰다.

11.2. 취약계층의 필요를 고려한 대중교통 확대 및 도로 안전 향상: 공동체 감수성 강화

보다보다 업계의 성차별적인 문화가 개선되는 것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남성 보다보다 기사들의 인식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가능한 일이었다. 지구촌나눔운동은 사업 참여자들이 인권·젠더 감수성 교육을 통해 여성이나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 손님을 응대하는 에티켓과 인권 친화적 언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구성했다. 이것은 SDG 목표 11번, 도시와 주거지를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복원력 있고 지속 가능하게 보장하려는 목표와 그 세부목표인 11.2.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적정가격의, 접근이 용이하고 지속 가능한 교통시스템을 제공하고, 특히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필요를 특별히 고려하여 대중교통을 확대함으로써 도로 안전을 향상한다는 목표에도 부합하는 활동이었다.

16.4. 모든 형태의 조직범죄 퇴치: 참여자들의 범죄연루 가능성 감소

자조그룹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보다보다 기사들은 일반 대중들이 보다보다 기사들에 대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자조그룹 내에서 자발적으로 징계위원회를 설치하고 조끼에 고유번호를 새겨 유사시 식별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는 등의 자성의 움직임은 장기적으로 SDG 목표 16번의 평화, 정의 및 제도 구축과 그 세부목표 16.2. 아동학대, 착취, 인신매매, 폭력, 고문의 종식, 16.4 모든 형태의 조직범죄 퇴치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3년간의 사업이 종료되는 2023년 하반기에 우아신기슈 카운티 내에서 오토바이 기사들이 연루된 범죄 건수를 교통안전청으로부터 제공받아 그간의 노력 이 카운티 내에서 작게나마 영향을 준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교통안전 증진 교육 후 지원받은 안전장비를 착용한 보다보다 기사들



첵티렛(Cheptiret) 자조그룹 여성 보다보다 기사들

'참여', '임파워먼트', '비차별'의 적용

1. '참여', '임파워먼트', '비차별'에 대한 기관의 이해

지구촌나눔운동의 해외사업은 대부분의 경우 자조그룹(Self-Help Group)이라는 소규모의 주민조직 구성에서부터 시작한다. 주민조직은 서로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소액을 지속적으로 저축하는 습관을 만들고, 그룹 안에서 모인 저축액을 활용한 대출을 진행해, 취약계층이 예상치 못한 어려움으로 인해 빈곤이 심화되는 것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참여하는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의견을 내고, 합의하는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기 위해 리더들을 양성하는 교육을 진행한다. 각 그룹이 자주적으로 그룹의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코칭과 모니터링을 하며 자조그룹이 쌓는 작은 성공의 경험을 통해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여성이나 빈곤가구,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더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차별적 요소를 줄이고 취약계층 비율이 높은 그룹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동기를 부여한다. 더디더라도 한 지역 내에서 주민들의 역량이 성장하고, 포용적인 자조그룹이 성숙해가면서 마을개발 위원회로, 조합으로 발전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것이 전반적인 지구촌나눔운동의 해외사업의 방향이고,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비차별적 참여와 임파워먼트는 사업의 주된 목적과 동시에 수단이 된다.

2. '참여' 원칙 적용 과정 및 성과

선발과정에서의 참여 원칙 적용

지구촌나눔운동은 사업 설명회를 통해 참여 의지가 있는 보다보다 기사들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자조그룹을 결성할 수 있는 참여자를 선발했다. 지원자들 중 소득이 적고, 자조그룹이나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최근 5년 내 범죄이력이 없는 지원자들을 선별했고, 부양 가족의 수나 주거환경 등을 고려해 열악한 상황에 있는 보다보다 기사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기 위해 지원 신청서 질문을 구성했다.

보다보다 실태조사의 참여 원칙 적용

보다보다 기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보다보다 실태조사에서는 교육수준이 낮은 보다보다 기사들도 적극적으로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사자들이 준비된 질문을 구두로 설명한 후에 보다보다 기사들의 답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또한 사전에 동의를 한 참여자에 대해서는 면담내용을 녹취하여 사업 실행의 정성적 자료로 활용하였다.

사업 기반활동에서의 자발적 참여 원칙 적용

보다 살라마 사업의 참여자는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 아닌, 기동력이 있는 오토바이 기사들이다. 사업 참여자들이 합의한 장소와 시간에 모임을 진행하고, 저축활동도 개인의 의지에 기반하기 때문에 자발적인 참여는 모든 활동의 선행조건이었다. 자조그룹의 모임은 매주 진행되는데, 그룹내 총 저축액과 대출 및 상환 현황, 회의록과 회계자료는 모든 그룹원들에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룹 비즈니스

를 계획하는 그룹은 이러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모든 그룹원이 발언권을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한다. 1차년도 마지막 모니터링(11월)에서 파악한 자조그룹원들의 참여 유지율은 87.3%였다. 2차년도에는 케냐 국내의 많은 이슈들로 이변이 많았지만 마지막 모니터링(11월)에서의 참여 유지율은 88.47%이었고, 2023년 6월에 진행한 자조그룹 모니터링에서의 자조그룹 참여 유지율은 90%였다.

자발적 참여 장려를 위한 활동 기획

자조그룹의 참여자들이 정기적인 그룹의 모임에 참여하려는 가장 큰 동기는 정기적으로 저축을 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다는 점과 필요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자조그룹에 속한 보다보다 기사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고, 심리적으로는 동일 업계에서 종사하는 동료들을 만나 여러 가지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소속감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2차년도에는 자조그룹의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룹원의 참여도가 높고 저축을 활발히 진행하는 5개의 우수그룹을 선발해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제공된 인센티브는 그룹 내 우수 그룹원 5명을 대상으로 면허취득의 목적으로 대출 진행하고, 상환된 대출금액이 또 다른 그룹원의 면허취득비용으로 대출되는 방식으로 최종적으로는 그룹원 모두가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종자돈을 지원했다. 현재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5개의 자조그룹에서 총 56명이 인센티브로 대출을 받아 면허취득 과정을 신청했고 이 중 35명은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을 마쳤다.

사업결과물의 환류과정에서 참여 원칙 적용

본 사업에서 매년 양성된 10명의 여성 보다보다 기사들은 다음 해에 새로 선발되는 후배 여성 기사들에게 본인들의 경험을 전수하고 지지하는 멘토의 역할을 맡았다. 또한 각 자조그룹에서 자원하는 그룹원 총 2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해 교통안전교육 강사로 양성하여 각 그룹에서 언제든지 교통안전교육에 대한 재교육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업의 참여자들이 동시에 사업 수행의 주체가 되어 동료 참여자들의 활동을 독려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인권·젠더 감수성 교육의 수료자들이 매년 공동체 감수성 캠페인의 기획단을 조직해 3차에 걸친 기획회의를 거쳐 캠페인의 방식과 장소, 일정, 브로셔 등의 홍보물 콘텐츠 등의 세부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했다. 인권과 젠더에 관한 캠페인을 기획하고 그 내용을 대중에 설명하는 주체가 보다보다 기사들이라는 점에서 교육의 내용이 얼마만큼 본인들에게 이해되고 체화되었는지에 따라서 캠페인의 영향력이 확연히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었다.



자조그룹 정기모임을 위해 야외 모임장소로 찾아오는 소고모(Sogomo) 자조그룹원들



2022 공동체 감수성 강화 캠페인 현수막 설치한 MTRH 자조그룹

다양한 파트너의 참여

사업 내에서 진행한 보다보다 실태조사, 교통안전교육, 리더십교육, 인권·젠더 감수성 교육 커리큘럼 제작에는 케냐 교통안전청, 카운티 정부의 조합개발국, 케냐 보다보다협회, 모이대학교, 지역 여성단체인 Rural Women Peace Link가 함께 참여하였고 사업의 초기부터 해당 기관들이 자문단으로 참여하면서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방향을 함께 논의하고, 정책의 변화를 기민하게 파악해 보다보다 기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공유해주었다. 1차년도 사업에서부터 나눔과꿈 전문위원으로 사업 자문을 담당해주신 이혜균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 교통안전 증진교육에는 여성 기사들이 승객으로부터 당할 수 있는 성희롱이나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요령 등을 반영했다.

참여 지표 측정 결과		
참여	객관적	주관적
정량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조그룹 멤버십을 유지하는 그룹원 : 369명 자조그룹 정기모임 평균 출석률 : 56.3% 그룹 총 저축액 한화 : 약 26,000,000원 지원한 교통안전장비 수 : 1,080개 양성된 교통안전교육 강사 수 : 20명 지원된 보조금 : 총 1,200만원 차년도에 멘토로 활동한 여성 보다보다 기사의 수 : 20명 여성 기사 멘토링 : 총7회 공동체감수성 캠페인 참여하는 지역사회 주민 수 : 총 3,0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리더십교육 교육만족도 : 매우만족 100% (2023년) 비즈니스교육 교육만족도 : 매우만족 90% (2022년) 조합교육 교육만족도 : 매우만족 92% (2023년) 교통안전ToT교육 교육만족도 : 매우만족 85% (2022년) 인권젠더감수성 교육 교육만족도 : 매우만족 86% (2023년)
정성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조그룹 정관, 회의록 및 저축/대출 장부 등 회계장부 열람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2,3차년도 신규 참여자 모집시 기존 참여자들의 권유 및 추천 자조그룹 참여 독려를 위해 활동 우수그룹에 인센티브 지급

3. '임파워먼트' 원칙 적용 과정 및 성과

자조그룹 거버넌스 개선의 임파워먼트 적용

본 사업의 1차년도에 조직된 10개의 자조그룹이 모두 원활하게 활동을 지속한 것은 아니었다. 지구촌나눔운동은 자조그룹의 리더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리더십교육을 진행하면서 매해마다 새로운 주제로 강의와 실습, 토론을 진행했다. 리더십교육의 교육 전 이해도는 평균 69.6%였고 교육을 진행한 후 측정된 평균 이해도는 93.8%로 평균 24.2%p의 이해도 향상을 보였다. 리더십교육의 만족도조사에서 '매우 만족'이라고 대답한 참여자는 1차년도 83%, 2차년도에는 93.3%, 3차년도에는 100%로 점차적으로 리더십교육에 대한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자조그룹 대표자 회의를 진행해 각 조합의 임원들이 함께 만나서 자조그룹의 진행 상황과 경험을 공유하고 기록물 관리나 연간 목표 설정 등 공동체를 어떻게 조직하고 운영할지에 대해 학습할 기회를 제공했다. 리더십들이 정비되어 가면서 해체된 자조그룹을 대신할 새로운 자조그룹이 다시 결성되고 보다보다 기사 그룹들이 차츰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각 자조그룹의 대표들은 3차년도에는 조합전환위원회로 모이면서 10개 그룹이 하나의 신용협동조합으로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준비했다.

참여자 및 자조그룹 활동 내 경제적 임파워먼트 적용

1차년도의 마지막 자조그룹 모니터링에서 참여자들이 모은 저축액은 총 975,500실링으로 한화로 약 983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2차년도 저축액은 총 1,857,750실링으로 한화로는 약 1천8백만원이 넘는 금액이 모였고, 3차년도 8월까지의 저축액은, 그룹 프로젝트를 위해 그룹의 저축액을 사용한 금액을 제외하고도 한화로 총 2천6백만원 가량의 금액이 저축되었다. 현금을 벌지만 제대로 관리가 어려웠던 보다보다 기사들은 소액이라도 꾸준히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게 되었고, 자조그룹에서는 모아진 저축액으로 그룹원을 대상으로 대출을 진행하기도 하고 그룹 비즈니스를 위해 합의 하에 사업 종자돈으로 계속 축적하고 있는 그룹들도 있다. 3차년도에는 5개의 자조그룹이 용접사업이나 양계사업, 사료배합 판매사업 등에 그룹의 저축액을 투자하여 공동의 수익을 창출하기 시작했다.

여성 보다보다 기사의 경제적, 사회적 임파워먼트

2021년부터 보다보다라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메리(가명)는 2018년부터 오토바이를 대여해 매일 대여비를 지급하면서 보다보다 기사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케세스(Kesses)자조그룹에 가입한 후로 정기적으로 저축을 해 오토바이를 구매했다. 그리고 메리는 오토바이를 이용해 화장품을 판매하는 부업을 시작해 부수입을 얻게 되었고, 그 수익금으로 여분의 오토바이 구매에 오토바이 대여업도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꾸준히 저축한 돈으로 토지를 구매하고 어머니에게 작은 식품점 가게도 열어 드렸다. 메리는 본인이 보다보다 기사로 활동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할 수 있음에 자부심을 느낀다. 뿐만 아니라 2차년도와 3차년도에 새롭게 양성된 여성 보다보다 기사들에게 멘토가 되어 본인의 경험을 공유하고 보다보다 기사로의 활동을 통한 자립의 본보기가 되어 후배에게 기여하는 선배 보다보다 기사로서의 역량이 강화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여성 기사들의 임파워먼트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3년간의 사업에서 양성된 총 30명의 여성 기사들이 핑크페달(Pink Pedals)이라는 여성 보다보다 기사의 브랜드를 만들어 별도의 모임을 진행하고, 정부에서 여성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그룹 비즈니스를 운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3차년도에는 그룹내 멘토링을 넘어 비즈니스 여성들의 단체인 'Women in Business'에서 강사와 여러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초청해 여성 보다보다 기사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멘토십 워크숍을 개최하고 여성 보다보다 기사 브랜드를 지역 내에서 긍정적으로 홍보해 다양한 사업으로 확장하고자 한다.



2023 여성 보다보다 기사 멘토십 워크숍

참여자들의 공동체 감수성 향상

참여자들이 자조그룹 내에 자발적으로 설치한 징계위원회와 자조그룹원들이 착용하는 조끼에 각 그룹원의 고유번호를 인쇄해 넣는 등의 노력은 교통안전교육과 인권·젠더 감수성 교육, 캠페인 등을 통한 참여자들의 인식의 변화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중의 인식을 고려해 예방적인 장치를 고안해내었다는 점에서 참여자들이 문화적으로 임파워먼트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실제로 인권·젠더 감수성 교육을 받은 참여자들의 교육 전 이해도가 3년 평균 34.3점에서 교육 후 평균 75.6점으로 약 42.3%p 증가한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인식의 변화를 넘어 행동하는 공동체 감수성

2022년부터 보다살라마 프로젝트에 참여한 한 캐롤라인은 삼촌의 오토바이를 빌려서 보다보다를 운행하고, 평소에는 승객으로서 보다보다를 이용하고 있다. 하루는 보다보다를 이용하는데 기사로부터 매우 불쾌한 고의적인 신체 접촉을 당했다. 예전에 같은 일을 당했었다면 스스로 수치심을 느끼고 부끄러워서 회피했을테지만 인권·젠더 감수성 교육을 받은 후 본인의 권리에 대한 이해가 생긴 참여자는 경찰에 해당 보다 기사 기사를 신고했고, 결국 그 기사가 경찰에 체포되고 경찰서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 교육이 지식의 전달 차원을 넘어 인식의 변화를 일으키고 행동의 변화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다.

위기상황 대처 능력 향상

참여자들은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기본적인 도로교통법규, 교통신호 등에 대한 지식은 물론 안전주행 방법, 기본적인 정비 기술, 응급처치, 사고발생시 행동요령 등을 학습하면서 그간 오토바이 택시를 운행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무지로 인한 불안감이 해소되었고, 도로에서 운행하는 데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2021년부터 코크웬스(Kokwas) 자조그룹에 속해 활동하고 있는 조셉(가명)은 2022년 7월 18일, 자동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는데 당시 자동차 운전자는 전화통화를 하며 과속으로 달리던 중이었다. 사고를 목격한 주변의 보다보다 기사들이 폭력적으로 자동차 운전자를 위협하고 차에 방화를 하려고 시도했지만 조셉은 다른 보다보다 기사들을 설득해 집단행동을 막고 안전교육에서 숙지한 사고발생시 대처매뉴얼에 따라 경찰에 신고를 한 후 기사들과 함께 주변 교통을 통제했다. 또한 조셉은 사고 당시 안전장비를 착용해 큰 부상을 피할 수 있었다. 조셉은 폭력적이고 무법자로서의 보다보다 기사가 아닌, 도로 위에서 교통 수칙과 질서를 지키며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주체로서의 보다보다 기사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사회적 임파워먼트가 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참여자들의 사회적, 문화적 임파워먼트 사례

2021년 11월 4일, 보다살라마 프로젝트는 케냐의 국영방송 K24TV에서 진행하는 뉴스(Daily Brief)와 엘도렛 지역방송인 KASS TV와 NYOTA TV에 소개되었다. 사업을 소개하는 내용 중 인권·젠더 감수성 교육을 받은 보다보다 기사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인권과 젠더에 관한 교육내용을 전달하고 구호를 외치며 거리를 행진하는 내용이 방송되었는데, 이것은 보다보다 기사들의 인식이 변하고 그들 스스로 문화적 임파워먼트를 경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여성 보다보다 기사들은 남성 중심의 문화를 가진 보다보다 업계에서 위축되지 않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이며 사회적, 문화적 임파워먼트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지역방송 NYOTA TV에 소개된 공동체 감수성 캠페인

임파워먼트 지표 측정 결과		
임파워먼트	객관적	주관적
정량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리더십교육 참석자 : 30명(2021-23 매해 30명) 비즈니스 교육 참석자 : 50명(2021-22 매해 50명) 조합교육 참석자 : 50명(2023 50명) 교통안전 ToT 교육 참석자 : 20명(2022 20명) 자조그룹 대표자회의 횟수 : 9회(2021-23 매해 3회) 자조그룹 대표자회의 참여자 수 : 10명(매해) 인센티브 대출을 통해 면허 취득한 그룹원 : 35명 여성기사 양성을 통해 운전면허 취득한 여성기사 : 30명(2021-23 매해 10명) 조직되어 운영되는 자조그룹의 수 : 10개 여성기사 멘토링 회의 횟수 : 7회 공동체감수성 캠페인 기획단 회의 횟수 : 6회 그룹 총 저축액 : 한화 약 26,00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리더십교육 사전/사후 이해도(57.5% > 90.8%) 비즈니스 교육 사전/사후 이해도(19% > 72.5%) 조합교육 사전/사후 이해도(25.2% > 93.2%) 교통안전 ToT 교육 사전/사후 이해도(57.5% > 93.75%) 인권센터 감수성교육 사전/사후 이해도(36.2% > 71.6%) 그룹 비즈니스 창업 5그룹 그룹 비즈니스 창업준비 3그룹
정성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조그룹 장관 자조그룹 징계위원회 협동조합 등록 신청 카운티 정부 야외 캠페인 허가비용 면제 보다보다 기사 정부 등록 및 교통안전 교육, 면허 지원 자조그룹 참여 기사 대상 대출(Hustler Fu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룹 비즈니스 목표수립 자조그룹 내 징계위원회 자발적 설치 그룹원 조끼에 고유번호 인쇄 자조그룹의 조합 전환 결정 여성기사 멘토링 보고서 인권센터 감수성 캠페인 기획단 회의록

4. '비차별' 원칙 적용 과정 및 성과

선발과정에서의 비차별 원칙 적용

참여자 선발시에 사회적, 경제적으로 취약한 기사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했다. 처음 참여자 선발시 연령기준이 만 18세부터 만 34세였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만 34세 이상의 보다보다 기사들 중 교통안전 증진교육과 자조그룹 가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는 기사들이 연령제한으로 인해 참여하지 못 하는 경우를 발견하고 연령제한을 만 40세까지로 완화해 더 많은 보다보다 기사들이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보다보다 실태조사의 비차별 원칙 적용

보다보다 기사 실태조사를 진행할 때에 조사 대상자는 모든 보다보다 기사들 중 무작위로 선정되었으며, 조사자들은 준비된 질문을 구두로 설명한 후에 보다보다 기사들의 답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진행함으로써 참여 원칙과 더불어 교육 수준이나 문해력 정도에 관계없이 모든 보다보다 기사들이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비차별의 원칙을 적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보다 다양한 형편과 상황에 처한 보다보다 기사들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에 기여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 '임파워먼트', '비차별' 적용 위기와 해결

여성기사 양성의 비차별 원칙 적용

현장에서 여성들은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높은 실업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보다보다 운행에 있어서 남성과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보다보다 기사에 대해 금기시하는 사회문화적 편견과 인식으로 인해 보다보다 업계에 진입하기 어려웠다. 본 사업에서 선발돼 전문면허학원에서 교통안전 교육을 받고 면허를 취득한 여성 보다보다 기사들은 경찰의 무면허 기사 단속이나, 신호를 이해하지 못하는 불안감으로부터 자유롭게 오토바이를 운행하며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여성 기사들이 속한 자조그룹의 동료들이 든든한 보호망이 되어 여성 기사로서 받는 부당한 처우나 성희롱 등의 상황에 대처할 용기를 얻게 되었다. 이러한 포용적 사업 참여자 선발은 참여자들 스스로의 자신감 향상 등의 변화는 물론 가족과 지역주민들의 인식의 변화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성 보다보다 기사 캐롤라인(Caroline Jemutai)의 어머니(Mama Dinah) 인터뷰 전문(2023년)

캐롤라인이 고등학교 1학년쯤 되었을 때 어느날 집 대문앞에서 캐롤라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걸 처음 봤습니다.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 이틀날까지 집에 드러누워버렸습니다. 저는 딸아이에게 여자가 왜 그런 위험한 행동을 하느냐고 다그쳤지만 캐롤라인은 이미 오토바이를 타는 법을 다 익혔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캐롤라인은 지구촌나눔운동을 알게 되었고, 그 기관을 통해서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캐롤라인은 면허를 가진 보다보다 기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캐롤라인은 나이로비까지도 오토바이로 운전을 해서 갈 수 있고, 저는 딸아가 오토바이를 타고 다른 지역까지 이동한다고 해도 더 이상 걱정하지 않습니다. 캐롤라인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캐롤라인은 오토바이를 사용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엘도렛으로, 키타레로 이곳 저곳을 다니며 소득활동을 합니다. 이제는 종종 우리가 캐롤라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제는 딸아가 오토바이를 탈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캐롤라인이 오토바이 시동을 거는 소리를 들으면 제 마음이 기뻐요.

사회적 약자를 아우르는 비차별 원칙 적용

지역사회 내에서 보다보다를 이용하는 서민층, 특히 여성, 아동, 장애인 등에게 안전한 교통수단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표에 따라 인권·젠더 감수성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사업의 참여자인 보다보다 기사들이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태도와 감수성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했다.

비차별 지표 측정 결과		
비차별	객관적	주관적
평량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 중 여성 오토바이 기사 : 30명 • 보조금 지원받은 여성 기사 : 30명 • 여성 기사 대상 보조금 : 총 1,200만원 • 지원을 받아 면허 취득한 여성 기사 : 30명 • 인권·젠더 감수성 교육 횟수 및 참여자 수 : 369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젠더 감수성교육 사전/사후 이해도 (36.2% > 71.6%) • 인권젠더감수성 교육 만족도 : 매우만족 86%(2023년)
정성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참여자 모집 인터뷰 • 참여자 선발시 연령제한 상황 조정 • 여성기사 인터뷰 • 여성기사 가족 인터뷰

3원칙 적용으로 인한 위기 또는 제약점

케냐 내 보다보다 기사 폭력사건으로 인한 단속 강화

2022년 3월 4일 금요일, 케냐 나이로비에서 한 여성이 운전하던 차량과 보다보다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주변에 있던 보다보다 기사들이 여성의 차량으로 몰려들어서 폭력적으로 여성을 차에서 끌어내려 했고 이 동영상도 케냐 내에서 퍼지게 되었다. 이후 이 여성 운전자가 외교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외교관이라는 것도 알려지게 되었고 바로 다음주인 3월 8일이 마침 세계 여성의 날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욱 사회적인 관심을 얻어 BBC 등 외신을 통해서도 알려지게 되었다. 케냐 경찰은 16명의 보다보다 기사들을 체포했고 법원에서는 해당 기사들에 대한 구금을 명령했다. 케냐 대통령이 보다보다 기사들에 대한 전국적인 단속을 공표하면서 케냐 내 고질적인 사회문제로 여겨지던 보다보다가 케냐 내에서 공론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단속만으로 보다보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2022년 3월 28일부터 6월 24일까지 정부 기관에 등록을 하는 보다보다 기사들을 대상으로 600실링(한화 약 6천원)의 비용을 받고 3일간 교통안전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을 수료한 기사들에게 스마트면허를 발급해주는 정책을 발표했다. 보다보다라 사업에 참여 중인 기사들 중에서 총 108명의 기사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면허를 발급받았다. 정부는 이 정책을 통해 많은 보다보다 기사들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고, 비용의 부담으로 면허 취득을 미루던 기사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교통안전 교육과 운전면허를 제공받게 되었다.

케냐 대통령 선거에 따른 참여자들 활동의 부침

보다보다 기사들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화두가 되면서 같은 해 (2022년) 8월 9일에 예정되었던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각각 보다보다에 관한 공약들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본 사업지역인 우아신기슈의 엘도렛은 유력한 대통령 후보 중 한 명인 윌리엄 루토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다. 선거운동에 동원되는 보다보다 기사들에게는 매일 유류비와 일비가 현금으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본 사업의 참여자들을 비롯한 우아신기슈 지역의 많은 보다보다 기사들이 선거 운동에 참여했고, 보다보다라 사업의 자조그룹 모임 출석률은 곤두박질쳤다.

이에 지구촌나눔운동 케냐사업소와 각 자조그룹의 리더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일시적으로 자조그룹 모임 출석률이 저조한 것보다 자조그룹에서 이탈하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일 것으로 파악하여, 자조그룹에 물리적으로 참석하지 못 하는 그룹원들에게는 유선상으로 연락을 취하며 사업의 참여를 지속할 것을 독려했다. 또한 활동이 우수한 자조그룹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한 약속을 리더들을 대상으로 상기시키면서, 각 그룹의 참여자들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했다.

결론

3원칙과 SDG 성과 달성과의 연계점

본 사업의 목표였던 SGD 중 1번 목표인 빈곤의 종식, 그 세부목표인 1.4. 취약계층의 금융 서비스에 대한 오너십과 통제권 보장, SDG 3.6.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및 상해 감소, SDG 16. 평화, 정의 및 제도 구축의 세부 목표 16.2. 아동학대, 착취, 인신매매, 폭력, 고문의 종식과 16.4. 모든 형태의 조직범죄 퇴치는 참여, 비차별, 임파워먼트의 원칙에 기반한 활동들과 그 결과로 비롯된 인식의 변화, 사회적 연대와 지지그룹 조성, 실질적인 장비와 교육 지원 등으로 인해 달성되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업에 참여하는 오모 베이 기사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저축과 대출활동, 그룹 내 연대와 지지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났고,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도로교통 안전과 리더십, 인권 젠더 감수성 등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 스스로의 안전과 승객의 안전을 더욱 민감하게 고려하게 됨은 물론 약자를 대하는 태도와 마인드가 바뀌는 경험들을 하게 되었다. 스스로의 삶이 더 안전해지고 안정되어감에 따라 폭행이나 강도 등의 범죄에 연루되게 되는 동기가 확실히 줄어들게 되는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달성하고자 했던 SDG 목표들도 그 대상이 되는 참여자들이 보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임파워먼트를 경험해서 주변인이 아닌 참여자로, 차별받는 대상이 아닌 동등한 주체로 지구촌에서 그들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주요 했다면, 본 사업을 실행하면서 참여자들이 활동 안에서 먼저 참여, 비차별, 임파워먼트의 원칙을 통해 그 목표에 가까워졌다는 점이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지구촌나눔운동이 달성하고자 한 또다른 목표들인 SDG 5번 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 및 여아의 자력화, SDG 11번의 세부목표 11.2.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필요를 고려한 대중교통의 확대는 여성 등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나 환경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현하는 주체도 여성으로 상정하여, 본 사업을 통해 양성된 여성 보다보다 기사들이 스스로 임파워먼트를 경험하고 자력화를 달성하게 되었다. 또한 인권 젠더 감수성 교육과 캠페인 활동을 통해 남성 위주의 보다보다 업계에도 젠더 감수성이 높은 기사들이 증가할 수 있도록 기여했다. 이 과정에서 여성들이 보다보다 기사로 도전하고 참여하면서 운전면허취득 교육이나 멘토링 등을 통해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하고 비차별적 문화로의 전환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에서 세 가지 원칙은 SDG 목표 달성에 핵심 방향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따른 사업의 위기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식량과 유류비 상승은 보다보다 기사들에게 직격탄이 되었다. 매일 필요한 식량과 연료의 가격이 높아졌다는 것은 보다보다 기사들의 생계가 위협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마침내 그동안 저축한 돈을 인출하고 사업에서 이탈하고자 하는 참여자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러나 참여자들 개인의 입장으로 생각해보면, 그간 충실히 저축을 진행한 덕분에 생계의 위협에 빠지게 된 때에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는 자금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이었다. 사업으로만 따지면 굉장한 손실이지만, 결국 이런 위기를 대비해 저축을 꾸준히 해올 수 있었던 것이 참여자들의 삶에는 큰 자산이 되었다.

엘도렛 출신의 윌리엄 루토가 대통령으로 선출된 후, 자조그룹에 소속된 보다보다 기사들을 위한 포용적인 정책들을 대거 발표함에 따라 지구촌나눔운동 케냐사업소와 각 자조그룹의 리더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이탈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다시 사업에 참여하기를 독려했고, 2022년 연말부터 2023년에 들어서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사업 재참여 의사를 밝혔다.

참여자의 자발적 조합전환 과정

본 사업의 지속가능성은 사업에 참여한 보다보다 기사들의 임파워먼트를 통해 자조그룹들이 자발적으로 연대하여 조합으로 전환이 되고 정부의 지원과 다양한 기회를 얻는 데에 있다고 보았다. 2차년도 말에 다가올 때, 본부 담당자로서 3차년도에 이 자조그룹들이 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다. 케냐사업소 직원들에게 조합전환에 대해 논의를 하자 현지 총괄 책임을 맡은 직원이, 우리가 할 일은 조합 전환의 장점과 전환 성공 사례, 조합 등록 방법 등의 정보를 적절하게 자조그룹 모임과 리더모임에서 제공하는 것이고 조합으로의 전환을 결정하는 것은 자조그룹의 자발적인 선택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성급하게 사업을 주도하려 했던 나의 태도가 부끄러우면서도 참여의 사다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실행하고 있는 동료에게 고마웠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본부 실무자와 현지 사업소 동료, 사업 참여자 모두가 서로 배우고 역량이 강화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현지의 의견을 경청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다. 현지 동료들의 현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을 통해 현재 10개의 자조그룹은 자발적으로 조합전환을 위한 위원회를 조직 회 회의를 하고, 스스로의 방향성을 결정했고, 보다살라마 조합(Bodaa Salama SACCO)이라는 이름으로 카운티 조합부에 등록신청을 마친 상태다.

3원칙 적용에 따른 교훈 / 개선방안

참여, 임파워먼트, 비차별 원칙은 사업의 참여자를 '수혜자'로 보지 않고 해당 프로젝트가 목표로 하는 지점에 도달하기는 과정을 주도하고 또 그 결과물의 혜택을 당사자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까지 파급시키는 주체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노력이다. 기획, 실행, 평가의 단계에까지 사업의 참여자들에게 동등한 기회와 책임이 주어지고, 발생하는 변수와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누구보다 현지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현지 주민들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짜여진 틀 속에서 정해진 성과를 거두어내는 모양이 아닌, 역동하고 발전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담아낼 수 있는 사업이 이루어지기 위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원칙이다.

국제개발협력사업에서 이 3원칙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많은 제한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가장 먼저는 본부에서 사업을 기획하고 실무를 담당하고 평가하는 인력의 3원칙에 대한 이해와 현지에 대한 존중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NGO 실무자의 높은 이직률과 업무강도로 인해 필요한 교육이나 논의가 적절하게 지속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사업의 기획과 평가 단계에까지 3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조사 단계에서부터 현지 참여자들의 참여를 독려해야 하는데, 그렇게 진행하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과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또 다른 한계점은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역량과 이해도, 그리고 본인들이 배운 내용을 실제로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의 차이가 발생하고 이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교육이나 코칭이 필요하기도 하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사업을 실행하는 기관의 현지 인력들이 얼마나 프로젝트 참여자들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 적절한 대안을 찾고 그 정보를 적절하게 제시할 수 있는지도 이 3원칙이 제대로 작동하는 데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사업을 위한 조사와 기획 단계에서부터 본부-현지 지부-현지 참여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소통을 하며 참여, 임파워먼트, 비차별의 3원칙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의지와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Epilogue

본 사례집은

CSO의 조직 규모로는 자원이 풍부한 기관부터
5명미만의 소규모 NGO까지의 사례,
한국CSO뿐만 아니라 현지CSO와의 협력 사례,
개발협력 활동과 인도적지원 활동 사례,
빈곤퇴치와 소득증대 그리고 성평등 사례,
농업, 영양, 보건, 재난위험경감, 교통안전 분야 사례,
여성, 여아, 난민, 소수부족, 농민 사례,
아프리카 및 아시아 대륙의 여러 국가 사례 등
개별단체들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10개의 사례를
참여, 임파워먼트, 비차별의 관점에서 자세히 분석했다.

• 사례를 찾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물음이 이어졌다.

사례 속에 담겨있는 참여, 임파워먼트, 비차별의 노력들은

개별 단체, 그리고 사업이 진행된 현지 지역사회 차원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일까?

조직형태, 사업대상 및 분야, 지역 및 국가를 초월하여

이러한 성과가 개발CSO들의 통합적이고 집합적인 공통의 성과로 확장될 수 있을까?

이러한 공통의 성과는 SDGs 달성을 위한 개발CSO의 역할과 기여를 가시화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러한 논의는 한국만이 아닌 국제사회에서도 의미가 있을까?

• 이런 물음에 대한 길(답변)을 찾기 위해

2024년에는 본 사례와 질문에 공감하는 동료CSO들과 논의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그 이듬해에는 국제사회의 동료CSO들을 초대해 이 논의를 확장해 보려 한다.

그리고 더 많은 기관과 활동가들이 SDGs 달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러한 우리의 이야기들은 본 사례집의 부록으로 이어질 것이다.

• Shall we~ together?

참여, 임파워먼트,
비차별 원칙을 적용한

개발 CSO 공통 SDGs 성과 사례집

기획 및 편집	신재은 KCOC 정책센터 센터장 김예은 KCOC 정책센터 대리
자문 및 감수	노재은 호주 카톨릭대학교 리서치 펠로우 정은주 KOICA 인권전문관 김현주 에누마코리아 디렉터
발행인	유원식 KCOC 회장
편집인	KCOC 정책센터
발행처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발행일	2023년 12월

KCOC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82, 990빌딩 4층

Tel. 02-2279-1704~6

Fax. 02-2279-1719

www.ngokcoc.or.kr



이 책은 KOICA의 '국내 시민사회 SDGs 정책역량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KCƠC **KOICA**